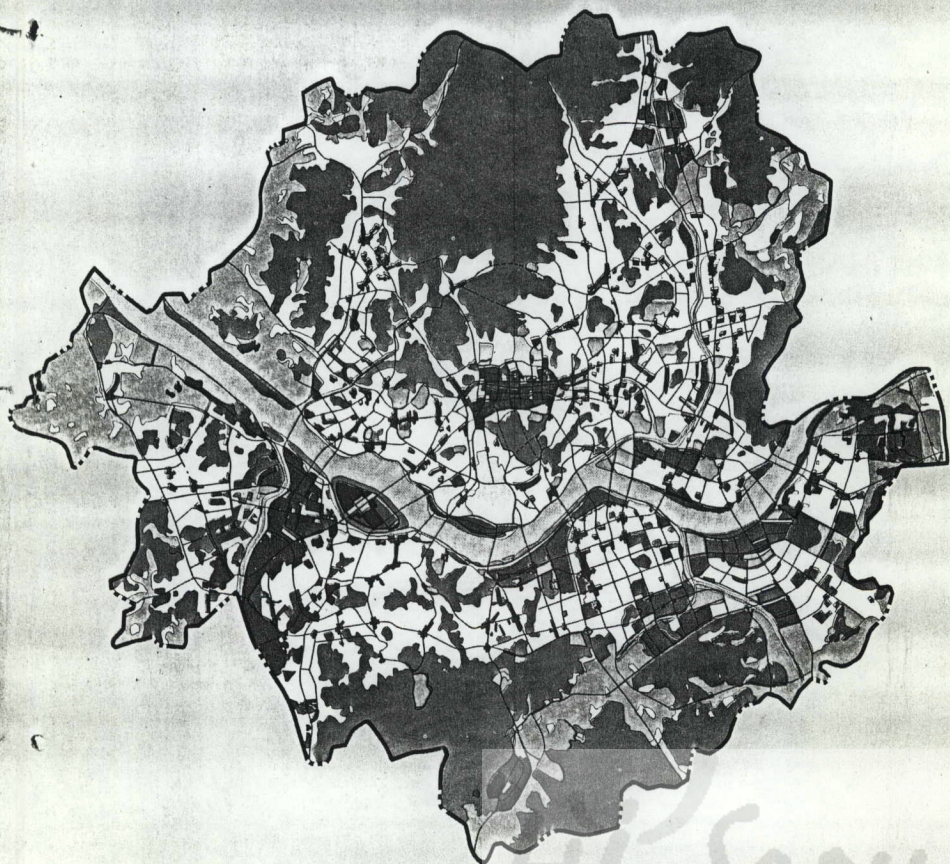


2000年代를 향한

서울市 都市基本計劃

1990



서울特別市

Hi Seoul

SOUL OF ASIA

2000年代를 향한

서울市 都市基本計劃

1990

서울特別市

Hi Seoul

SOUL OF ASIA

머 리 말

서울시는 600년 歷史의 古都로서, 또한 우리나라 政治, 經濟, 社會 諸分野의 中樞機能을 擔當하고 있는 人口 1000만의 巨大都市입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른후 國際的인 都市로 발돋움한 서울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영원한 統一韓國의 首都로서, 그리고 太平洋時代를 이끌어가갈 아시아의 中樞都市로서 그 面貌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役割을 遂行하고 快適한 都市環境을 지켜나가기 위한 努力의 일환으로 2000년대를 향한 都市空間構造上의 土地利用, 交通, 住宅, 公園, 環境, 教育, 文化 등 全般의인 都市開發政策을 提示하는 都市基本計劃을 確定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시 都市基本計劃은 그 基本理念을 快適하고 健康하며 文化와 餘裕가 있는 반면 圓滑한 都市機能과 效率의인 財政運用이 이루어지는 都市의 계획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理念을 實踐하기 위해서 都市施設配置의 均質化, 都市地域間—江北과 江南間—不均衡是正을 위한 均衡開發, 電鐵網에 의한 多核都市로의 改編, 職住近接을 위한 既成市街地 再活性化, 과밀한 서울人口의 分散과 快適한 住居環境을 위한 서울 인근도시의 開發을 그 發展課題로 삼고 있습니다. 본래 都市計劃이란 都市 變化過程의 表現이자 都市問題의 認識이요, 都市政策의 表明이며, 物的 部門에 대한 性格計劃이므로 본 都市基本計劃은 2000년대의 最終像 이라기 보다 그에 到達하기 위한 하나의 過程計劃의 性格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詳細하고 具體的인 計劃 즉, 都市再整備 또는 單位施設計劃을 誘導하는데 主 目的을 두고 있으며, 각 自治區의 下位基本計劃의 指針이 될 것입니다.

本 都市基本計劃은 1981년 都市計劃法 改定에 의한 都市基本計劃의 法制化 이후 처음으로 樹立되는 것으로 여러차례의 計劃案과 各種 諮問會와 公聽會들을 통하여 市民意見을 수렴하였으며, 地方 및 中央都市計劃委員會, 서울시 및 建設部의 行政節次를 거치면서 修正, 補完하는 등 서울시 나름대로 最善을 다하여 作成되었습니다. 끝으로 本計劃의 結果가 나오기까지 實務行政指導를 아끼지 않으신 建設部와 서울시 關係官, 中央都市計劃委員會 委員여러분, 그리고 計劃案의 樹立과 補完의 專門研究를 擔當하여 주신 環境大學院 附設 環境計劃研究所 여러분께 깊은 感謝의 뜻을 포함합니다.

1990年 5月

서울特別市長 高 建

SOUL OF ASIA

目 次

I. 서울의 發展構想

| | |
|------------------|----|
| 1. 서울의 未來像 | 9 |
| 21世紀 서울의 展望 | 10 |
| 21世紀 서울의 位像 | 13 |
| 2. 서울의 特性과 發展課題 | 15 |
| 서울의 特性 | 16 |
| 서울의 發展課題 | 24 |
| 3. 서울 發展計劃의 基本構想 | 31 |
| 計劃樹立의 意義와 目的 | 32 |
| 上位計劃 檢討 | 34 |
| 計劃의 基本指標 | 38 |
| 計劃의 目標와 戰略 | 51 |
| 生活圈計劃 | 62 |

Ⅱ. 部門別 發展計劃

| | |
|----------------|-----|
| 1. 快適하고 健康한 都市 | 71 |
| 住宅 | 72 |
| 産業開發 | 81 |
| 生活環境 施設 | 86 |
| 健康한 市民 | 109 |

| | |
|------------------|-----|
| 2. 文化와 余裕가 있는 都市 | 121 |
| 文化 | 122 |
| 公園・綠地 | 131 |

| | |
|--------------|-----|
| 機能的이고 便利한 都市 | 159 |
| 交通 | 160 |
| 通信 | 181 |
| 土地利用 | 190 |
| 市街地 整備 | 224 |

| | |
|----------------|-----|
| 財政運用을 効率化하는 都市 | 235 |
| 財政計劃 | 236 |
| 投資計劃 | 242 |

Hi Seoul

SOUL OF ASIA

I

서울의 發展構想

Hill Seoul

SOUL OF ASIA

1

서울의 未來像

- 21世紀 서울의 展望
- 21世紀 서울의 位相

Hi Seoul

SOUL OF ASIA

21世紀 서울의 展望



성년기의 골격을 갖춘 開放된 國際都市

1988년 올림픽을 치루고 10여년이 지난 후의 서울은 드디어 그 골격의 대부분이 갖추어진 성년기의 國際的 大都市가 되어 있을 것이다. 서울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와 기능은 韓國의 수도로서 중추적인 몫을 계속 담당해 가고 있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국제적 「네트워크」(network) 가운데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즉, 서울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급속하게 국제화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도시구조와 기능 그리고 여러가지 제도가 대내외적으로 개방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情報・知識産業의 比重이 增大된 都市

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서울경제에 있어 정보·지식 산업이 비중이 커짐으로써 공공·민간부문 다 같이 그 중추관리기능의 도심집중압력은 상당, 성도 약화될 것이지만, 그 분산입지의 여부는 문화적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의 질의 균질적인 확산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즉, 현재의 도심, 영동 일대, 잠실, 영등포 중심지 등이 업무·상업기능의 거점으로서 계속 발전해 갈 것이지만 이들 중심지역 주변의 교통시설, 문화편익시설, 주거환경의 질이 향상되고 균질화되지 않으면 도시 전체로서의 교통능력이 크게 저하되며 많은 시민들의 교통거리와 교통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開發過程에 自律的 參與가 擴大된 都市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2001년에는 서울시민들의 소득 수준도 현재의 3배에 이를 것인바, 이는 국제화·개방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양식과 의

식을 크게 변화시켜 놓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도시사회에 있어서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다양화, 시민조직의 다원화가 가속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지역적 계층과 분화가 촉진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문화적·정치적 기회와 생활환경의 질과 편익에 대한 공평한 분배의 요구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정치제도의 민주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따라서 공공개발의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폭은 점점 더 넓어질 것이며 민간기업의 지역개발사업에의 비중 또한 점점 커질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내 부분지역들의 생활환경을 다양화하고 그 활기와 창의성을 진작시킬 것이지만, 반면에 도시전체의 체계적 관리와 유지를 위한 비용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행정에 대한 요구와 수요도 점차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전달과 공공시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住居環境의 質的 向上에 대한 要求가 增大된 도시

지금부터 이십 일세기를 향해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느끼는 서울 도시환경의 쾌적성의 결정적 요인은 주거환경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토지자원에 대한 계속되는 인구압력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한 비용은 점점 더 증대한 것임에反해서 고소득화, 핵가족화, 고학력화하는 시민들의 주거수요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거문제는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지금까지 서울의 도시개발 및 성장 과정은 그 전체적인 골격형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십일세기까지의 도시계획적 노력은 시민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의 터전을 갖게끔 하는 시민정착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도시행정의 질적, 내용적 변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올림픽을 치루고 난 서울은 세계의 도시, 통일 한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내 고향'으로 느끼는 안정된 도시가 될 것이다.

광역적 도시기능체계를 갖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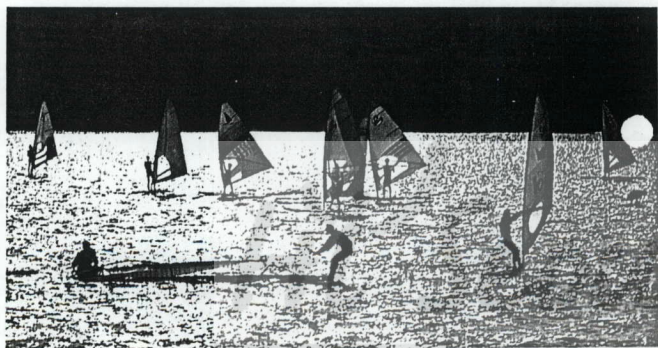
수도서울의 인구증가추세는 차츰 둔화될 조짐을 보이긴 하지만 전국적인 균형 개발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2001년에는 이미 지금보다는 적어도 200만 내지 4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더 살고 있게 될 것이다.

서울에 있어서 앞으로 이만한 인구규모의 문제는 교통, 주거, 기타생활 편의 시설에 대해 과중한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십여년 간은 서울주변 위성도시들의 인구가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 그 그들의 서울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압력 또한 가중될 것이므로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의 문제로 확산될 것이다.

文化・休息 福祉施設에 대한 要求가 增大된 都市

앞으로의 인구구성은 점점 더 노령화, 고학력화할 전망이고 취업구조 면에서는 사무관리직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급증하여 핵가족화의 경향도 가속화 할 것이다.

이와같은 인구, 사회적 변화와 고소득화는 도시의 문화적 편의시설과 여가·휴식공간에 대한 요구를 대증화 할 것이며, 노령층과 기타 심신장애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와함께 주 2일 휴일제가 상당한 정도 보편화 될 전망이어서 여가와 휴식기회 및 장소에 대한 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統一韓國의 영원한 首都

- 600년 역사 · 문화가 계승 · 발전될 전통문화도시
- 통일을 대비하고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한반도의 수도로서 국가관리기능과 체계를 갖춘 도시
- 7천만 한국인의 경제 · 사회 · 문화의 상징적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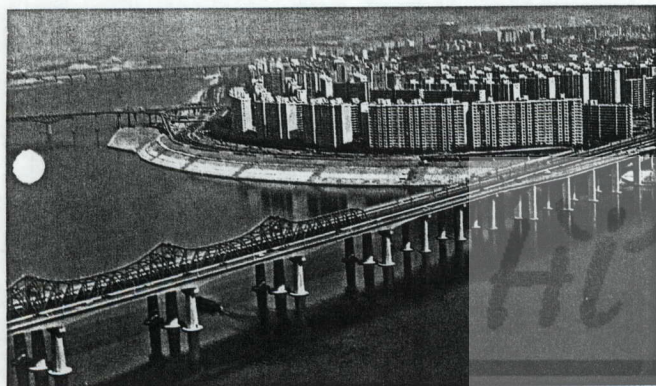
太平洋時代의 中樞都市

- 태평양 세계를 지향한 개발된 국제도시
-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중추적기능을 담당할 광역도시
- 국제화 · 개방화에 따른 다양화 · 다원화된 도시사회
- 정보 · 통신 · 지식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국제적 「네트웍」속의 중추도시

市民을 위한 都市

- 내고장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관리를 통한 안정된 도시
 - 하 · 휴식 · 복지시설의 수용과 공급이 증대된 복지사회
- 주거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 교통 · 공공 편의시설등의 균질적인 확산을 통한 편리한 도시
- 시민의 정치 · 경제 · 문화적 참여의 기회와 폭이 확대된 민주시민도시
-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함께 지역간 균형발전된 도시

21世紀 서울의 位像



2

서울의 特性和 發展課題

- 서울의 特性
- 서울의 發展課題

Hi Seoul

SOUL OF ASIA

서울의 特性

도시特性

■ 自然的 特性

- 서울은 東經 $126^{\circ}59'$, 北緯 $37^{\circ}34'$ 에 위치하여, 韓半島의 西側中央部에 입지하고 있다.
- 都市의 外延部는 北漢山, 仁旺山, 冠岳山 등으로 圍繞되어 있고, 中間에 南山이 있으며, 東西로 한강이 貫流함으로써 주변의 山岳·綠地軸과 水景이 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 기후조건은 4계절이 뚜렷하고 年間氣溫差가 크며, 大陸性氣候로 인한 3한 4온의 기상이다.

위치도



■ 서울의 成長과 變遷

● 1945年 以前の 서울

- ・約 2000年前 百濟의 首都(위례성)가 됨으로써 서울은 都市로서의 面貌를 갖추었다.
- ・그후 統一新羅時代에는 漢陽都으로 成長한 이래 高麗時代인 1067년에는 南京으로 불릴 정도로 繁盛하였다.
- ・1394年 朝鮮王朝가 漢陽(지금의 서울)으로 還都함으로써 首都로서의 面貌를 갖추게 되었다.
- ・朝鮮朝 後期에 이르러 서울은 오늘날의 中區, 鍾路區, 龍山區 全城과 隣接地域을 包含하는 漢城5部の 넓은 地域으로 擴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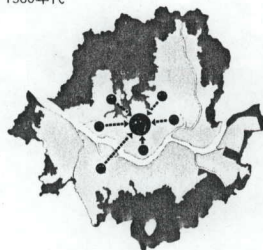
● 1945年 以後의 서울

- ・1960年代까지는 幹線道路를 中心으로 하되 自然與件에 따라 市街化가 進行되어 都市領域의 擴大를 가져왔다.
- ・1970年代에는 急激한 都市化 現狀을 收容하는 차원에서 수행된 大規模 都市計劃事業으로 인하여 江南地域을 中心으로 市街化가 進行되었다.
- ・기와같은 都市規模의 外延의 擴散과 동시에 都市内部中心地體系의 變化가 나타난 바, 單核的인 都市構造내에서 副心地域이 形成되었다.
- ・1980年代에 이르러 基礎的인 都市電鐵網이 構築됨에 따라 電鐵驛勢圈을 中心으로 都市機能의 分散이 促進되어 單核中心의 都市構造가 多核의 都市構造로 變化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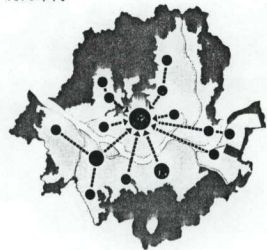
■ 社會・經濟的 特性

- ・서울은 中央行政・政治의 중심지로서 關聯機能이 集中立地하고 있다.
- ・서울은 企業의 中樞管理機能이 集積되어있기 때문에 人口와 産業의 集中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交通 및 社會間接資本을 集中投資함으로써 이들 기능의 吸引力이 증가될 뿐더러, 새로운 정보와 중앙행정 官署의 행정적 支援이 손쉬워 기업의 中樞管理機能이 경쟁적으로 立地하고 있다.
- ・서울은 企業體 및 對業務 서비스 機能이 集積되어 있는데, 金融, 保險, 用役, 教育, 醫療, 社會福祉 施設들이 集中하여 企業體에 대하여 서비스 함으로써 人口가 集中하게 되고 이에 서어비스 하는 個人 서어비스業도 동시에 성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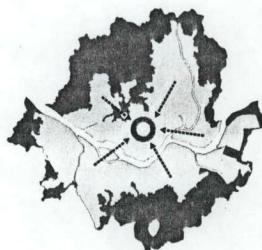
1960年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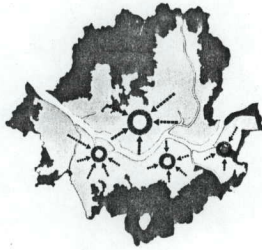
1970年代



單核



多核



■ 周邊地域과의 關係

- 서울은 首都圈의 중심도시로 도시화에 따른 空間의 外延의 擴散을 抑制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指定하였다.
- 교통시간의 단축으로 서울周邊衛星都市의 急激한 인구증가현상이 惹起되고 있다.
- 衛星都市의 機能的 完結性 未備로 서울에 從屬되어있는 실정이다.
- 서울은 科學, 技術, 情報, 文化, 藝術의 中心을 形成하고 있으며, 全國의 先導的 活動과 社會서비스가 總집결하는 場所이다.
- 各 機能의 집중현상은 서울의 인구 증가 및 公害· 交通문제, 주택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惹起하고 있다.
- 自動車 保有台數는 계속적인 증가가 豫想되나, 交通수단의 分擔은 大衆, 大量 交通手段인 電鐵· 버스의 比重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전철이 갖는 확실성· 신뢰성은 交通수단으로서 評價가될 것이다.

서울의 集中度¹⁾

| 구 분 | 단 위 | 기준년도 | 전 국 | 서 울 | 집중도(%) |
|----------------|------|---------|---------|---------|--------|
| 인 구 | 千人 | '88 | 41,975 | 10,287 | 24.5 |
| 국내(시내)총생산(GDP) | 10억원 | '87 | 99,790 | 29,213 | 29.3 |
| 은행예금 | " | '87 | 45,720 | 26,526 | 58.0 |
| 은행대출 | " | '87 | 43,096 | 26,106 | 60.6 |
| 내국세(징수실적) | " | '87 | 10,012 | 3,575 | 35.7 |
| 종합소득세(신고분) | " | '87 | 718 | 381 | 53.1 |
| "가가치세 | " | '87 | 3,650 | 709 | 21.1 |
| 법인세 | " | '87 | 1,682 | 1,166 | 69.3 |
| 도소매업판매액 | " | '86 | 43,518 | 16,270 | 37.4 |
| 도소매업사업체수 | 개소 | '86 | 706,522 | 200,234 | 28.3 |
| 제조업체수 | " | '87 | 56,326 | 15,879 | 28.2 |
| 금융기관점포수 | " | '87 | 2,874 | 1,229 | 42.8 |
| 숙박시설 | " | '87 | 30,821 | 5,584 | 18.1 |
| 호텔수 | " | '87 | 449 | 122 | 27.2 |
| 집객업소수 | " | '87 | 241,024 | 61,239 | 25.4 |
| 전화가입자수 | 千人 | '87 | 8,625 | 2,747 | 31.8 |
| 대학(교) | 개 | '88.4.1 | 104 | 34 | 32.7 |

1) 集中度 = $\frac{\text{서울}}{\text{全國}} \times 100$ 으로 계산한 것임.

출처: 서울시, '89시정, 1989.



都市勢力圈

■ 行政圈

· 서울市の 行政圈은 一般行政圈과 都市計劃行政圈으로 區分된다. 一般行政圈은 서울市 行政區域内部인 627.06km² (現地籍面積 : 605.43km²)로 그 變化過程은 다음과 같다.

· 89年 現在 서울市 行政區域은 22個區 482個洞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 都市計劃區域은 1982년에 708.387km²로 調整되어 (고양군, 남양주군, 구리시 일부, 과천시를 포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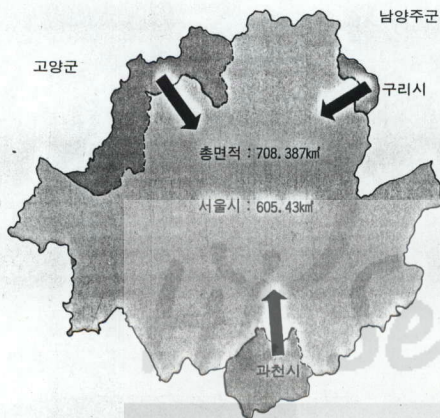
*註 : 向後 地方自治制의 實施와 그에 따른 地域別 都市計劃이 樹立되어야 하므로 장차 都市計劃區域의 調整이 不可避함.

行政區域 및 面積의 變遷

| 구 분 | 확장일자 | 면적(km ²) | 비 고 |
|----------------|-------------|----------------------|------------------|
| 京城府時代 | | 135.36 | |
| 建國後第1次 區域擴張 | 1949. 8. 13 | 269.78 | 高陽郡, 始興郡 一部 |
| 2次區域擴張 | 1963. 1. 1 | 328.15 | 楊州郡, 始興郡, 金浦郡 一部 |
| 3次區域擴張 | 1973. 7. 1 | 627.06 | 始興郡, 高陽郡, 光明市 一部 |

註 : 現在 地籍面積 605.43km²

도시계획 구역도



■ 經濟圈

서울은 首都라는 利點과 特異性 때문에 經濟活動에 관한 意思決定機關, 中樞管理機能이 集中되어 經濟圈은 全國에 미치며, 經濟成長의 結果로 國際의 地位向上에 따라 그 영향권은 國際社會까지 확대 되고 있다. 그러나 經濟圈이 미치는 影響에 따라 直接勢力圈과 間接勢力圈으로 區分되며, 직접 세력권은 一次的으로 서울市 行政區域內이고 二次的으로는 首都圈域이다.

여기에서 國土開發研究院의 「首都圈 機能再配置에 關한 研究」를 중심으로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주변에서 매일 서울市로 流入되는 人口規模는 約 52萬名인데, 이 중에서 出勤 및 事業 目的이 41.6%로 으뜸이며 다음으로 物品 購入이 15.2%로서 全體의 56.8%가 경제活動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같은 現象을 首都圈內의 6個都市, 즉 仁川, 水原, 安養, 富川, 城南, 議政府 對象으로 서울과의 關係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仁川, 水原은 비교적 自力成長이 安定勢를 갖고 있으나 主要한 意思決定機能은 서울 都心和 연계되어 있다.
- ② 安養과 富川은 同圈內의 工業都市로서 急成長하고 있으나 그 機能에 있어서는 서울 依存의인데, 서울에서도 영등포 지역의 경제권에 속하며, 住民들도 비교적 流動의이어서 安定化되지 못했다.
- ③ 城南市는 住民 構成面에서나 서울과의 關聯性側面에서 가장 流動의이고 自體成長 基盤이 脆弱하여 서울 流出人口의 住居都市性向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 ④ 議政府市는 餘他都市에 비해 江北地域에 位置함으로써, 또한 軍事都市라는 性格上 相對的 침체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住民構成面에서는 비교적 安定의이나 主要 經濟活動은 서울에의 依存도가 높은 편이다.

간접세력권은 一次的으로는 직접세력권을 除外한 全國과 二次的으로는 東南亞를 근간으로 하는 國際社會이다. 현재 서울에 立地하고 있는 各種 外國商社, 國際金融機關, 外國公館, 國際經濟團體들이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經濟圈의 概念的 區分

| 구 분 | 직접세력권 | 간접세력권 |
|-------|-------|---------------|
| 1차영향권 | 서울시내 | 직접영향권을 제외한 全國 |
| 2차영향권 | 首都圈域內 | 東南亞를 위주로 한 世界 |

Hi Seoul

SOUL OF ASIA

■ 社會文化圈

서울은 政治·經濟的 기능의 集中과 함께 그에 부수하여 社會·文化의 中心地가 되어 있다. 社會·文化 機能을 주도하는 全國 第1의 규모의 施設, 團體 및 人土들이 서울에 集中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各級學校 특히 우리나라 유수의 綜合大學이 서울에 立地함으로써 그 영향은 全國에 미치고 있으며 專門대학의 경우는 首都圈內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醫療 保健部門은 施設과 人力, 技術面에서 全國의 규모를 갖고 있는 바 그 影響도 全國에 미치고 있다.
- 신문, 라디오, TV 등 매스컴 기능도 本社機能이 서울에 集中되어 있어 정보 기능이 가장 발달하고 그 기관들은 全 國民에게 서비스 함으로써 전국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다.
- 도서관, 박물관, 문화재, 공연장 등의 文化施設 및 體育施設 등이 全國의 施設 규모로서 全 國民에게 제공되고 있다.
- 社會, 宗教, 文化活動 및 行事を 주관하는 각종 단체의 國內本部 및 外國團體의 한국지부가 서울에 立地할 뿐만 아니라, 社會 및 文化人士가 서울에 居住함에 따라 이 분야에 전국적인 세력권을 形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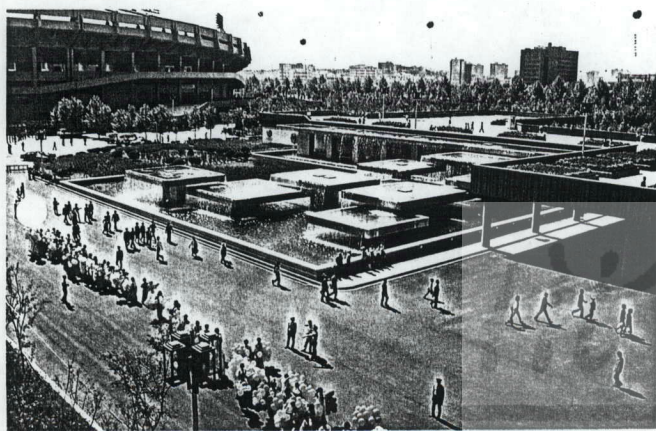
全國對比 社會文化施設 集中率

| 項 目 | 比率(%) |
|----------|-------|
| 面 積 | 0.6 |
| 醫 療 施 設 | 31.0 |
| 大 學 校 | 32.7 |
| 宗教團體教堂 | 18.3 |
| 宗 教 信 徒 | 21.0 |
| 新聞 구 독 율 | 36.5 |
| TV 수 상 기 | 25.0 |
| TV 방 송 국 | 100.0 |
| 중앙신문 본사 | 100.0 |
| 宗派本部(宗教) | 80.0 |

資料: 韓國의 商團(한국 경영정보센터) 및 自體調査

■ 都市成長潜在力

全國土의 0.6%에 불과한 605.43km에 88년 현재 全國人口의 24.5%나 되는 1,029萬人이 集中하고 있으며, 首都라는 利點과 特異性으로 全國을 대상으로 하는 經濟圈을 形成하고 국제적인 地위향상에 따라 그 영향권은 國際社會에까지 擴大되고 있다. 특히 국제적 中樞管理機能 外에 金融, 保險, 用役, 敎育, 의료, 社 會 福祉施設 等 各種機能이 偏重 되어 높은 도시성장의 잠재력을 保有하고 있다.



서울의發展課題

都市開發의 問題點과 課題

지난 60年代 以後 서울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急激한 인구증가를 초래하였으며, 이에따른 激增한 諸般需要를 충족시키고자 臨時應變의인 都市開發로 對處하였다. 그러나 도시사회의 발전과 시민의식의 증진은 제한된 量的 充足에서 質的·均質的인 要求에로의 변화가 豫想된다. 따라서 그동안의 都市開發과 整備의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反應을 중심으로 問題點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 生活施設에 대한 問題

區單位로 나타난 生活施設에 대한 問題點을 '85년의「市民基礎需要調查研究」를 土台로 分析하면, 조사된 시설중 가장 不足한 시설은 近隣公園과 어린이 놀이터로 나타났으며, 滿足도가 比較의 높은 시설은 交通施設과 上·下水道로 나타났다. 區別로 서울시 全體 平均値보다 높은 不滿足度를 나타내는 施設種類數가 많은 地域은 銅雀, 道峰, 城東, 永登浦, 九老區 等이며, 또한 이들 地域에서는 各施設에 對한 불만족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既存 都心地域과 大規模 都市開發로 조성된 江南, 江東區는 대체로 生活施設에 關하여서는 良好한 評價를 받고 있다. 具體的으로 施設別 不滿足度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交通施設: 都心에로의 接近性이 不良한 都市外廓과 地下鐵 等 大衆交通手段의 利用이 不便한 地域들이다.
- 醫療施設: 施設滿足도가 높은 지역은 活動이 集中되는 中心地이고 不滿地域은 不良住宅地, 準工業地域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부족에 의한 不滿事項은 과거보다 많이 緩和되었다.
- 教育施設: 準工業地域과 計劃없이 市街化된 지역은 教育施設이 부족하고, 도심 지역은 學校移轉에 따른 通學不便과 教育環境이 문제가 되고 있다.
- 어린이놀이터: 대규모 事業에 의해 시가화된 江南, 江東區 等은 良好하나 既存 市街地 및 準工業地域은 시설이 絶對적으로 不足하다.
- 近隣公園: 公園의 接近性이 不利한 지역에서 不滿足도가 높으며, 전반적으로 시설부족에 대한 指摘이 많다.
- 보안등 및 방범施設: 도시 外廓地域과 準工業地域은 시설이 미비하다.

· 公衆電話 및 우체통: 불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比較的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하고
不良住居地도 많은 區로 銅雀, 冠岳, 江西區 等이다.

· 上水道: 上水道 보급율 증가로 未給水 地域은 거의 없어졌으나, 水質問題와 給
水量 不足 및 不良住居地의 給水施設 부족에서 起된 不滿이다.

· 下水道: 下水施設 불만족지역은 주로 準工業地域 立地區와 都市外廓地域이
고, 江東, 江南區의 경우는 시설수준이 양호한데, 이는 신개발지로 도로 및 단
지건설時 하수정비가 수반된 것에 起한다.

표 11 生活施設 不滿足度

| 구 | 분 | 교통시설 | 의료시설 | 교육시설 | 어린이놀이터 | 근린공원 | 보안등 및 방범시설 | 공중전화 및 우체통 | 상수도 | 하수도 |
|------------------|------|------|------|------|--------|------|---------------|---------------|-----|-----|
| 강 북 지 역 | 종로구 | A | A | A | C | A | A | A | C | A |
| | 중구 | A | A | B | E | A | A | B | A | A |
| | 용산구 | B | C | D | A | A | A | A | A | A |
| | 성동구 | A | B | B | B | A | C | B | C | D |
| | 동대문구 | A | A | A | C | D | C | A | A | A |
| | 성북구 | A | A | A | C | B | B | B | E | B |
| | 도봉구 | D | E | B | C | B | E | A | A | C |
| | 은평구 | A | A | A | B | D | A | A | A | A |
| | 서대문구 | A | A | A | C | C | A | A | E | D |
| | 마포구 | B | A | A | A | B | A | A | A | A |
| 강 남 지 역 | 강서구 | C | A | A | A | C | B | C | B | C |
| | 구로구 | C | C | B | C | C | C | A | C | E |
| | 영등포구 | E | E | E | B | B | C | B | A | A |
| | 동작구 | A | C | B | C | E | D | E | E | B |
| 지 역 | 관악구 | A | C | C | A | A | C | E | E | C |
| | 강남구 | A | A | A | A | A | A | B | A | A |
| | 강동구 | E | A | A | A | A | A | A | A | A |

註: 불만족도: A-아주 양호, B-양호, C-보통, D-불량, E-아주 불량
출처: 서울市政에 대한 市民基礎需要 調査研究, 1985. 11

■ 都市內 地域間 不均衡

● 人口

1970年代初부터 추진된 강북인구의 강남으로의 分散施策과 강남지역의 本格的
開發으로 강남·북인구의 均衡配分이라는 目的은 達成하였으나 都心人口의 減少로
인한 都心空洞化 現狀이 惹起되고 있다.

● 市街地 整備

1977년 수도권인구재배치 계획이래 강북에서의 도시기능 활성화는 제한되어왔
고 반면에 강남의 도시기능은 강화되어 오고 있다. 또한 88년 올림픽과 관련하여
강남, 그중에서도 동부에만 개발이 편중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내 강남북간의
생활환경의 질적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강남의 동부와 서부간의 격차도 심화되

區別人口密度現況

| 구 분 | 인 구 | 면적 | 인구밀도(人/ha) | 구 분 | 인 구 | 면적 | 인구밀도(人/ha) |
|-------|-----------|--------|------------|-------|------------|--------|------------|
| 강 북 계 | 5,381,815 | 295.20 | 182.311 | 강 남 계 | 4,904,686 | 310.23 | 158.098 |
| 종 로 구 | 253,787 | 24.01 | 105.305 | 양 천 구 | 375,839 | 15.44 | 214.275 |
| 중 구 | 197,142 | 9.99 | 197.537 | 강 서 구 | 455,861 | 43.50 | 110.032 |
| 용 산 구 | 318,046 | 21.90 | 145.226 | 구 로 구 | 727,652 | 32.94 | 221.036 |
| 성 동 구 | 769,669 | 33.90 | 227.041 | 영등포구 | 460,952 | 24.54 | 188.684 |
| 동대문구 | 501,140 | 14.25 | 352.171 | 동 작 구 | 401,724 | 16.38 | 245.313 |
| 중 랑 구 | 437,344 | 18.54 | 241.360 | 관 약 구 | 569,207 | 29.61 | 192.170 |
| 성 북 구 | 572,665 | 24.29 | 235.665 | 서 초 구 | 455,865 | 48.84 | 95.409 |
| 도 봉 구 | 499,983 | 30.30 | 112.991 | 강 남 구 | 414,779 | 37.60 | 106.902 |
| 노 원 구 | 525,031 | 49.81 | 146.248 | 송 파 구 | 536,770 | 24.30 | 158.573 |
| 은 평 구 | 462,328 | 29.69 | 155.666 | 강 동 구 | 506,037 | 34.08 | 205.0 |
| 서대문구 | 396,892 | 17.68 | 224.360 | 총 계 | 10,286,501 | 605.43 | 169.904 |
| 마 포 구 | 447,788 | 23.84 | 187.831 | | | | |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1988.

서울시 구별 인구밀도현황



었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상대적 낙후와 개발선택으로부터의 소외감은 지역주민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낙후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市全域의 균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강북에 제한을 두었던 도시기능을 활성화시켜 600년고도의 품격을 고양시킬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都市構造의 問題

· 서울은 舊都城內를 中心으로 單核中心으로 成長함으로써 大部分의 都市機能이 都心에 集中하였을 뿐더러, 都市根幹施設(道路 等의 基盤施設)도 單核中心 構造에 適合하게 形成되어 있다. 이에따라 集積利益 追求를 위하여, 單核中心의 諸 機能 過多 集中으로 오히려 도시의 集積不經濟를 惹起하고 있다.

· 단핵도시적 구조는 변두리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의 開發을 鈍化시키며 生活圈別 都市便益施設에 대한 주민의 利用頻度を 弱화시킬 수 있으므로 公共施設의 배치와 배분에 따른 效率性を 低下시켜 이들 施設誘致를 困難하게 한다. 또한 大量交通手段의 集中的 通過를 誘引할 뿐 아니라, 그의 개발로 인한 環流의 大量交通手段의 發生으로 더욱 도심에 都市機能과 人口를 一定活動 時間에 集結시켜 토지이용과 교통상에 더 많은 問題를 發生시킨다.

· 都市機能의 一點集中으로 도심지역의 地價上昇, 도심적 기능의 集積利益 追求 등으로 점차 低位階層機能은 都市周邊地域에 分散·立地하게 된다. 이에따라 職·住分離現狀이 惹起되고, 교통문제, 도심지역의 空洞化문제가 發生된다. 이에따른 문제점중 市民 日常生活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市民基礎調査研究」를 通하여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서울市 平均 通勤所要時間은 20—30分帶이나, 都心外廓地域인 道峰, 江東區가 他區보다 通勤所要時間이 많다. 대체로 都心部에 隣接하거나 地下鐵 等 大量交通手段 利用 便益이 높은 地域인 西大門, 麻浦區 等은 所要時間이 적게 나타났다.
- ② 都市 및 綜合販賣施設이 도심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小賣業은 대체로 主幹線道路를 따라 形成되어 있으나, 都賣業과 마찬가지로 도심부에 집중되어 있다.
- ③ 그러나 市場接近 所要時間을 분석하면 교통시설에 대해 불만도가 높은 龍山, 江東區가 오히려 市場施設은 他地域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심에로의 접근이 不便함으로 近隣商街의 이용이 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 社會的 問題

· 도심부내 高位階層 機能이 集積됨에 따라 地價競爭等에 의해 주거기능 등 低位階層機能이 외부지역으로 확산됨으로써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江南地域의 未開發地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등으로 시가지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기성시가지의 開發·整備는 土地市場 메카니즘(Mechanism)에 맡김으로써, 주로 業務用途 建物위주의 再開發 事業으로 도심부의 空洞化, 住居環境의 不利, 交通問題等 舊市街地에 문제가惹起되고 있다.

區別 年齡別 人口構成 變化에서도 나타나듯이 舊市街地 居住民의 構成은 老人階層 人口가 증가현상을 보이는 반면 新市街地가 造成된 區의 경우, 아파트 等의 住宅供給에도 문제가 있지만, 家口數, 經濟活動人口 및 幼年層人口의 顯赫한 증가는 전통적 가족체제가 붕괴되고, 점차 核家族化 되는것을 보여준다.

· 舊市街地의 老朽化, 老齡化, 斜陽化(活力衰退) 현상과 신시가지의 靑·壯年 核家族化가 일어나고 있으나, 社會集團의으로는 어느쪽이나 모두 單純構造의 組織體로 構造的 脆弱性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 또한 '87年 現在 各 區別 總移動率을 살펴보면 江南地域이 平均 59.35%, 江北地域이 52.73%로, 서울市民의 55.86%가 移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내부 질서를 維持시키는 이웃과의 連帶感을 形成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移住時 이웃과의 關係를 考慮하기 보다는 住居環境, 職場關係를 우선적으로 생각함으로써 住民間의 連帶感 形成에 의한 共同體 意識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빈번한 이주의 動機를 分析해 볼때, 보다 나은 都市環境을 指向하면 할수록 도시 社會體가 崩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移住時 考慮事項

(단위: %)

| 區 分 | 1順位 | 2順位 | 3順位 | 綜 合 順 位 | |
|--------------------|-------|-------|-------|---------|-------|
| | | | | 1982年 | 1985年 |
| 土地, 建物價格, 傳賃價格이 싼곳 | 10.1 | 5.5 | 7.1 | 6.2 | 8.3 |
| 都市便益施設이 좋은곳 | 22.1 | 18.3 | 18.7 | 28.1 | 20.6 |
| 交通이 便利한 곳 | 25.2 | 29.8 | 20.7 | 25.2 | 26.3 |
| 都心地와 가까운 곳 | 2.3 | 5.1 | 5.2 | 4.7 | |
| 空氣맑고 깨끗한 곳 | 27.2 | 21.2 | 22.7 | 25.1 | 24.9 |
| 人心 좋은 곳 | 5.2 | 11.5 | 13.5 | 10.5 | 8.6 |
| 學群 좋은 곳 | 7.7 | 8.7 | 12.1 | — | 7.4 |
| 其 他 | 0.3 | 0.0 | 0.1 | 0.2 | 0.2 |
| 計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출처: 서울市政에 對한 市民基礎需要 調査研究, 1985. 11

區別 總 移動率

(단위:千人, %)

| 구 분 | 총인구 P | 전입 Mi | 전출 Mo | 전입율 Mi/P | 전출율 Mo/P | 순이동율 (Mi-Mo)/P | 총이동율 (Mi+Mo)/P |
|-----|----------|----------|----------|-------------|-------------|-------------------|-------------------|
| 총 계 | 9,991 | 2,853 | 2,728 | 28.56 | 27.30 | 1.25 | 55.86 |
| 강북계 | 5,267 | 1,377 | 1,400 | 26.15 | 26.58 | -0.43 | 52.73 |
| 종 로 | 256 | 62 | 71 | 24.42 | 27.74 | -3.32 | 52.16 |
| 중 구 | 201 | 47 | 53 | 23.33 | 26.28 | -2.95 | 49.61 |
| 용 산 | 315 | 72 | 78 | 22.76 | 24.86 | -2.10 | 47.62 |
| 동 | 768 | 217 | 220 | 28.27 | 28.60 | -0.33 | 56.87 |
| 동대문 | 946 | 255 | 265 | 26.96 | 27.99 | -1.03 | 54.96 |
| 성 북 | 580 | 134 | 143 | 23.07 | 24.61 | 1.55 | 47.68 |
| 도 불 | 890 | 260 | 233 | 29.27 | 26.21 | 3.07 | 55.48 |
| 은 평 | 455 | 111 | 106 | 24.44 | 23.33 | 1.12 | 47.77 |
| 서대문 | 405 | 100 | 103 | 24.59 | 25.44 | -0.85 | 50.03 |
| 마 포 | 451 | 119 | 128 | 26.39 | 28.43 | -2.03 | 54.82 |
| 강남계 | 4,724 | 1,476 | 1,328 | 31.23 | 28.11 | 3.13 | 59.35 |
| 강 서 | 775 | 280 | 214 | 26.20 | 27.63 | 8.57 | 63.82 |
| 로 | 712 | 214 | 210 | 29.99 | 29.53 | 0.46 | 59.52 |
| 영등포 | 460 | 128 | 132 | 27.88 | 28.69 | -0.80 | 56.57 |
| 동 각 | 400 | 106 | 114 | 26.61 | 28.56 | -1.95 | 55.18 |
| 관 약 | 565 | 150 | 155 | 26.61 | 27.39 | -0.79 | 54.00 |
| 강 남 | 827 | 255 | 215 | 30.78 | 26.04 | 4.74 | 56.82 |
| 강 동 | 985 | 342 | 287 | 34.72 | 29.15 | 5.57 | 63.87 |

註: 전입·전출: 주민등록에 의한 국내간 이동

전입·전출율: 서울시 총인구에 대한 전입 전출인구

순이동율: 서울시 총인구 증가율

총이동율: 서울시 총인구에 대한 총이동인구 비율

자료: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1988.

Hi Seoul

SOUL OF ASIA

■ 앞으로의 課題

跋行的인 도시개발로惹起된諸問題를緩和하고, 장래 도시개발과 정비시 고려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江南과 江北의 균형개발; 시 전역에 균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북지역은 차등규제시책을 해제 또는 완화하며 도시정비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한 강남지역은 강북지역이 경험한 여러 도시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 基本的 都市施設 配置의 均質化; 都市便益施設은 面積, 人口의 兩側面에서 적정 배치함으로써 最低水準을 보장하여 均質의 惠澤을 賦與한다.
- 電鐵網에 의한 多核都市로의 改編; 기존의 都市基盤施設 및 機能集積形態는 單核都市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도시지역의 확대, 전철망·도로망 형성으로 도시내 여러지역에 大·小규모의 機能集積이 必然적으로 나타날 것인바, 이들 여러 中心들을 如何히 連繫하여 하나의 組織體로 만든다.
- 에너지 절약적 도시개발; 인구이동으로 야기되는 舊市街地의 空洞化와 斜陽化, 職住遠隔化 趨勢에 대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에 많은 인구와 활동을 배치하는 職住近接方式으로 既成市街地를 재활성화하고 교통난을 緩和시킨다.
- 情報化시대에 부응하는 도시개발; 정보와 지식산업이 발달하면서 도시내 物理的集積은 상대적으로 緩和되고 기능적 집중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社會的 費用을 낳는 물리적 집적이 완전히 배제된 기능의 집중을 위해선 균형있는 生活便益施設과 주거환경의 質의 향상이 우선되어야 할것이다.
- 隣近都市의 開發에 따른 土地利用變化와 都市基盤施設의 擴充; 快適한 住居環境의 選好推勢와 서울地域내 '宅地供給'이 限界에 다달음에 따라 首都圈地域內에 새로운 都市의 建設은 不可避할 것이다. 이들 都市가 完全한 都市로서의 機能을 다하기까지는 많은 時間이 必要하므로 그時期까지는 서울이 이들 都市의 機能을 補完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新都市開發로 인해 서울이 負擔해야하는 用을 極小化하기 위해서는 各都市들과 가까운 副中心 및 廣域中心과 연계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분당新都市의 경우 江南, 蠶室에서 그機能을 補完해주고 一山의 경우 新村-연신내 등의 地域中心에서 補完하여 都心으로의 集中과 混雜을 防止해야 할 것이다.

3

서울 發展計劃의 基本構想

■ 計劃樹立의 意義와 目的

■ 上位計劃 檢討

■ 計劃의 基本指標

人口

經濟・産業

都市環境

■ 計劃의 目標와 戰略

■ 生活圈計劃

Hi Seoul

SOUL OF ASIA

計劃樹立의 意義와 目的

計劃樹立의 意義

- 21世紀를 겨냥한 '우리의 서울' 實現方途를 밝히기 위함
- 都市計劃法 10條의 2項에 규정한 都市基本計劃의 법제화
- 서울市 行·財政計劃 및 運營에 基本指針이 되고 部門間 調整의 準據를 마련하기 위함
- 또한 市民, 下部組織인 區 및 地方自治團體, 都市內 活動要素인 企業, 上部組織인 中央政府에 對하여 서울市가 指向하고자 하는 바를 表明으로써 그에 대한 協助와 參與를 要請하기 위함
- 下位(法定)計劃의 指針書

計劃의 目的

- 市民 모두에게 平準화된 便益과 生活環境提供
- 安心하고 살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都市根幹施設의 건설운영지침
- 快適한 環境의 創出과 기존의 歷史環境의 保全을 통한 文化都市로 育成
- 변화하는 外部與件에의 유연한 對應
- 보다 나은 都市構造로의 再編成
- 既存에 蓄積된 도시환경의 尊重과 에너지 절약적 도시형성
- 國際化, 情報化 時代로의 都市의 對應
- 高度産業化 社會로 접어들면서 나타날 고밀사회와 토지자원 제약으로 不可避한 고밀도 환경의 妥當한 受容
-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시 자치단체간 경제, 사회적 균형발전을 위한 상위계획으로서의 역할 반영

計劃樹立의 基本方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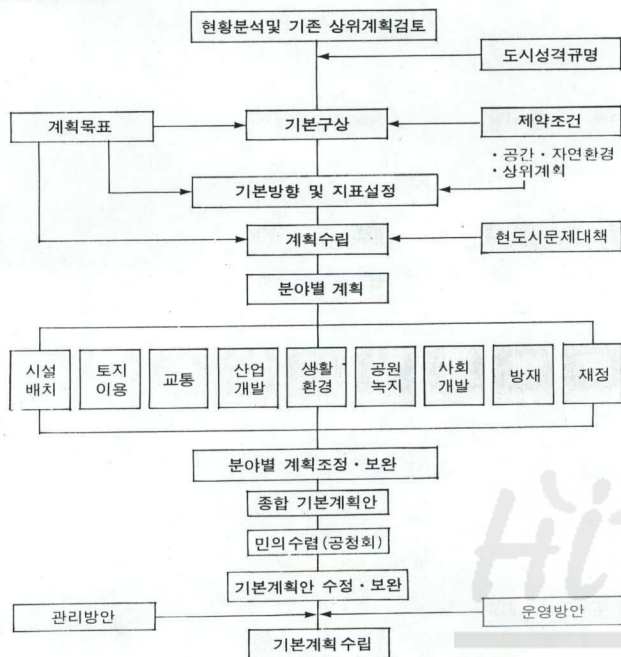
- 기본계획은 社會·經濟部門에 대한 政策表明이자 物的 部門에 대한 骨格計劃이며
- 市民과 一線行政이 당면하거나 要望하는 도시계획적 사항에 대한 處方指針으로서
- 2001년의 最終像의 提示보다는, 그에 到達하기 위한 軌跡을 밝히는 過程計劃의 性格을 갖는다.

本計劃 樹立經緯와 過程

■ 計劃樹立 經緯

- 1966. : 第1次 都市基本計劃樹立.
- 1972. : 都市基本計劃 修正.
- 1978. : 都市基本計劃(案) 樹立.
- 1979~80. : 國內 및 國際 세미나 개최
- 1980. : 都市開發長期構想中期計劃 樹立.
- 31. : 都市計劃法 改正으로 都市基本計劃 法定化.
- 1981~84. : 區單位 都市基本計劃(17個區) 樹立.
- 1984. : 第2次 都市基本計劃(案) 作成.
- 1987. : 都市基本計劃(案) 樹立.
- 1988. : 公聽會(5회) 서울시 地方都市計劃 委員會 심의.
- 1989. : 건설부 中央都市計劃 委員會
- 1990. 5. 11: 건설부 承認.

■ 計劃樹立課程



■ 首都圈의 整備

- 5大 整備圈域別 整備戰略 講究
- 首都圈에서의 인구증가를 초래할 산업시설등 입지를 강력히 제한하고 圈內 受容基盤擴充→지역경제권 형성으로 圈域別 分擔한다. 工場 新·增設抑制 등의 直接規制와 併行하여 지방의 우선적 개발과 支援施策으로 수도권 문제 대처
- 국제적 기능 및 中樞의 機能 以外에 서울 偏在施設 지방분산→행정, 교육, 업무, 금융기능 분산 유도
- 移轉 促進圈域의 제조업중 都市型 工業을 제외한 모든 業種 分散誘導 및 용도지역 위반 非都市型 공장이전

■ 서울에의 集中要因 緩和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지방에 대폭위임
- 地方移轉 促進政策→稅制惠澤, 인구유발시설 신축시 開發負擔金制

■ 問題点 및 課題

- 國토공간的 多核化와 地域經濟圈 形成을 위하여 서울의 인구분산정책이 持續的으로 추진되더라도, 수도로서의 中樞管理機能과 國際的 機能은 擴大될 것이다.
- 또한 강력한 工業再配置 政策의 施行으로 비도시형 공업의 지방분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식·정보·인력 등 기존의 外部經濟集積에 의한 尖端産業等 技術集積 産業과 도시경제유지를 위한 도시형 공업의 입지수요는 增大될 것이다. 따라서 國토공간的 均衡開發을 위한 外形抑制 內實化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首都圈 整備計劃 (1982~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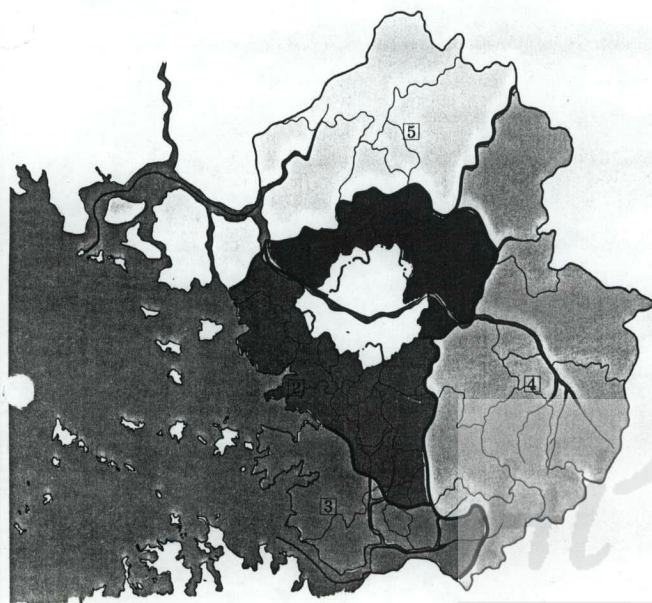
■ 基本目標와 戰略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過度한 集中抑制과 기능의 選別的 分散
- 수도권 내부의 不均衡成長에 따른 過密·過疏地域整備

표 圖 5個圈域別 整備戰略

| 圈 域 | 基本戰略 | 計劃內容 |
|----------|------|------|
| 移轉促進圈域-① | 集中規制 | 整 備 |
| 制限整備圈域-② | 過密抑制 | 配 置 |
| 開發誘導圈域-③ | 移轉受容 | 開 發 |
| 自然保全圈域-④ | 漢江保全 | 水質保全 |
| 開發留保圈域-⑤ | 特殊開發 | 特殊開發 |

首都圈5個圈域區分圖



■ 人口分散計劃

- 계획인구의 지장은 趨勢延長에 의하면 2001年度에 14,500千人 水準에 達할 전망이나, 행정면적기준의 最大收容可能人口를 전제로한 推計人口는 12,500千人 水準으로 전망.
- 本 계획인구의 설정은 공간적 한계와 수도권 정비의 정책적 의지를 計劃指標로 12,000千人으로 설정했으며, 人口集中 誘發施設의 억제와 기능 재배치를 통한 計劃的 管理人口.

서울市 人口分散計劃(案)

(單位: 千人)

| 區 分 | 1984 | 1991 | 1996 | 2001 |
|------------------------|-------|--------|--------|--------|
| 人 口 趨 勢 延 長 | 9,501 | 11,750 | 13,000 | 14,500 |
| 展 望 Logistic Curve 推定式 | 9,501 | 10,735 | 11,488 | 12,520 |
| 目 標 人 口 | 9,501 | 10,900 | 11,500 | 12,000 |

- 이에따라 人口分散을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해 4가지 分散戰略을 提案하였으며 1996년까지는 首都圈內 分散을 誘導하고 首都圈 全體의 收容能力이 限界가 되는 1996年 以後는 首都圈 以外 地域間 分散에 의존하게 될 전망.

서울市 人口의 分散戰略

| 年 度 | 分 | 散 戰 略 |
|---------|-------|--|
| 1996年以前 | 地域內分散 | · 6個 周邊衛星都市에 의한 分散收容 · 首都圈內 新都市開發에 의한 分散收容 |
| 1996年以後 | 地域間分散 | · 首都圈以外 地域으로의 서울市 人口分散 · 據點 都市에 의한 人口定着(流入抑制)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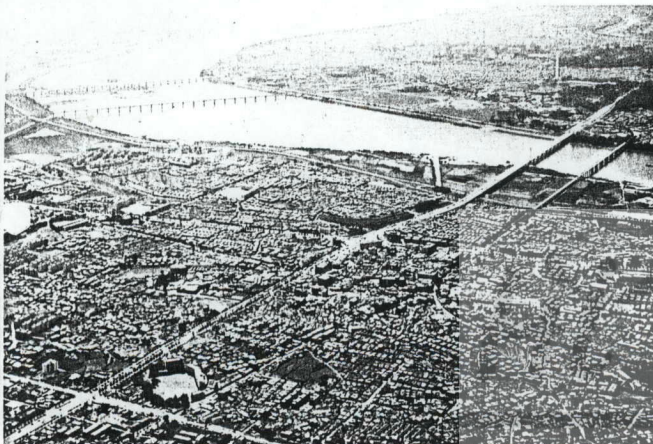
■ 機能 再配置 計劃

- 國가지 中樞管理機能 國제적 기능, 서울지역 기능 以外의 입지규제와 기존기능의 選別的 分散誘導.

- 中樞管理機能과 분산된 생산활동 연결의 高級情報 통신기능 강화.
- 都市型 工業을 제외한 용도지역 위반 非都市型의 모든 업종의 분산유도.
- 3次産業機能중 정보서비스, 시스템산업, 여가산업을 適正水準으로 配置하며, 業務, 販賣施設은 圈域內 基準以上을 新·增設 抑制.
- 教育·문화기능의 경우 교육시설의 新設과 増設은 억제하고, 연구기관은 系列別로 지방분산을 유도.

■ 問題点 및 課題

首都인 동시에 수도권 중심도시인 서울시는 주변 衛星都市로의 인구·기능 분산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에서 中心性이 持續될 뿐만 아니라, 情報 및 中樞的機能들은 더욱 集中化되는 傾向을 가질 것이며, 국가발전을 위한 國家中樞管理機能 등은 더욱 집중화되는 경향을 가질 것이며, 국가발전을 위한 국가중추관리기능과 국제적 기능의 확대에 따른 도시성장은 분산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首都圈整體計劃에서 지정된 계획인구의 재검토가 요구되며, 도시민의 기초적인 생활편의시설 확보와 도시경제규모를 考慮한 機能配置에 따른 日성과 정책적 계획간의 이율배반성을 극복해야 한다.



總人口

計劃의 基本指標

人口

●過去推移

· 서울시 인구는 1961년 2,577千人에서 1986년의 9,798千人으로 증가함으로써 지난 25년간 3.8배 신장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0년대에 8.55%, '70년대에 4.02%, '80년대에 2.46%이었으며 전국인구에서의 占有比는 1961년의 10.0%, 1971년의 17.8%, 1981년의 22.4%, 1986년의 23.6%로 늘어났고, 증가경향은 거의 선형을 나타낸다.

서울人口推移

(단위: 千人)

| 區 分 | 1961 | 1966 | 1971 | 1976 | 1981 | 1986 |
|---------|--------|--------|--------|--------|--------|--------|
| 서울市 (A) | 2,577 | 3,793 | 5,851 | 7,255 | 8,676 | 9,798 |
| 全 國 (B) | 25,766 | 29,193 | 32,883 | 35,849 | 38,723 | 41,569 |
| A/B (%) | 10.0 | 13.0 | 17.8 | 20.2 | 22.4 | 23.6 |

자료: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將來展望

· 서울시의 장래인구는 과거성향대로 간다고 전제할 때 1991년에 11,525千人, 2001년에 14,492千人으로 증가할 것으로 豫想되나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각각 10,900千人과 12,500千人으로 설정하고, 제6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는 각각 10,920千人과 12,900千人으로 설정함으로써 實際推計値보다 낮게 계획되고 있다.

●總人口指標

· 서울시의 목표인구는 過策策定の 요인으로 과거성장과 현재잠재력, 인구흡인 및 수용력, 충족한 시설공급의 필연성을 고려하고 過少策定の 요인으로 서울 과밀화의 해소, 인구의 전국적 균형배분, 서울시 토지이용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실현성과 당위성을 조화하는 선에서 설정해야 되는바 1991년에 10,580千人, 1996년에 11,267千人, 2001년에 12,000千人을 목표로 다함의 타당하고, 이렇게 될 때 전국인구에서의 占有比는 1991년에 24.0%, 1996년에 24.3%, 2001년 24.8%가 될 것이다.

서울시 常住人口의 計劃指標

(단위: 千人)

| 區 分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
| 서울市 (A) | 8,676 | 9,798 | 10,580 | 11,267 | 12,000 |
| 全 國 (B) | 38,723 | 41,569 | 44,094 | 46,393 | 48,389 |
| A/B (%) | 22.4 | 23.6 | 24.0 | 24.3 | 24.8 |

人口構造

■ 性別構造

● 過去推移／指標

- 서울시의 性別 인구는 남자보다 여자가 약간 많은 구조로 되어 있는 바 여자에 대한 남자의 수는 1966년의 99.7, 1976년의 97.5로 내려갔다가 1986년에는 99.5로 다시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推移는 앞으로 변화되어 전국적 특성과 비슷한 경향으로 나갈 것이므로 性比는 1991년에 100.1, 2001년에 101.7로 됨으로써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아지게 될 것이다.

서울시 인구의 性別人口推移 및 計劃指標

(단위 : 千人)

| 구분 | 1966 | 1971 | 1976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
| 男 | 1,895 | 2,914 | 3,581 | 4,289 | 4,887 | 5,293 | 5,659 | 6,051 |
| 女 | 1,899 | 2,937 | 3,674 | 4,387 | 4,991 | 5,287 | 5,608 | 5,949 |
| 比 | 99.7 | 99.2 | 97.5 | 97.8 | 99.5 | 100.1 | 100.9 | 101.7 |

註 : 比重-여자100인에 대한 남자의 비율

■ 年齡別 構造

● 過去推移／指標

- 서울시 인구의 연령구조는 건전한 방향으로 변화해 왔던 바 13세 이하의 아동인구가 1966년 41.8%에서 1976년 35.6%, 1986년 28.4%로 저하한 반면에 14~64세의 노동연령인구는 1966년 56.0%에서 1976년 61.9%, 1986년 68.7%로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66년 2.2%에서 1976년 2.5%, 1986년 2.9%로 증가하였다.
- 연령구조는 아동인구의 감소와 노동연령인구 및 노인인구의 증가라는 경향으로 변화될 것이므로 1991년과 2001년에 있어 13세 이하 인구는 25.4%, 19.2%가 되고, 14~64세 인구는 71.5%, 77.3%가 되며, 65세 이상 인구는 3.1%, 3.5%가 될 것이다.

서울시 인구의 年齡別 人口推移 및 計劃指標

(단위:千人)

| 區 分 | 0~13歲 | 14~64歲 | 65歲以上 | 計 |
|------|-------------|-------------|----------|---------------|
| 1966 | 1,585(41.8) | 2,124(56.0) | 84(2.2) | 3,793(100.0) |
| 1971 | 2,264(38.7) | 3,452(59.0) | 135(2.3) | 5,851(100.0) |
| 1976 | 2,583(35.6) | 4,491(61.9) | 181(2.5) | 7,255(100.0) |
| 1981 | 2,716(31.3) | 5,726(66.0) | 234(2.7) | 8,676(100.0) |
| 1986 | 2,783(28.4) | 6,731(68.7) | 284(2.9) | 9,798(100.0) |
| 1991 | 2,687(25.4) | 7,565(71.5) | 328(3.1) | 10,580(100.0) |
| 1996 | 2,512(22.3) | 8,383(74.4) | 372(3.3) | 11,267(100.0) |
| 2001 | 2,304(19.2) | 9,276(77.3) | 420(3.5) | 12,000(100.0) |

■ 勞働年齡(14~64歲) 人口構造

● 過去推移/指標

- 노동연령인구의 경제활동구조는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온 바 경제활동참가율은 1966년의 25.3%에서 1976년 28.4%, 1986년의 32.3%로 늘어났고, 취업율은 1966년의 89.1%가 1976년의 90.0%, 1986년의 91.5%로 증가해 왔
- 노동연령인구는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해지고 취업구조가 건전하게 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므로 1991년과 2001년에 있어 경제활동 참가율은 34.6%와 39.5%로 늘고, 취업율은 92.8%와 95.5%로 증가할 것이다.

서울시 勞働年齡人口構造 推移 및 計劃指標

(단위:千人)

| 區 分 | 1966 | 1971 | 1976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
| 總人口(A) | 3,793 | 5,851 | 7,255 | 8,676 | 9,798 | 10,580 | 11,267 | 12,000 |
| 勞働年齡人口(B) | 2,124 | 3,452 | 4,491 | 5,726 | 6,731 | 7,565 | 8,383 | 9,276 |
| 經濟活動人口(C) | 960 | 1,568 | 2,060 | 2,609 | 3,165 | 3,681 | 4,169 | 4,740 |
| · 就業者(D) | 855 | 1,403 | 1,854 | 2,364 | 2,896 | 3,397 | 3,927 | 4,325 |
| · 失業者(E) | 105 | 165 | 206 | 245 | 269 | 275 | 267 | 249 |
| 非經濟活動人口(F) | 1,164 | 1,884 | 2,431 | 3,117 | 3,566 | 3,704 | 4,214 | 4,536 |
| 經濟活動參加率(C/A, %) | 25.3 | 26.8 | 28.4 | 30.1 | 32.3 | 34.6 | 37.0 | 39.5 |
| 就業率(D/C, %) | 89.1 | 89.5 | 90.0 | 90.6 | 91.5 | 92.8 | 94.2 | 95.5 |

■ 就業構造

● 過去推移／指標

· 취업인구의 산업별구조는 非農林漁業部門의 확대라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건전성을 나타내고 있는 바 農林漁業人口는 1966년의 1.8%에서 1976년의 1.1%, 1986년의 0.7%로 저하됐고, 鎭工業人口는 同期間에 25.0%에서 28.0%를 거쳐 28.5%로 향상되었으며,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비스業은 1966년의 73.2%라는 영세산업중심의 높은 비중이 1976년의 70.9%, 1986년의 70.8%로 진전화 되고 안정화되는 趨勢를 보여왔다.

· 산업별 취업구조는 구성비에 있어 農林漁業과 鎭工業部門의 감소와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業의 증대라는 경향으로 변화되어갈 것으로 전망되므로 1991년과 2001년에 있어 農林漁業人口는 0.5%와 0.1%로 내려가고, 鎭工業人口는 27.4%와 25.0%로 안정화되며,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業은 72.1% 및 74.9%로 증가될 것이다.

서울市 인구의 就業構造推移 및 計劃指標

(단위: 千人)

| 區 分 | 農 林 漁 業 | 鎭 工 業 | 서 비 스 業 | 計 |
|------|---------|-------------|-------------|--------------|
| 1966 | 15(1.8) | 214(25.0) | 626(73.2) | 855(100.0) |
| 1971 | 21(1.5) | 377(26.9) | 1,005(71.6) | 1,403(100.0) |
| 1976 | 20(1.1) | 519(28.0) | 1,315(70.9) | 1,854(100.0) |
| 1981 | 19(0.8) | 676(28.6) | 1,669(70.6) | 2,364(100.0) |
| 1986 | 20(0.7) | 825(28.5) | 2,051(70.8) | 2,896(100.0) |
| 1991 | 17(0.5) | 931(27.4) | 2,449(72.1) | 3,397(100.0) |
| 1996 | 12(0.3) | 1,029(26.2) | 2,886(73.5) | 3,927(100.0) |
| 2001 | 5(0.1) | 1,131(25.0) | 3,389(74.9) | 4,525(100.0) |

□ 家口員構成

● 過去推移／指標

· 家口當 家口員數는 전국과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바 1966년의 5.1人에서 1976년의 5.0人, 1986년의 4.1人으로 감소하였고, 전국보다는 조금 더 작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 家口當 平均家口員數는 가족계획 및 핵가족화의 深化에 따라 점차 減少될 것
이므로 平均家口規模는 1986年의 4.1人에서 1991年의 3.9人, 2001年의 3.4人
으로 줄어들고, 家口數는 1991年의 2,713千戶, 2001年의 3,529千戶가 될 것이다.

서울시의 家口數, 家口規模推移 및 計劃指標

| 區 分 人 | 口(千人) | 家 口(千戶) | 平均家口員數(人) | (全國平均) |
|-------|--------|---------|-----------|--------|
| 1966 | 3,793 | 734 | 5.1 | (5.6) |
| 1971 | 5,851 | 1,151 | 5.1 | (5.3) |
| 1976 | 7,255 | 1,461 | 5.0 | (5.1) |
| 1981 | 8,676 | 1,915 | 4.5 | (4.6) |
| 1986 | 9,798 | 2,390 | 4.1 | (4.2) |
| 1991 | 10,580 | 2,713 | 3.9 | (4.0) |
| 1996 | 11,267 | 3,045 | 3.7 | (3.8) |
| 2001 | 12,000 | 3,529 | 3.4 | (3.5) |

■ 人口分布

● 過去推移/指標

- 서울시 인구의 江南北分布는 강북중심으로부터 江南지향으로 변화되어온 바
1966년에 82.2%이던 강북인구가 1976년에는 67.1%가 되고 1986년에는 53.
5%가 되었으며, 강북의 區는 대도시 인구 占有比에 있어 저하되어 왔으나 江
남은 향상되어 왔다.
- 江南북인구분포는 1991년에 거의 同一하게 되고 그 이후는 江南비율이 더 높
아질 것이므로 강북 對 江南의 인구비는 2001년에 가서 46 對 54가 될 것이
절대인구에 있어서는 강북지역도 증가할 것이다.
- 구별 인구증가에 있어 중구, 종로, 성북, 서대문구는 감소하고 성동, 영등포,
동작구는 현상유지되며 도봉, 강서, 강남, 강동구는 약간 증가하고 노원, 양
천, 서초, 송파구등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區別人口推移 및 配分指標

(단위: 千人, %)

| 구 분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
| 총 계 | 8,676(100.0) | 9,798(100.0) | 10,416(100.0) | 11,087(100.0) | 11,800(100.0) |
| 강 북 계 | 5,074(58.5) | 5,213(53.2) | 5,314(51.0) | 5,426(48.9) | 5,550(47.0) |
| 종 로 구 | 292(3.4) | 255(2.6) | 280(2.7) | 320(2.9) | 340(2.9) |
| 중 구 | 239(2.8) | 206(2.1) | 215(2.1) | 230(2.1) | 240(2.0) |
| 용 산 구 | 337(3.9) | 323(3.3) | 345(3.3) | 395(3.6) | 420(3.6) |
| 성 동 구 | 709(8.2) | 755(7.7) | 750(7.2) | 745(6.7) | 740(6.3) |
| 동대문구 | 868(10.0) | 950(9.7) | 472(4.5) | 481(4.3) | 470(4.0) |
| 중 랑 구 | — | — | 423(4.1) | 409(3.7) | 400(3.4) |
| 성 북 구 | 590(6.8) | 578(5.9) | 534(5.1) | 465(4.2) | 440(3.7) |
| 도 봉 구 | 775(8.9) | 862(8.8) | 470(4.5) | 515(4.6) | 568(4.8) |
| 노 원 구 | — | — | 490(4.7) | 537(4.8) | 592(5.0) |
| 은 평 구 | 403(4.6) | 440(4.1) | 455(4.4) | 460(4.1) | 465(3.9) |
| 서대문구 | 422(4.9) | 402(4.1) | 400(3.8) | 400(3.6) | 400(3.4) |
| 마 포 구 | 439(5.0) | 442(4.5) | 460(4.4) | 469(4.2) | 475(4.0) |
| 강 남 계 | 3,602(41.5) | 4,585(46.8) | 5,102(49.0) | 5,661(51.1) | 6,250(53.0) |
| 양 천 구 | — | — | 353(3.4) | 377(3.4) | 407(3.4) |
| 강 서 구 | 542(6.2) | 705(7.2) | 427(4.1) | 458(4.1) | 493(4.2) |
| 구 로 구 | 595(6.9) | 696(7.1) | 690(6.6) | 675(6.1) | 660(5.6) |
| 영등포구 | 441(5.1) | 441(4.5) | 460(4.4) | 480(4.3) | 485(4.1) |
| 동 작 구 | 392(4.5) | 402(4.1) | 410(3.9) | 440(4.0) | 450(3.8) |
| 관 약 구 | 515(5.9) | 568(5.8) | 560(5.4) | 560(5.1) | 560(4.7) |
| 서 초 구 | — | — | 588(5.6) | 778(7.0) | 985(8.3) |
| 강 남 구 | 528(6.1) | 823(8.4) | 534(5.1) | 707(6.4) | 895(7.6) |
| 송 파 구 | — | — | 556(5.3) | 615(5.5) | 677(5.7) |
| 강 동 구 | 589(6.8) | 950(9.7) | 524(5.0) | 579(5.2) | 638(5.4) |

Hill Seoul

SOUL OF ASIA

經濟規模

計劃의 基本指標

經濟·産業

●過去推移/指標

- 서울시의 지역총생산(GRP)은 급격한 성장을 함으로써 1966년의 1,558億원이 1976년에는 31,058億원, 1986년에는 255,820億원이 되어 전국 GNP 에서의 占有比는 1966년의 15.1%에서 1976년의 23.4%, 1986년의 27.1%로 증가했으며, 시민 1인당 총생산도 1966년의 146弗이 1976년의 925弗과 1986년의 2,962弗로 신장되었고, 이는 전국평균보다 1.3배에 해당된다.
- 서울경제는 계속되는 성장을 할 것이므로 전국 GNP 에서 차지하는 서울시 GRP 비중은 1991년에 28.3%, 2001년에 31.8%가 되고 1인당 GRP 는 1991년에 6,445弗, 2001년에 13,283弗이 되어 全國平均보다 높으나 그 차이는 조금씩 좁혀지게 될 것이다.

서울市 全國對比 經濟規模推移 및 計劃指標

(經常價格)

| 구 분 | 1966 | 1971 | 1976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
| 서울시(A) | | | | | | | | |
| · 지역총생산(億원) | 1,558 | 6,492 | 31,058 | 116,583 | 255,820 | 449,780 | 645,717 | 927,010 |
| · 인구1인당(千원) | 41 | 111 | 428 | 1,344 | 2,291 | 4,415 | 6,338 | 9,098 |
| (美 弗) | (146) | (320) | (925) | (1,973) | (2,962) | (6,445) | (9,253) | (13,283) |
| 전국(B) | | | | | | | | |
| · 국민총생산(億원) | 10,320 | 31,516 | 132,726 | 451,262 | 828,157 | 1,398,936 | 1,942,028 | 2,695,961 |
| · 인구1인당(千원) | 35 | 99 | 370 | 1,171 | 2,000 | 3,767 | 5,409 | 7,768 |
| (美 弗) | (125) | (285) | (800) | (1,719) | (2,268) | (5,500) | (7,896) | (11,340) |
| 비율(A/B, %) | | | | | | | | |
| · 총 생산 | 15.1 | 20.6 | 23.4 | 25.8 | 27.1 | 28.3 | 29.7 | 31.8 |
| · 인구1인당 | 116.8 | 112.3 | 115.6 | 114.8 | 114.5 | 112.9 | 110.8 | 110.0 |

産業構造

●過去推移/指標

- 産業別로의 지역총생산은 絕對額으로 모두 증가하여 왔으나 구성비에 있어서는 農林漁業이 1966년의 3.6%에서 1976년의 2.8%, 1986년의 1.1%로 저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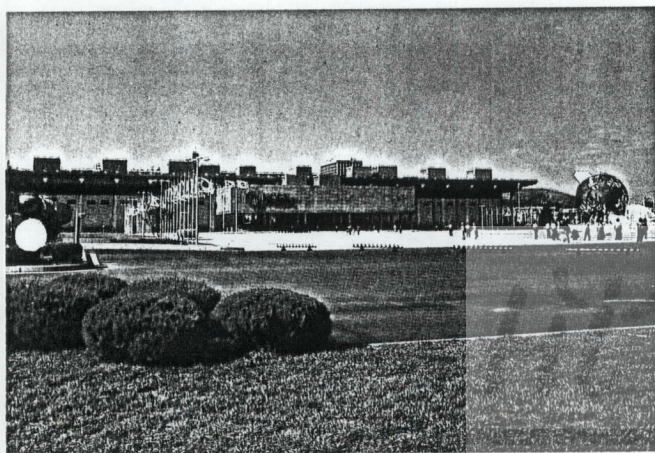
었고, 鑛工業은 27.6%, 24.6%에서 24.6% 및 22.7%로 저하했음에 반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68.8%에서 72.6% 및 76.2%로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시의 향후 산업구조는 脫工業體制로 변천해 갈 것이며 이에 따라 農林漁業은 거의 미세한 수준에 이르고, 鑛工業은 絕對額은 증가하나 占有比는 1991년의 21.7%, 2001년의 19.7%로 낮아지며, 社會間接資本, 상업, 정보, 지식, 행정등의 제3차 산업이 2001년에 80.1%까지 신장될 것이다.

市 産業構造推移 및 計劃指標

(단위 : 經常價格, 億원, %)

| 區 分 | 農林漁業 | 鑛 工 業 | 서 비 스 業 | 計 |
|------|------------|---------------|---------------|----------------|
| 1966 | 56(3.6) | 430(27.6) | 1,072(68.8) | 1,558(100.0) |
| 1971 | 214(3.3) | 1,695(26.1) | 4,583(70.6) | 6,492(100.0) |
| 1976 | 870(2.8) | 7,640(24.6) | 22,548(72.6) | 31,058(100.0) |
| 1981 | 1,399(1.2) | 26,581(22.8) | 88,603(76.0) | 116,583(100.0) |
| 1986 | 2,469(1.1) | 50,916(22.7) | 171,016(76.2) | 224,431(100.0) |
| 1991 | 3,171(0.8) | 86,006(21.7) | 307,162(77.5) | 396,339(100.0) |
| 1996 | 2,883(0.5) | 118,764(20.6) | 454,876(78.9) | 576,523(100.0) |
| 91 | 1,176(0.2) | 169,044(19.7) | 687,329(80.1) | 858,089(100.0) |



Seoul

SOUL OF ASIA

市民家計

● 過去推移／指標

· 서울시민중 勤勞者家11의 가계구조가 갖는 경향적 特性은 소득가운데 勤勞所得의 비중이 1976년 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는 지하하여 왔고, 支出가운데 食料품비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주거비도 저하해 왔으며, 剩餘金의 비중은 계속 상승해 왔다.

· 서울시민의 所得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지출구조도 건전하게 변화될 것으로 所得중 勤勞所得의 비중은 조금씩 낮아져서 1991년에 59.2%, 2001년에 57.2%가 되고, 支出중 食料품비와 주거비의 비중이 점차 저하하여 2001년에는 각각 10.3%와 8.1%가 됨으로써 문화활동등의 기타비용이 많아지게 되며, 잉여금의 비중도 1991년의 15.8%, 2001년의 18.1%로 향상된 것이다.

서울市 勤勞者 家口當 月平均家計收支 推移 및 計劃指標

(단위: 經常價格, 億원, %)

| 區 分 | 1966 | 1971 | 1976 | 1981 | 1986 | 1991 | 1996 | 200 |
|-------------------------|-------------------|-------------------|-------------------|--------------------|--------------------|----------------------|----------------------|----------------------|
| 所 得 (A) | 16,906 (100.0) | 37,660 (100.0) | 99,890 (100.0) | 431,150 (100.0) | 751,448 (100.0) | 1,330,466 (100.0) | 2,402,484 (100.0) | 4,338,276 (100.0) |
| · 勤勞所得 | 12,600 (73.7) | 28,940 (76.8) | 85,180 (85.3) | 261,396 (60.6) | 450,869 (60.0) | 787,636 (59.2) | 1,395,843 (58.1) | 2,481,494 (57.2) |
| · 其他所得 | 4,460 (26.3) | 8,720 (23.2) | 14,710 (14.7) | 169,754 (39.4) | 300,579 (40.0) | 542,830 (40.8) | 1,006,641 (41.9) | 1,856,782 (42.8) |
| 支 出 (B) | 16,580 (100.0) | 36,770 (100.0) | 86,180 (100.0) | 368,033 (100.0) | 638,731 (100.0) | 1,120,252 (100.0) | 1,996,464 (100.0) | 3,553,048 (100.0) |
| · 食料品費 | 7,140 (43.1) | 13,460 (36.6) | 34,750 (40.3) | 90,583 (24.6) | 126,469 (19.8) | 178,120 (15.9) | 255,547 (12.8) | 365,964 (10.3) |
| · 住居費 | 3,030 (18.3) | 7,760 (21.1) | 18,740 (21.7) | 39,018 (10.6) | 65,789 (10.3) | 107,544 (9.6) | 177,685 (8.9) | 287,797 (8.1) |
| · 其他支出 | 6,410 (38.6) | 15,550 (42.3) | 32,690 (38.0) | 238,432 (64.8) | 446,473 (69.9) | 834,588 (74.5) | 1,563,232 (78.3) | 2,899,287 (81.6) |
| 收 支 (A-B=C) (C/A, %) | 380 (2.3) | 890 (5.4) | 13,710 (13.7) | 63,117 (14.6) | 112,717 (15.0) | 210,214 (15.8) | 406,020 (16.9) | 785,228 (18.1) |

●過去推移／指標

서울시의 생활환경시설은 대부분 개선되어 왔으나 주택만은 부진한 상태로서 주택보급율이 1976년에 54.9%까지 올라갔으나 1981년에는 다시 54.1%로 되었고, 1인 1일給水量 및 給水率は 1966년의 117ℓ 및 71.2%에서 1976년의 196ℓ 및 90.0%, 1986년의 430ℓ 및 97.7%로 신장되었고, 塵芥 및 糞尿收去率は 1970년대부터 100%에 이르렀고, 도로율과 포장율은 1966년의 1.8% 및 32.1%에서 1976년의 7.3% 및 57.5%, 1986년의 16.8% 및 85.6%로 증가했고, 自動車台數와, 電話器台數는 계속 증가하여 각각 인구 100인당으로 1966년의 0.5台・0.3台, 1976년의 1.3台・0.7台, 1986년의 5.2台・25.5台가 되었고, 學校當人口數는 1966년의 5.5千人에서 1976년의 7.3千人으로 올라갔다가 1986년의 2.4千人으로 내려왔고, 消防車輛當人口는 계속 감소되어 1986년에는 30千人이 되었고, 人口1人當 電力使用量은 1966년의 275 KWH에서 1986년의 1,027 KWH로 증가했으며, 시장 및 우체국도 크게 확대되어 왔다.



Seoul

· 서울시 생활환경시설의 將來指標은 모든 面에서 향상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야 할 것이므로 1991년 및 2001년에 있어서 주택보급율은 58.4%에서 67.1%
 로 높이고 1인11 給水量은 521ℓ 및 622ℓ로 제고하며 給水率은 99.8% 및
 100%로 확대시키고 塵芥 및 糞尿收去率은 모두 100%로 유지하며, 도로율과
 포장율은 각각 18.0%와 94.0%, 20.0%와 100%로 신장시키고, 인구 100인당
 자동차는 11.5台 및 22.5台로 하며 인구 100인당 전화기는 37.6台 및 60.7台로
 하고, 學校當人口는 3,8千人 및 2,5千人으로 하며, 消防車輛當人口는 24千人
 및 17千人으로 하고, 1인당 전력량은 1,523 KWH 및 2,424 KWH로 하며, 시
 장당 인구는 21千人 및 15千人으로 하고, 우편국당 인구는 34千人 및 25千人으
 로 한다.

서울시 生活環境 推移 및 計劃指標

| 구 분 | 1966 | 1971 | 1976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
| 住 宅 數 (棟) | 361 | 624 | 802 | 1,037 | 1,397 | 1,586 | 1,857 | 2,224 |
| (普及率, %) | (49.3) | (54.3) | (54.9) | (54.1) | (55.6) | (61.9) | (64.7) | (67.1) |
| 1人11給水量 (ℓ) | 117 | 168 | 196 | 318 | 430 | 521 | 600 | 622 |
| (給水率, %) | (71.2) | (86.0) | (90.0) | (93.7) | (97.7) | (100.0) | (100.0) | (100.0) |
| 塵芥收去車輛 (台) | 139 | 382 | 431 | 728 | 922 | 1,058 | 1,408 | 2,000 |
| · 車輛當人口 (千人) | 27 | 15 | 17 | 12 | 11 | 10 | 8 | |
| (收去率, %) | (77.6) | (99.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糞尿收去車輛 (台) | 83 | 221 | 204 | 173 | 138 | 83 | 62 | 36 |
| · 車輛當人口 (千人) | 46 | 26 | 36 | 50 | 71 | 127 | 182 | 340 |
| (收去率, %) | (49.2) | (77.3) | (82.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道 路 率 (%) | 1.8 | 6.2 | 7.3 | 15.3 | 16.8 | 18.0 | 19.7 | 20.5 |
| (鋪裝率, %) | (32.1) | (35.3) | (57.5) | (73.4) | (85.6) | (94.0) | (97.5) | (100.0) |
| 自動車台數 (台) | 20,638 | 67,275 | 96,557 | 221,644 | 521,521 | 1,220,000 | 1,900,000 | 2,700,000 |
| (人口100人當台數, 台) | (0.5) | (1.1) | (1.3) | (2.6) | (5.2) | (11.5) | (16.9) | (22.5) |
| 電話器台數 (台) | 121,342 | 234,870 | 521,327 | 1,141,000 | 2,502,000 | 3,973,000 | 5,838,000 | 7,176,000 |
| (人口100人當台數, 台) | (0.3) | (0.4) | (0.7) | (13.1) | (25.5) | (37.6) | (51.9) | (60.7) |
| 郵便局數 (局) | — | 71 | 110 | 140 | 241 | 311 | 395 | 480 |
| (局當人口, 千人) | — | (82) | (66) | (62) | (41.2) | (34) | (28.5) | (25) |
| 初, 中, 高 學校數 (個) | 695 | 844 | 988 | 686 | 978 | 1,132 | 1,267 | 1,622 |
| (學校當學生數, 千人) | (5.5) | (6.9) | (7.3) | (3.0) | (2.4) | (2.0) | (1.7) | (1.1) |
| 消防車輛台 | — | 91 | 175 | 220 | 327 | 440 | 560 | 700 |
| (車輛當人口數, 千人) | — | (64) | (41) | (39) | (30) | (24) | (20) | (17) |
| 使用電力量 (百萬KWH) | 1,043 | 2,584 | 4,511 | 6,492 | 10,206 | 16,112 | 21,740 | 29,093 |
| (人口1人當電力量, KWH) | (275) | (442) | (622) | (748) | (1,027) | (1,523) | (1,930) | (2,424) |
| 市場個數 (個) | 85 | 185 | 250 | 327 | 405 | 526 | 691 | 933 |
| · 店鋪數 (個) | 14,934 | 29,910 | 36,456 | 48,505 | 64,011 | 87,842 | 121,616 | 172,666 |
| · 市場當店鋪數 (個) | 176 | 162 | 146 | 148 | 158 | 167 | 176 | 185 |
| (市場當人口, 千人) | (45) | (32) | (29) | (27) | (24) | (21) | (18) | (15) |

福祉環境

● 過去推移／指標

· 서울시의 福祉環境은 그동안 조금씩 확장되어 그 수준이 향상되어온 바 사회 복지시설의 總數는 1966년의 105個에서 1976년의 189個, 1986년의 387個로 늘어났고, 이의 이용자수도 1966년의 14千人에서 1976년의 19千人, 1986년의 33千人으로 증가했으며, 병원은 66년-86년간에 70個에서 161個로 늘었고, 病床수는 약 4.3倍 증가했으며, 의사도 거의 3倍 늘어났고, 약국수는 2.6倍이상 증가했다.

서울시의 복지시설은 앞으로 계속 확장·개선될 것이므로 모든 指標의 1991년 및 2001년의 계획수치는 향상될 것이고, 또 향상되어야 할 것인 바 복지시설당 인구는 각각 25千人 및 15千人, 인구중 이용자비율은 0.25% 및 0.30%, 시설당 이용자수는 63人에서 45人으로, 의료시설인구는 1.35千人 및 1千人, 병원당 인구는 53千人과 42千人, 인구万人당病床數는 35床 및 50床, 人口万人當醫師數는 14人 및 18人, 人口万人當藥局數 8個 및 10個로 신장되어야 한다.

서울市 社會環境施設의 推移 및 計劃指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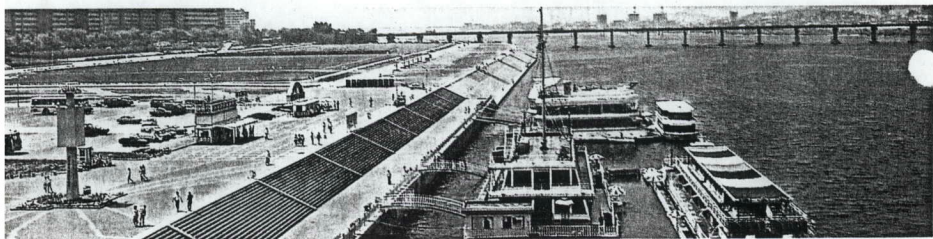
| 구 분 | 1966 | 1971 | 1976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
| 사회복지시설수 (個) | 105 | 133 | 189 | 333 | 387 | 441 | 622 | 933 |
| (시설당인구 : 千人) | (36) | (44) | (38) | (26) | (25) | (25) | (20) | (15) |
| · 이용자수 (人) | 13,661 | 11,655 | 19,121 | 35,896 | 33,282 | 27,590 | 34,804 | 42,000 |
| (인구중비율 : %) | (0.36) | (0.20) | (0.26) | (0.41) | (0.34) | (0.25) | (0.28) | (0.30) |
| · 시설당이용자수 (人) | 130 | 88 | 101 | 108 | 86 | 63 | 56 | 45 |
| (1) 아동복지시설수 (個) | 79 | 108 | 156 | 290 | 299 | 320 | 422 | 673 |
| · 이용자수 (人) | 10,267 | 9,898 | 16,384 | 32,221 | — | — | — | — |
| (2) 노인복지시설수 (個) | 4 | 2 | 2 | 5 | 16 | 23 | 38 | 50 |
| · 이용자수 (人) | 218 | 193 | 201 | 371 | — | — | — | — |
| (3) 여성복지시설수 (個) | 16 | 14 | 14 | 7 | 19 | 28 | 46 | 60 |
| · 이용자수 (人) | 1,426 | 885 | 799 | 655 | — | — | — | — |
| (4) 장애인복지시설수 (個) | 4 | 9 | 12 | 16 | 31 | 44 | 77 | 100 |
| · 이용자수 (人) | 1,750 | 679 | 971 | 1,711 | — | — | — | — |
| (5) 기타복지시설수 (個) | 2 | — | 5 | 15 | 22 | 26 | 39 | 50 |
| · 이용자수 (人) | — | — | 766 | 938 | — | — | — | — |
| 의료시설수 (個) | 3,280 | 4,395 | 4,668 | 5,301 | 6,596 | 8,175 | 10,534 | 14,000 |
| (시설당인구 : 千人) | (1.16) | (1.33) | (1.55) | (1.64) | (1.49) | (1.35) | (1.18) | (1.00) |
| · 병원수 (個) | 70 | 73 | 66 | 105 | 161 | 208 | 264 | 333 |
| (병원당인구 : 千人) | (54) | (80) | (110) | (83) | (61) | (53) | (47) | (42) |
| · 병상수 (床) | 6,102 | 7,577 | 10,372 | 15,620 | 26,516 | 38,626 | 52,206 | 7,000 |
| (인구万人당병상수 : 床) | (16) | (13) | (14) | (18) | (27) | (35) | (42) | (50) |
| · 의사수 (人) | 4,140 | 5,810 | 7,660 | 9,687 | 13,177 | 15,450 | 19,888 | 25,200 |
| (인구万人당의사수 : 人) | (12) | (10) | (11) | (11) | (13) | (14) | (16) | (18) |
| · 약국수 (個) | 2,627 | 4,119 | 4,612 | 5,613 | 6,898 | 8,829 | 11,187 | 14,000 |
| (인구万人당약국수 : 個) | (7) | (7) | (6) | (6) | (7) | (8) | (9) | (10) |

憩樂環境

●過去推移／指標

· 서울시의 憩樂環境은 지난 20년간 量的으로 많이 증가하여 왔으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충분한 공급은 되지 못하였으나 人口1100人當 시립운동장 면적은 1966년의 2.8㎡에서 1976년의 1.7㎡, 1986년의 4.3㎡로 되고, 공원·녹지의 인구당면적은 1966년의 0.9㎡에서 1976년의 22.6㎡, 1986년의 16.0㎡로 되었고, 공연장수는 20년간에 약 2배로 늘었고, 유흥음식점수는 약 9배나 증가했으며, 숙박시설은 약 3배 증가하였다.

· 서울시의 위락시설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장·개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요시설의 指標는 바람직하게 설정되어야 할것인 바 人口100人當 시립운동장 면적은 1991년에 4.2㎡, 2001년에 4.0㎡로 하고, 공원·녹지의 個當人口는 1991년의 4千人, 2001년의 3千人으로 하며, 공원·녹지의 인구당면적은 1991년의 16.6㎡, 2001년의 15.2㎡로 하고, 공연장의 시설당인구는 1991년에 52千人 2001년에 40千人으로 하며, 유흥음식점은 1개당인구로 1991년에 120人, 2001년에 100人으로 하고, 숙박시설은 1개당인구로 1991년의 1,886人, 2001년의 2,144人으로 한다.



서울시 憩樂環境의 推移 및 計劃指標

| 區 分 | 1966 | 1971 | 1976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
| 시립운동장 면적 (㎡) (인구100인당면적, ㎡) | 104,867 (2.8) | 110,896 (1.9) | 122,599 (1.7) | 185,320 (2.1) | 423,859 (4.3) | 463,512 (4.2) | 509,630 (4.1) | 560,000 (4.0) |
| 공원·녹지개수 (個) (人口／個, 千人) | 54 (70) | 426 (14) | 708 (10) | 2,289 (4) | 1,867 (5) | 2,759 (4.0) | 3,551 (3.5) | 4,667 (3.0) |
| 공원·녹지면적 (千㎡) (인구당 면적, ㎡) | 3,448 (0.9) | 144,635 (24.7) | 163,872 (22.6) | 179,740 (20.7) | 157,106 (16.0) | 176,081 (16.6) | 180,081 (16.0) | 183,081 (15.2) |
| 공연장수 (個) (人口／個, 千人) | 88 (13) | 121 (48) | 105 (69) | 84 (103) | 170 (58) | 212 (52) | 270 (46) | 350 (40) |
| 유흥음식점수 (個) (人口／個, 千人) | 7,551 (502) | 12,753 (459) | 17,121 (424) | 37,137 (234) | 61,871 (151) | 91,967 (120) | 115,093 (108) | 14,000 (100) |
| 숙박업시설수 (個) (人口／個, 人) | 2,007 (1,890) | 4,361 (1,342) | 5,075 (1,430) | 5,229 (1,659) | 5,538 (1,769) | 5,852 (1,886) | 6,181 (2,011) | 6,630 (2,144) |

目標의 設定

計劃의 目標와 戰略

■ 都市規模

● 人口規模 計劃

· 國府년도의 人口규모는 14,000千人으로 추정되나, 國土의 均衡의 開發과 서울 人口 抑制政策의 강력한 추진으로 計劃人口는 12,000人으로 설정하였으며, 1988년 현재 全國人口 對比 24.5%에서 24.8%로 증가할 전망이다.

· 經濟活動人口가 總人口의 32.3%에서 39.5%로 증가할뿐 아니라 就業率 또한 95.5%로 증가함으로써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취업구조가 건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經濟規模

· 서울의 經濟規模는 계속적으로 增大할 것이므로 全國 總生產(GNP)에서 차지하는 서울의 地域總生產(GRP)의 比重은 1991년에 28.3%, 2001년에 31.8%가 될 것이며, 人口1人當 GRP는 1991년에 6,445弗, 2001년에 13,283弗이 될 것이다.

· 產業別 地域總生產額은 증가하나, 1·2次產業比는 감소하는 반면, 3次產業은 76.2%에서 80.1%로 증가할 것으로 서울市の 산업구조는 脫工業 體制로 사회 간접자본, 상업, 정보, 행정 등의 3次產業中心의 도시로 전환될 것이다.

■ 都市의 性格

· 現在 서울市는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中樞管理機能등은 全國을 影響圈으로 하며, 직접적인 도시세력은 수도권지역에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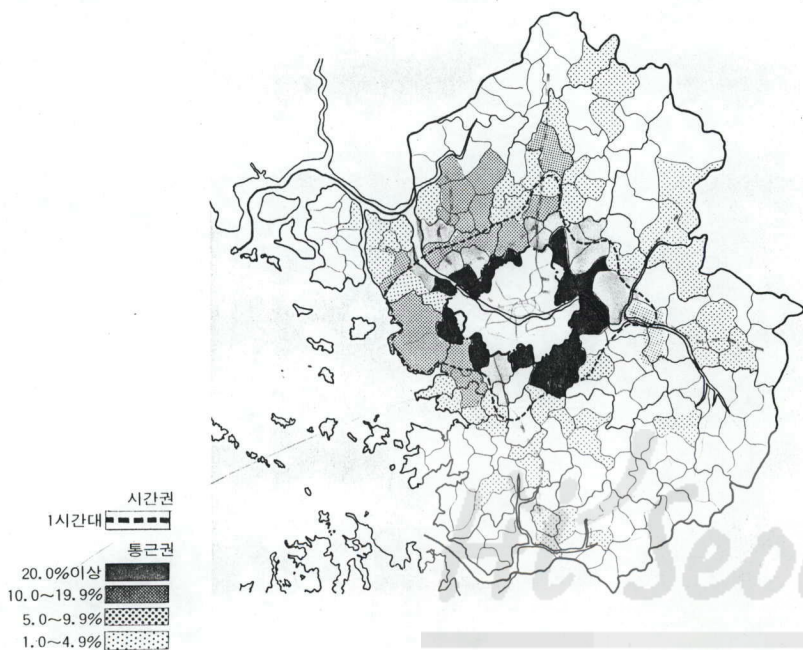
· 上位計劃에서의 人口유발시설 억제 및 公營기능의 지방분산유도에도 불구하고, 情報產業의 발달과 도시의 持續的인 성장으로 全國을 대상으로 한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首位都市로서 聲格을 유지한다.

· 서울의 勢力이 수도권 지역에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을 포함하여 大都市圈으로서의 성격규명이 必要하다.

- ① 周邊 隣接地域은 接近性이 양호함으로 서울시에 부족한 주거기능을 수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인구증가에 따른 住居用地 確保가 현재 限界에 달한 실정으로 向後 通勤圈域의 擴張과 規模는 증대될 전망이다.
- ② 衛星都市는 독자적인 소규모 생활권을 형성하는 下位中心地 體系가 發達하여, 이들 도시에서 周邊 背後地域을 吸收하고 있으나 高次專門서비스 기능은 서울시에서 供給되고 있다. 앞으로 衛星都市에서 일상편익시설 중심의 下位機能은 계속 확충될 것이나 高次機能은 계속 서울에 從屬될 展望이

· 서울시의 性格은 수도권의 중심도시로서 하나의 대도시권을 형성하며, 모든 분야에 대해 중심성을 갖고 持續的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情報化 時代를 맞이하여 從前의 3차산업을 主宗으로 한 도시활동의 내용은 知識集約的인 2차산업이 重視될 것으로 예상되며, 國際化 趨勢가 더욱 加速化되고 國際企業의 서울立地가 增加할 것이다.

수도권 통근권과 시간권



■ 施設水準

- 施設水準(生活環境)은 모든면에서 향상되며 특히 이용의 便利性을 중시하는 立地條件을 改善하기 위하여 利用圈域과 人口數를 基準으로 한 生活圈을 시설 입지의 기반으로 한다.
- 住宅의 경우 한정된 토지자원으로, 주택부족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家族數,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에 따른 다양한 住宅型과 立地의 供給으로 주택부족을 緩和하는 동시에 선택의 폭을 넓힌다.
- 시민의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慰樂環境 水準은 지속적으로 확장·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制約條件

▼ 土地資源의 制約

都城을 중심으로 漸進的으로 발달한 既成市街地는 先行의이고 體系的인 公共 및 都市施設의 확보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되어왔으나, 시민의 잠재력 및 의식수준 향상으로 도시시설의 質的 향상을 요구함에 따라 기존 시설의 再編成 및 補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經濟成長으로 인하여 급속히 집중하여 증가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新開發地에서도 도시생활 및 기반시설이 未備된 채 應急的으로 도시 개발이 되었다.

이와같이 기성시가거나 신시가지 모두에게 생활편익시설 등의 도시시설이 偏在되어 있거나 부족으로 인하여 惹起된 諸不便을 解消하기 위하여, 生活圈 單位로 適正配置하고자 하여도 대부분 土地가 市街化 되어 있어 시설입지 장소를 指定하기 어렵다.

急激한 人口增加에 따라 그간 累積되어온 住宅 不足문제를 解消하기 위한 대규모 미개발지도 거의 枯渴된 상태이다. 그러나 기성시가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분석하면 平面的 建蔽率은 낮지 않으나 立體的 空間利用度에 나타나는 容積率의 達成 實積은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의 공간공급자원은 이러한 餘裕容積에 着眼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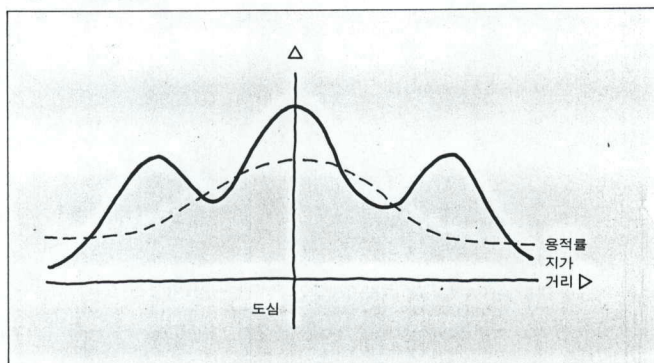
■ 制度 및 法的制約

도시적 토지이용의 특색인 混用的 利用은 現行 制度에서 排除되어, 지나친 토지이용의 純化를 강조함으로써 토지이용의 效率提高와 潛在力 活性化에 問題가 있으며, 도시개발이나 정비에 대처할 계획적 수단이 劃一的이어서 地區의 特殊性(신개발지, 과밀주거지, 健全한 既成市街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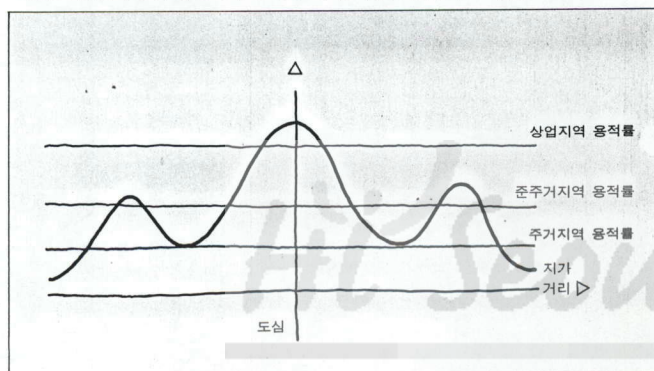
堡地의 有效利用 指標인 건폐율과 용적율중 특히 容積率과 地價는 正相關의 關係에 있음을 원칙으로 해야 하나 現法制는 건폐율과 용적율을 用途하고만 1 關시킴으로서 도시개발 잠재력(potential)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容積率과 地價간 關係

- 원칙: 容積率은 地價와 正相關 關係에 있으므로 地價에 따른 탄력성있는 용적율 適用이 바람직 함.



- 現行: 用途하고만 상관하여 용적율 및 건폐율을 適用하고 있음.



■ 上位計劃의 制約

- 第2次 國土綜合計劃 및 首都圈 整備計劃에서 서울을 移轉促進圈域으로 지정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 억제 및 도시형 공업을 제외한 모든 製造業移轉을 유도하며 과밀한 집중 억제와 기능의 選別的 分散이 要請된다.
- 서울市の 인구규모는 상위계획 목표치인 12,000千人을 上廻하는 14,000千人에 達할 전망이며, 經濟規模(地域總生産/國民總生産) 역시 31.8%를 점할 것으로 豫測된다.
- 정보산업의 발달과 中樞機能의 擴大, 인구증가에 따른 2, 3次 産業의 성장으로 인구 및 활동의 都市集積은 지속될 전망이다.
- 지나친 上位計劃의 強要는 자칫 도시의 활성력을 停滯시켜 舊市街地의 斜陽化와 無力化를 초래할 憂慮가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문화발전의 牽引車 役割을 萎縮시킬 우려도 있다.

■ 中央政府의 協助

- 서울시가 우리나라 首都市에 비하여 뛰어난게 大規模·高密度·過集中되어 있을뿐 아니라, 歷史性·文化性 等에서도 빼어난 도시임을 勘案, 他都市와 同하게 劃一的으로 統制할게 아니라, 그 特性을 考慮하여 特殊性에 맞는 도시 행정이 가능하도록 制度的 配慮가 必要하다.
- 서울시와 주변도시들은 이미 하나의 都市聯合體의인 영역과 질서와 기능·역할분담 체계속에 짜여져 있으므로 여러 도시간에 一貫性 있고 조정된 도시시설과 시설이용 등이 필요하나, 自治團體間의 圓滑한 協助를 위하여 中央政府의 協助가 必要하다.
- 중앙정부기능의 대부분이 임지하고 있는 서울은 추가적 행정과 시설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비용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협조내지 보조가 요구된다.

開發戰略

●都市 構成要素를 效率的으로 組織化

- 인구분포, 시설, 지형, 지세들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는 「네트워크」(Network)식 骨格으로의 交通조직 개편

●都市開發事業 效果의 連繫化

- 역세권 개발의 전략
- 도로건설개선과 沿道 시가지 정비의 연계화
- 각종 도시개발 · 정비사업간의 투자시기조정

●都市構造에 對應하는 人口 및 活動의 配置

- 人口密度計劃: 接近性에 따라 입지별로 밀도배분 (양호지역은 고밀, 불량 지역은 저밀)하여 交通發生量을 輕減 原則
- 土地利用의 密度計劃(開發密度):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外部經濟 集積地의 高밀토지이용원칙

●에너지 節約的 戰略

- 1家口 1住宅 政策의 지양; 1住宅 2家口 居處의 개념 정착(Town house) 및 양성화와 賃貸住宅 市場에 소자본의 소규모 民間 單獨住宅 參與 권장
- 기성시가지의 蓄積(Stock)을 再認識하여, 지구 개선등의 정비를 통한 활용
- 大衆 · 大量交通手段에 의한 통근 및 도시환동을 지향하는 토지이용계획
- 生活圈別로 자족성을 띠도록하여 과도한 物理的 集積으로 인한 社會的 誘發要因 감소
- 住宅供給戰略의 多樣化: 공공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및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힘쓰고 定額所得이 있는 중산화 가능계층에게는 분양주택공급과 함께 金融 支援을 하여 모든 계층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꾀함

空間構造의 基本構想

■ 基本方向

●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 보전

△ 상위계획의 원칙적 수용

● 지형, 지세의 존중

● 균형분산된 시설과 기능특화된 시설의 권역총합적 공간구조

● 연계성있는 공간구조-격자형의 가로와 전철망

● 기존 시가지 및 기존활동의 관성활용

● 지구특성에 적합한 공간정비 방안

· 과점적 토지이용 지양, 민간참여와 민간활력 유발적 공간구조

● 에너지 節約的 空間構造

· 都市施設의 共同利用 促進

- (1) 각종 공공·복지시설의 共同化
- (2) 도시내 학교운동장의 共同利用
- (3) 공원·운동장 시설과 他施設의 다목적 공동이용 圖謀

· 익세권개발을 중심으로한 각종 공공 민간부문의 도시개발들의 연계

· 밀저층의 주택지

- (1) 大規模 耐久性 構造보다 소규모 구조물이 除去, 充填이 용이하여 변화에 대한 地區의 柔軟性 큼
- (2) 土地와 接觸性이 클수록 住宅의 柔軟性, 活用性이 크므로 동일면적 住居라도 여유있고 효율이 큼

· 기반시설 정비로 기성시가지 수명연장·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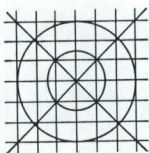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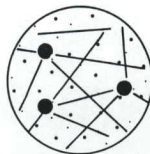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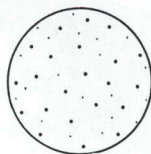
Hi! Seoul

SOUL OF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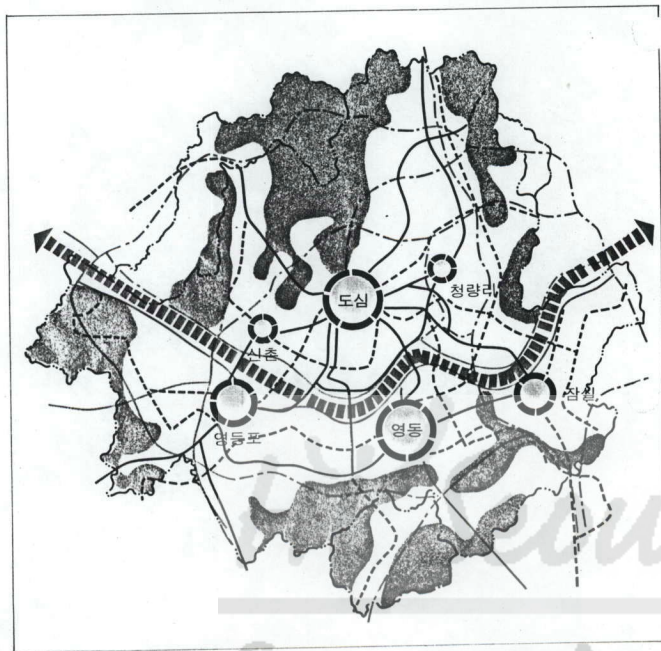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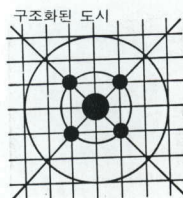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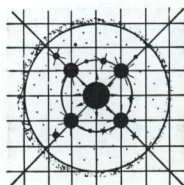
● 空間構造基本構想圖

기초생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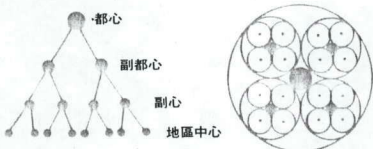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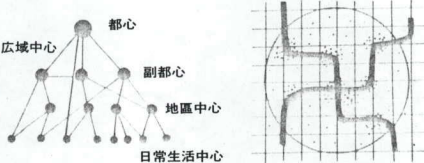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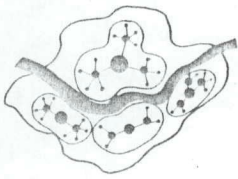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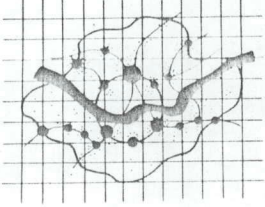
도시활동집적



도시공격
(구조화수단)



■ 代案樹立 및 評價

| 區分 | 代 案 1 | 代 案 2 (計劃案) |
|--------------------------|--|--|
| 基本 概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都市生態構造를 勘案한 計劃 · 기존의 機能集積度에 따라 中心地를 설정하여 選定된 중심지의 位階에 따라 階層區分→都心, 副都心, 副心, 地區中心 · 중심지 위계에 따라 生活圈의 位階設定 · 생활권단위는 自己完結의 領域指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로 密集된 高密社會를 전체로 한 계획 · 개방된 생활공간의 構造化 手段으로 電鐵網과 街路網의 골격 중시 · 기존에 구축된 기능과 지역상징 잠재력을 최대한 수용발전 · 각 중심지기간 상호보완 및 연계를 지하철망으로 보장 · 각 지역의 自生的 發展趨勢를 尊重하여 大小規模의 도시활동 중심분산 |
| | <p>나무구조</p>  | <p>사다리구조</p>  |
| 도시 構造 基本 骨格 |  |  |
| 長點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 성격이 강함 · 기능 및 성격에 따른 시설입지 용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과 교통골격의 密接한 對應 · 대중교통중심으로 확실성을 指向한 都市構造 · 대중·대량교통 수단인 電鐵과 중심지와의 連繫體系로 路面 交通의 抑制과 에너지 節약적 도시공간 형성지향 ·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중심지의 분산적 구조 |
| 短點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定型化되어 지역잠재력 활성화와 사회적 변동에 柔軟性 부족 · 생활권을 단위로 하더라도 중심부에 便益이 偏重하여 圈 內不均衡 우려 ·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彈力的인 適應力에 문제 · 기존의 都市의 蓄積이나 基幹의 都市骨格과 생활권의 유기적 관계미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의 성격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음 · 전철망계획의 지연이 도시구조의 형성에 지나치게 영향을 줄 우려 |

■ 空間構造의 骨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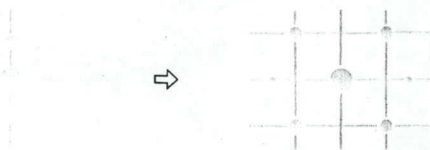
- 平準化된 기초생활시설



- 格子型(Grid pattern)의 도로망을 가진 柔軟構造

- 환동중심과 교통인접점이 一致한 接近性을 보장하는 구조

- 도시전철망에 의한 굵은 骨格이 大局의 都市空間을 構造짓고, 驛을 中心으로 한 조직적 구성이 局地的 지역공간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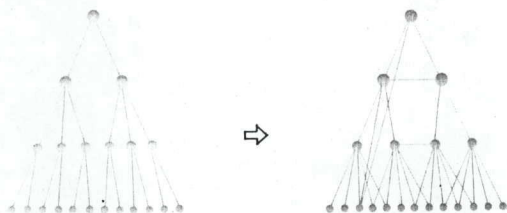
- 전철망(대량교통)과 도로망(개별자유교통)의 보완적 교통구조

엄가(대중성)로 정시적 대량수송을 할 수 있는 전철망은 노선의 고정성 때문에 토지이용이 변화해도 도시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한편 도로망은 자유로운 노선선택과 시간제약이 없어 개별성과 프라이버시(privacy)가 높지만, 수송효율과 토지이용효율이 낮아 토지이용이 변화함에 따라 그 위계구조가 변화하는 가변성을 띤다. 따라서 이 두가지 교통체계의 상호보완적 연계가 중요하다.

- 柔軟한 多核構造

傳統的 도심의 優位가 지속되고, 그동안 計劃的으로 育成되어온 여러 부도심의 集積慣性이 있겠으나, 이러한 位階는 固定的인 아니며, 各驛中心 또는 自治

團體인 區單位の 창의와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活動中心이 發生할 수 있고, 그를 권장하는 柔軟的 構造이다. 이 점에서 都市電鐵網의 역할이 至大하다. 즉 어느 副心이 커지더라도 도시전체의 골격은 유지된다.



Hi Seoul

SOUL OF ASIA

生活圏計劃

基本方向

■ 基本原則

지역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 시설중심의 일상생활영역을 생활권으로 설정하는 원칙은 개방적 생활활동 체계, 이동성을 띤 사회로 표현되는 현대대도시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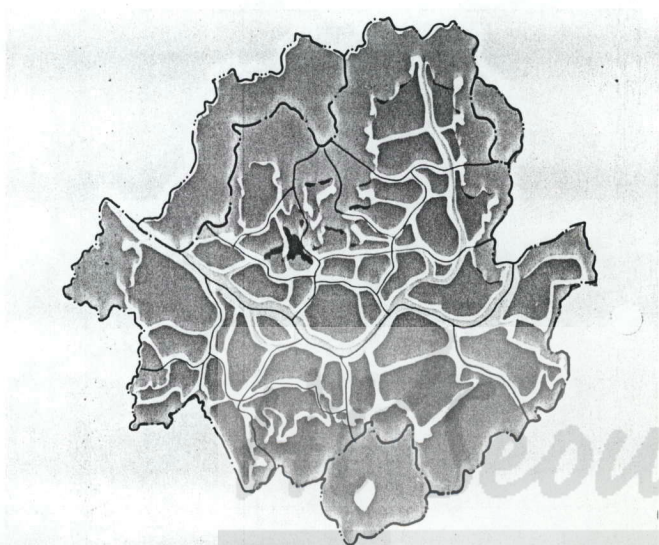
本計劃에서는 생활권의 개념을 도시의 어떤 위치에居住하는 시민에게도 平等한 施設便益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생활 편의시설의 이용권역으로서, 시설배치의 基準空間 單位 領域으로 파악한다.



■ 生活圏 區分

● 生活圏 區分基準

· 接近性を 고려한 기초생활 편의시설의 이용권역 施設支持人口분포 영역: 이

生活圏 區分



대생활권 
소생활권 

설이용(時間) 거리기준내 영역 중 좁은 쪽을 시설배치 기준 단위 영역으로 설정한다.

- 여러 시설들의 배치기준 단위 영역 집합을 基準生活圈으로 하여 도로, 지형·지세에 따른 자연적 여건, 장애물 등을 勘案하여 생활권으로 구분한다.
- 行政管理의 便宜와 施設設置의 保障을 위하여, 區別행정구역계와 가급적 일치시키도록 한다.
- 特殊性格 지구는 별도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特殊狀況의 解消에 알맞게 한다(공업지역, 불량주택 밀집지역등).

●地方自治單位 發展構想

- 地目制實施와 關聯, 合理的이고 計劃的인 區政實現을 위한 區單位的 發展構想이 必要하다.
- 이는 都市計劃에서 提示하고 있는 基本理念和 方向의 범주내에서 都市現況調査 實施와 이를 바탕으로한 諸計劃의 具體的 實行計劃樹立에 重點을 두어야한다.

人口 및 土地利用計劃

■ ' 口

●現況 및 問題

舊都城內를 중심으로 單一中心構造로 성장해온 서울시는 도시의 諸機能이 이들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교통문제, 도심지역에서의 住居機能 衰退 등이惹起되었을 뿐더러 도시정비 및 개발을 시장「메카니즘」(mechanism)에 맡김으로써 주거기능은 도시 주변부로 분산·입지되었다. 또한 도심에 接한 區의 경우, 특히 東大門·城北區 등은 대부분 경사지인 데도 불구하고, 400人/ha 전후의 高密度地域이다. 이는 接近性이 양호한 지구의 過密現狀이라고 思料된다.

급증하는 人口를 收容하기 위하여 大部分地域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강남·서초·송파구등의 경우 人口密度는 約 200人/ha로 기성시가지의 고밀화현상과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지역이 開發進行市街地인 때문에 少료된다.

●課題

- 기존의 활력이 集積된 舊市街地가 斜陽化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활편의시설의 均衡이용이란 측면을 고려한 人口配分을 한다. 都心 및 既成市街地의 空洞化

및 斜陽化 방지를 위해 기성시가지 재활성화가 필요하며, 도시생활편익시설 이용의 最低水準을 확보하기 위하여 面積・人口 兩側面에서 適正配置가 요구된다.

- ・新開發에 대한 체계적인 밀도계획으로 과밀주거지의 적정화를 誘導한다.
- ・서울에서의 적정규모인구 유지를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각종 기능의 분산과

區別人口現況

(단위: 千人, %)

| 區 分 | | | 1981 | 1986 | 年平均人口增加率 | 純密度 |
|------------|---|---|---------------|--------------|----------|-------|
| 總 | 人 | 口 | 8,759 | 9,935 | 2.7 | |
| 서 | 울 | 시 | 8,676 (100.0) | 9,799 | 2.6 | 312.8 |
| 강 | 북 | 계 | 5,074 (58.5) | 5,242 (53.5) | 0.7 | 329.8 |
| 鍾 | 路 | 區 | 292 | 262 | △2.1 | 182.3 |
| 中 | | 區 | 239 | 205 | △2.8 | 235.1 |
| 龍 | 山 | 區 | 337 | 327 | △0.6 | 290.2 |
| 城 | 東 | 區 | 709 | 753 | 1.2 | 335.3 |
| 東 | 大 | 門 | 868 | 951 | 1.9 | 417.7 |
| 城 | 北 | 區 | 590 | 583 | △0.2 | 378 |
| 道 | 峰 | 區 | 775 | 862 | 2.2 | 301.3 |
| 恩 | 平 | 區 | 403 | 447 | 2.2 | 360.2 |
| 西 | 大 | 門 | 422 | 401 | △1.0 | 214.5 |
| 麻 | 浦 | 區 | 439 | 451 | 0.5 | 431.2 |
| 강 | 남 | 계 | 3,602 (41.5) | 4,557 (46.5) | 9.8 | 295.3 |
| 江 | 西 | 區 | 512 | 703 | 5.9 | 407.3 |
| 九 | 老 | 區 | 595 | 706 | 3.7 | 300.3 |
| 永 | 登 | 浦 | 441 | 455 | 0.6 | 309.7 |
| 銅 | 雀 | 區 | 392 | 403 | 0.6 | 362.4 |
| 冠 | 岳 | 區 | 515 | 562 | 1.8 | 331.0 |
| 江 | 南 | 區 | 528 | 792 | 10.0 | 198.3 |
| 江 | 東 | 區 | 589 | 936 | 11.8 | 303.9 |
| 果川 및 京畿道地域 | | | 83 | 136 | 12.8 | — |

자연증가억제시책을 계속 추진하며, 서울에 인구 증가를 초래할 산업시설등의 입지를 강력히 규제하고, 수도권신도시로의 기능이전을 통한 권역내 인구재배치를 도모하며,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금융 및 세제측면에서의 각종 지원 및 규제시책을 강구한다.

■ 土地利用

● 現況 및 問題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자원은 總 708.387km²이나, 이중 開發制限區域·既指定된 道 및 지형·지세에 따른 개발불가능지를 제외한 개발가능지는 399.44km²로 이중 약 85%인 317.93km²는 既市街化된 狀態이다. 開發可能한 未開發地도 극히 一部地域을 제외하고,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지구 주변의 소규모 殘餘地, 혹은 기성시가지 내부의 소규모 공지형태로 散在되어 있는 것으로, 計劃的인 開發이 불가능한 뿐더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렵다. 그러나 인구의 持續的인 증가와 생활어진 향상에 따른 都市施設·生活便益施設 등의 입지요구는 증대되어 가고 있으나, 토지자원의 한계로 土地需要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課題

기성시가지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面的인 토지이용으로 粗放的으로 土地資源을 利用하였기 때문에, 현재 달성가능한 立體的 토지자원(延床面積)은 積極活用하지 못한 狀態이다. 따라서 한정된 토지자원下에서 新規土地需要를 充當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입체적으로 활용가능한 空間的 餘裕에서 찾아야 한다.

■ 人口配分 및 土地利用計劃

● 基本原則

- 都市骨格을 형성하는 전철망과 역을 중심으로 한 高密開發 誘導
 - ① 住居地域內 1次 驛勢圈은 高密化(平均 約 600人/ha)
 - 住居地域內 2次 驛勢圈 中密化(平均 約 320人/ha)
 - ② 驛勢圈 開發計劃參照
- 舊市街地의 斜陽化·空洞化 等の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複合的 土地利用을 유도하여 주거기능 회복
- 限定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적극 권장
- 경사지에 과밀상태의 住居形態는 억제하며, 粗放的 토지이용을 보이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정비·개발하여 증가된 인구를 수용

●人口配分 및 土地利用計劃

지역내 未開發土地가 많아 계획적인 고도이용이 가능한 道峰·江南·江西·江東區에 약 526千인이 居住할 것으로 예상되며, 人口增加에 따른 신규토지수요는 산재된 空地 및 立體的 餘裕空間을 활용하는 内部充墳의 이용을 원칙으로 개발 가능한 녹지자원중 0.73km를 住居地化한다.

· 自然綠地의 주거지화를 억제하며, 개발제한구역에 連接한 녹지와 대규모 사업 계획이 수립된 녹지자원은 보전하도록 한다.

■ 生活便益施設

●現況 및 問題

도심지역은 과거로부터 住居機能이 集結되어, 그 나름대로 생활편익시설 및 공공시설 등이 입지되어 있었으나, 住居機能의 萎縮에 따른 人口減少로 教育施設 等은 他地域으로 移轉·閉鎖되고 이전적지는 대부분 업무시설용지로 再活用됨으로써, 주거환경 및 시설이용의 불편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한편 1가 급격히 증가하는 번두리 지역은 과거에 도심지역의 도시시설 및 편익시설을 重点配置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소홀히 함으로써 急激한 需要를 수용할 施設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시민의 생활수준향상과 인구의 증가로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需要 및 要求는 증가될 전망이나, 이들 施設을 平等하게 利用하도록 배치하고자 하여도 一部 新開發地를 제외하고는 既市街化된 상태로 施設立地用地가 없는 상태이다. 또한 既成市街地를 중심으로 시설이 偏在되어 있어 均質의 시설이용이 어렵다.

●課題

· 한정된 토지자원과 가시화된 지역의 균등한 시설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생활시설 입지를 위한 부지가 부족하고, 편재된 시설의 분산적인 재배치에 한계성이 있으며, 이전적지의 활용이 해결 과제이다.

區別人口配分計劃

| 區 分 | 인구배분(千人, %) | | | | | 면 적(km) | | 2001년의 인구밀도(人/ha) | |
|--------|------------------|------------------|-------------------|-------------------|-------------------|---------|--------|-------------------|-----|
|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총면적 | 시가화면적 | 총밀도 | 순밀도 |
| 總 計 | 8,759 (100.0) | 9,935 (100.0) | 10,580 (100.0) | 11,267 (100.0) | 12,000 (100.0) | 708.39 | 394.44 | 169 | 304 |
| 강 북 계 | 5,074 (57.9) | 5,242 (52.6) | 5,314 (50.2) | 5,426 (48.2) | 5,550 (46.2) | 295.20 | 191.28 | 186 | 290 |
| 중 로 구 | 292 (3.4) | 262 (2.6) | 280 (2.7) | 320 (2.8) | 340 (2.8) | 24.01 | 15.90 | 142 | 213 |
| 중 구 | 239 (2.8) | 205 (2.1) | 215 (2.0) | 230 (2.0) | 240 (2.0) | 9.99 | 8.59 | 240 | 279 |
| 용 산 구 | 337 (5.0) | 327 (3.3) | 345 (3.3) | 395 (3.5) | 420 (3.5) | 21.90 | 15.57 | 192 | 270 |
| 。 동 구 | 709 (8.2) | 753 (7.6) | 750 (7.1) | 745 (6.7) | 740 (6.2) | 33.90 | 24.68 | 218 | 300 |
| 동대문구 | 868 (10.0) | 951 (9.6) | 494 (4.7) | 481 (4.3) | 470 (3.9) | 14.25 | 13.40 | 330 | 351 |
| 중 랑 구 | — | — | 421 (4.0) | 409 (3.6) | 400 (3.3) | 18.54 | 11.96 | 216 | 334 |
| 성 북 구 | 590 (6.8) | 583 (5.9) | 534 (5.0) | 465 (4.1) | 440 (3.7) | 24.29 | 17.87 | 181 | 246 |
| 도 봉 구 | 775 (8.9) | 862 (8.7) | 470 (4.4) | 515 (4.6) | 568 (4.7) | 30.30 | 15.65 | 187 | 363 |
| 노 원 구 | — | — | 490 (4.6) | 537 (4.8) | 592 (4.9) | 49.81 | 23.25 | 119 | 255 |
| 은 평 구 | 304 (4.6) | 447 (4.5) | 455 (4.3) | 460 (4.1) | 465 (3.9) | 26.69 | 12.46 | 157 | 373 |
| 서대문구 | 422 (4.9) | 401 (4.0) | 400 (3.8) | 400 (3.6) | 400 (3.3) | 17.68 | 13.67 | 226 | 293 |
| 。 포 구 | 439 (5.0) | 451 (4.5) | 460 (4.3) | 469 (4.2) | 475 (3.9) | 23.84 | 18.28 | 199 | 260 |
| 강 남 계 | 3,602 (41.1) | 4,557 (45.9) | 5,102 (48.2) | 5,661 (50.2) | 6,250 (52.1) | 310.23 | 198.10 | 201 | 315 |
| 강 서 구 | 542 (6.2) | 703 (7.1) | 427 (4.0) | 458 (4.1) | 493 (4.1) | 43.50 | 24.65 | 113 | 200 |
| 양 천 구 | — | — | 353 (3.3) | 377 (3.3) | 407 (3.4) | 15.44 | 13.08 | 264 | 311 |
| 구 로 구 | 595 (6.9) | 706 (7.1) | 690 (6.5) | 675 (6.0) | 660 (5.5) | 32.94 | 25.63 | 204 | 258 |
| 영등포구 | 441 (5.1) | 455 (4.6) | 460 (4.3) | 480 (4.2) | 485 (4.0) | 24.54 | 15.81 | 198 | 307 |
| 동 작 구 | 392 (4.5) | 403 (4.1) | 410 (3.9) | 440 (3.9) | 450 (3.8) | 16.38 | 13.42 | 275 | 335 |
| 관 약 구 | 515 (5.9) | 562 (5.7) | 560 (5.3) | 560 (5.0) | 560 (4.7) | 29.61 | 16.61 | 189 | 337 |
| 강 남 구 | 528 (6.1) | 792 (8.0) | 534 (5.0) | 707 (6.3) | 895 (7.5) | 37.60 | 24.54 | 238 | 365 |
| 서 초 구 | — | — | 588 (5.6) | 778 (6.9) | 985 (8.2) | 48.84 | 23.56 | 202 | 418 |
| 강 동 구 | 589 (6.8) | 936 (9.4) | 524 (5.0) | 579 (5.1) | 638 (5.3) | 24.20 | 14.22 | 263 | 449 |
| 송 파 구 | — | — | 556 (5.3) | 615 (5.5) | 677 (5.6) | 34.08 | 26.58 | 199 | 255 |
| 과천및경기도 | 83 (1.0) | 136 (1.4) | 164 (1.6) | 180 (1.6) | 200 (1.7) | 102.96 | 98.30 | 19 | 20 |

■ 方向

- 高密度居住가 불가피한 상태에서 각종 시설만을 粗放的으로 土地利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각종 시설의 運營體系 改善 및 統合으로 共同化, 立體化로 부지 수요를 節約해야 하고, 施設基準에 대한 再檢討(最少面積, 最少規模 등)와, 아파트 團地內 시설부지를 別途敷地로 해야 하는 現行基準을 재검토하여 아파트 1層에 幼稚園, 學校 등, 層上에 其他 施設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각종시설 移轉跡地는 모처럼 발생한 덩어리 敷地 또는 대규모 土地이므로 그 활용계획은 社會福祉施設 配置計劃 등을 充分히 勘案해야 할 것이다.
- 民間部門의 생활편익 및 사회복지시설 참여를 적극권장하고, 시설을 造成寄附할 수 있는 「인센티브」(incentive)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PART II

部門別 發展計劃

Hi Seoul

SOUL OF ASIA

1

快適하고 健康한 都市

■ 住宅

■ 産業開發

■ 生活環境 施設

上水道

下水道

清掃

에너지

環境汚染

都市防災

■ 健康한 市民

醫療・保健

社會福祉

SOUL OF ASIA

住宅

現況分析 및 課題

■ 住宅現況

● 주택부족문제

· 서울시는 急激한 都市化의 진행과 인구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住宅需要世帯의 증대로 인하여 심각한 주택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85年 11月 現在 住宅總數는 1,176,162戶로,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2,324,219의 住宅普及率은 50.8%이다.

· 住宅類型별로 보면 單獨住宅이 58.6%, 아파트 26.1%, 聯立住宅이 11.6%로 토지자원 한계에 따른 高密度 趨勢에 따라 아파트 및 聯立住宅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平均 家口員數는 4.04人이며 戶當 家口數가 서울시 平均 1.97가구로 1住宅 2家口 형태로 주거하고 있다.

類型別 住宅數

(단위: 호, %)

| 區 分 | 계 |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
| 1975 | 763,084 | 674,689(88.4) | 71,179(9.3) | 17,216(2.3) |
| 1980 | 993,661 | 726,740(73.1) | 194,182(19.5) | 72,739(7.3) |
| 1985 | 1,176,162 | 688,740(58.6) | 306,398(26.1) | 137,011(11.6) |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각년도

· 住宅建設實積은 매년평균 약 47,000戶 정도로, 가구증가율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主體別 建設實積

| 區 分 | 건설실적 | | | 주체별 비율(%) | | |
|------|--------|---------|------|-----------|------|------|
| | 계획 | 실적 | % | 市 | 住公 | 民間 |
| 1981 | 55,000 | 33,052 | 60.1 | — | 5.3 | 94.7 |
| 1983 | — | 63,834 | — | 4.2 | 20.3 | 75.5 |
| 1985 | 67,000 | 31,953 | 47.7 | — | 8.9 | 91.1 |
| 1988 | — | 107,323 | — | 9.6 | 26.9 | 63.5 |

자료: 대한주택공사, 주택랜드북, 1988.

●과밀 주거문제

- 1985年 人口 및 住宅開支에 의하면 서울시 總 保有실수가 4,922,000室으로 人口 1人當 0.53室, 1家口當 2.13室, 1住宅當 4.19室이다.
- 서울시 總家口 2,321,219가구(1985年 現在) 중 家口 1人數가 4人以上인 가구가 1,514,766家口로, 이 중 約 27.2%인 411,981가구가 房 1個에서 居住하는 過密居住 상태로, 全家口對比 17.7%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室數의 總在庫로는 平均 1家口 2.13室로 過密水準이 아니므로 室數의 配分이 편제되어 있음을 거둔다.
- 家口 1人當 0.3室 以上을 최소주거수준이라 할때 이를 正常居處家口라 하면 서울시 正常居處家口數는 전체중 80.6%이며, 성동구와 구로구 경우 過密家口比가 23.2%, 23.4%로 심각한 주거문제를 惹起하고 있다.
- 현재의 주택계획은 住宅普及率을 기준으로 總家口중 일반家口를 집단가구를 除外한 주택수요가구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주택수 만큼을 공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85年 현재 15%의 同居家口가 있는데, 이들 동기 家口중 相當數가 單一家口, 專用住居 못지 않는 良好한 住居水準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所有와 住居의 水準과는 특히 서울의 경우 오랫동안 住宅의 傳貫同居가 일반적인 定住形態로 보편화 되어 있다.
- 85年 現在 서울시 1주택 一家口 居住率은 全家口의 26%이며 同居家口는 約 69%(約 4%는 住宅外居住)로서, 3家口중 2家口는 他家口와 同居하고 있고 이들중 95%以上이 獨立住宅에 共住하고 있다.
- 共住 住宅중 家口當 2室 未滿의 狀態로 居住하거나, 1室當 4人以上 居住하는 過密家口는 全體家口의 23.2%를 占有하고 있다.
- 따라서 앞으로의 住居복지개선은 주택부족율에 따른 住宅供給의 接近에서 탈피, 多家口의 同居形態를 認定하여 住居 水準의 基準(家口當 화장실, 부엌, 2室:1室當 3人 以下)을 充足하는 正常居處狀態比率를 향상시키는 方向으로의 努力이 必要하다.
- 그리고 現在 서울시 住宅建設實績중 約 25%는 單獨住宅으로 대부분 賃를 주고 있고, 賃를 주는 部分이 화장실, 부엌이 있는 경우 同規模型 아파트를 供給하는 것과 같은 效果가 있다. 이러한 接近은 주택부족율과 主호부족율을 구분하는 것으로 단독주택을 層別貸貸하는 경우 住宅棟數는 1棟이나 住居保有量으로는 2住居로 計定하는 것이다.

| 區 分 | 가구수 | 정상거주가구 | | 과밀 가구 | | |
|-----|-----------|-----------|-------|---------|---------|---------|
| | | 가구수 | 비율(%) | 소계 | 4인/室 | 5人以上/室 |
| 총 계 | 2,324,219 | 1,877,364 | 80.6 | 446,855 | 259,297 | 187,558 |
| 강북계 | 1,253,955 | 995,472 | 79.4 | 258,483 | 148,770 | 109,713 |
| 중 로 | 66,168 | 54,317 | 82.1 | 11,851 | 6,366 | 5,485 |
| 중 구 | 52,900 | 42,643 | 80.6 | 10,257 | 5,642 | 4,615 |
| 용 산 | 80,113 | 67,000 | 83.6 | 13,113 | 7,399 | 5,714 |
| 성 동 | 180,544 | 138,700 | 76.8 | 41,844 | 24,349 | 17,495 |
| 동대문 | 225,966 | 173,819 | 76.9 | 52,147 | 29,619 | 22,528 |
| 성 북 | 140,701 | 110,151 | 78.3 | 30,550 | 17,201 | 13,349 |
| 도 봉 | 201,173 | 161,055 | 80.1 | 40,118 | 25,385 | 14,733 |
| 은 평 | 100,557 | 80,981 | 80.5 | 19,576 | 10,924 | 8,652 |
| 서대문 | 96,835 | 78,541 | 81.1 | 18,294 | 10,008 | 8,286 |
| 마 포 | 108,998 | 88,265 | 81.0 | 20,733 | 11,877 | 8,856 |
| 강남계 | 1,070,264 | 881,892 | 82.4 | 188,372 | 110,527 | 77,845 |
| 강 서 | 163,510 | 131,628 | 80.5 | 31,882 | 19,525 | 12,357 |
| 구 로 | 168,616 | 129,078 | 76.6 | 39,538 | 23,595 | 15,945 |
| 영등포 | 109,697 | 86,276 | 78.6 | 23,421 | 13,368 | 10,053 |
| 동 작 | 97,532 | 77,781 | 79.7 | 19,751 | 11,407 | 8,344 |
| 관 약 | 130,850 | 103,197 | 78.9 | 27,653 | 15,549 | 12,104 |
| 강 남 | 183,600 | 169,222 | 92.2 | 14,378 | 8,408 | 5,970 |
| 강 동 | 216,459 | 184,710 | 85.3 | 31,749 | 18,675 | 13,074 |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85.

●주택가격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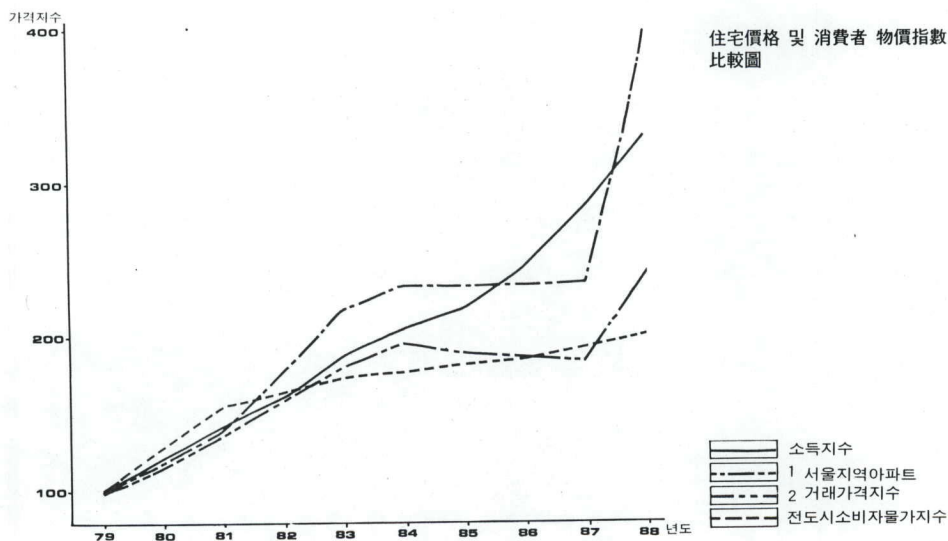
· 주택가격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이는 주택이 상품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런 주택가격상승추세에서 경쟁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공식적인 주택시장에서 소외되어 무허가 주거지를 형성하거나 불량주택에서 거주하게 되고 있다.

· 또한 소득지수와 비교할때도 그 증가율의 격차가 심해 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중산화계층층이 금융지원을 받아도 주택을 구입할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住宅價格 및 消費者 物價指數 比較

| 년도 구분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
| 소 득 지 수 | 100 | 120.4 | 144.5 | 163.1 | 187.2 | 206.9 | 221.7 | 247.4 | 288.9 | 338.0 |
| 서울지역아파트 거 래 가 격 지 수 ¹⁾ | 100 | 116.4 | 141.8 | — | 221.8 | 232.7 | 232.7 | 232.7 | 234.5 | 400 |
| 2 | 100 | 116.4 | 140.0 | — | 181.8 | 196.4 | 190.9 | 187.3 | 176.4 | 245.5 |
|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 | 100 | 128.7 | 156.1 | 167.4 | 173.1 | 177.1 | 181.4 | 186.5 | 192.1 | 201.4 |

단.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가격 지수 : 1. 만포주공아파트 32평, 2. 신만포 한신아파트 33평)



●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

· -85년 그 5년동안 주택유형별 建坪變化率을 보면 대부분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서울시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요구분석조사) 20평이하 주택만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多家庭가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인 20평이하 단독주택의 감소가 두드러짐을 보이고 있다.

· 이는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재고의 감실을 말하는 것이며 이로써 저소득층은 과밀한 주거상태에 놓인 것은 물론 合同再開發과 같은 再整備計劃으로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서울시 住宅類型別 건평변화율

(단위: %)

| 구 분 | 총변화율 |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기 타 |
|--------|-------|-------|--------|--------|-------|
| 7평미만 | -14.5 | -22.2 | 36.3 | -24.0 | 19.1 |
| 7-9 | -51.9 | -54.5 | -63.1 | -37.6 | -22.5 |
| 10-14 | -16.6 | -38.5 | 19.9 | -8.5 | 20.2 |
| 15-19 | 4.7 | -19.8 | 88.3 | 22.7 | 62.4 |
| 20-29 | 29.6 | 0.9 | 92.8 | 151.3 | 49.8 |
| 30-39 | 73.5 | 44.2 | 79.8 | 1119.3 | 76.0 |
| 40-49 | 49.3 | 29.3 | 133.7 | 641.5 | 44.8 |
| 50-69 | 97.4 | 89.3 | 141.1 | 739.2 | 79.9 |
| 70-99 | 127.5 | 136.2 | 119.8 | 116.3 | 58.6 |
| 100평이상 | 68.5 | 97.7 | -100.0 | -100.0 | 25.9 |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80, 1985.

■ 課題

- 주택의 大量生産으로 재고를 늘려 공급과 수요의 극심한 격차에서 오는 住宅價格의 上昇을 막아야 한다.
- 주택문제는 政策圈내로 수용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상적인 주택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住居問題는 公共이 해결해야 한다. 이는 주택정책을 계층별로 특화하여 樹立해야함을 의미하는데,
- ・ 正常所得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을 위해선 民間次元的 公營계획을 하며,
- ・ 中産化可能階層이라 할수 있는 공식부문 종사자들을 위해선 金融制度改善策을 강구하고,
- ・ 소득이 불안정하여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소유할 필요가 없는 계층을 위해선 賃貸住宅供給計劃을 수립, 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住宅需要推定

住宅의 需要를 展望하기 위하여 다음式을 사용한다.

住宅總需要 = 住宅實需要家口數 + 空家數 + 減失住宅數

여기서 住宅總需要家口數는 總人口에서 學生(주로 大學生), 下宿 또는 寄宿人, 家庭婦等 獨立住宅을 필요로 하지않는 非住宅人口數(總人口의 약10%)를 除外人口를 家口當 人員數로 나누어 구한다.

空家は 投機性住宅, 建築中인 住宅등인데 實需要住宅의 2.5%를 적용한다. 減失住宅數는 不良住宅撤去, 老朽住宅改築 등으로 생기는데 現保有住宅의 1.2%, 즉 每年 12,000戶씩 代替需要가 생기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式은 住宅普及率 100%일때의 需要量 이므로 段階別 住宅普及率을 適用하여야 住宅實需要 量이 算出될 것이다.

그러므로 住宅實需要 推定式은 다음과 같이 表現된다.

$$D = \frac{P(1-n)}{d} \times (r + v) + Hd$$

D = 住宅實需要量 r = 住宅普及率

P = 總人口 d = 家口當 人員數

v = 空家率(住宅實需要家口數의 2.5%)

Hd = 減失住宅數(年間 12,000戶)

n = 住宅非需要人口比率(總人口의 10%, $0 < n < 1$)

上記式에 의한 長期住宅需要量의 推定은 다음과 같다.

住宅需要推定

| 구 분 | 인 구 (千人) | 가구원수 (人) | 가구수 (千戶) | | 공가수 (千戶) | 감 실 주택수 (千戶) | 주 택 총수요 (千戶) | 주 택 보급율 (%) | 실주택 수 요 (千戶) | 공 급 주택수 (千戶) | 누 계 (千戶) |
|------|-------------|-------------|----------|-------|-------------|--------------------|--------------------|-------------------|--------------------|--------------------|-------------|
| | | | 총 수 | 주택실수요 | | | | | | | |
| 1988 | 10,287 | 3.9 | 2,658 | 2,393 | 60 | 12 | 2,512 | 55.6 | 1,397 | | |
| 1991 | 10,580 | 3.9 | 2,713 | 2,442 | 61 | 12 | 2,563 | 61.9 | 1,586 | 189 | |
| 1996 | 11,267 | 3.7 | 3,045 | 2,741 | 69 | 12 | 2,870 | 64.7 | 1,857 | 271 | 460 |
| 2001 | 12,000 | 3.4 | 3,529 | 3,176 | 79 | 12 | 3,315 | 67.1 | 2,224 | 367 | 827 |

註 : 1988년치는 현황

住宅供給計劃

■ 基本方向

서울시는 매년 6-8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住宅不足의 누적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住宅需要의 급증을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住宅所要家口數 증가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 주택보급율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購買力을 전제로한 주택공급정책은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매능력에 맞는 階層別 供給戰略이 필요하다.

주택건설을 위해 필요한 未開發地는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筆地單位の 공지로 남아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 주택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선 不良住宅再開發, 驛勢圈開發, 複合建物化 및 移轉適地の 선택적 택지개발등 시가지 정비를 통해 宅地不足을 극복하고 공급한다.

주택공급은 公共과 民間이 그 역할을 보완하며 이루어야 하는데, 공공은, 택을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小規模의 임대를 위한 共同住宅을 공급해야 한다. 民間住宅供給業體 중 대규모자본의 업체는 주택의 工業化를 꾀하여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소규모의 건설업체는 1 住宅多家族居住型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한 신축과 증, 개축에 힘써야 한다.

공동주택의 普及擴大 및 住宅在庫의 管理를 강화해야 한다. 안정적 주택공급과 住宅普及率 확대를 위해서 고밀도 公共住宅中心의 공급은 불가피하며 그 관리 또한 資源節約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 住宅供給計劃

● 住宅供給計劃

· 2001년까지 67.1%의 住宅普及率을 위해선 감실주택을 감안하여 88년기준 약 90만호 정도를 공급해야 한다(주택수요추정 참고).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

로 88년부터 92년까지 5년동안 40만호를 건설공급한다. 이때 공공(서울시와 주택공사) 부문은 總供給의 37.5%인 15만호 건설을 담당하고 나머지 25만호를 민간이 공급한다. 8만호의 영구임대 주택과 7만호의 長期賃貸住宅은 주로 공공 부문에서 공급한다.

●宅地所要推定

· 88년부터 시작하여 92년까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르면 건설호당 30평을 기준, 총복표호수의 78%만 신규택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약 5, 700만평의 신규택지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서울은 40만호를 1호당 18 평기준으로 700만평의 택지에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 이 기준에 따라 목표년도 2001년까지 약 90만호를 건설한다고 할때 대략 1,260 만평의 택지가 소요된다(국민주택규모 25.7평에 택지 21평소요 기준). 그러나 서울의 경우 현재 市街化可能地 57.94km² 모두를 택지와 한다면 44만호만을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가지의 토지이용을 제고를 위한 재정비는 불가피하다.

· 85년센서스에 의하면 주택 117.6만호중 59%가 단독주택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인구와 가구는 73%, 地地面積은 78%나 된다. 그러나 容積率은 불과 50%도 되지 않았는데 70년대말 건립된 아파트의 평균 용적율이 163%임에 비해 엄청난 潛在力을 지녔음을 알수 있다. 그 잠재력을 계산하여 보면 단독주택전체를 아파트로 할때 264만호, 반정도만 개발했을 때 176만호의 아파트건립이 가능함을 보인다. 그러므로 신규택지로서는 공급불가능한 나머지 46만호 정도는 노후주거지의 高密度再開發에 의해 충당할 수 있다.

서울시 短期住宅供給計劃

(단위: 戶)

| 구 분 | 계 | '88 | '89 | '90 | '91 | '92 |
|-----|---------|--------|--------|--------|--------|--------|
| 계 | 400,000 | 63,700 | 72,000 | 82,300 | 86,000 | 96,000 |
| 서울市 | 80,000 | 7,200 | 14,000 | 17,000 | 20,000 | 21,800 |
| 住 公 | 70,000 | 6,200 | 12,000 | 14,600 | 17,900 | 19,300 |
| 民 間 | 253,000 | 50,300 | 46,000 | 50,700 | 48,100 | 54,900 |

單獨住宅地 高層化로 건설가능한 아파트棟數

| 考 慮 事 項 | 單 獨 住 宅 地 全 體 開 發 時 | 單 獨 住 宅 地 半 程 度 開 發 時 |
|--------------------------------------|------------------------|--------------------------|
| · 單獨住宅 空地面積 (km) | 145.5 | 145.5 |
| · 아파트 容積率 150%일때 建築延面積 (km) | 218.3 | 145.5 |
| · 現在 單獨住宅 延面積 (km) | 72.8 | 72.8 |
| · 單獨住宅地 高層化로 追加 possible 延面積 (km) | 145.5 | 72.7 |
| · 平均 아파트 面積 (km) | 82.6 (25평) | 82.6 |
| · 追加로 늘어날 아파트 棟數 | 176萬棟 | 88萬棟 |
| · 現在 單獨住宅 延面積을 包 含할 境遇 總아파트棟數 | 264萬棟 | 176萬棟 |

출처 : 유재현, 재건축을 통한 도시토지이용률제고방안, 제4회 한일 주택협의회, 건설부 주택국, 1989. 8.



■ 現況

- 서울시의 산업구조는 2·3차 산업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1986년 현재로 서울시 지역총생산 249,189億원 가운데 農林漁業은 1,737억원으로 0.7%밖에 되지 않고 非農林漁業이 나머지 99.3%를 차지 하고 있으며, 非農林漁業 가운데 廣工業은 49,481億원으로 19.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業은 197,971億원으로 78.4%에 이르고 있으며, 絶對額에서는 모든 산업이 증가해 왔으나 구성비에 있어서는 3차산업만이 증가하고 다른 부분은 감소한 경향을 보여오고 있다.
- 産業別로의 구성직종은 매우 다양하게 되어 있으나, 제조業의 경우는 섬유·화학제조業과 금속·기계제조業, 고무·프라스틱 제조業, 食品료품제조業등이 大宗을 이루고, 제3차산업의 경우는 상업, 건설業, 무역, 금융, 정보, 서비스業등이 中心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 課題

- 서울시의 산업구조는 앞으로 대도시형의 반공업적 형태로 변화되어 갈 것이므로 광공업의 산업 및 취업구조상 비중은 점차 저하되고 반면에 부가가치가 높은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부문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며, 이 가운데 특히 국제적 교역, 정보 및 지식, 중추적 관리 등의 분야가 급속히 발전되어갈 것이므로 이런 변화에 따른 역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적이고 건전한 산업구조를 이루도록 유도해야 한다.
- 제조業의 약화로 야기될지도 모르는 서울시의 경제침체와 실업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3차 산업의 확대에 따른 필요인력의 확보를 가능하게하여, 영세상업 및 소규모의 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할것이다.
-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기능의 전환에 따른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의 확립은 또 하나의 중요한 課題인바, 용도의變更 내지 새로운 용도의 발생에 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변화와 새로운 공간확보가 필요하고,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交通網體系의 재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産業開發計劃

■ 基本方向

● 基本目標

서울시의 산업개발은 首都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内外의 效果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그 基調로 한다.

- 경제성장의 촉진—서울시 경제는 국가전체의 경제를 좌우하므로 경제성장이 가속되는 방향으로 서울시의 산업을 개발한다.
- 시민소득의 提高—증가하는 노동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취업구조의 고도화—제조업과 영세기업으로 되어있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高附加價値의 산업체제로 전환해 간다.
- 對外競爭力의 강화—국내에는 물론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 국가중추산업의 지위를 공고히 하도록 한다.
- 중심역할의 유지—수도권 및 전국에서 차지하는 중심적 지위와 국제교류의 主役 역할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 推進方向

서울시 산업개발의 기본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脫工業體制로의 전환—공업부분의 산업활동은 점차 축소 내지 현상유지 시키고 반면에 교양, 정보, 관광, 업무, 서비스 등의 3차산업을 육성·강화한다.
- 산업구조전환의 연결화—脫工業化, 업무구조화 과정에서 時間的 間隔으로 산업의 발생과 경기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적 연계화를 도모한다.
- 산업간 연계성의 확보—분업화되고 이질화되는 산업들의 상호간에 波及性과 誘發性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결시킨다.
- 서비스 領域의 계층화—산업개발의 서비스範圍을 제1차는 서울시, 제2차는 수도권, 제3차는 전국, 제4차는 세계로 설정하여 계층화 한다.

- 기술수준의 提高—새로운 산업발달을 주도하고, 對外競爭力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기술을 개발, 보급한다.

● 遂行戰略

서울시 산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타당하고도 효과적인 전략이나 방법을 강구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 도시형 산업의 抽出·育成—대도시의 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발전시킨다.
- 전문인력의 양성·확보—고도화된 산업체제에 부응하여 필요한 전문적 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 유통체계의 강화—산업발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장·정보 등의 유통체계를 강화하여 교역을 원활하게 한다.
- 자율성의 提高—산업 및 경제활동을 자율화하고 자유경쟁체제를 강화하여 정부는 여건조성 및 지원에 치중한다.
- 토지이용의 효율화—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産業別로 적절히 확보하게 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 공간적 배치의 적정화—생활권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균형개발을 가능하도록 한다.
- 지원시설의 확대—生産 및 서비스기능을 올바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을 위시한 諸般施設을 완비하도록 한다.

■ 産業別 開發計劃

● 製造業

- 서울시의 제조업은 더 이상의 量的 膨脹을 지양하고, 2000년대의 서울像에 적합한 규모로 안정시켜 나가야 하므로 대규모공장과 공해공장등은 지방의 공단으로 移住시키고, 무공해적이고 정보·지식 및 유통기능적인 도시형산업만을 集團으로 배치시키도록 한다.

- 공업지역은 도시형공업 중심으로 재조정 되어야 하므로 대규모 및 공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존공업지역을 조정하며, 도시형공업을 위한 一團의 산업단지를 난지도에 건설하도록 한다.

●商業, 및 流通施設

- 서울시의 상업기능은 都市商業에 더 많은 수요를 가져올것이므로 재래시장과 近代流通市場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한다.
- 상업기능의 近代化를 도모하기 위해 도심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상업시설은 도심밖으로 이전시켜 도심기능을 純化시키고 부도심개발에 따라 부도심의 특성에 적합한 商業流通機能을 강화하며 지구중심의 종합소매업시장개발과 재래시장의 再開發을 촉진한다. 또한 수산물, 농산물, 청과물, 무연탄, 목재, 유류 등 특수물품은 도심을 피한 지역에 集團化시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施設計劃: 시가지중심적 유통단지의 立地는 교통인구유발, 공해발생, 미관저해 등의 外的 부작용과 전차혼란, 시설미비, 규모잉여화 등의 內的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므로 지역간의 교통연계편리, 단지화의 利点, 생활권별 유통기능의 안배라는 원칙에 따라, 남동부, 북동부, 북서부에 각각의 유통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산업별 特化團地를 개발해야 할 것인바 도시성격상 대량수요

서울시의 方向別 流通團地計劃

| 방 향 | 위 치 | 면적(萬坪) | 품 수 대 상 |
|-----|---------|--------|-------------------------|
| 남동부 | 송파구 가락동 | 16.6 | 용산, 중, 송파, 강동, 강남, 시초일원 |
| 남서부 | 양천구 신정동 | 6.0 | 영등포, 구로, 강서, 동작, 양천 |
| 북동부 | 중랑구 신내동 | 8.0 | 도봉, 노원, 성북, 동대문, 중랑 |
| 북서부 | 경기도 신도읍 | — | 마포, 서대문, 은평 |
| 계 | 4개소 | — | |



를 발생시키는 기계, 자동차부속, 전기전자부품, 섬유등의 업종을 단지내에
 特化시킴으로써 교통, 토지이용, 유통질서상의 편익을 제고시키도록 하기 위
 해 구로, 장안, 용산 등에 特化團地를 건설하도록 한다.

서울시의 業種別 特化團地計劃

| 업 종 | 위 치 | 면적 (ha) |
|---------|-----|---------|
| 기계 부품 | 구로동 | 6.8 |
| 자동차 판매 | 장안동 | 25.2 |
| 전기·전자부품 | 용산동 | 9.6 |
| 계 | 3 | 41.6 |

●業務 서비스

· 서울이 갖고있는 국제적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급
 적 현재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사관지구, 올림픽 시설지구, 외국상사지
 구, 외국인전용상가 등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울시의 국제적기능을 위한 업무 서비스 지역설정

| 기 능 | 위 치 |
|-------------|-----|
| 대사관 지구기능 | 윤곡로 |
| 올림픽시설 지구 기능 | 잠 실 |
| 외국상사 지구 기능 | 소공동 |
| 외국인전용 상가 기능 | 이태원 |

· 수도로서의 공공적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기능, 입법기능,
 사법기능등을 여러곳의 부도심에 적절히 배치시키도록 한다.

서울시의 수도적기능을 위한 업무 서비스 지역 설정

| 기 능 | 위 치 |
|-------|--------|
| 행정 기능 | 광화문·과천 |
| 입법 기능 | 여의도 |
| 사법 기능 | 서초동 |

現況分析 및 課題

■ 現況

● 給水現況

· 人口의 増加와 文化水準의 向上으로 인하여 上水道使用量은 계속 증가하고는 狀態이며 1989年末 現在の 給水普及率은 97.7%이고, 8개의 淨水場에서 497만 m^3 /日의 施設容量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岩寺水源池(100만 m^3 /日)의 新設工事が 단계적으로 進行되고 있다.

· 그러나 漏水率이 아직도 47.3%를 차지하고 있어 效率的인 水資源管理의 必要性이 요구되고 있다.

● 配水池施設

1988年末 현재 총 75.8萬 m^3 의 配水池施設을 갖고 있으며 이중 5,000 m^3 이상의 大容量配水池는 11개로서 50萬 m^3 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容量은 기존施設 497萬 m^3 /日에 비해 3.7時間分에 불과하며, 基準容量인 8時間分 166萬 m^3 에 비해 상당히 不足한 設置이다.

● 加壓펌프장

서울시는 1985年末 현재 총 95개의 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대규모의 펌프장은 4개소이고, 나머지 91개소는 주로 地域的인 高地帶의 出水不足狀態를 解消하기 위한 小加壓펌프장이다.

加壓 펌프장 現況

| 펌프장명 | 施設台數 | 揚程 (m) | 容量 (m^3 /day) |
|----------------|------|--------|------------------|
| 大峴山 | 11 | 25~82 | 110,000 |
| 萬里洞 | 3 | 51 | 24,000 |
| 靑潭洞 | 6 | 45 | 226,000 |
| 牛眠山 | 10 | 35~56 | 577,000 |
| 小加壓場 (91개소) | 258 | 35~160 | 695,000 |

● 管渠現況

1988年末 現在 敷設되어 있는 總管渠延長은 17,466km이며, 매년 老朽管을 교체하고 있으나 1988년말 현재 總延長의 3%인 524km가 老朽되어 있어 漏水의 主要原因이 되고 있으며, 현재 부설되어 있는 配水管은 수지式配水管網으로 組織되어 있어 應急時나 漏水制御에 適切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送・配水 및 給水管 施設推移

(단위: km)

| 年 度 | 送配水管 | 給水管 | 計 |
|------|-------|--------|--------|
| 1976 | 2,310 | 8,524 | 10,654 |
| 1981 | 3,765 | 10,819 | 14,584 |
| 1986 | 6,025 | 10,758 | 16,783 |

老朽管推移

| 구 분 | 1974 | 1978 | 1983 | 1986 | 1988 |
|-----------|-------|--------|--------|--------|--------|
| 總延長(km) | 9,321 | 12,416 | 15,673 | 16,783 | 17,466 |
| 老朽管延長(km) | 485 | 405 | 1,562 | 1,070 | 524 |
| 老朽率(%) | 5.2 | 3.3 | 10.0 | 6.4 | 3 |

■ 課題

● 수원의 確保

· 수질보전상 상수도취수점 상류에는 하수 및 폐수의 유입을 금지시키고 상수도 수관으로 대체하며 상수도 수원은 오염이 비교적 적은 한강상류에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사원의 합리적 이용과 정수처리비의 절감을 위해 급수체계를 상수도과 중수도(잡용수도)로 이원화하는 수원의 창출방안에 대해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수도시설의 정비

· 누수제어, 수질보전, 수압조절 등을 위해 플러시시스템의 관망조직법을 도입하여 현재의 수지배수관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누수제어, 정수오염의 방지를 위해 신설될 모든 管路에는 防蝕대책이 마련된 관거만을 매설하도록해

야 할 것이다. 또한 불럭시스템으로서의 재정비와 함께 배수지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고지대와 저지대의 구분배수로 출수불량지구를 해소하도록 해야한다.

- 안보적 관점에서 취수시설, 정수시설 및 송배수시설을 지하구조물로 대체시키면서 상부를 공원 또는 녹지화하여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다단식, 입체식 시설을 이용하여 토지 이용도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處理施設の現代化

- 全淨水處理 및 送·配水系에서 水量·水質·水壓制御를 자동화할 수 있는 自動制御方式을 도입한다.
- 原水의 汚染에 대비하여 高度處理方式을 土着化 한다.
- 모든 시설의 建設과 運營에 에너지節約을 도모한다.

需要推定

- 上水道需要量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豫想되며, 1991年 以後는 100%의 給水普及率을 目標로 하여 2001年의 1日1人 平均使用量은 365ℓ에 달하며 管網의 整備와 管渠의 交替로 漏水量이 감소하여 有效率이 80%에 이르고 2001年의 1日 最大給水量은 747萬 m³/日이 所要된다.

- 配水地는 현재의 容量에서 대폭적인 增加가 있어야 하며 2001년에는 257萬 m³가 필요할 것으로 推定된다.

上水道 需要量 推定

| 區 分 | 單 位 | 1986 | 1991 | 1996 | 2001 |
|---------------------|--------------------|-------|--------|--------|--------|
| 計 劃 人 口 | 千人 | 9,935 | 10,580 | 11,267 | 12,000 |
| 給 水 普 及 率 | % | 97.7 | 100 | 100 | 100 |
| 給 水 人 口 | 千人 | 9,706 | 10,580 | 11,267 | 12,000 |
| 1人1日平均使用量 | ℓ/人·日 | 205 | 290 | 331 | 365 |
| 有 效 率 | % | 52.7 | 70 | 75 | 80 |
| 1人1日最大給水量 | ℓ/人·日 | 430 | 521 | 600 | 622 |
| 1日最大給水量 | 萬m ³ /日 | 422 | 552 | 677 | 747 |
| 配水地所要施設工場 (8시간분) | 萬 m ³ | 225 | 231 | 269 | 257 |

上水道施設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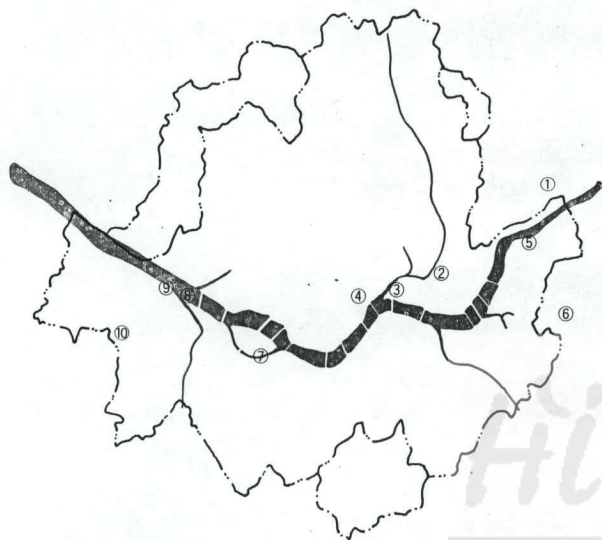
●水源池施設計劃

- 2001년에 798만 $\text{m}^3/\text{日}$ 의 施設容量이 所要될 것으로 推定되어 1986년의 施設容量 422萬 $\text{m}^3/\text{日}$ 에서 376萬 $\text{m}^3/\text{日}$ 로의 施設이 增設되어야 하며, 江北과 江南의 配水區域을 取水에서 給水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分離하도록 한다.
- 足豫想量중 江北地域은 鴨都水源池를 정비· 확장하여 50萬 $\text{m}^3/\text{日}$ 을 증산하고, 八堂 바로 下流인 水石에 130萬 $\text{m}^3/\text{日}$ 의 施設을 新設한다.
- 江南地域은 영등포 수원지를 60萬 $\text{m}^3/\text{日}$ 로 확장하고 岩寺水源池를 195萬 $\text{m}^3/\text{日}$ 로 확장하면 全淨水場에서 八堂水質과 비슷한 1급 源水를 확보할 수 있다.

●配水池 施設計劃

현재의 수직式配水管網에서 2001년까지는 配水池別 給水方法인 블럭시스템으로 管網組織을 再整備하며, 이에 따라 32개소에 大型配水池를 建設하여 總配水池容量 278萬 $\text{m}^3/\text{日}$, 8.4시간 분의 용량을 확보한다.

수원지 위치도



- ① 수석
- ② 구의
- ③ 덕도
- ④ 보광
- ⑤ 암사
- ⑥ 팔당
- ⑦ 노량진
- ⑧ 선유
- ⑨ 영등포
- ⑩ 김포

水源池 施設容量 確保計劃

| 구 분 | | 1986 | 1991 | 1996 | 2001 |
|----------------------------|---------------|-------------|---------|---------|---------|
| 需 要 量 (萬㎡/日) | 江 北 | 219 | 294 | 334 | 378 |
| | 江 南 | 203 | 279 | 352 | 420 |
| | 計 | 422 | 573 | 686 | 798 |
| | 江北(%) : 江南(%) | 51.8 : 48.2 | 51 : 49 | 49 : 51 | 47 : 53 |
| 水 源 池 施 設 容 量 (萬㎡/日) | 江 北 計 | 193 | 243 | 370 | 370 |
| | 江 北 水 原 池 | — | — | 120 | 120 |
| | 九 宜 水 原 池 | 113 | 113 | 120 | 120 |
| | 琴 島 水 原 池 | 50 | 100 | 100 | 100 |
| | 普 光 洞 水 原 池 | 30 | 30 | 30 | 30 |
| | 江 南 計 | 229 | 340 | 340 | 420 |
| | 岩 寺 水 原 池 | 25 | 100 | 100 | 195 |
| | 八 堂 水 原 池 | 100 | 100 | 100 | 100 |
| | 鷺 梁 津 水 原 池 | 30 | 30 | 30 | 15 |
| | 仙 遊 水 原 池 | 40 | 40 | 40 | 40 |
| | 永 登 浦 水 原 池 | 24 | 54 | 60 | 60 |
| | 金 浦 水 原 池 | 10 | 10 | 10 | 10 |
| | 計 | 422 | 577 | 710 | 790 |
| | 江北(%) : 江南(%) | 46 : 54 | 42 : 58 | 52 : 48 | 47 : 53 |

配水池 施設計劃

| 구 분 | 단 위 | 1986 | 1991 | 1996 | 2001 |
|-------|------|------|------|------|------|
| 최대급수량 | 萬㎡/日 | 422 | 573 | 686 | 798 |
| 배수지용량 | 萬㎡/日 | 57 | 144 | 239 | 278 |
| 저류시간분 | 시 간 | 3.24 | 6.03 | 8.36 | 8.36 |

●送・配水管 増設計劃

현재의 수지식配水管網을 블록시스템조직으로 再編成하기 위해 2001년까지 總 588km의 送・配水管을 増設한다.

送・配水管 増設計劃

(단위: km)

| 구 분 | 1986 | 1987—1990 | 1991—1995 | 1996—2001 | 계 |
|-----|------|-----------|-----------|-----------|-------|
| 송수관 | 16.7 | 36.5 | 127.3 | 5.6 | 186.1 |
| 배수관 | — | 4.4 | 205.0 | 138.0 | 387.0 |
| 연락관 | 12 | 3 | — | — | 15 |
| 계 | 28.7 | 83.5 | 332.3 | 143.6 | 588.1 |

■ 現況

● 下水管渠現況

서울市の 下水管渠施設은 1986年末 현재 總延長이 8,343km에 달하고 있으나, 극히 一部地域을 제외하고는 合流式으로 埋設되어 있고, 인근의 각 支川이 下水道化되어 下水本流量 形成하고 있어 모든 河川에 차집관거를 부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市街地面積에 따른 下水道普及率は 87.1%로서 크게 확장되었으나, 管渠가 埋設된 지 오래되고 地域狀況이 變動됨에 따라 기존 배수관거의 流下能力을 再檢討해야 할 필요가 있다.

下水管渠 施設現況

| 區 分 | 面 積 A (km ²) | 配水面積 B (km ²) | 配水管渠 (km) | 下水道普及率 B/A (%) |
|------|-----------------------------|------------------------------|--------------|-------------------|
| 1976 | 262.4 | 128.6 | 2,780 | 49.0 |
| 1981 | 321.4 | 214.6 | 6,790 | 68.7 |
| 1986 | 323.0 | 310.2 | 8,343 | 87.1 |

● 遊水地・配水펌프장 現況

· 서울시는 1986年末 현재 32개소에 유수지를 갖고 있으며 總貯水容量이 374萬 m³이고 11,603 ha의 流域面積에 대해 31,204 m³/分の 排水能力을 확보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에 따른 流出率의 增大와 排水區域의 變更 등으로 인하여 시 1용량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土地利用의 效率化와 도시미관을 위해 遊水地복개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 下水處理現況

· 漢江綜合開發計劃의 일환으로 서울을 安養, 蘭芝, 炭川 및 中浪處理場의 4川 處理流域으로 나누고, 總 306萬 m³/日의 下水를 처리할 수 있도록 處理場施設 工事が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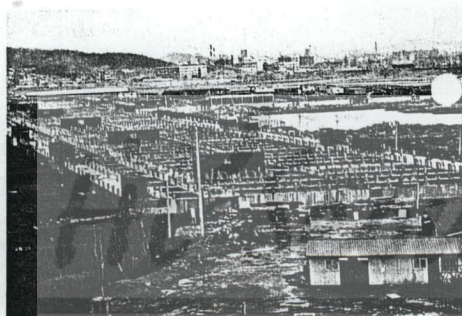
遊水地・排水 펌프장現況

| 구 분 | 펌프장수 | 貯水容量 (m ³) | 流域面積 (ha) | 排水量 (m ³ /分) |
|-----|------|------------------------|-----------|-------------------------|
| 용 산 | 3 | 243,000 | 493 | 1,221 |
| 성 동 | 2 | 194,000 | 499 | 361 |
| 동대문 | 3 | 309,000 | 961 | 1,801 |
| 마 포 | 2 | 234,000 | 781 | 1,440 |
| 강 서 | 3 | 467,000 | 2,274 | 8,040 |
| 영등포 | 3 | 281,000 | 997 | 2,778 |
| 구 로 | 5 | 306,000 | 838 | 2,560 |
| 동 착 | 1 | 20,000 | 133 | 858 |
| 강 남 | 2 | 508,000 | 1,240 | 2,290 |
| 강 동 | 6 | 911,500 | 2,484 | 5,538 |
| 종 말 | 2 | 270,000 | 903 | 3,210 |
| 계 | 32 | 3,743,500 | 11,603 | 31,204 |

下水處理場 現況

(단위 : 萬 m³/日)

| 처리장명 | 시설용량 | 처리용량 | 비 고 |
|------|------|------|--|
| 중 랑 | 106 | 2차 | · '70~'79 : 36萬 m ³ /日, · '87년 : 70萬 m ³ /日 완공 · '91년까지 34萬 m ³ /日 확충예정 |
| 탄 천 | 50 | 2차 | · '88년 완공 |
| 안 양 | 100 | 1차 | · '87년 완공 · '93년까지 2차 처리 |
| 난 지 | 50 | 2차 | · '87년 완공 · '93년까지 2차 처리 |
| 계 | 306 | — | · 기존 36萬 m ³ /日 |



■ 課題

- 生活下水는 各 支川에 遮集管渠를 敷設하여 全下水量을 처리장에서 처리후 放流해야 한다.
- 下水處理場의 構成은 中浪처리장, 炭川처리장, 安養처리장, 그리고 蘭芝처리장의 四個群으로 하며, 처리정도는 全 處理場에서 二次처리를 해야할 것이다.
- 서울시 上水道水源의 바로 上流에 位置한 경기도 덕소지역의 下水는 水源의 保護를 위해 三次 처리후 放流해야 한다.
- 時間當 50mm의 강우를 배제할 수 있도록 下水管渠와 中小 河川을 정비한다.

需要推定

下水量의 推定은 上水道給水量을 基準으로 하여 回收率은 2001년에 80%에 이
는 것으로 推定하였으며, 地下水流入量은 1日最大汚水量의 15%로 하고, 1人1日
汚濁負荷量은 80gr에 이를 것으로 推定되어 2001年의 總下水量은 1日最大 573
萬 m³/日, 總汚濁物質量은 1,120 ton/日이 된다.

下水量 및 汚濁物質의 推移

| 區 分 | 單位 | 1986 | 1991 | 1996 | 2001 |
|------------|---------------------|-------|--------|--------|--------|
| 人 口 | 千人 | 9,935 | 10,580 | 11,267 | 12,000 |
| 1日最大 給水量 | 萬 m ³ /日 | 422 | 521 | 677 | 747 |
| 回收率 | % | 52.7 | 70 | 75 | 80 |
| 1日最大 下水量 | 萬 m ³ /日 | 331 | 366 | 487 | 573 |
| 地下水量 | ℓ / 人 · 日 | 65 | 65 | 65 | 65 |
| 總下水量(1日最大) | 萬 m ³ /日 | 331 | 366 | 487 | 573 |
| 汚濁負荷量(BOD) | gr / 人 · 日 | 50 | 60 | 70 | 80 |
| 總汚濁物質量 | ton/日 | 490 | 662 | 870 | 1,120 |

下水施設計劃

●下水處理計劃

- 2001년에 100%의 處理를 目標로 하여 1991년까지는 推定量의 93%인 341萬 m^3 /日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2001년에는 576萬 m^3 /日의 처리시설용량을 확보하여 全下水를 二次處理後 放流하도록 한다.

下水處理施設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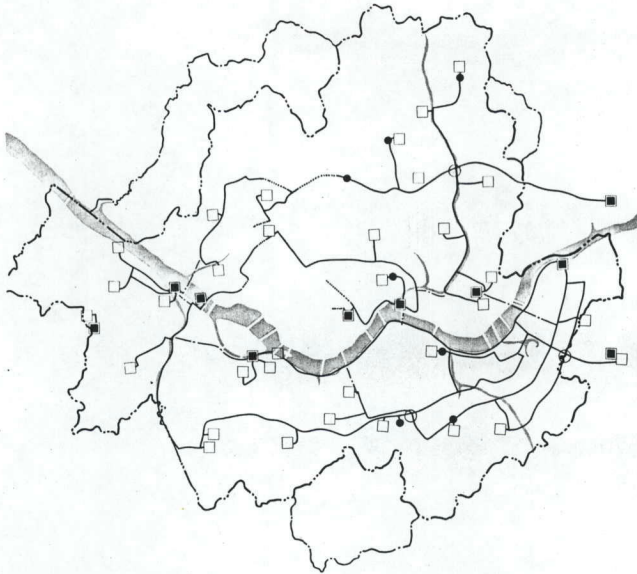
| 區 分 | 單位 | 1986 | 1991 | 1996 | 2001 |
|--------|------------|------|------|------|------|
| 日最大下水量 | 萬 m^3 /日 | 331 | 366 | 487 | 573 |
| 施設容量 | 萬 m^3 /日 | 46 | 341 | 443 | 576 |
| 處理率 | % | 14 | 93 | 96 | 100 |

●下水管路整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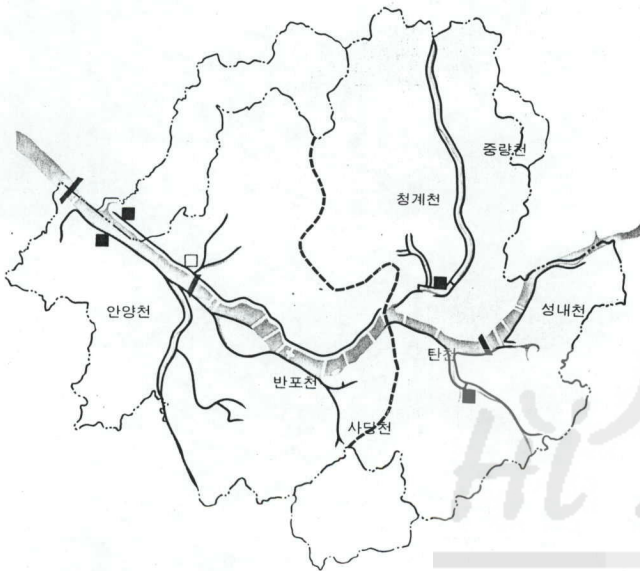
- 各 支川에 遮集管渠를 敷設하여 下水川化를 防止한다.
- 현재의 下水管路의 流下能力을 재검토하여 최소한 시간당 50mm의 강우량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를 신설하든가 雨水調節池를 設置하는 綜合的인 雨水排除方法을 수립한다.



상수도 시설계획도



하수처리장 위치도



現況分析 및 課題

■ 現況

● 收去方式

서울시의 쓰레기수거는 일반단독주택은 시청이, 대부분의 아파트와 상업지는 대행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門前手荷車 收去方式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도시미관과 공해문제로 컨테이너 박스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수의 植換場을 이용하고 있다.

清掃裝備推移

| 연도 | 인원 | 수거차량 | 중기 | 컨테이너BOX | 물청소차 | 수하차 |
|------|--------|------|----|---------|------|--------|
| 1976 | 8,256 | 545 | — | 44 | — | 8,256 |
| 1981 | 9,488 | 684 | 11 | 116 | — | 7,486 |
| 1986 | 11,145 | 922 | 17 | 254 | 6 | 10,307 |

● 쓰레기排出量 및 成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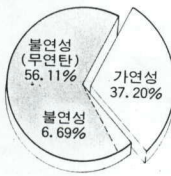
1986년말 현재 서울시 쓰레기 배출량은 9,296千 ton / 日로서 1971년의 2,456千 ton / 日에 비해 3.78배나 증가하여 年平均 약 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1인1日當排出量도 1,936kg의 1.37kg에 비해서 1986년의 2.60kg으로 1.9배나 증가했다.

쓰레기 排出量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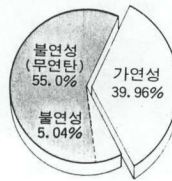
| 연도 | 수거대상인구 (千人) | 연간수거량 (千ton) | 1일평균수거량 (ton) | 1일1인당수거량 (kg / 人 · 日) |
|------|----------------|-----------------|------------------|--------------------------|
| 1971 | 4,922 | 2,456 | 6,729 | 1.37 |
| 1976 | 6,529 | 3,244 | 8,887 | 1.36 |
| 1981 | 8,360 | 7,676 | 21,030 | 2.51 |
| 1986 | 9,798 | 9,296 | 25,468 | 2.60 |

쓰레기 성분별 현황

1981年



1985年



● 糞尿處理施設

· 서울시의 정화조보급율은 1986년말 현재 78.5%에 달하고 있으며, 糞尿處理施設 2,800ℓ/日의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있고, 淨化槽汚泥의 處理를 위하여 安養과 蘭芝處理場에 總 3,000ℓ/日의 시설을 건설중에 있다.

淨化槽汚泥・糞尿處理場 施設現況

| | 處理場名 | 施設容量 (ℓ/日) | 비고 |
|-------|---------|------------|--------|
| 淨化槽汚泥 | 安養 | 2,000 | 88년 완공 |
| | 蘭芝 | 1,000 | 88년 완공 |
| | 計 | 3,000 | — |
| 糞尿 | 西部衛生處理場 | 600 | — |
| | 北部衛生處理場 | 400 | — |
| | 東部衛生處理場 | 600 | — |
| | 下水處理場投入 | 1,200 | — |
| | 計 | 2,800 | — |

■ 課題

● 쓰레기

· 資源回收과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分離收去方式을 정착시켜야 한다.

Hi Seoul

SOUL OF ASIA

- 植換場을 금지하고 中間集荷場을 설치하거나 콘테이너 박스로 대체해야 한다.
- 可燃性 쓰레기는 소각하며 不燃性 쓰레기는 埋立하도록 해야 한다.

●糞尿

- 收去式便所를 지양하여 水洗化를 유도해야 한다.
- 淨化槽의 汚泥와 收去式 便所의 收去糞尿는 全量처리 하도록 해야 한다.
- 하수처리시설이 완비되면 水洗管渠에 직접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需要推定

●쓰레기

- 1人1日當排出量은 現在の 추세로 계속 증가하여 2001년에는 2.66kg/人·日에 달할 것이나, 연료로서 연탄의 비율이 감소하여 쓰레기성분중 可燃性이 2001년에 59%로 증가하며, 總排出量이 31,910 ton/日에 이를 것이다.

쓰레기 排出量 推定

| 區 分 | 單位 | 1986 | 1991 | 1996 | 2001 |
|----------|--------|--------|--------|--------|--------|
| 人 口 | 千人 | 9,935 | 10,580 | 11,267 | 12,000 |
| 1日1人當排出量 | kg/人·日 | 2.6 | 2.8 | 2.74 | 2.66 |
| 總 排 出 量 | ton/日 | 25,468 | 29,700 | 30,890 | 31,910 |
| 構成比 可燃性 | % | 40 | 49 | 54 | 59 |
| 不燃性 | % | 60 | 51 | 46 | 41 |
| 排出量 可燃性 | ton/日 | 10,187 | 14,553 | 16,680 | 18,8 |
| 不燃性 | ton/日 | 15,281 | 15,147 | 14,210 | 13,084 |

●糞尿

- 水洗化率이 2001년에는 100%에 이를 것으로 推定되며, 淨化槽汚泥의 배출량은 약 5,800㎥/日이 될 것이다.

糞尿排出量 推定

| 구분 | 단위 | 1986 | 1991 | 1996 | 2001 |
|----------|-------|-------|--------|--------|--------|
| 인구 | 千人 | 9,935 | 10,580 | 11,267 | 12,000 |
| 1인1일당排出量 | ℓ/人·日 | 1.0 | 1.2 | 1.2 | 1.2 |
| 總排出量 | kℓ/日 | 9,935 | 12,696 | 13,520 | 14,400 |
| 水洗化率 | % | 78.5 | 82 | 90 | 100 |
| 收去式排出量 | kℓ/日 | 2,136 | 2,285 | 1,352 | 0 |
| 收去計割量 | kℓ/日 | 1,299 | 1,143 | 676 | 0 |
| 淨化槽汚泥排出量 | kℓ/日 | 2,819 | 4,100 | 4,950 | 5,800 |

●火葬場施設

서울시가 管理하고 있는 火葬場은 경기도 고양군에 위치한 벽제火葬場으로 89년 현재 總15機가 稼動하여 年 14,303件, 1日 39件을 處理하고 있다. 1日 最大容量은 45件으로 年 30% 가량 增加하고 있으나 目標年度까지는 현재의 設備로 충분할 것으로 判斷된다. 그러나 土地가 絶對적으로 不足한 서울의 경우 火葬場에 대한 需要가 계속해서 增加할 것이므로 器械의 増設과 함께 새로운 火葬場의 造成 또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火葬場의 造成은 關聯 地方自治團體와의 協議下에 이루어져야 한다.

擴充計劃

●쓰레기

- 不燃性쓰레기는 全量 埋立을 原則으로 하며, 蘭芝島埋立場의 매립가능한계가 2년 정도로서 그 후에는 서해안의 金浦매립지구(해안간척지)에 매립한다.
- 가연성 쓰레기는 焚燒 소각을 원칙으로 하여, 圈域別 處理場을 신설하고 소각 灰열은 지역난방에 이용한다.

●糞尿

- 收去式便所의 감소로 인하여 收去糞尿量은 계속 감소하여 현재의 처리시설로도 충분할 것이다.
- 淨化槽오니의 수거계획량은 5,800kℓ/日에 달하여 현재 추진중인 安養과 蘭芝 處理場의 3,000kℓ/日외에 2,800kℓ/日의 시설을 증설한다.

生活環境施設 에너지

現況分析 및 課題

■ 現況

●에너지 消費構造

- 서울시의 에너지소비구조는 생활수준과 국제정세에 따른 국가의 에너지정책 영향을 받고 있다.
- 에너지 소비량은 기후등에 영향을 받아 급변하는 경향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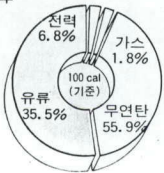
●에너지 消費量

- 1986년 현재 무연탄이 9,108천톤, 유류가 5,187천kl로서 각각 총 연료소비량의 38%와 45%를 차지하고 있다.
- 가스의 소비량은 1976년에 비해 10년사이 크게 증가되었음을 알수 있는바 사용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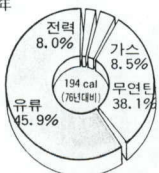
에너지 種類別 消費量 推移

| 구분 | | 단위 | 1976 | | 1986 | |
|------|--------|-----------------|----------|-----------|----------|------------|
| 무연탄 | | ㄱton | 6,882.1 | (55.9%) | 9,108.1 | (38.1%) |
| 유 | 등유 | ㄱkl | 185 | (366.2) | 474 | (934.4) |
| | 경유 | ㄱkl | 702 | (1,468.7) | 2,071 | (4,327.9) |
| | B-C | ㄱkl | 880 | (1,979.2) | 1,597 | (3,592.7) |
| | 휘발유 | ㄱkl | 272 | (513.9) | 629 | (1,189.7) |
| 기타 | | ㄱkl | 18 | (35.6) | 416 | (802.3) |
| 소계 | | | 2,059 | (4,363.6) | 5,187 | (10,847.0) |
| | | | | (35.5%) | | (45.1%) |
| 가 | 부탄·프로판 | ton | 75,500 | (205.9) | 690,411 | (1,884.8) |
| | 도시가스 | ㄱm ³ | 8,283 | (13.2) | 85,619 | (136.2) |
| 스 소계 | | | — | 219.1 | — | (2,021) |
| | | | | (1.8%) | | (8.5%) |
| 전 력 | | 百萬KWH | 4,511 | (843.4) | 10,206 | (1,907.9) |
| | | | | (6.8%) | | (8.0%) |
| 計 | | | 12,308.2 | (100%) | 23,884.0 | (100%) |

1976年



1986年



- 전국토의 0.6%를 차지하는 서울시의 전력소비량은 총 전력판매량의 18%에 해당하는 10,206백만 KWH에 달하고 있다. 공해가 없는 에너지 원인 전력은 그 사용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 課題

● 에너지정책 과제

- 에너지의 소비와 공급은 기후, 국제정세, 유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계속적인 수요변화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위해 안정된 공급을 도모해야 한다.
-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절약기술을 발전시켜 보급해야 한다.
- 폐열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며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오니처리장의 폐열 등을 지역난방에 이용하도록 한다.

● 에너지 소비구조의 개선

- 현재의 에너지원으로는 무연탄과 유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대지오염과 쓰레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스의 사용을 증대시키고, 무연탄의 소비를 줄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 전력의 소비가 증대됨에 따라 용지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투자비 여건이 개선되지 못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양질의 전력을 풍부하게 공급해야 한다.

需要推定

- 기후에 따른 난방용 소비의 변동, 국제정세, 유류값의 변동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수요예측은 상당한 가변성을 갖게 된다.

예) 需要量 推定

| 구분 | 단위 | 1986 | 1991 | 1996 | 2001 |
|---------|-------------------|--------|--------|--------|--------|
| 무연탄 | 千 ton | 9,108 | 5,720 | 3,216 | 1,900 |
| 석유류 | 千 kl | 4,769 | 6,836 | 8,800 | 9,624 |
| 부탄, 프로판 | 千 kl | 690 | 906 | 1,445 | 2,303 |
| 도시가스 | 百万 m ³ | 860 | 634 | 1,465 | 2,512 |
| 전력 | 百万 KWH | 10,206 | 16,112 | 21,740 | 29,093 |

- 향후 무연탄의 소비는 감소하게 될 것이며, 석유류의 소비는 증가할 것이나 가스나 전력 등의 에너지원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 목표년도 2001년의 가스와 전력사용량은 86년 현재보다 각각 28.8배, 2.9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施設擴充 및 配置計劃

■ 電力設備 擴充計劃

● 基本方向

- 정전감소, 규정전압 및 규정주파수 유지로 인한 전기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 건전한 기업활동과 전기요금의 저렴화를 위한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한다.
- 사회여건변동과 신기술 개발등 전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계획을 수립한다.
- 주위환경과의 조화 및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年度別 地域別 送變電設備 擴充計劃

| 구 | | 분 | '88 (기설) | '91 | '96 | 200. |
|-----|--------|------------|-------------|-------|-------|-------|
| 중 | 중 로 구 | 설비공급능력(MW) | 850 | 1,080 | 1,166 | 1,382 |
| | 중 구 | 최대전력수요(MW) | 624 | 801 | 1,022 | 1,200 |
| | 용 산 구 | 변전소수(개소) | 10 | 11 | 13 | 16 |
| 북 서 | 서대문구 | 설비공급능력(MW) | 436 | 479 | 522 | 608 |
| | 마 포 구 | 최대전력수요(MW) | 266 | 349 | 445 | 541 |
| | 은 평 구 | 변전소수(개소) | 5 | 6 | 7 | 8 |
| 북 동 | 동대문구 | 설비공급능력(MW) | 835 | 1,325 | 1,411 | 1,829 |
| | 성동구 | 최대전력수요(MW) | 642 | 902 | 1,256 | 1,681 |
| | 성동구 | 변전소수(개소) | 8 | 12 | 13 | 15 |
| 남 서 | 영등포구 | 설비공급능력(MW) | 1,022 | 1,612 | 1,829 | 2,211 |
| | 영등포구 | 최대전력수요(MW) | 815 | 1,201 | 1,609 | 2,045 |
| | 영등포구 | 변전소수(개소) | 10 | 12 | 15 | 18 |
| 남 동 | 강남구 | 설비공급능력(MW) | 677 | 850 | 893 | 1,080 |
| | 서초구 | 최대전력수요(MW) | 462 | 580 | 776 | 990 |
| | 강동구 | 변전소수(개소) | 7 | 8 | 10 | 11 |
| 계 | 22 개 구 | 설비공급능력(MW) | 3,820 | 5,346 | 5,821 | 7,117 |
| | | 최대전력수요(MW) | 2,809 | 3,893 | 5,108 | 6,500 |
| | | 변전소수(개소) | 40 | 49 | 58 | 68 |

●送變電施設擴充 計劃

- 간선계통: 환상망을 구성하여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 원칙적으로 무정전을 목표로 하고, 사고시 대규모 정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Local 계통: 변전소의 정전등 중대사고시에도 단시간에 공급지장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전력공급 여건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그러나 대단위 신규택지개발 등 특수수요증가시 별도의 시설확충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도시가스

- 도시가스의 공급원은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그 공급율을 높인다.

都市가스 供給現況 및 擴大

| 會 社 名 | 供 給 地 域 |
|----------|---|
| 서울도시가스 | 마포, 강서, 영등포, 관악 전역 종로, 용산, 서대문, 서초 일부 |
| 大韓도시가스 | 강동구, 송파구 전역, 강남구 일부 |
| 韓東도시가스 | 중구, 성동, 동대문, 중랑구 전역 종로, 용산, 성북, 서대문 일부 |
| 韓 · 도시가스 | 노원, 도봉구 전역, 성북구 일부 |
| 江南도시가스 | 구로구 전역, 양천구 일부 |






■ 폐열 이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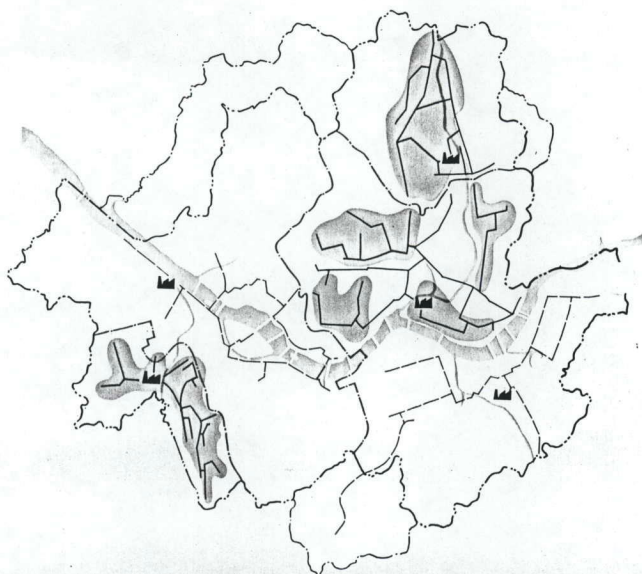
- 반전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을 확대, 보급하여 1992년까지 16,000세대에 공급한다.

地域煖房計劃

| 구 분 | 1단계 | 2단계 |
|------|------------------|--------------------|
| 사업기간 | '85-'87 | '88-'92 |
| 대상지구 | 39千세대 | 16千세대 |
| 지 역 | 여의도 · 반포 · 동부이촌동 | 용산 · 서초 · 랑배 · 압구정 |

도시가스공급계획도

- 공급권구역 
- 공급권경계 
- 기존공급노선 
- 계획공급노선 
- 가스공급소 



Hi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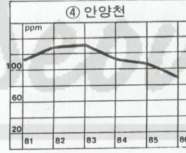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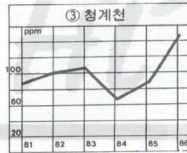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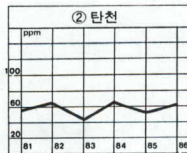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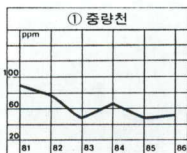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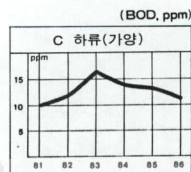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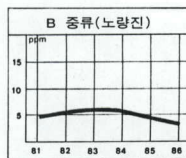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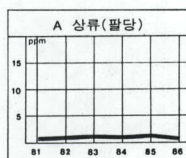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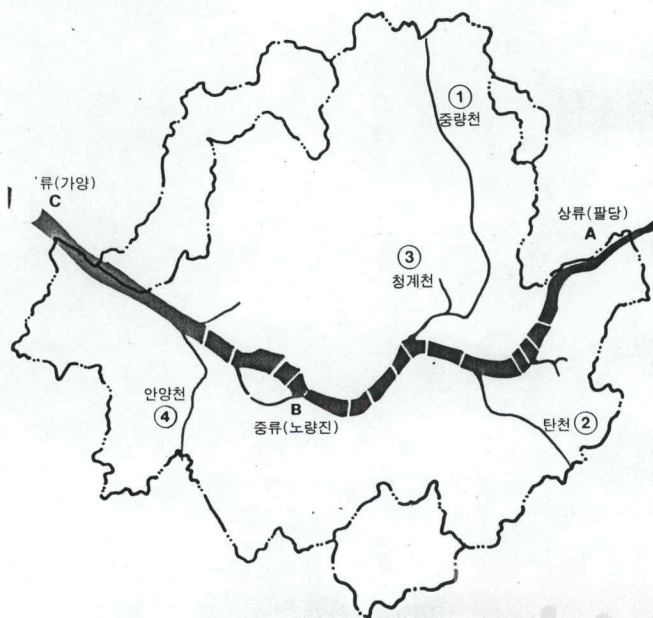
SOUL OF ASIA

■ 現況

● 水質

江의 水質은 1983년을 고비로 급격히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漢江上流인 八堂이 1級水源의 基準인 BOD 1 ppm을 넘고 있고, 漢江下流는 심하게 오염이 進行되어 있는 狀態이다. 그러나 2次處理의 하수처리시설이 完備되면 漢江本流의 水質은 대단히 改善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분류 및 하천별 수질오염현황



●大氣汚染

- 人口의 過密現象과 主 燃料인 무연탄, 油類의 大量使用으로 서울의 大氣汚染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아황산가스의 濃度는 해마다 감소하여 1986년 末 現在 0.054 ppm 에 달하고 있으나 世界保健機構 (WHO)의 基準値인 0.05 ppm 을 上回하고 있고, 질소화합물과 탄화수소의 濃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大氣汚染度 推移

(단위 : ppm)

| 구 분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
| 아 황 산 가 스 | 0.086 | 0.057 | 0.051 | 0.066 | 0.056 | 0.054 |
| 일 산 화 탄 소 | 2.9 | 2.6 | 2.5 | 2.7 | 2.7 | 2.8 |
| 부 유 분 진 | 156 | 168 | 225 | 210 | 200 | 168 |
| 옥 시 탄 트 | 0.022 | 0.021 | 0.018 | 0.008 | 0.009 | 0.010 |
| 질 소 화 합 물 | 0.028 | 0.027 | 0.028 | 0.030 | 0.029 | 0.034 |
| 탄 화 수 소 | 2.50 | 2.80 | 2.29 | 2.59 | 2.61 | 2.76 |

■ 課題

- 水質과 大氣汚染의 감시체제를 강화한다.
- 오염물질을 감소하여 環境基準을 조기에 달성한다.
- 공해방지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미지의 有害物質이나 복합오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책을 수립한다.

防止對策

- 漢江의 各 支川에 遮集管渠를 敷設하여 全下水를 2次處理한다.
- 서울시의 水源인 漢江上流에의 汚染物 流入을 積極 防止하고 公害排出施設을 移轉한다.
- 大氣汚染의 主原因인 유황濃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저유황유를 확대 공급한다.
- 무연탄과 油類의 使用을 감소시켜 大氣汚染의 問題가 없는 도시가스로 대폭 代替한다.
- 서울 시내에 位置하는 公害業所를 移轉시켜 都市內의 大氣汚染을 防止하도록 한다.

■ 現況

- 서울시는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都市膨脹으로 위험시설물의 혼재, 가스 및 석유기구의 대량 보급, 都市空間의 부족 등 화재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고층빌딩, 대규모 지하상가, 자동차교통량의 증가 등 방화에 대한 어려움이 늘고 있다.
- 도시의 팽창과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지역의 雨水流出量이 대단히 증대되고, 기존 하수관로와 신설되는 관로와의 연결이 합리적으로 형성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기존 하수관거나 중소하천의 雨水排除機能이 저하되고 있다.
- 인구 11 萬名당 화재발생건수는 1976년 2.97件에서 1986년에는 3.26件으로 증가하였으며 원인별로는 전기의 누전이 가장 많고, 담배나 불장난에 의한 失火가 급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대한 認識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2. 發生推移

| 연도 | 발생건수 | 발 생 구 분 | | | 피해액 (백만원) | 인구 (千人) | 萬人당 발생건수(件) |
|------|-------|---------|-----|----|--------------|------------|----------------|
| | | 실화 | 방화 | 기타 | | | |
| 1976 | 2,154 | 2,126 | 24 | 4 | 705 | 7,255 | 2.97 |
| 1981 | 2,446 | 2,350 | 63 | 33 | 1,951 | 8,670 | 2.82 |
| 1986 | 3,190 | 2,968 | 142 | 80 | 2,475 | 9,798 | 3.26 |

■ 課題

- 화재예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고층화재, 대형화재에 대비하여 消防裝備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시간당 50mm의 강우를 배제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 시민 특히 학생들에 대한 防災敎育을 강화해야 한다.

災害防止對策

● 防火對策

- 1개소의 消防據點에 대한 영역을 3km(내무부 소방력 기준)으로 하여 구성체제를 정비하고 소방요원을 인구 2000명당 1人 水準으로 증원한다.
- 고밀도 주거지역에 대해 集團防火, 防災地域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 지하상가나 고층건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法的 規制와 지도를 강화하고 피난설비, 피난체제를 완벽히 정비한다.
- 방화, 방재에 관한 학교와 연구소를 설립한다.
- 방재교육을 위한 安全公園을 설립하여 아동학습을 내실화 한다.

● 治水對策

- 시간당 50mm의 강우에 대한 下水管渠의 정비를 완벽히 하고 50mm 이상의 土에 대한 對策을 점차 추진한다.
- 하수관거의 流下能力을 재검토하여 하수관을 신설하거나 雨水調節池를 설치하는 종합적인 治水대책을 추진한다.
- 공원, 운동장 등의 遊休地를 우수조절지로 이용하는 방법을 수립한다.
- 상습침수지역은 고층건물이나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再開發을 촉진하고 적절한 토지이용을 유도한다.

Hi Seoul

SOUL OF ASIA

現況分析 및 課題

健康한 市民 : 醫療 · 保健

■ 現況

-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그 대종이 영리를 목적으로한 사적 자영업이다.
- 서울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네트워크의 중심지역활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담능력이 없는 영세저소득층인구의 집중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지역의료보험제의 실시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 供給機關別 現況

- 大規模 綜合病院의 施術能力은 지난 10年 동안에 크게 增大한 反面, 大部分 市
民들의 日常的인 의료수요를 滿足시키는 小規模의 「病院, 醫院」의 數와 그 施
術能力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 서울市內 大規模 綜合病院은 서울 뿐만 아니고 全國의 二次, 三次 診療機關이다.
81年~1986年 間에 綜合病院의 病床數는 63% 가량 增加했음에도 불구하고,
年間入院患者 및 一日平均入院患者의 急增으로 病床利用率은 오히려 더 增加
한 實情이다.

서울市 醫療施設 現況

(단위 : 個所, 人)

| 區 分 | 1976 | | 1981 | | 1986 | |
|-----------|---------|-----------|---------|-----------|---------|-----------|
| | 總 數 | 1個所當人口數 | 總 數 | 1個所當人口數 | 總 數 | 1個所當人口數 |
| 計 | 4,667 | 1,554 | 4,998 | 1,753 | 6,158 | 1,613 |
| 病 醫 院 | 2,342 | 3,098 | 2,479 | 3,510 | 3,219 | 3,131 |
| · 綜 合 病 院 | (23) | (315,435) | (34) | (255,176) | (63) | (155,524) |
| · 病 院 | (37) | (196,081) | (71) | (122,197) | (91) | (107,670) |
| · 醫 院 | (2,282) | (3,197) | (2,374) | (3,655) | (2,975) | (3,293) |
| 齒科病醫院 | 922 | 7,869 | 1,172 | 7,403 | 1,511 | 6,484 |
| 漢 醫 院 | 1,126 | 6,443 | 1,102 | 7,873 | 1,300 | 7,537 |
| 助 產 院 | 181 | 40,083 | 149 | 58,228 | 123 | 79,659 |
| 附 設 醫 院 | 84 | 86,369 | 79 | 109,823 | 78 | 125,615 |
| 保 健 所 | 12 | 604,583 | 17 | 510,353 | 17 | 576,353 |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 病床數 및 入院患者數에 있어, 市立病院은 全體綜合病院의 一割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醫師數 現況

- 1987年 現在 醫師(漢醫師, 齒科醫師 포함) 1人當 人口수는 730人이다.
- 總 醫師數의 約 20%가 齒科醫院, 漢醫院에, 그 나머지의 約 50%에 가까운 醫師들이 綜合病院에 勤務하고 있어 의사1인당人口수 비율은 서울시 의료서비스 수준의 지표로서는 과장된 것일 수 있다.

서울시 의사현황(1987年)

(단위: 人)

| 구 분 | 의사수 | 전국對比 | 의사1인당人口수 | |
|-------|--------|---------|----------|--------|
| | | 구성비 (%) | 서울 | 전국 |
| 계 | 13,673 | 46.3 | 730 | 1,127 |
| 의 사 | 10,085 | 43.6 | 990 | 1,440 |
| 치과 의사 | 2,094 | 45.2 | 4,771 | 7,183 |
| 한 의 사 | 1,494 | 82.9 | 6,687 | 18,466 |

자료: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1988.

●區別 分布 現況

- 區別 人口分布 比率에 대한 의료기관수의 分布比率間에는 커다란 隔差가 없다.
- 1980~1986年間 의료기관의 新設 乃至 移轉이 鍾路, 中區 등 既存의 中心地에서 점차 江南, 江東區 등 新開發地로 移動하는 추세이나, 人口密度가 높은 江北의 변두리 地域인 道峰, 恩平, 西大門, 麻浦區 등에는 그동안 큰 변화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所得隔差에 基因한다고 보아진다.
- 江南區에는 특히 그 인구비율보다 높은 의료기관 집중도가 나타나고 있다.

●醫療保險 現況

- 醫療保險 受惠人口는 1979年 以後 지속적으로 增大되어 왔다.
- 서울시民의 總 醫療保險 受惠率은 89년 지역의료보험실시로 거의 100%에 달한다.

· 月平均 470,000여원의 收入이 있는 平均의 勤勞者家11의 年平均 醫療費 支出
은 全體 所得의 5.6%에 이르고 있다.

區別 醫療機關의 分布現況 (1987年)

(단위: 개소)

| | 인 구 | 시설개 | 종합병원 | 병 원 | 의 원 | 치과병원 | 한의원 | 보건소 | 기 타 |
|-------|-------|-------|------|-----|-------|-------|-------|-----|-----|
| 총 계 | 9,991 | 6,911 | 63 | 85 | 3,125 | 1,603 | 1,395 | 17 | 623 |
| 강 북 계 | 5,267 | 3,969 | 39 | 41 | 1,693 | 853 | 951 | 10 | 382 |
| 종 로 구 | 256 | 681 | 6 | 4 | 221 | 150 | 231 | 1 | 68 |
| 중 구 | 201 | 481 | 7 | 3 | 188 | 141 | 63 | 1 | 78 |
| 용 산 구 | 315 | 258 | 4 | 3 | 110 | 62 | 48 | 1 | 30 |
| 성 동 구 | 768 | 385 | 8 | 3 | 192 | 86 | 60 | 1 | 35 |
| 동대문구 | 946 | 776 | 7 | 7 | 279 | 110 | 314 | 1 | 58 |
| 성 북 구 | 580 | 321 | — | 5 | 173 | 63 | 58 | 1 | 21 |
| 도 봉 구 | 890 | 326 | 3 | 2 | 182 | 72 | 39 | 1 | 27 |
| 은 평 구 | 455 | 240 | 2 | 3 | 111 | 51 | 36 | 1 | 18 |
| 서대문구 | 405 | 279 | 2 | 6 | 118 | 66 | 56 | 1 | 30 |
| 마 포 구 | 451 | 240 | — | 5 | 119 | 52 | 46 | 1 | 17 |
| 강 남 계 | 4,724 | 2,932 | 24 | 44 | 1,432 | 750 | 444 | 7 | 241 |
| 강 서 구 | 775 | 354 | 1 | 11 | 189 | 85 | 51 | 1 | 16 |
| 구 로 구 | 713 | 320 | 3 | 5 | 153 | 74 | 50 | 1 | 34 |
| 영드포구 | 460 | 414 | 9 | 6 | 173 | 92 | 83 | 1 | 50 |
| 동 구 | 400 | 240 | — | 5 | 119 | 54 | 49 | 1 | 22 |
| 관 약 구 | 565 | 280 | — | 6 | 154 | 59 | 44 | 1 | 16 |
| 강 남 구 | 827 | 818 | 4 | 8 | 372 | 254 | 101 | 1 | 78 |
| 강 동 구 | 985 | 506 | 7 | 3 | 272 | 132 | 66 | 1 | 25 |

주: 기타는 침사, 구사, 집골사, 안마사, 치과기공사; 특수병원, 부설의원, 조산소를 포함한 숫자임.

자료: 서울시, 서울 통계 연보, 1988.

연도별 의료보험 조합 및 수혜자 현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제외)

| 구 보 | 개 | | | | | 직장의료보험 | | | | | 직중의료보험 | | | | |
|------|-----|-------|-------|-------|-----------------------|----------|--------|-------|-------|-------|--------|-----|------|------|--|
| | 조합수 | | | | | 수혜자수(千人) | | | | | 조합수 | | | | |
| | (개) | 개 | 피보험자 | 피부양자 | 수혜율 ¹⁾ (%) | (개) | 장수(개소) | 개 | 피보험자 | 피부양자 | (개) | 개 | 피보험자 | 피부양자 | |
| 1984 | 88 | 4,025 | 1,301 | 2,723 | 42.4 | 79 | 20,597 | 3,779 | 1,246 | 2,533 | 9 | 246 | 55 | 190 | |
| 1985 | 86 | 4,216 | 1,361 | 2,856 | 43.7 | 77 | 23,854 | 3,936 | 1,294 | 2,642 | 9 | 280 | 67 | 214 | |
| 1986 | 86 | 4,396 | 1,482 | 2,914 | 44.9 | 76 | 28,081 | 4,053 | 1,389 | 2,664 | 10 | 343 | 93 | 250 | |
| 1987 | 92 | 4,639 | 1,537 | 3,101 | 46.4 | 80 | 34,479 | 4,246 | 1,434 | 2,811 | 12 | 393 | 103 | 290 | |

註: 수혜율 = 수혜자수 / 전체인구수

자료: 서울시, 서울 통계 연보, 1988.

●保健行政

- 現在 各區에 1個所의 保健所 運營하고 있다.
- 保健所의 機能은 國民保健 向上을 위한 指導啓蒙, 영양 및 食生活 改善, 學校 保健 支援, 家族計劃 指導事業, 질병의 豫防과 診療, 環境衛生과 기타 産業衛生에 關連된 事項을 擔當하며 동시에 零細民戶의 一次 診療機關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
- 1987년 현재 17個 保健所를 통털어서 專門人力은 醫師 69人, 看護師 313, 其他 事務職 645人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 이들 醫師 60여人和 看護師 300여인이 年間 診療하는 患者는 1百餘萬名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보건소 연간 진료자수

(단위: 人)

| 개 | 결 해 | 성 병 | 소아과 | 산부인과 | 치 과 | 기생충병 | 기 타 |
|-----------|---------|---------|---------|------|--------|------|---------|
| 1,018,600 | 289,289 | 284,070 | 190,887 | 485 | 29,004 | 107 | 289,984 |

註: 월평균: 84,883, 일평균: 2,829

출처: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1988.

■ 課題

- 모든 시민이 一定水準 이상의 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며 특히 零細民, 老弱者를 위한 保險料率에 대한 특별한 配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 1, 2, 3차 診療機關間에 階層組織을 유지하여 전체 의료서비스 體系를 確立해야 한다. 특히 1차진료기관은 소규모의 사립병원, 의원을 주축으로 하되 지역적 均衡配置를 기해야 할 것이다.
- 公共保健醫療機關의 주임무는 豫防醫療, 環境産業衛生, 市民食生活改善指導, 學校保健支援등 公衆保健에 힘써야 한다.
- 그러나 公共部門의 役割은 간접적 통제, 행정지도와 재정적 지원에 의해 공급의 양과 질을 조정하는데 국한될수 밖에 없고 地方自治制가 실시된다해도 중앙정부의 醫療行政이 지방의료서비스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인 바 醫療制度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

需要推定 및 施設計劃

■ 基本方向

- 民間醫療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서울市政府의 의료행정의 1次的 基準은 1차 의료기관인 小規模 病院, 醫院 開設에 대한 獎勵, 支援에 두어야 한다. 또한 그 地域의 均衡分佈에 關여할수 있어야 한다.
- 地域醫療保險으로 전시민이 의료보험의 受惠者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소득계층에 따른 保險料率과 被保險酬價의 差等を 두어야 한다.

■ 部門別 需要推定 및 施設計劃

의원

- 우리나라에는 漢醫院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漢醫院에서의 診療活動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또 일부시민들의 診療를 分擔하고 있으므로 의원에 포함시킨다.
- 2001년까지 인구 1,200인당 1개소 확보를 목표로 약 10,000개소가 필요하다.

醫療의 需要推定 및 新設計劃

| 인 도 | 인 구 (千人) | 의 원 수(개) | | |
|------|-------------|----------|-------|-------|
| | | 수 요 | 기 설 | 신 설 |
| 1981 | 8,759 | — | 4,998 | — |
| 1986 | 9,935 | — | 6,158 | — |
| 1991 | 10,580 | 7,053 | 6,158 | 895 |
| 1996 | 11,267 | 8,346 | 7,053 | 1,292 |
| 2001 | 12,000 | 10,000 | 8,346 | 1,654 |

●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수요

- 선진국수준인 의사 1인당 700인 기준을 적용하면 2001년까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의료수요를 추정하면 이들을 위해 약 171명의 의사가 필요하게 된다.

● 시립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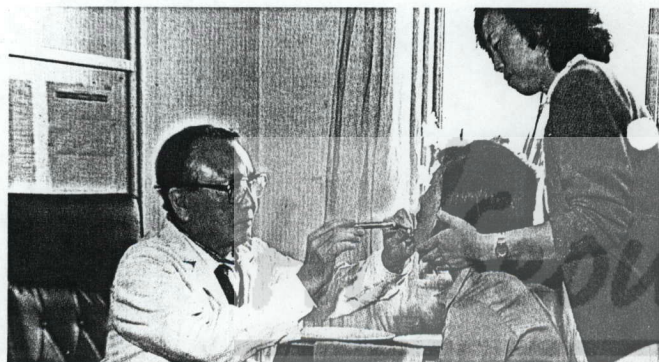
- 점차적으로 그 기능은 지방공사화 해 나가야 하며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진료 기관으로 전환시키도록 한다.

生活保護對象者 醫療需要

| 구분 | 생활보호 대상자 수 | | 의료수요 (의사수) |
|------|------------|---------|------------|
| | 연인원 (人) | 구성비 (%) | |
| 1986 | 204,458 | 2.1 | 83 |
| 1991 | 187,612 | 1.7 | 120 |
| 1996 | 161,590 | 1.3 | 160 |
| 2001 | 140,000 | 1.0 | 200 |

●保健所

- 보건소는 지역의료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기존 보건소의 기능 및 조직의擴大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이를 위해 環境, 保健, 家族計劃, 病理學, 식품영양학과 같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명실공히 공중보건위생 집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現況

- 現行 地方政府의 사회복지 행정은 국가차원의 各種 社會福祉法의 집행기관을 수행하며, 主로 「公共扶助」 기능을 그 主軸으로 한다.
- 公共扶助 制度下에서 主宗을 이루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자와 零細民으로 區分되어 있다.

● 보호대상자 현황

- 생활보호자, 영세민의 수는 다같이 1976년 이후 현저한 변화가 없다.
- 1986년 현재 자활보호자신청기준은 가구당 재산총액 320만원과 1인당월평균수입 46,000원이다.

保護 對象者 現況

(단위: 戶, 人)

| 연 도 | | 1976 | 1981 | 1986 |
|-------|----|----------------|----------------|----------------|
| 총 인 구 | 가구 | 1,461,000 | 1,915,000 | 2,428,000 |
| | 인구 | 7,255,000 | 8,676,000 | 9,798,000 |
| 대 상 자 | 가구 | 46,937 | 54,548 | 58,078 |
| | 인구 | 202,697 (2.8%) | 217,922 (2.5%) | 204,458 (2.1%) |
| 생활보호자 | 가구 | 5,976 | 7,786 | 8,963 |
| | 인구 | 13,134 | 14,202 | 12,989 |
| 영 세 민 | 가구 | 39,686 | 46,556 | 49,115 |
| | 인구 | 188,282 | 202,783 | 191,466 |
| 재 해 민 | 가구 | 275 | 206 | — |
| | 인구 | 1,263 | 937 | 3 |

註: ()안의 숫자는 총인구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
자료: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社會福祉 施設 現況

·社會福祉 施設의 種類로는,

- ① 養老施設: 要保護者가 老衰로 인해서 혼자서 日當生活을 할 수 없는 者를 收容保護,
- ② 養育施設: 年少者로서 扶養義務者가 없거나, 있어도 扶養할 수 없기 때문에 生活할 수 없는 者를 收容保護,

社會福祉施設 現況

| 區 分 | 施設種別 | 施 設 數 | | 技 能 別 | |
|-------|---------|-------|-------|-------|-------|
| | | 總 數 | 市 立 | 收容施設 | 利用施設 |
| 총 | 개 | 1,961 | 738 | 99 | 1,862 |
| | 소 계 | 444 | 267 | 51 | 393 |
| 아 동 | 영 아 원 | 3 | | 3 | — |
| | 육 아 원 | 41 | 1 | 41 | — |
| | 인 시 보호 | 1 | 1 | 1 | — |
| | 입 양 기관 | 4 | — | 4 | — |
| | 아동상담소 | 2 | 2 | 2 | — |
| | 탁 아 원 | 32 | 20 | — | 32 |
| | 유 아 원 | 361 | 243 | — | 361 |
| 청 소 년 | 소 계 | 86 | 86 | 3 | 83 |
| | 근로청소년 | 3 | 3 | — | 3 |
| | 복 지 관 | 5 | 5 | — | 5 |
| | 청소년회관 | 62 | 62 | — | 62 |
| | 독 서 실 | 13 | 13 | — | 13 |
| | 아 동 회 관 | 3 | 3 | 3 | — |
| | 임대아파트 | 820세대 | 820세대 | — | — |
| | 소 계 | 1,362 | 360 | 9 | 1,353 |
| 노 인 | 양 로 원 | 6 | 1 | 6 | — |
| | 요 양 원 | 3 | 1 | 3 | — |
| | 노 인 정 | 1,353 | 358 | | 1,353 |
| | 소 계 | 28 | 16 | 15 | 13 |
| 여 성 | 직 업 보 도 | 5 | — | 5 | — |
| | 모 자 원 | 7 | — | 7 | — |
| | 복 지 관 | 2 | 2 | — | 2 |
| | 상 담 소 | 11 | 11 | — | 11 |
| | 수 용 보 호 | 3 | 3 | 3 | — |
| | 소 계 | 41 | 9 | 21 | 20 |
| 기 타 | 장애자시설 | 27 | 4 | 20 | 7 |
| | 사회복지관 | 13 | 4 | 1 | 13 |
| | 성인무량인 | 1 | 1 | — | — |

출처: 서울시, '89시정.

(3) 心身障礙者 施設: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障礙로 인하여 독립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者를 보호하며,

(4) 위와 같은 身體的 精神的 障礙者를 治療, 再活, 再訓練하는 施設 등이 있다.

보호시설중 私立이 65.5%로 大部分을 차지하고 보호시설의 半 정도는 1960年代 以前에 建立된 것이어서 施設의 노후정도가 심하며, 몇몇 施設의 경우는 收容人員이 定員에 미달되고 있다. 그 原因으로 첫째, 施設水準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둘째, 入院節次가 까다롭고, 셋째, 市民들의 一般의인 인식이 부족하고, 넷째, 보호기능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 등이 있다.

● 社會福祉 施設 運營 現況,

(1) 收入財源은 自體事業收入, 國庫 및 地方費 補助金, 外國援助, 民間援助, 寄附贊助金, 借入金 등이 있다.

(2) 收入財源의 大宗은 國庫 및 地方政府 補助金으로, 특히 1979年 以後 보조금의 比重이 점차 더 커지고 있고, 成人施設은 거의 全의으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 非施設 保護者의 保護內容

· 非施設 保護者는 居宅保護者와 自活保護者(일반적 의미의 영세민)로 구분되어 있다.

· 순수한 生活補助費는 月平均 貨幣價値로 居宅保護者는 1人當 約 24,000원, 自活保護者는 6,000원 정도이다.

· 就勞事業 就業惠澤은 1個月 30日 就勞한다는 전제下에, 남자는 월평균 約 212,880원, 여자는 約 227,700원 정도이다.

■ 課題

· 零細民의 자립기반 조성, 생활조건 개선, 생산력 향상, 신체장애자들의 再活 教育 등 包括的인 福祉政策을 수립하고, 公共扶助의 施惠는 第2次的인 것이 되도록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豫防의 복지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職業訓練施設の 확충은 물론 영세민을 위한 企業資金 融資制度를 市政府保證과 銀行融資 體制로서 확대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社會福祉行政은 기본적으로 公共扶助行政에 한정되어 있고 對象選定基準, 對象種類, 保護內容基準, 補助金 策定등을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執行機能만을 담당하는데 불과하다. 또한 정부재정의 빈약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이 民間主導型이라는 점에서 이 부문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需要推定 및 施設計劃

■ 基本方向

- 생활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를 위한 시정부출산을 현재 전체예산의 1.1%에서 2001년에 2-3%로 해야 할 것이다.
- 시립의 육아원, 양로원 등의 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영세민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종합복지시설로 설립해 나가야 한다.
- 조직적인 직업알선체제를 확립해야 할 뿐 아니라 영세민의 노점, 행상행위 등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시책도 병행하도록 한다.

■ 部門別 計劃

● 市立 職業訓練 施設

- 2001년의 訓練所要 人口의 1/3정도 되는 7,630人을 市立 職業訓練機關에서 擔當할 수 있게 한다.
- 이를 위해 현재 3개소인 市立 施設을 1개소당 현재의 규모로서, 1991年, 1996年, 2001년까지 各各 1개소씩을 新設하여 總 6個가 되도록 한다.
- 現在 浮浪人 시설은 兒童施設 2개소, 成人시설 3개소가 있으나, 兒童시설은 극히 不足한 實情이므로 定員의 174%를 收容하고 있는 浮浪兒시설을 改善하기 위해 1991년까지 1개소를 新設한다.

●其他 社會福祉 施設

- 女性の社會進出이 많아짐에 따라 0~4歳の 幼兒들을 保護할 수 있는 施設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人口壽命의 연장추세에 따라 65歲 以上の 老人福祉 施設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며, 현재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兒童, 老人 福祉 施設들은 利用上 不便할 뿐 아니라, 相互 體系의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설치하고 체계화 시켜 綜合福祉 施設로 一元화하도록 유도한다.
- 종합복지 시설의 배치기준은 2~3個洞에 1個所씩 배치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生活保護對象者들이 밀집된 지역에는 추가로 배치시키도록 한다.
- 浮浪人 收容 및 職業訓練施設 外의 社會복지시설은 모두 民營化 시켜 나가되, 가능한 綜合福祉施設로 集團化시켜야 할것이다.



2

문화와 여유가 있는 도시

■ 문화

교육

문화·체육

■ 공원·綠地

Hi Seoul

SOUL OF ASIA

■ 現況

· 1981年 부터 1986년까지 初·中·高等學校는 學生數의 增加보다 높은 率로 그 施設이 擴充되어 왔다. 反面, 專門大 以上の 고등교육 기관은 學生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減少하거나 現狀維持에 그치고 있다.

· 初·中·高等學校의 지역적 분포는 대체로 均衡的인 편이나 동대문, 도봉, 구로, 관악구 등은 국민학교, 중학교가 學生數 비율에 비추어 不足하고, 江南, 江東區는 고등학교가 學生數 비율에 비추어 不足한 反面, 종로구는 學生數 비율보다 학교 비율이 높다.

● 各級學校 現況

· 學生數는 88년현재 2,775,249人으로 全體 人口의 27%에 가까운 실정이다.

· 지난 3年 동안 學生數와 敎師數의 增加는 유치원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고등학교 學生數이다.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대체로 人口增加率에 相應하는 데 그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學生數 증가에 비해 敎師數가 덜 증가하여 과밀학급을 이루고 있다.

各級學校 現況

(단위 : 人, %)

| 구 분 | 1986 | | | | 1988 | | | | 학교 증가율 | 학생 증가율 |
|------|-------|--------|-----------|------------|-------|--------|-----------|------------|-----------|-----------|
| | 학 교 | 학 급 | 학 생 | 학급당 학생수 | 학 교 | 학 급 | 학 생 | 학급당 학생수 | | |
| 유치원 | 1,087 | 2,014 | 65,639 | 32.1 | 1,326 | 2,635 | 80,721 | 30.6 | 22.0 | 23 |
| 국민학교 | 423 | 20,035 | 1,086,283 | 54.2 | 441 | 21,081 | 1,113,868 | 52.8 | 4.3 | 2.5 |
| 중학교 | 298 | 10,166 | 647,803 | 63.7 | 309 | 10,325 | 592,717 | 57.4 | 3.7 | - 8.5 |
| 고등학교 | 213 | 8,735 | 507,067 | 58.1 | 228 | 9,655 | 562,462 | 58.2 | 7.0 | 10.9 |
| 전문대 | 18 | 122 | 31,018 | 254.2 | 17 | 120 | 32,183 | 268.2 | - 5.6 | 3.8 |
| 교육대 | 1 | 58 | 3,213 | 55.4 | 1 | 52 | 2,730 | 52.5 | - | -15.0 |
| 대 학 | 36 | 1,267 | 312,779 | 254.0 | 34 | 1,019 | 292,796 | 288.3 | - 5.6 | - 6.4 |
| 계 | 2,076 | 42,427 | 2,653,802 | | 2,529 | 41,887 | 2,775,249 | | 21.8 | 4.6 |

출처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1988.

· 88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국민학교가 52.8인 중학교는 57.4인으로 86년에 비해 향상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78년에 국민학교 32인, 중학교 40인에 비하면 아직도 과밀학급이라 할 수 있다.

● 區別學校分布 現況

· 초·중·고교의 분포는 지역간 불균형한 상태이다. 중랑, 구로, 강동지역은 초, 중, 고등학교가 관악, 강서, 양천구등은 초·중학교가 학생수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그 반면 종로, 용산구등은 고등학교가 학생수에 비해 남는 실정이다.

區 學 校 分 布 現 況

(단위: 개소, 人)

| 구 분 | 국 | | | 중 | | | 고 | | |
|-------|-----|-----------|--------|-----|---------|--------|-----|---------|-------|
| | 학교 | 학생 | 학급 | 학교 | 학생 | 학급 | 학교 | 학생 | 학급 |
| 총 계 | 441 | 1,113,868 | 21,081 | 309 | 592,717 | 10,325 | 228 | 562,462 | 9,655 |
| 강 북 계 | 234 | 537,828 | 10,490 | 164 | 292,554 | 5,121 | 127 | 306,723 | 5,339 |
| 종 로 구 | 15 | 21,114 | 449 | 12 | 15,008 | 272 | 17 | 36,673 | 629 |
| 중 구 | 13 | 22,530 | 471 | 9 | 14,595 | 271 | 11 | 27,140 | 466 |
| 용 산 구 | 16 | 28,372 | 602 | 9 | 15,489 | 286 | 11 | 26,152 | 553 |
| 성 동 구 | 32 | 75,656 | 1,471 | 19 | 38,977 | 50 | 12 | 29,876 | 480 |
| 동대문구 | 20 | 52,821 | 1,011 | 18 | 34,291 | 599 | 9 | 20,398 | 347 |
| 중 랑 구 | 14 | 44,916 | 827 | 9 | 17,448 | 309 | 7 | 16,038 | 274 |
| 성 북 구 | 24 | 55,991 | 1,097 | 17 | 30,959 | 530 | 15 | 35,181 | 607 |
| 도 봉 구 | 19 | 50,874 | 962 | 13 | 26,755 | 469 | 8 | 21,241 | 365 |
| 노 원 구 | 20 | 54,713 | 1,041 | 13 | 25,233 | 442 | 12 | 24,495 | 427 |
| 은 평 구 | 23 | 51,494 | 977 | 16 | 27,236 | 472 | 11 | 32,541 | 560 |
| 서대문구 | 18 | 37,271 | 741 | 16 | 26,416 | 457 | 8 | 21,748 | 370 |
| 마 포 구 | 20 | 42,076 | 841 | 13 | 20,147 | 354 | 6 | 15,239 | 261 |
| 강 남 계 | 207 | 576,040 | 10,591 | 145 | 300,163 | 5,204 | 101 | 255,739 | 4,286 |
| 양 천 구 | 20 | 52,819 | 996 | 13 | 27,212 | 469 | 10 | 23,558 | 409 |
| 강 서 구 | 19 | 47,400 | 898 | 10 | 17,478 | 301 | 12 | 31,988 | 448 |
| 구 로 구 | 29 | 83,931 | 1,522 | 17 | 40,433 | 694 | 10 | 25,651 | 442 |
| 등 포 구 | 20 | 47,225 | 935 | 14 | 27,631 | 490 | 7 | 17,157 | 294 |
| 동 작 구 | 17 | 42,705 | 831 | 16 | 30,154 | 528 | 6 | 15,180 | 261 |
| 관 약 구 | 20 | 62,582 | 1,187 | 14 | 28,618 | 496 | 11 | 22,771 | 387 |
| 시 조 구 | 19 | 47,839 | 875 | 16 | 36,759 | 625 | 12 | 36,141 | 611 |
| 강 남 구 | 21 | 57,202 | 999 | 15 | 33,434 | 568 | 12 | 25,650 | 445 |
| 송 파 구 | 20 | 64,129 | 1,115 | 17 | 32,062 | 579 | 10 | 25,091 | 427 |
| 강 동 구 | 22 | 70,208 | 1,233 | 13 | 26,382 | 454 | 11 | 32,552 | 562 |

출처: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1988.

■ 課題

- 지역간 교육시설의 均衡配置와 教育施設 및 教育내용의 質의 均等化를 도모해야 한다.
- 各級學校 教育施設이 教育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統一化되어 있고 교육세의 한정성으로 인해 教育財政이 불안정하여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어려운 실정인 점을 감안하여 계획해야 할 것이다.

需要推定

- 2001年 까지의 서울시 人口增加 추세에 따라서 학생수를 추정해 보면, 국민학교의 학생수 증가는 1989年을 頂點으로 하고, 그 以後는 出生率의 低下로 減少될 것으로 추정되며, 중학교는 1994年을 頂點으로 하여 추정하고, 고등학교는 중학교 학생수 增減 추세에 3年을 더하여 추정한다.
- 학교 시설기준으로서의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생수는 1991年 까지는 第6次 經濟社會發展5個年 計劃의 教育부문 지표를 適用하고, 그 以後 2001年 까지는 韓國教育開發院의 연구결과에 따라 2001년에는 학급당학생수를 국민학교 45人, 중학교 40人, 고등학교 40人으로 한다.
- 以上の 기준에 의한 연도별 각급학교 소요를 산정하면 2001년까지 국민학교 688개, 중학교 456개, 고등학교 478개가 필요하다.

各級學校의 學生數 推定

(단위 : 千人)

| 區 分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
| 國 民 學 校 | 1,181 | 1,086 | 1,134 | 1,127 | 1,115 |
| 中 學 校 | 511 | 647 | 598 | 576 | 548 |
| 高 等 學 校 | 384 | 507 | 492 | 557 | 574 |

各級學校 施設基準

(단위 : 人)

| 區 分 |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
| 國民學校 | 學級當 學生數 | 64 | 54 | 50 | 47 | 45 |
| | 學校當 學級數 | 61 | 47 | 43 | 40 | 36 |
| 中 學 校 | 學級當 學生數 | 69 | 61 | 50 | 42 | 40 |
| | 學校當 學級數 | 34 | 34 | 36 | 36 | 30 |
| 高等學校 | 學級當 學生數 | 60 | 58 | 50 | 42 | 40 |
| | 學校當 學級數 | 39 | 41 | 36 | 36 | 30 |

各級學校 所要推定

(단위: 개소)

| 구 | 문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
| 國民學校 | 總所要 | 301 | 423 | 527 | 599 | 688 |
| | 追加所要 | — | 122 | 104 | 72 | 89 |
| 中學校 | 總所要 | 219 | 298 | 332 | 380 | 456 |
| | 追加所要 | — | 79 | 31 | 19 | 76 |
| 高等學校 | 總所要 | 166 | 213 | 273 | 368 | 478 |
| | 追加所要 | — | 47 | 60 | 95 | 110 |

註: '81, '86년은 실제 치.

시설계획

■ 기본방향

- 국민학교, 중학교는 원칙적으로 徒歩通學이 가능한 地域單位로 배치하도록 한다.
- 국민학교, 중학교는 地域單位 配置와 可用土地를 고려하여 소규모 설립을 권장한다.
- 교육시설 공급에 있어서는 土地資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의 垂直的 複合化 즉, 건물을 複合用途로 이용함으로써 일반 건물내에도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은 원칙적으로 全國的 均衡發展 대책을 수용한다.



Seoul

SOUL OF ASIA

■ 강남·북 지역간 교육균형발전계획

- 강남·북 학교간 교육여건 균형대책추진: 강북지역의 노후교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집중투자와 교육기자재를 우선지원하도록 한다.
- 교육인사제도 개선: 거주지 중심인사에서 학교중심인사로 전환하여 중견교사를 강북지역에 우선배치하게 한다. 그와함께 교원 勤務 與件을 개선한다.

區別 各級學校 配分計劃

(단위: 주)

| 구 분 | 1991 | | | 1996 | | | 2001 | | |
|------|------|-----|-----|------|-----|-----|------|-----|-----|
| | A | B | C | A | B | C | A | B | C |
| 총 계 | 527 | 332 | 273 | 519 | 380 | 368 | 688 | 456 | 478 |
| 강북계 | 259 | 168 | 149 | 364 | 183 | 188 | 326 | 214 | 237 |
| 종로구 | 10 | 9 | 17 | 9 | 7 | 17 | 10 | 7 | 16 |
| 중 구 | 9 | 9 | 13 | 8 | 7 | 13 | 9 | 8 | 13 |
| 용산구 | 12 | 9 | 12 | 12 | 8 | 12 | 13 | 9 | 11 |
| 성동구 | 37 | 19 | 15 | 41 | 24 | 16 | 47 | 29 | 14 |
| 동대문구 | 28 | 17 | 9 | 32 | 20 | 13 | 37 | 24 | 16 |
| 중랑구 | 18 | 9 | 6 | 20 | 10 | 8 | 23 | 12 | 10 |
| 성북구 | 26 | 16 | 15 | 26 | 16 | 21 | 29 | 18 | |
| 도봉구 | 31 | 19 | 12 | 38 | 24 | 18 | 44 | 29 | 29 |
| 노원구 | 30 | 19 | 17 | 38 | 24 | 26 | 43 | 29 | 40 |
| 은평구 | 23 | 15 | 16 | 26 | 17 | 21 | 30 | 19 | 28 |
| 서대문구 | 16 | 15 | 10 | 16 | 14 | 15 | 18 | 17 | 20 |
| 마포구 | 19 | 12 | 7 | 20 | 12 | 8 | 23 | 13 | 12 |
| 강남계 | 268 | 164 | 124 | 155 | 197 | 180 | 362 | 242 | 241 |
| 양천구 | 24 | 10 | 13 | 30 | 13 | 18 | 34 | 16 | 25 |
| 강서구 | 24 | 13 | 11 | 30 | 17 | 16 | 34 | 22 | 22 |
| 구로구 | 39 | 22 | 12 | 44 | 26 | 19 | 51 | 31 | 26 |
| 영등포구 | 22 | 14 | 7 | 24 | 15 | 12 | 28 | 18 | 15 |
| 동작구 | 18 | 16 | 7 | 18 | 16 | 11 | 21 | 19 | 15 |
| 관악구 | 27 | 16 | 9 | 29 | 18 | 13 | 34 | 22 | 18 |
| 서초구 | 25 | 18 | 15 | 30 | 24 | 19 | 35 | 29 | 26 |
| 강남구 | 27 | 18 | 15 | 33 | 24 | 20 | 38 | 30 | 26 |
| 송파구 | 30 | 15 | 18 | 37 | 20 | 26 | 43 | 25 | 34 |
| 강동구 | 32 | 22 | 17 | 38 | 24 | 26 | 44 | 30 | 34 |

註: A는 국민학교, B는 중학교, C는 고등학교

■ 現況

- 지난 20여년 동안 各種 多樣한 文化的 所要에 대하여, 主로 私의 部門에서 營利性이 있고 大衆의인 文化적 기회와 시설이 발전되어 왔다. 反面에 營利성이 적거나 없는 高級文化 所要를 充足시킬 수 있는 기회와 시설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 市民들의 體育와 休息을 위한 기회와 시설은 올림픽을 계기로 長足の 發展을 하였다.
- 그러나, 市民들이 日常의으로 接近할 수 있는 기회와 시설은 매우 不充分한 실정이다.
- 地域社會 各급학교의 教育시설이 充分히 개방되지 않고, 서울市 주변에는 家族單位 休息과 體力向上을 위한 場所가 극히 制限되어 있다.

公共圖書館 現況(1987년)

| 구 분 | 도서관명 | 좌석수 | 장서수 | 연간이용자수 |
|-----|------------|-------|-----------|-----------|
| 국립 | 중앙도서관(서초구) | 2,072 | 1,359,267 | 828,647 |
| 시립 | 마 포 | 636 | 43,764 | 366,681 |
| | 남 산(용산) | 1,770 | 236,410 | 715,970 |
| | 도 봉 | 1,246 | 40,155 | 511,428 |
| | 어린이(종로) | 1,013 | 78,611 | 369,130 |
| | 영등포 | 1,255 | 96,733 | 457,827 |
| | 정 독(종로) | 3,787 | 217,988 | 1,415,151 |
| | 종 로 | 846 | 141,206 | 529,204 |
| | 용 산 | 1,620 | 92,132 | 476,538 |
| | 동대문 | 1,266 | 106,935 | 500,783 |
| | 강 서 | 1,526 | 68,220 | 561,828 |
| | 강 남 | 668 | 48,653 | 263,800 |
| | 강 동 | 1,200 | 30,351 | 429,197 |
| | 개 포 | 1,176 | 33,016 | 380,636 |
| | 구 로 | 720 | 30,732 | 289,068 |
| | 고 덕(강동) | 1,020 | 28,666 | 354,811 |
| | 시대문 | 1,544 | 19,015 | 446,454 |

출처: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1988.

●文化施設 現況

- 都市計画法上の 문화시설로는 도서관, 대규모공연장, 그리고 法の 保護를 받는 각종 文化財 등이 있다.
- 公共圖書館이 現在 없는 區도 있고 편중되어 입지한 경우도 있다. 마포구, 구로구의 경우 극히 열람석의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 「새마을 文庫」는 洞單位의 도서관이지만, 주로 兒童들을 위한 貸出 機能만을 담당하고 있다.

기타 文化施設 現況

| 연도 | 문화재 | | | 공연장 | | 박물관 | |
|------|-----|-----|-----|-----|--------|---------|-----------|
| | 개 | 지정 | 지방 | 개수 | 수용인원 | 소장품 | 입장객 |
| 1981 | 135 | 58 | 77 | 84 | 63,391 | 261,102 | 668,542 |
| 1987 | 586 | 486 | 100 | 194 | 70,186 | 442,562 | 1,789,380 |

출처: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體育施設 現況

- 올림픽을 계기로 대규모 公共運動場이 크게 擴張되었다.
- 소득의 증대로 각종 사설 소규모 體育施設이 증가되고 있다.

運動場 現況(1986년)

| 운동장명 | 위 치 | 면적 (㎡) |
|----------------|------------|-----------|
| 1. 국립경기장 | 강 동 구 둔촌동 | 2,748,000 |
| 2. 잠실운동장 | 강 동 구 잠 실 | 408,800 |
| 3. 독실경마장 | 성 동 구 성 수 | 380,640 |
| 4. 오류력비장 | 구 로 구 오류동 | 64,347 |
| 5. 서울운동장 | 중 구 을지로 | 99,029 |
| 6. 효창운동장 | 용 산 구 효창동 | 27,593 |
| 7. 종합채력단련장 | 성 북 구 종암동 | 82,800 |
| 8. 고척동운동장 | 구 로 구 고척동 | 96,759 |
| 9. 승마경기장 | 파 천 주암리 | 1,099,854 |
| 10. 수출공단운동장 | 구 로 구 가리봉동 | 20,155 |
| 11. 광장운동장 | 성 동 구 광장동 | 45,510 |
| 12. 새마을중앙분부운동장 | 강 서 구 등촌동 | 27,040 |
| 13. 도곡운동장 | 강 남 구 도곡동 | 7,394 |
| 14. 종합운동장 | 강 서 구 목 동 | 152,346 |

자료: 서울시 시설계획과

기타 體育施設 現況(1984년)

| | 위치 | 면적 (㎡) | | 위치 | 면적 (㎡) |
|----|------|---------|-----------|------|---------|
| 강북 | 종로구 | 11,547 | 강남 | 강서구 | 34,182 |
| | 중구 | 32,489 | | 구로구 | 9,565 |
| | 용산구 | 23,781 | | 영등포구 | 19,912 |
| | 성동구 | 96,439 | | 동작구 | 16,441 |
| | 서대문구 | 18,094 | | 관악구 | 11,872 |
| | 성북구 | 64,698 | | 강남구 | 180,563 |
| | 도봉구 | 825,882 | | 강동구 | 19,448 |
| | 은평구 | 30,545 | | | |
| | 서대문구 | 4,623 | | | |
| | 마포구 | 5,214 | | | |
| 계 | | | 1,374,753 | | |

註: 區別 테니스, 골프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용지임.



■ 課題

- 市民들을 위한 문화적 기회의 다양성을 더욱 振作시키고, 모든 階層의 均質的接近이 容易해야 한다.
- 各種 문화시설의 擴充은 원칙적으로 行·財政의 制度改善을 통하여, 私的 部門에서의 비영리 公益性的의 문화시설을 조장한다.

부문별 계획

■ 문화발전 계획

- 문예진흥의 기반조성 강화한다.
- 전통문화의 발굴, 보전, 복원에 힘쓴다.
- 문화시설을 확충정비한다.
- 국제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한다.

■ 文化施設 計劃

●圖書館

- 市立圖書館은 2001년까지 현재 장서수의 10배 열람좌석수의 2배를 擴充한다.
- 행정구청단위 도서관미설지구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10만명당 1개관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며 이와함께 1個區에 2개소를 基準으로 分館을 配置한다.

●其他 文化施設

- 앞으로 公共大規模 公演場 및 展示場 施設은 建立을 억제한다.
- 원칙적으로 民間部門에 맡기고, 재정적·행정적 제도개선을 통하여 非營利 公 公시설을 권장 支援한다.

■ 體育 施設 計劃

公共 施設의 확장은 止揚하고, 서울시 주변 개발제한구역內에 家族單位 휴식 및 체력향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시설의 개방으로써 충족한다.

- 문화·휴식복지시설에 대한 市民的 需要는 2000年代에 있어서 가장 重要的한 社會的 問題로 부각될 것으로 豫想된다.
- 廣域化 하게되는 都市機能과 體系에 따라 서울의 公共綠地(open space)는 廣域的 利用密度가 증가될 것이며, 多樣한 形態의 공간이 要求될 것이다.
- 國際都市로서의 獨特하고 獨自의인 都市空間의 質과 形態가 創出·維持되어야 할 必要性이 있으며, 質의 評價基準 또한 國際的인 視角과 脈絡下에서 規定樹立·檢討될 추세에 있다.
- 地方化와 自律化의 추세에 따라 各區單位·동네단위에서의 自足的인 公共綠地를 確保하고자 하는 要求가 增大되고 이에 대한 市民壓力이 增加될 것이다.
- 정치제도의 민주화, 지역사회 發展過程의 自律化에 따라 開發事業의 市民參與의 幅이 넓어지고, 따라서 土地收用, 強制撤去와 같은 強制力에 의한 도시개발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非商業的 屬性을 갖는 公園·綠地의 用地確保는 상당한 기간의 事前 準備과 一貫性있는 政策의 수행없이 是 事實上 어려운 狀況에 이르게 될 것이다.
- 市民的 餘暇空間에 대한 새로운 요구는 첫째로 空間의 量的 擴充에 대한 것이고, 둘째로는 多樣化된 各 階層에 均等하고 適合한 空間形態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 量的 擴充이라는 時点에서 볼때 向後 20년을 展望할때, 서울시는 기존 公園·綠地의 시설투자에 集中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대단위의 用地를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豫想된다. 결과적으로 都心部의 跡地라든지, 河川改修 과정상의 部分的인 토지 확보 같은 開發過程上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量的 擴充이 될 것이며 순수한 大單位 公園·綠地의 확보는 民間部門의 參與없이 是 어려운 것이다.
- 質的인 側面에서 미래 도시의 公園녹지는 「단순한 森林과 河川과 같은 自然狀態의 公共綠地」라는 형태를 指向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商業化된 놀이공원(Amusement park), 주차극장(drive-in theater) 특수한 주제공원(Theme park)이 나타난 것이 예상되며 그 형태 또한 고전적인 公園녹지의 形象과 判 別한 것이 될 것이다.

Seoul

· 公園開發方式에 있어서 民間과 公共部門의 役割分擔이 豫想되고 특히 開發의 財務調達과 維持管理에서 公共의 부담이 輕減되는 方向으로 進行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여가수요 증대에 對處하는 市行政 서어비스 部門의 수요증가 및 기구확대가 靚연적일 것이다.

現況分析 및 課題

■ 現況

- 서울市 公園·綠地水準은 世界 유수의 大都市와 比較해 볼때 市域의 면적에 대한 比率로 보면 그 水準이 결코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나, 그것은 서울市의 외곽에 있는 自然公園의 면적 때문이다. 한편 市民 1人當의 所有面積으로 보면 서구의 도시에 비해 월등히 低調한 편에 속해 있고 이들 두가지의 기준도 公園의 시설투자분만으로 비교하면 세계 유수도시의 水準에 매우 처지는 狀況에 있다.
- 서울의 公園은 시설투자가 미흡한 계획만의 都市公園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實際 利用上 무허가 주택지가 용지를 많이 占有하고 있어서 公園개발의 現實的 制約點이 되고 있다.
- 全般的으로 볼때, 日常生活에서 직접 接觸되는 근린公園의 성격을 지닌 공공 녹지는 위치와 면적, 규모에 있어서 전과 양이 저조하며 公園·녹지의 도시구조의 계층성이 회박하다. 國立公園인 북한산 자연公園에서부터 대규모의 야와 트단지내의 놀이터에 이르기까지 公園의 法的 區分에 關係없이 利用上의 階層性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도시 공간구조의 자연스러운 再構成이라는 都市計劃의 基本目的과는 무관하게 계획, 조성, 운영되고 있는 實情에 있다.

서울市 公園現況(1987年)

| 구분 | 개소 | 면적(km ²) | 1인당면적 (m ² /人) |
|----|-------|----------------------|------------------------------|
| 계획 | 1,231 | 154 | 15.4 |
| 시설 | 896 | 92 | 9.2 |

註: 체육공원은 제외, 도시계획구역내
공원수전입.

출처: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88.

● 公園 現況

- 1987년 현재 서울의 公園은 1910년에 최초로 公園이 지정된 이래 1,231개소 154km²에 달하고 있고 그중 74.3%가 施設投資된 실질적인 公園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87년 현재인구 9,991千人を 기준으로 볼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公園의 경우, 1人當 公園 면적은 15.4km²이나 시설투자된 公園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9.22km²로서 公園水準이 저조한 상태에 있다.

· 서울市の 全域에 걸친 公園分布는 대부분이 서울市の 외곽지역에 偏重되고 있어서 區單位의 自足的 空間造成이라는 觀點에서 볼때 市民들의 均等한 利用에 문제가 되고 있다. 약 70%의 公園이 도봉, 은평, 강서, 구로, 관악, 강남,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都心活動과의 日常的 接近은 不可能한 實情에 있다.

· 各 區의 현재상황은 도시공원법상 1人當 公園면적기준 $6\text{m}^2/\text{人}$ 이하인 區가 8 區에 달하고 近隣公園 설치기준 $2\text{m}^2/\text{人}$ 이하인 分布를 보이는 區가 4개에 이르고 있다. 또 도시 自然公園이 없는 구가 4개나 있다.

· 人口規模나 도시의 공간구조로 볼때 서울市の 各 區는 사실상 地方 中小都市의 그것과 상응하고 남음이 있을만큼 도시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한 까닭에 公園·綠地의 區別 適正水準의 維持가 巨視的 眼目에서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

· 한편 기존의 公園은 이용의 관점에서 볼때 도시공원적 성격의 장소나 공간이라기 보다는 自然景觀의 保存이라는 의미에서의 보존이 더 의미를 갖는 녹지의 뜻이 강한 公園이어서 다양한 계층에게 적합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고 (개별제한 구역내의 公園은 전체의 약 67.5%), 토지소유 또한 전체 용지의 약 12% (61.6km)가 私有地로서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市 區別 公園水準(1987年)

| 구 분 | 개 소 | 면적 (km) | 인당면적 ($\text{m}^2/\text{人}$) | 공원면적비 (%) |
|-------|-----|---------|--------------------------------|-----------|
| 종로구 | 36 | 5.91 | 23.11 | 24.6 |
| 중 구 | 20 | 0.32 | 1.62 | 3.2 |
| 용 산 구 | 21 | 0.47 | 1.50 | 2.1 |
| 성 동 구 | 79 | 2.75 | 3.58 | 8.1 |
| 동대문구 | 71 | 5.25 | 5.55 | 16.0 |
| 성 북 구 | 23 | 1.05 | 6.98 | 16.7 |
| 도 봉 구 | 125 | 16.56 | 18.61 | 20.7 |
| 은 평 구 | 48 | 4.29 | 9.43 | 14.4 |
| 서대문구 | 36 | 4.74 | 11.70 | 26.8 |
| 마 포 구 | 46 | 0.25 | 0.56 | 1.0 |
| 강 서 구 | 170 | 4.43 | 5.72 | 7.5 |
| 구 로 구 | 62 | 4.62 | 6.50 | 14.0 |
| 영등포구 | 22 | 0.17 | 0.38 | 0.7 |
| 동 작 구 | 32 | 3.21 | 8.02 | 20.0 |
| 관 악 구 | 78 | 12.96 | 22.96 | 43.7 |
| 강 남 구 | 153 | 19.92 | 24.08 | 23.0 |
| 강 동 구 | 164 | 3.45 | 3.51 | 5.9 |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감, 1988.

서울市 公園現況(1987년)

| 구 분 | 계 획(A) | | 시 설(B) | | 미시설 | | 공원시설율(%) (B/A×100) |
|----------|--------|-------------|--------|------------|-----|------------|-----------------------|
|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
| 계 | 1,231 | 153,709,183 | 878 | 92,119,613 | 353 | 61,679,210 | 71.3 |
| 도시공원 | 1,210 | 106,332,247 | 854 | 47,547,229 | 356 | 58,785,018 | 70.6 |
| · 도시자연공원 | 26 | 75,111,089 | 9 | 36,158,098 | 17 | 38,052,991 | 34.6 |
| · 근린공원 | 200 | 26,792,622 | 73 | 7,400,738 | 127 | 19,391,881 | 36.5 |
| · 어린이공원 | 978 | 1,419,757 | 767 | 979,614 | 211 | 440,143 | 78.1 |
| · 묘지공원 | 5 | 3,008,779 | 5 | 3,008,779 | — | — | 100.0 |
| 국립공원 | 1 | 39,870,962 | — | — | 1 | 39,870,962 | 0.0 |
| 체육공원 | 16 | 6,966,422 | 12 | 4,701,452 | 4 | 2,264,970 | 75.0 |
| · 한강고수부지 | 13 | 6,930,000 | 12 | 4,701,452 | 1 | 2,228,548 | 92.3 |
| 유 원 지 | 5 | 629,552 | — | — | 5 | 629,552 | 0.0 |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88.

●綠地의 現況

· 서울의 녹지는 天惠의 자연조건으로 많은 면적이 森林, 大河川樹林帶, 山岳景觀으로 되어 있으며 녹지지역의 면적은 전체 도시계획구역의 50.8%(359.6km)에 달하고 있다. 이중 생산녹지는 극소수이며 절대다수가 근자연녹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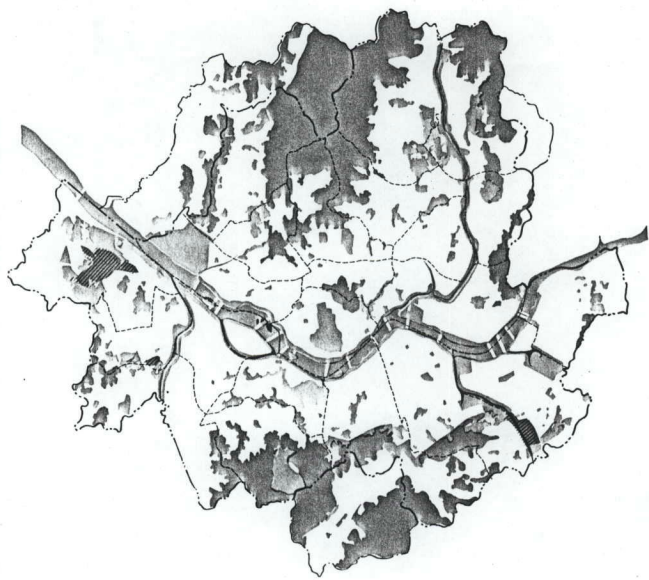
· 도시에서의 녹지는 앞서 검토된 바와 같이 日常的 接近에 큰 의미를 두는데, 不幸하게도 서울의 녹지는 주위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것도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고 있어서 녹지의 市民에의 活用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여가공간으로서 장기적인 活性化 方案이 강구될 필요성이 보인다.

綠地地域 現況(1986年)

| 區 分 | 面積(km) | 構成比(%) |
|------|--------|--------|
| 合 計 | 359.60 | 100.0 |
| 生産綠地 | 4.78 | 1.3 |
| 自然綠地 | 354.82 | 98.7 |

施設綠地 現況(1986年)

| 區 分 | 個 所 | 面積(km) | 構成比(%) |
|------|-----|--------|--------|
| 合 計 | 166 | 2.57 | 100.0 |
| 緩衝綠地 | 114 | 2.49 | 96.9 |
| 景觀綠地 | 52 | 0.08 | 3.1 |



| | |
|--|------|
| | 자연녹지 |
| | 생산녹지 |
| | 자연공원 |
| | 근린공원 |
| | 묘지공원 |

■ 과제

- 都市의 外廓과 近郊住宅地의 경우에는 도시의 중심성이 多變化되고 多樣化되는 傾向에 따라 地區別 도시공원(地區公園)의 確保가 우선적인 課題로 보이며 아울러 市界의 주변에 廣域의 利用이 豫想되는 大規模 恩樂의 性格을 띤 遊園地의 造成이 미래의 또다른 公園·綠地 需要에 對關하는 하나의 方案으로서 구성될 수 있다. 이것은 全市의 여가공간의 均衡의 配分이라는 뜻과 기존의 公園녹지체계를 補充하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 현재 서울市の 公園·綠地는 기존의 公園체계를 補充하는 과제가 우선적이며 '기적이고 一慣性있는 都市綠地計劃과 公園을 爲主로 하는 公共綠地를 確保하는 計劃과 執行上의 都市行政優先順位가 높아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地域의 配置의 側面에서 볼때, 소위 四大門內의 都心部에는 都市의 市民 業務活動과 직접 관련되는 「都市廣場」이 絶對的으로 要求되고 있고 아울러 都心活動의 촉진적 性格이 강한 步行者專用道路, 遊步商街地區, 記念(象徵)公園이 補充될 수 있을 것이다.

수요추정 및 계획

■ 수요추정기준

- 2001년까지 公園·綠地의 水準은 시민 1人當 確保面積의 기준과 都市計劃區域 및 市街化區域에 대한 面積比率의 두가지 기준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 計劃人口指標에 따른 1人當의 原單位에 의한 2001년의 公園·綠地의 面積需要는 原單位를 1人當 6㎡로 설정할 경우* 公園計劃面積의 추가공급은 필요하지 않으나 公園施設面積에 있어서는 약 29.4km²의 추가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都市公園法上 都市計劃區域內에서는 1人當 6㎡이며 市街化區域內에서는 1人當 3㎡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한편 市街化面積에 대한 적정비율로서 公園의 計劃指標을 설정할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장래 公園·綠地의 追加所要가 결정됨으로 적정비율을 설정하는 일이 계획의 내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適正公園率을 市街化區域의 10% 水準으로 설정할 경우** 1986년말 現在 市街化區域內의 公園面積으로도 약 2.5km²의 여분이 있다.

** 서울시, 「서울시 公園綠地 政策方向 研究」, 1985, p239.

- 또다른 指標設定은 매년 公園녹지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장래의 不足分을 확인하는 방식인데 매년 3.2km²의 公園施設面積의 증가를 감안할 경우 약 44.8km²의 公園施設面積의 추가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여러가지 計劃指標의 설정방식을 통해 검토해 보면 公園計劃面積의 추가공급은 필요하지 않으나 公園施設面積의 경우 약 30~45km²의 범위내에서 추가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은 都市公園法上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기실 그 法的 基準의 내용에도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자연공원에 대한 1人當 필요면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유형 및 원단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는 일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는 公園녹지의 追加所要面積 또한 그리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公園유형에 따른 면적기준을 근거로 계획지표를 설정한다.

公園類型別 面積基準

| 區 分 | 1人當 面積 (㎡/人) |
|-------------|--------------|
| 都 市 自 然 公 園 | 2.5** |
| 近 隣 公 園 | 2.0* |
| 어 린 이 공 원 | 1.0** |
| 體 育 公 園 | 2.0** |

出 建設部, 都市基本計劃樹立 및 都市計劃 再整備 指針, 1981

** 서울市 公園綠地 政策方向 研究, 1985, 1

■公園・綠地의 需要 및 計劃

●수요량과 계획

· 계획지표에 따라 설정되는 공간수요는 公園施設面積에 있어서 약 30~45km의 추가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이 目標年度까지 달성되어야 할 계획의 量的 目標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原單位기준에 의한 理想的이고 희망적인 數値이다.

· 그러나 需要와 供給計劃의 當局的인 목적은 시민생활 환경의 질적수준의 제고에 있는 것인 만큼, 그러한 量的水準向上的의 目標달성과 아울러 질적수준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된다. 단순한 추가수요를 볼때, 현재 가장 부족한 공원은 어린이공원이며 다음 체육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공원은 오히려 여유가 있음을 감안해 볼때 서울시에 있어서 공원·녹지의 공급은 공원유형간 所要面積間의 조정이 필요되고, 다시말하면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공원유형간의 공간배치와 입지 조정의 문제로 귀착된다. 여유가 있는 자연공원의 일부를 여타의 공원으로 전환하는 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 목표년도인 2001년까지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이때 수반되는 市民生活 또한 많은 변혁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양상이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의 質的要求에 변화를 주게 된다. 환언하면 도시의 公共綠地에 대한 시민의 의 識가 예상되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현재 法制下의 各種類型에 따른 公園狀態가 목표년도에서 計劃과 執行에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생활방식에 따른 다양한 공간의 요구는 法制的 區分에 따른 量的 目標達成보다는 다양한 새로운 공공녹지의 出現을 요구하고 공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그 질적수준이 再考 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本計劃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계획의 기본적인 方向으로의 미가 있는 量的 指標이다.

公園需要推定

| 區 分 | 1992 | 1996 | 2001 |
|------------------------------|--------|--------|--------|
| 상주인구(千人) | 10,600 | 11,267 | 12,000 |
| 공원계획면적(k㎡) | 153.75 | 157.50 | 160.00 |
| 시설공원면적(k㎡) | 93.62 | 101.42 | 113.93 |
| 1인당시설공원면적(m ² /人) | 88.30 | 90.02 | 94.94 |
| 공원시설율(%) | 60.89 | 64.39 | 71.21 |

● 公共綠地體系와 形態

· 서울과 같은 거대도시에서 공간조직의 한 體系로서 公共綠地를 計劃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既存의 공간구성과 組織化되는 方式에 따라 그 性格을 기본적으로 維持하며 새로운 수요에 따라 그것을 補充하는 일로서 고려되는 것이다. 都市는 그 도시마다의 독특한 公共綠地의 形態가 있어서 시민의 생활환경과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익숙하게 적응되어 가기 때문에, 서울의 공공녹지체계와 형태를 구성하는 일은 서울의 현재의 고유한 自主의인 공간형태를 受容하지 않으면 안된다.

· 서울에 있어서 公園綠地體系에서 볼때 현실적으로 가장 時急히 補充되어야 할 공원·녹지형식은 地區公園이다. 이것은 근린단위의 공원을 넘어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공원과 자연공원, 근린단위의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수준의 공원 녹지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공원녹지 형태로서 주로 區單位 生活圈別로 고려되는 地區의 公園을 의미하고, 本計劃에서 이 공원을 公共綠地 體系의 기본공간 형식으로 삼는다.

· 이 지구공원은 向後 지금까지의 近隣公園, 체육공원을 統合한 利用을 中心으로 구상하는 기본적인 公園으로 計劃하는바, 區單位 水準에서 區生活圈에 日常의으로 影響을 미치면서 各 區 단위생활권간의 公共綠地體系를 一次的으로 考慮하는 公園·綠地로 計劃한다.

公園綠地의 類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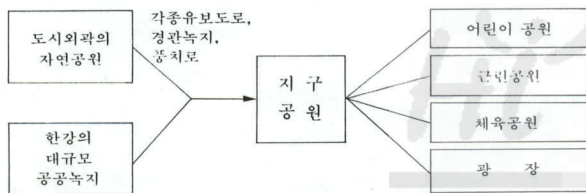
| 구 분 | 지역단위 | 일상생활단위 | 성 격 |
|--------------------------|--------------|--------------|------------------------------|
| I. 自然公園 大公園 | 시 전역 | 주말이용 | 차량 접근 목적지향 여가, 휴식, 행락 |
| II. 地區公園 近隣公園 體育公園 | 區 단위 洞 단위 | 주중이용 매일이용 | 보행·차량 접근 목적 혼합형 통하권 중심 |
| III. 어린이公園 놀이터 其他 | 洞 단위 이웃단위 | 매일이용 | 보행권 중심 일상 휴식 보행권 중심 |

●空間配置와 立地

公共綠地의 體系上 自然公園은 서울全域의 利用과 공간구조를 念頭에 두며, 사실상 本 計劃에서는 漢江沿岸의 開發軸에 따른 開發跡地가 그 對象이 된다. 따라서 立地上的 計劃方向은 서울전역으로 볼때 江南 江北間의 均衡의인 配置, 利用階層에 있어서 地域의 衡平性에 立脚하여 計劃하도록 한다.

- 地區公園은 區單位の 中心的 公園으로 서울의 公園綠地의 根幹이 되며 주로 都市大幹線道路, 高速化도로, 地下鐵驛, 區單位 生活圈의 中心과 關聯되도록 配置및 立地시킨다.
- 近隣公園은 兒童公園, 體育公園과 유사한 水準에서 計劃 配置하되 어디까지나 地區公園의 補充的 역할을 강조하며 目標年度까지 점진적으로 地區公園으로 統合한다. 아울러 체육공원과 어린이공원 또한 地區公園으로 計劃上의 位置, 役割과 기능을 吸收·統合하도록 한다.
- 本計劃에서는 어린이공원과 체육공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配置와 立地 計劃은 計劃의 세밀한 정도로 보아 裁減하도록 한다.
- 결론적으로 서울의 공공녹지체계는 공간배치에서 볼때 도시의 외곽에서 自然公園으로부터 한편으로는 漢江의 大規模 公共綠地에서 各種의 遊歩道路, 景觀綠地, 風致路와 같은 直接手段을 통해 各地區公園으로 연관 짓게 하고 이 公園 녹지를 基本으로 日常生活에 充分히 接近되는 어린이, 近隣, 體育公園 및 廣場을 집중시키도록 한다.
- 公共綠地의 體系上 四大門 都心地域은 都市廣場·小規模 公園, 象徵記念公園과 廣場 爲主의 공공녹지를 擴充하고, 外廊地域의 各 區單位 生活圈에는 多樣한 利用과 形態를 갖는 地區公園을 確保하도록 한다. 아울러 장래의 새로운 公共녹지로서의 支流河川用地, 低濕野生地, 轉用可能한 水路, 農地, 跡地, 廢鐵道敷地 등을 活用하게 하여 全般的인 公共綠地의 體系를 補完하도록 한다.

公共綠地體系



部門別 計劃

■ 廣域 公共綠地計劃

● 漢江邊 公共綠地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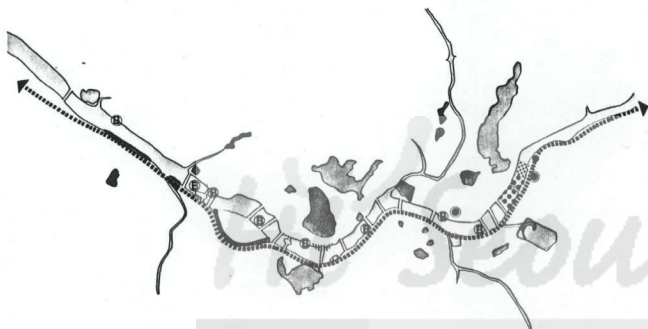
漢江邊에 대한 河川改修와 관련되는 開發事業은 一次的으로 完了되었으나 沿岸 可視圈內的 景觀 및 江邊의 自然 및 生産 綠地는 向後 長期的 立場에서 볼때 公園綠地의 重要的 用地이다. 江兩邊을 따라 開發跡地에 公園綠地計劃을 수립하고 기존의 公園綠地體系를 補完시킨다.

漢江邊 公共綠地計劃

| 위 치 | 성 격 | 주변여건 |
|-----------|--|------------------------|
| 강동구 암사동 | · 기존공원화대 · 지구공원 | · 구리시 · 대단위 APT단지 |
| 성동구 성수동 | · 경마장이전적지이용 · 체육공원 | · 독설유원지 |
| 용산구 보령동 | · 유수지 이용 · 시설녹지 | · 진천역 · 불광주거지 |
| 영등포구 여의도동 | · 여의도 샛강 · 자연학습원 · 야생초지 · 경관녹지, 유수지 | · 여의도 업무지구 · 강변경관녹지 |
| 마포구 망원동 | · 유수지부근 상습침수 지역의 일부이용 · 시설녹지 | · 난지도 · 성산대교 |
| 마포구 상암동 | · 유보녹지이용 · 대공원, 유원지 | · 강변보 · 난지도 유보녹지 |
| 강서구 가양동 | · 대규모 국제적 위탁단지 · 정적, 동적 행락수용 | · 올림픽대로 · 공업지역 |

한강변 공공녹지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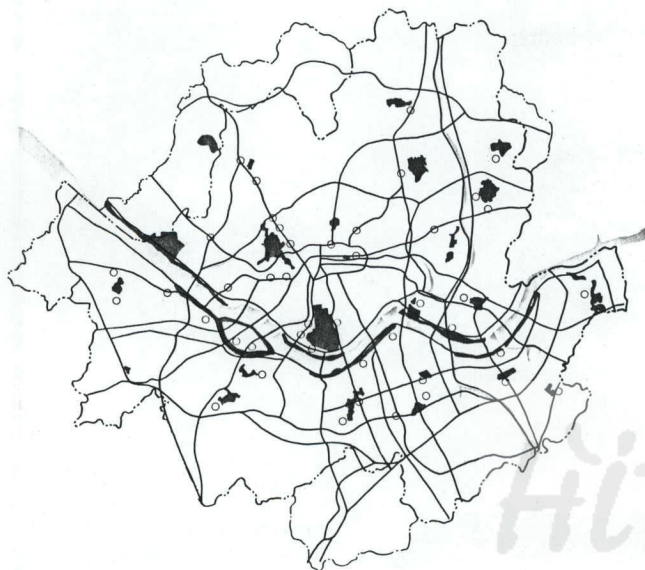
- 한강시민공원
- 지구공원
- 주변공원 녹지
- 올림픽대로
- 보트장
- 수상스키장
- 요트장
- 유원지
- 선착장



地區公園은 서울시 公園綠地計劃이 가장 중요한 地域的(區의 勢力圈) 中心으로 設立하고자 하는 公園이다. 여기에는 既存의 近隣公園이 包含될 수 있고 一部 대규모의 체육공원이 포함된다. 지구의 中心의 位置에, 大衆交通手段의 連繫가 편리한 지점, 서울시 全域의 公園·綠地體系의 骨格을 補強하는 위치에 立地하다.

| 위 치 | 성 격 | 위 치 | 성 격 |
|-----------------------------|----------------|----------------------------|------------------|
| 종로구 삼청동, 종로3가 | 자연학습장, 다목적 광장 | 마포구 망원동, 상암동 | 경관녹지, 위락시설 |
| 용산구 보광동, 미8군 | 경관녹지, 도심의 중심공원 | 강서구 동촌동, 가양동 | 교육, 문화, 체육, 위락시설 |
| 성동구 성수동, 능동 | 체육공원, 위락시설 | 구로구 개봉동 | 피크닉 |
| 동대문(중양)구 휘경동, 남십리동, 목동, 신내동 | 여가수요 서비스 |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화동 | 경관녹지, 자연학습장, 피크닉 |
| 도봉구 면동, 공릉동, 쌍문동 | 위락시설, 피크닉 | 동작구 신대방동, 대방동 | 교육, 문화, 체육, 위락시설 |
| 은평구 불광동 | 자연학습장, 위락시설 | 강남(서초)구 삼성동, 도곡동, 서초동, 오금동 | 위락시설, 피크닉 |
| 시대문구 연희동, 홍제동, 봉원동, 현저동 | 자연학습장, 피크닉 | 한강시민공원 | 위락시설, 체육공원, 피크닉 |

지구공원계획도



지구공원
 주요전철역
 주요간선도로

●綠地計劃

녹지는 用途地域上 보전, 생산 및 자연녹지로 구분되나 본 계획에서는 주로 보존과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검토를 한다. 생산녹지는 서울시와 같은 거대도시에서 도시화의 가속에 따라 사실상 유보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따라서 장래의 계획상 주거지나 공업지 혹은 공원녹지로의 轉換이 豫想된다. 公園·綠地의 確保라는 관점에서 볼때 주거지나 공업지 조성에 다소 불리한 지형여건에 있 생산녹지는 自然綠地나 保全綠地로, 나아가서 공원용지로 용도변환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공원으로 既指定된 지역도 지형상 山麓에 위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여도 공원으로로서 편리한 시민의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은 과감히 보전녹지로 용도변경되어야 될 것이다. 아울러 녹지지역내의 專用住居地는 이를 全面 撤去하여 공원녹지로 復元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이또한 現實的으로 막대한 행정비용과 투자비가 예상됨으로 몇가지의 정비원칙을 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도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원녹지의 면적이 과도하게 축소되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면적과 공원녹지의 現水準을 低下하지 않는 方向에서 녹지계획이 推進되어야 될 것이다. 그 몇가지의 원칙은 政策方向에서 檢討하기로 한다.

■ 都心公園計劃

●史蹟 및 記念公園

서울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보존, 기념하며, 도심활동과 日常的으로 직접 접촉되게 하기 위한 都心公園計劃은 주로 歷史的으로 記念하기 위한 공원·¹⁾학과 상징광장, 學校 및 工場移轉적지의 公園化計劃으로 區分할 수 있다. 史蹟公園 혹은 記念公園의 目的은 歷史的 事件을 一定場所를 通하여 도시에 時間性을 賦與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公園綠地는 規模에 대해 일정한 制限없이 性格과 周圍의 조건에 따라 決定된다고 할 수 있다. 史蹟 및 記念公園의 基本的인 性格은 利用에 있어서 地區公園의 水準이 될 것이나 그 物理的 計劃은 이것보다 더 「特定的」이고 意圖的인 要素가 可味될 것이다.

綠地現況 및 計劃(1986—2001)

| 구 분 | 녹 지 명 | 성 격 | 환 경 여 건 |
|-----|------------------|------------------------------------|-------------------------------------|
| 기 준 | 자연녹지지역(551.82km) | 녹지공간보전 범위내에서의 제한적 개발 | 개발제한구역, 태하천, 읍모지 상경도지 |
| | 생산녹지지역(1,78km) | 농업적 생산을 위한 개발의 유도 | 농경지 |
| | 시설녹지(2,57km) | 소규모 선형 유흥공지 | — |
| | · 완충녹지(2,49km) | 공해 및 재해의 방지, 재해발생시 피난지대 | 천도변, 주요도로변 주요시설변, 기타 (암벽, 경사지) |
| | · 경관녹지(0,08km) | 도시경관향상 자연환경보전 개선 | — |
| 개 획 | 보존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수립 및 녹지를 보존 | 개발제한구역, 하천, 공원 |
| | 시설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제한적 개발 | 읍모지상경도지 |
| | 생산녹지지역 | 농업적 생산을 위한 개발의 유도 | 농경지 |
| | 시설녹지 | 소규모 선형 유흥 공지 | — |
| | · 완충녹지 | 공해 및 재해의 방지 재해발생시 피난지대 | 천도변, 주요도로변, 주요 시설변, 기타 (암벽, 경사지) |
| | · 경관녹지 | 도시경관향상, 자연환경보전, 개선 | — |

●廣場造成計劃

· 市民의 屋外 都心活動이 增加함에 따라, 各種行事와 集會活動을 收容할 都心部의 廣場에 대한 計劃은 전체 도시의 公共綠地의 確保라는 뜻에서도 큰 意味를 갖는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보다는 공공녹지의 한 중요한 요소로서 이해되어야 된다. 卽 서울市の 廣場은 交通廣場과 行市廣場으로서 극소수가 있을뿐, 步行人口密度的 완화라는 측면과 都市의 公共의 空間과 場所의 創出이라는 측면에서 대폭적인 광장확보계획이 필요된다. 廣場의 配置는 都心部에서는 遊歩道에 따라 象徵과 記念性이 있는 장소와 위치를 위주로 배치, 조성하되 도심의 보행자활동 빈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 순위를 둔다.

· 外廓地域에 있어서는 地區公園과 관련하여 區別中心地, 電鐵驛附近, 도시 공공녹지 축의 連結地帶 등을 같이하여 計劃하며, 洞別 地域社會의 求心の 立地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記念公園計劃

| 공 원 명 | 위 치 | 기념성 |
|------------|----------------|------------------------|
| 서대문독립공원 | 서울구치소 | 애국독립투사의옥고 |
| 6. 25 전적공원 | 노량진 (혹은중지도) | 6. 25 전적장 6. 25 전적장 |
| 절두산공원 | 합정동 | 외국인묘지 절두산천주교성지 |
| 명동공원 | 명동성당주변 | 천주교의중심 |
| 4. 19 공원 | 수유동 | 4. 19 희생자묘지 |

史蹟公園計劃

| 구 분 | 공 원 명 | 위 치 | 규모(m) | 역사성 | 주변여건 |
|-----|--------|-------------|-------------|------------|---------|
| 기 존 | 개 | | 1,477,536.7 | | |
| | 경북궁 | 세종로동 | 299,375 | 조선왕조의정궁 | 한옥보존지구 |
| | 창덕궁 | 와룡동·권농동 | 465,010 | 조선왕조의이궁 | 한옥보존지구 |
| | 창경궁 | 와룡동 | 183,199 | 조선왕조의이궁 | 교육·문화시설 |
| | 종묘 | 훈정동 | 186,199 | 왕가조상의신위모신곳 | 상업·업무지구 |
| | 강희궁 | 구서울고교 | 98,470 | 조선왕조의이궁 | 외국대사관 |
| | 정동공원 | 구러시아공사관 | 215 | 아관파천의현장 | 문화·상업지구 |
| | 파고다공원 | 종로2가 | 15,720.9 | 3·1독립선언 | 도심상업지구 |
| | 사직공원 | 사직, 필운, 행촌동 | 168,099.8 | 사직단 | 주거지 |
| | 덕수궁 | 경동 | 61,417 | 조선왕조의이궁 | 문화·업무지구 |
| 개 회 | 광혜원공원 | 창덕이교 | | 최초의빙원 | 한옥보존지구 |
| | 백제고분공원 | 석촌동 | | 백제초기적석총 | 주거지 |
| | 망이교분공원 | 망이동 | | 백제고분 | 주거지 |
| | 풍납토성공원 | 풍납동 | | 백제토성 | 주거지·경관지 |
| | 선농단공원 | 용두동 | | 선농단터 | 주거지 |
| | 선잠단공원 | 성북동 | | 선잠단터 | 주거지 |
| | 과정공원 | 홍지동 | | 대원군별장 | 녹지 |
| | 살곶이공원 | 행당동 | | 살곶이다리 | 주거지·중앙천 |

廣場造成計劃

| 광장명 | 위치 | 성격 | 주변여건 |
|------|----------|----------------------------|----------------------|
| 시민광장 | 서울시청앞 | 서울의 중심광장, 상징광장, 교통광장, 복합용도 | 교통의 요충지, 업무활동의 중심지 |
| 철도광장 | 서울역앞 | 서울역의 상징, 교통광장, 복합용도 | 서울의 관문, 전국여행자의 활동집결지 |
| 국회광장 | 국회의사당주변 | 여의도광장과 의사당간의 상징공간화 | 국회의사당, 여의도광장 |
| 국군광장 | 영등포구 문래동 | 국군활동의 기념, 군관련 전시물 | 전철역, 공업지역 |
| 문화광장 | 새종문화회관주변 | 문화활동, 집회, 행사 | 새종문화회관, 업무·문화시설 |
| 언론광장 | 태평로1가 | 도시소공원, 가로공원화 | 프레스센터,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 |

●遊歩道計劃

· 서울의 都心部에 보행자 활동을 최대한 활성화 하기 위한 街路網計劃을 構想한다. 차량의 통행을 부분적으로 制限하거나 遊歩商街地區를 計劃하며 美觀廣場, 歷史公園, 小公園을 이 가로에서 접근용이하도록 배치계획한다.

· 遊歩道の 路線은 도심부에서 보행자의 보행활동의 密度가 높고 視覺的 標識物, 史蹟, 公共文化活動이 集中되는 地區를 連結시킨다. 도시조경설계의 手法을 통해 도심부의 公共空地를 確保하기 위한 廣場, 小公園을 大街路別로 計劃한다. 현 도심부에는 市民의 接近이 어렵게 되어 있고, 公開되어 있으나 實際적으로 大衆의 利用이 활발하지 못한 史蹟, 그리고 再開發을 통해 價値가 높을 히 復元될 수 있는 시각적 지표물이 상당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요지점을 通過하는 路線을 구성한다.

· 이 구상은 구체적으로 도심부내의 中小路를 步行者 優先의 歩道化하는 것인데,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계획한다. I형은 火災 기타 非常時의 道路幅만 유지하고 既存의 車道를 歩道化하는 방식이며 이때 서어비스 차량이 路上駐車는 禁止된다. II형은 車道の 폭원을 다소 축소시켜서 歩道를 擴張하고 車輛通行을 一部 制限하는 부분적인 改造를 하는 방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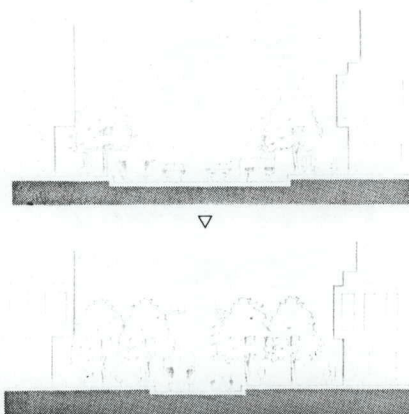
I型: 유보도로의 단면에서는 기존 보도 兩側만을 擴張하여 自轉車, 손수레 등 通行을 包含시키는 歩道로 計劃한다.

II型: 유보도로의 단면에서는 양측 보도중 한쪽을 擴張하여 歩道化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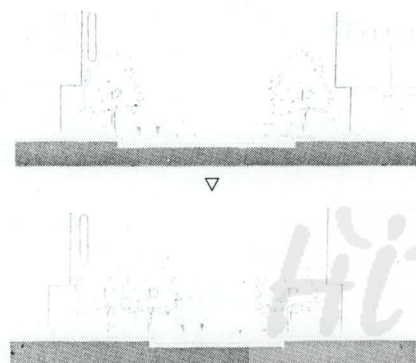
때 이 歩道는 日照, 空地 및 小公園의 連接可能性에 따라서 決定될 것이다.

· 遊歩商街는 도심부에서 기존의 地下商街와 관련지우며 I 型의 유보도로가 계획되는 地區를 中心으로 一定 區間을 계획한다.

유형 I



유형 II



Hi Seoul

SOUL OF ASIA

● 대규모 도심 자연공원 정비 및 조성 ; 南山公園計劃

· 서울에서의 南山은 都市綠地體系에 있어 가장 중요한 綠地이나 現利用狀況은 기이하게도 每年 그 利用率이 低下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도시전체로 볼 때 다른 觀光恩樂地와의 競爭力의 相對的인 弱화로 기인된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南山은 도심 근린공원으로서 그 潛在力은 매우 크다고 보겠으며 이 綠地에 대한 市民의 象徵的 意味는 매우 重要하다고 하겠다.

· 南山造景計劃의 기본적 方向은 積極的「保存」과 積極적「活用」이라는 兩者의 側面에서 共に 計劃한다. 여기에서 積極적 보존이란 다시말하면 野生保存과 關連해서 利用者의 自然 훼손을 최대限 防止하는 구체적 현실방식을 의미한다. 積極적 활용은 도시민의 餘暇空間으로서 利用者의 活用度를 구체적 도시 계획사업으로서 높여주는 것을 意味한다.

· 既存하는 중요한 森林資源은 積極보존하고 보행자의 行路는 構造物計劃을 通해 野生動植物 爲主의 보존방식을 講究한다.

· 南山의 自然保護의 골자는 기존의 價値있는 林相의 保存과 鳥類를 위시한 野生動物 休息處의 確保로 구분될 수 있다. 임상의 보존은 구체적으로 造林計劃과 연관되어 遂行되겠으나 景觀資源이라는 立場에서 樹木의 選擇이 特別히 考慮되어야 될 것이다. 休息處의 확보는 細密한 生態의 調査가 뒤따라야 될 것이나 현단계에서는 주로 野生鳥類를 중심으로 保護方法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兩者 모두가 利用者의 行動을 엄격히 「統制」하는 原則下에서 計劃되어야 되며 이에 따라서 野生保存地域內에서의 보행자의 行爲制限을 위한 施設物計劃을 설치하미 冬季의 야생식물 보호시설을 확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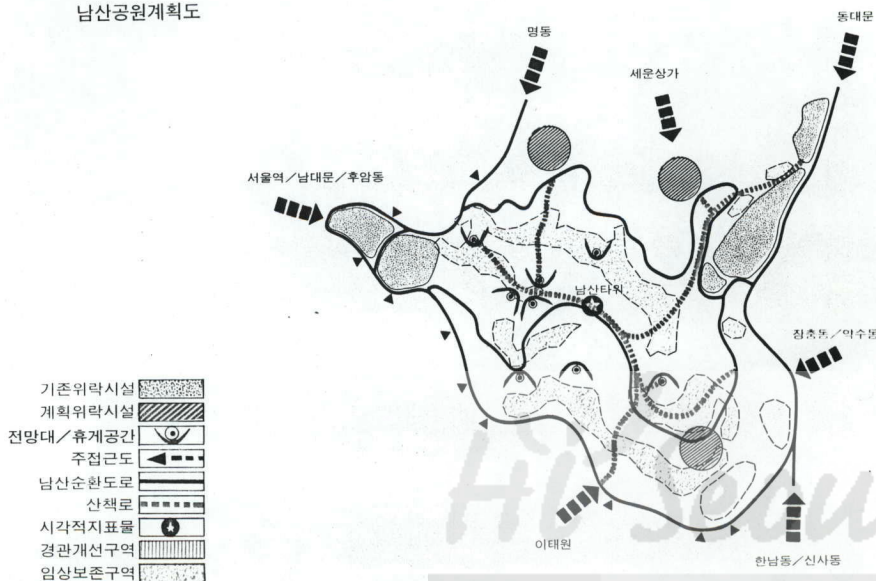
· 南山이 市民近隣公園으로서 기능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보행자의 接近度 不良에 있다고 보인다. 비교적 良好한 循環體系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市街地에서의 接近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 現 南山의 循環道路를 보행자 散策路로서 더욱 活用하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의 모든 방향에서의 접근이 容易하도록 시설계획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다음 단계는 현재 동서방향으로만 開設되어 있는 登山路를 嚴格한 管理시설을 條件으로 해서 南北方向으로도 擴張計劃한다. 이것은 1단계의 접근로 開設과 關連해서 적절히 연결되어야 한다. 南山 景觀資源은 南山자체의 林相, 自然形象, 動植物 等도 價値가 있으나, 南山에서의 시가지 전망 또한 매우 중요한 景觀자원이 된다. 充分한 休息空間을 두는 展望所를 등산로 및 산책로의 行路에 적절히 배치 계획한다.

· 접근도의 개선은 시가지에서 순환도로까지의 구간에 특히 중점적으로 이루어

저야 될 것인데 展望臺의 시설과 아울러 都心部의 特定한 場所에서 索道로 延長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豫想地域은 例示의으로 서울驛에서 현 남산 야외음악당으로, 明洞에서 현재의 索道정류장까지, 장충공원에서 순환도로 혹은 등반로 중간 휴게소까지, 漢江邊 美8軍公園에서 남산 南側 순환도로까지가 될 것이다.

市民公園으로서의 남산의 경관자원을 活用하기 위해 시각적 표식물을 改竊고 경관보존을 위해 建物 層高, 容積에 관한 特別規制區域을 설정한다. 순환 관광도로변을 중심으로 市民 慰樂活動을 誘導한다. 小規模의 文化施設, 記念의인 建築 및 조경시설물을 計劃한다. 이 구상은 남산방향으로 進入하는 主要한 幹線道路의 街路景觀을 정비하여 남산순환선 以下의 丘陵地에 대하여 建築統制 特히, 高度, 容積, 美觀에 관한 總括的인 통제를 하는 계획이다. 都市形態로 보아서 남산을 중심으로 都市全體의 건물 형태가 일정한 地畵을 기초로 규제되어야 될 것이다. 現段階에서는 1단계로 순환선이하의 일정範圍에서 부분적으로 건축행위를 일단 엄격히 통제한다. 남산순환선의 道路에 沿해서는 散策, 市民 餘暇活動과 관련해서 小規模의 各種 文化施設을 배치계획한다. 文化館, 記念館, 博物館, 市民公共集會所를 순환도로를 따라서 擴充한다. 特히 이 地帶에서는 既存 시가지에서 접근되는 展望帶, 展望階段과 관련지워야 되며 記念의 建築 및 造景形式에 一次의 關心이 주어져야 될 것이다.

남산공원계획도



■ 觀光慰樂計劃

· 서울의 시민餘暇를 위한 行樂·慰樂 및 國際都市로서의 觀光活動의 수요는 急増하는 반면 이에대한 土地確保와 施設投資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다. 여가 開發계획은 장래에상되는 市民의 行樂수요와 이에 따른 供給이라는 立場에서 出發하되 近郊·日歸家公園과 都市의 日常生活圈으로 區分하여 計劃한다. 全國의 日常生活圈化에 따라 市民의 行樂行動半徑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宿泊圈의 시설계획은 관광위락시설계획에서는 意味가 없다.

· 公共綠地의 擴大속에서 市民의 餘暇空間은 다른 여타의 시설보다 廣域의으로 피크닉場을 入幅 擴充할 需要가 있다. 다음은 動物園·植物園과 같은 主題公園의 性格을 갖는 公共綠地를 確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볼때 市全域의으로 利用圈이 豫想되는 大單位 위락단지는 地域의 均衡配置가 先결문제이고, 民間投資를 同作하는 大規模의 綜合慰樂團地가 必要될 것이다. 광역위락지계획은 京畿道計劃과 調整되어야 함이 原則이나, 本計劃에서는 서울시의 立場에서 一次的인 計劃을 樹立하도록 한다.

市民餘暇公園 需要 推定(2001年)

| 區 分 | 參加回數 (回/數) | 參加人口 (千人) | 施設數 (個所) | 規模 (千㎡) |
|------------------|---------------|--------------|-------------|------------|
| 日常生活圈 | | | | |
| 1. 영화·연극·음악회관 | 6.69 | 93,660 | 312 | 1,120 |
| 2. 미술관·박물관·전시관 | 3.26 | 45,640 | 150 | 730 |
| 3. 축구·야구·농구 | 1.04 | 14,560 | 1,170 | 3,460 |
| 4. 탁구·테니스 | 3.96 | 50,440 | 4,740 | 4,970 |
| 5. 볼링·스케이트 | 2.57 | 35,980 | 380 | 2,770 |
| 6. 동물원·식물원 | 2.41 | 33,740 | 40 | 93,200 |
| 7. 산책 | 1.57 | 21,980 | 190 | 385 |
| · 노영 | 3.03 | 42,420 | 200 | 400 |
| ·日行樂圈 | | | | |
| 1. 등산·피크닉·자연학습 | 4.17 | 58,380 | 370 | 146,070 |
| 2. 해수욕·낚시 | 4.05 | 56,700 | 370 | 30,240 |
| 3. 스키·골프 | 1.84 | 25,760 | 60 | 16,100 |
| 4. 드라이브·사이클링 | 2.64 | 36,960 | 390 | 7,560 |
| 5. 요트·윈드서핑·스킨스쿠버 | 0.70 | 9,800 | 20 | 270 |

● 廣域피크닉장 계획

- 爆增하는 週末餘暇人口의 適切한 受容은 여가·行樂計劃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多目的 피크닉장의 開發이 그중 가장 時急한 計劃과 事業일 것으로 보인다. 피크닉장의 그 규모와 성격은 지형과 지역적 여건에 따라 多樣할 것이나 주로 市全城에 걸쳐, 外廓 自然公園範圍에, 나아가서 京畿道일원에 걸쳐 均等한 接近이 이루어지도록 循環狀으로 分布되어야 될 것이다.
- 또 이들 行樂地는 市界觀光순환도로 또는 長距離자전거도로망과 連繫되도록 構想한다.

- 이와 관련하여 도시의 内外部에 線型綠地의 이용을 통해 自轉車道路를 構想하고 地域別 市民慰樂團地와 연계시킨다. 이러한 流通體系는 광역적으로 地域公園을 장거리 自然步道로써 接續하도록 計劃한다. 자전거 도로망 계획의 構想方法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외의 시민 위락단지를 연결하되 自轉車 走行區間距離(약 45km)를 기준으로 區域을 大別하여 都心地區와의 연계를 위하여 도심부 유보도, 남산 순환도로와의 접속이 이루어지게 한다. 자전거도로 노선선정은 原則으로 (1) 慰樂·休養·觀光名所에 接近 容易하게, (2) 自動車交通과 可及

廣域 피크닉場 計劃

| 位 置 | 行樂資源 | 性 格 | 周邊要件 |
|-------|--------------------------------------|----------------------------|----------------------|
| 여의도샐강 | · 야생초지 · 저수로, 습지 | · 야생지, 야생정원 · 정적행락활동 | · 여의도, 영등포의 일상피크닉 수요 |
| 뚝 섬 | · 수림, 하천경관 | · 지구공원화 · 피크닉장 | · 주거지 · 강변로 |
| 상 압 동 | · 매립지의 특이 지형 창출 · 한강하류 석양 · 천새 | · 마포, 서대문구의 지역공원 · 피크닉장 | · 행주산성 · 강변로 |
| 고 촌 | · 철새도래지 · 자연생태관찰지 | · 캠프장, 간이동물원 · 전망대 | · 한강하구의 야생지 |
| 오 경 | · 파수단지 · 관광농업 | · 단체피크닉, 화해농원 · 자연유보도 | · 전원 |
| 미 사 | · 모래사장 · 천렵, 조정경기장 | · 야영장, 일광욕장 · 단체피크닉 | · 조정경기장 |
| 외 개 원 | · 양호한 경관 | · 야영장, 야외게임장 · 자연유보도 | · 전원 |
| 벽 제 | · 야외조각공원 · 예술인마을 · 도요전시관 | · 야외문화예술활동 | · 교외선 이용객 증가 |

的交叉를 迴避시키며, (3) 地方的인 경관 및 관광자원이 독특한 노선으로서 (4) 循環線을 고려할 경우 出發 및 回歸時의 經路가 다른 노선으로서 결정한다.

●遊園地計劃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서만 규정되고 있는 유원지는 향후 근린공원과 지구공원 시설에 포함되어 계획하도록 한다. 포함되는 시설과 활동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오락과 휴양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市全域에서의 利用의 均衡과 衡平이考慮되어야 되고 公益의 觀點이 優先되게끔 計劃·整備되어야 될 것이다.

이와함께 수영, 요트, 윈드서핑, 스키스쿠버 등 水上餘暇活動을 위한 水上公園의 造成이 要求될 것인바 漢江邊 高수부지를 據點으로 한 水上公園의 計劃이 必要하다. 또한 유람선친착장과 대중교통과의 연계 및 집단체계를 확립하여 워터스포츠는 물론 관광, 출퇴근, 운수등 수상교통이용의 다양화, 대중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慰樂園地計劃

一般的인 公共綠地의 確保는 서울市の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眼目下에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나, 특히 여가행락의 동적수요는 一時的인 團地化를 通해 綜合的이고 複合的인 위락단지계획을 樹立하고 造成함으로써, 一次的인 수요를 充足하도록 한다.

慰樂園地現況

| 團地名 | 規模(k㎡) | 主要施設 | 利用現況 |
|--------|--------|--------------------------------------|--|
| 서울대공원 | 9 | 동식물원, 청소년 문화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 호수 | 연입장객: 3,045千人 111평균: 8,345人 연간주차대수: 130,650台 |
| 어린이대공원 | 0.58 | 동·식물원, 야외 음악당, 수영장, 유희시설 | 연입장객: 2,893千人 연간주차대수: 68,106台 |
| 용마공원 | 2.64 | 운동장, 수영장, 유희시설 | — |
| 드림랜드 | 0.35 | 유희시설, 수영장, 야외극장, 동물방목장 | — |
| 롯데월드 | 0.13 | 민속관, 스포츠 센터, 주제공원, 백화점 | — |

■ 都市景觀改善計劃

● 風致路計劃

首都의 象徵으로서 대표적인 가로를 風致路로 指定하여 都市美觀을 增進시킨다. 이 구상에는 도심부의 象徵街路와 生活圈別로 外廓 循環遊步道路를 포함시킨다. 이 풍치로의 概念에는 都市의 中心街路로서 環狀修飾街路와 遊步道路 그리고 公園道路를 포함시킨다. 서울의 중심 幹線도로, 特히 放射型 幹線道路는 修飾 廣路로서 계획하고 유보도로와 公園도로는 循環線과 同心的인 路線을 갖는 景觀路로서 計劃한다. 이 街路設定의 目的은 도시조경의 質의 改善을 위해 首都의 가장 重要한 도로를 强하게 統制하여 改良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街路에는 既存의 풍치미관지구의 적용은 물론 가로분리계획, 가로장치물, 간판, 가로등, 건축전면통제에 관한 綜合的 統制와 計劃이 수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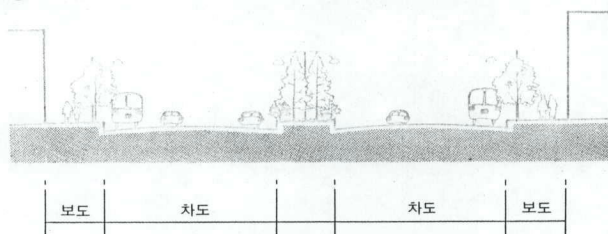
이 구상에 따라 서울시 풍치로 綠地綜合計劃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한다.

風致路 區間別 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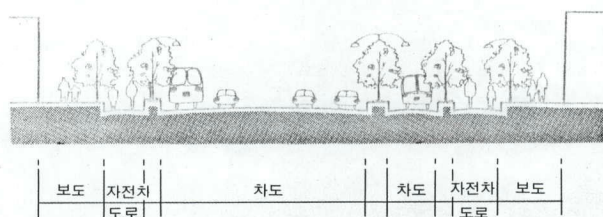
| 類型 | 區 間 | 距離(km) | 性 格 |
|-----|------------------------|--------|------------------------|
| I | 1. 양화대교—동교동—신촌—아현동—시청앞 | 7.5 | · 보행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보행 |
| | 2. 한강대교—서울역—홍은동(인왕국교앞) | 6 | · 공간의 확보 |
| | 3. 서초역—한국종합전시회관—올림픽공원 | 9 | · 도로변 건물의 전면 美化 |
| | 4. 서울역—국립중앙박물관 | 2 | |
| | 5. 경화문—동대문—청량리 | 6.1 | |
| | 계 | 30.6 | |
| II | 1. 강변로·강남로변 | 68 | · 자전차도로 계획 |
| | 2. 신월 IC—목동—양화대교 | 6 | · 中間휴게소 설치 |
| | 3. 여의도—공덕동로타리—아현동 | 4.2 | · 기념조형물, 조명시설 |
| | 4. 신촌—삼각지—이태원—동대문 | 10 | |
| | 5. 과천—남태령—동작대교 | 13.8 | |
| | 6. 홍은동(인왕국교앞)—탐골 | 3 | |
| | 7. 국립중앙박물관—삼청동 | 1.5 | |
| | 8. 강남역—한남대교 | 3 | |
| | 9. 올림픽 공원 주변 | 6.5 | |
| | 10. 청량리—상봉동—상계동—노원교 | 13.1 | |
| | 계 | 129.4 | |
| III | 1. 김포공항—양화대교 | 9 | · 주변경관의 가시권내 유도 |
| | 2. 탐골—동일로 | 6 | |
| | 계 | 15 | · 자동차위주의 계획 |

풍치로계획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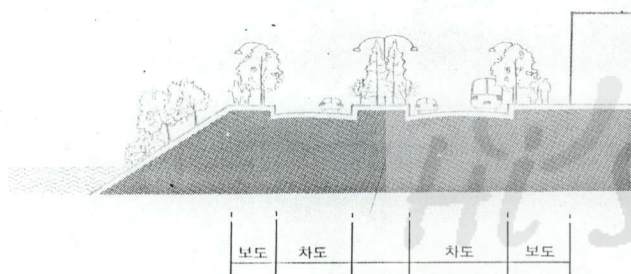
유형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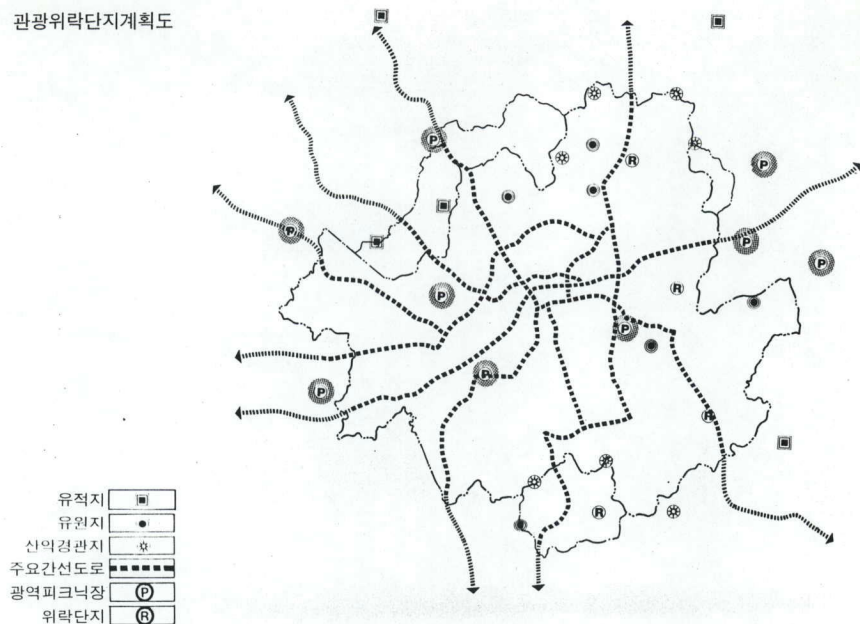
유형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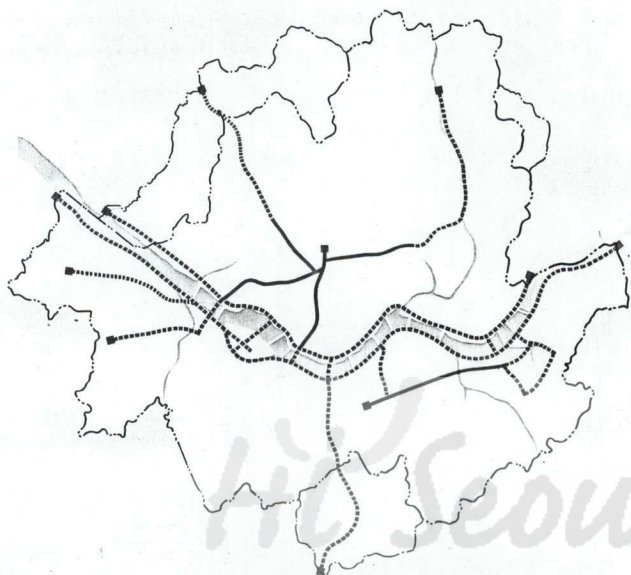
유형 III






관광위락단지계획도



풍치로계획도



유형 I (보행활동 위주) 
 유형 II (자전거도로등) 
 유형 III (자동차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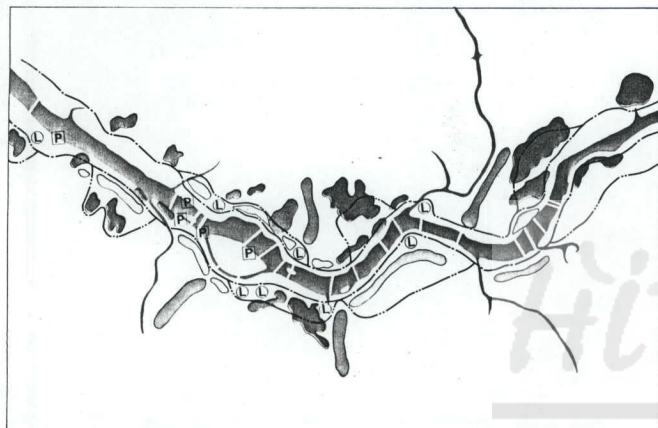
● 漢江邊 景觀計劃

한강변에 따라 可視圈內的 都市景觀은 향후 2000年代 서울의 代表的 都市景觀이 될 것이다. 都市의 廣域化에 따라 江邊路를 利用하는 지역적 활동이 增加되기 때문에 江邊兩岸의 可視圈內의 도시경관은 計劃적으로 整備되고 造成될 필요가 있다.

· 도시형태의 시각적 질은 個別的인 人造物의 形象보다는 集合의 形態에 의해서 일단 決定된다. 서울의 地形條件은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丘陵地로서 전반적인 도시인공물의 형태가 決定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각적 明瞭性, 方向性 그리고 시각적 生理反應을 考慮해 볼 때 구릉지의 綠地復元을 통해 都市의 視覺形態에 대한 繪畫的 構成을 할 必要性이 있다. 具體적으로 이것은 구릉지의 近隣公園을 연결시키는 稜線上의 線型綠地를 確保하자는 구상인데 여기에는 視覺的 標識物, 文化財, 城廓, 散策路, 風致路 等이 包含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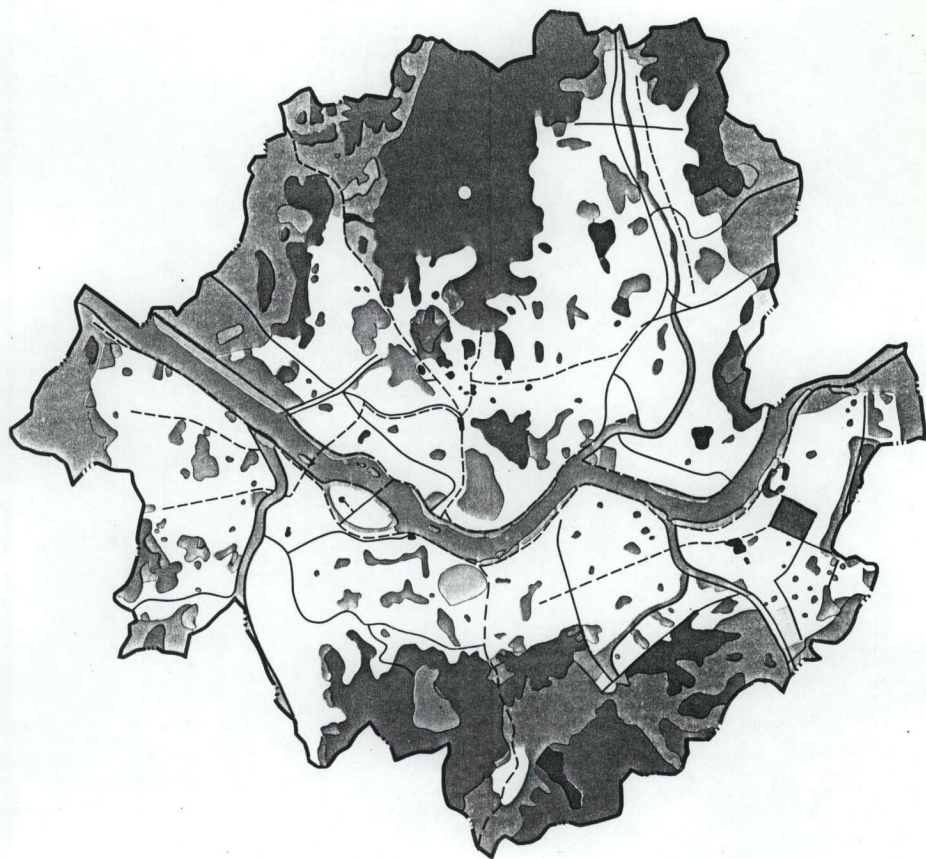
· 江邊 可視圈을 設立하고 既存의 綠地를 보존하며, 도시의 視覺的 連續性을 살리기 위해 구릉지나 稜線上의 녹지를 復元한다. 이러한 效果를 誘導하기 위해 시각적 표지물, 기념물, 문화재는 都市全體의 形態와 視覺的 質이라는 立場에서 保存 혹은 부분적 撤廢를 考慮한다. 對象地域은 일반적으로 標高 70m 이상 高地帶로서 都市再開發 사업지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시각적으로 保存 價値가 큰 도시의 표지물 혹은 지역 등이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綠地帶는 防火, 防護 그리고 不可避한 都市基盤施設의 視覺的 遮蔽의 意味를 갖는다. 景觀綠地에의 接近路를 開設하여 녹지로 복원하며 일부 綠地內 주거지의 陽性化를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도록 한다.



한강가시권 경관개선 계획도

- 능선녹지
- 능선복원구역
- 도시경관개선구역
- 가시권 (1차영향권)
- 가시권 (2차영향권)
- L 시각적표물정비구역
- P 보행위주의 가로경관 개선구역
- 차량위주의 가로경관 개선구역



국립공원
 자연공원
 지구공원
 근린공원

도심광장
 기념공원
 사적공원
 묘지공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시설녹지

풍치로
 위락단지
 개발제한구역

政策方案

■ 用地確保 및 施設投資

公園·綠地造成에 必要한 用地의 確保는 2000年代까지 전망하건데 都心部에서의 移轉跡地, 漢江水系의 河川敷地造成的 取得用地 그리고 大單位 開發事業團地內에서의 公園·綠地의 用地를 確保하는 方法으로 大別될 수 있다. 이에 대한 土地 買收의 費用 또한 漸増될 것이며, 現行政 서어비스의 추세로 보아 이에 대한 投資部分의 上向調整이 필요된다. 이것은 公園의 用地確保와 施設投資가 連繫되는 것인데, 현재 지정되어 있으나 未施設狀態의 各種公園은 公園의 性格과 시설투자의 綜合的 運用計劃이 講究되어야 될 것이다. 예를들어 開發制限區域內의 近隣公園이라든지 大衆의 接近이 사실상 불가능한 山頂의 地區公園이라든지 하는 例는 公園의 性格을 景觀綠地나 保存綠地로 轉換하고 대신 이에 대한 面積과 投資分을 새로운 公園用地와 시설투자에 投與하여야 될 것이다. 아울러 公園內 既存의 不良無許可住宅地는 公園녹지의 대중의 接近을 向上시키는 접근로, 비상도로, 표시물, 景觀녹지를 설치개선하는 原則下에서 現實的인 陽性化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이의 執行에 대한 行政指針이 整備되어야 될 것이다. 長期的으로 豫算을 늘려 指定된 私用地를 買入함을 원칙으로 하나, 短期的으로는 지정된 토지중에서 市民이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公園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區域을 구분하여 이 區域부터 買收, 또는 使用하도록 한다. 아울러 非行政廳이 도시公園을 조성하고자 할때 土地의 確保에 있어서 혜택이 가도록 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國營企業體(住公, 道公, 土開公, 產開公등)에 의한 “國營公園”의 제도가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 財源의 確保

公園·綠地造成에 대한 投資費는 市財政運營에서 一般的으로 그 比重과 우선 순위가 낮게 策定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그 수준이 漸次 改善되고 있 r 向後 都市計劃의 積極的인 目標인 市民의 福祉環境과 快適한 環境의 創出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必要된다.

公園造成을 目的에 둔 獨自인 투자예산은 基金의 運營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민간건축부문에서 영세토지내에서 건축할 경우 조경의무 사항 대신 工事費로 대납하여 기금을 마련한다던지, 土地形質變更에 따른 公共用地의 기부분의 金錢代納을 통한 기금을 조성한다던지 하는 일련의 「公園造成基金」화

보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全體로 불매 時急한 公園의 用地買入, 施設投資가 가
 능하도록 한다.

■ 行政管理 運營改善*

* 서울시 공원녹지정책방향,
 1985, 1., pp.291~301

공원녹지분야의 행정서비스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정책은
 취약하며 行政組織이 이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고 人事管理 기타 일반적인 行政
 管理의 改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公園·綠地分野에 있어서 行政上의 문제
 는 企劃機能이 弱하다는 점이고, 行政力이 分散되어 있으며, 維持管理機能에 대
 한 예산과 관심도가 낮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人力이 太不足하며 士氣 역
 시 低調한 편이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불매 현 公園·綠地局은 公園·慰樂局으로 擴大改編되어야
 될 것인데, 공원정책을 수립·조정하는 企劃기능(기획과), 대규모의 공원의 건
 설기능(건설과), 利用과 行樂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서비스기능(慰樂課), 공
 원녹지의 유지관리기능(관리과) 등이 強化되어야 될 것이다. 아울러 공원녹지사
 업소와 조경연구소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3

機能的이고 便利한 都市

- 交通
- 通信
- 土地利用
現況
計劃
- 市街地 整備

Hi Seoul

SOUL OF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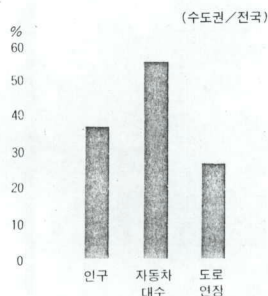
交通計劃

現況分析 및 課題

■ 首都圈廣域交通體系

- 지난 1970년대까지 서울시 人口는 급격히 增加하여 왔으나, 1980년대에 들어 와서 首都圈內 서울주변도시의 人口가 보다 급격히 伸張되고 있다. 서울시 人口의 郊外化, 도시경제활동의 廣域化로 인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首都圈 廣域交通需要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 交通施設 現況



- 1985년말 수도권의 總道路延長은 12,956km로 全國道路延長의 24.8%이나 人口 1인당 도로인장은 0.82m 이고(전국 평균 1.3m) 자동차 1대당 도로인장은 21.6m로서(전국 평균 46.9m), 道路供給率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 도로망은 서울중심의 放射型으로서 京仁, 京水, 京釜, 서울-利川, 京春, 서울-동두천, 서울-김포, 서울-문산의 8個 軸으로 구성된다.
- 수도권 도로망은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放射型으로 발달되고 있으나, 서울시 內의 地下鐵 循環線과 함께 放射循環體系를 형성하고 있다.
- 총인구 1,600萬의 巨帶都市(megalopolis)를 위한 광역교통수단으로서 電氣鐵道網의 기능은 아주 미약한 실정이다.

● 交通需要 現況

(단위: m)

| 구분 | 수도권 | 전국 |
|------------|------|------|
| 도로인장/인구 | 0.8 | 1.3 |
| 도로인장/자동차대수 | 21.6 | 46.9 |

- 수도권의 주요지역간 교통량은 지난 9년간 연평균 公路가 13%, 鐵道가 15.2%의 增加率을 보여왔다. 公路에 있어서는 서울-水原 및 서울-仁川이 50~70萬 人/日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城南間이며 그외에 議政府, 陶農, 汝山과의 사이에 11萬 人/日의 교통량을 보이고 있다.

首都圈 地域間 交通量

| 區分 | 1976 | 1981 | 1985 | 年平均增加率 | | |
|----------|---------|---------|---------|---------|---------|---------|
| | | | | '76~'80 | '81~'85 | '76~'85 |
| 公路 (台/日) | 92,557 | 220,943 | 276,073 | 19.00 | 5.73 | 12.91 |
| 鐵道 (人/日) | 274,350 | 735,241 | 978,515 | 21.79 | 7.41 | 15.18 |

資料: 건설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각년도
철도청, 철도 통계연보, 각년도

●課題

· 首都圏은 연구에 있어서 全國의 39.1%, 그리고 자동차 보유대수는 全國의 53.9%를 점하고 있으나, 道路延長은 全國의 24.8%에 불과하고, 道路網의 連結性도 良好한 形편이 못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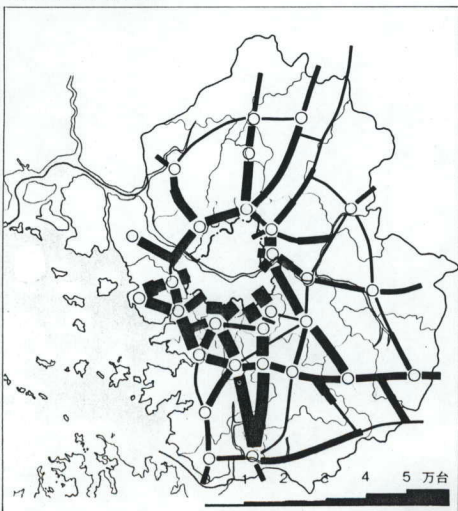
· 광역적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효율이 높은 鐵道, 電鐵 및 地下鐵網의 발달이 미약하고 연결성이 不良하여 이미 포화 수준에 육박한 公路交通需要를 加重시키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한 주요교통축인 仁川방면, 水原방면, 大田방면, 利川방면, 春川방면, 汝山방면 등으로의 자동차교통량이 급격히 容量限界에 육박하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 環狀道路網이 不備하여 우회교통이 억제되고 도시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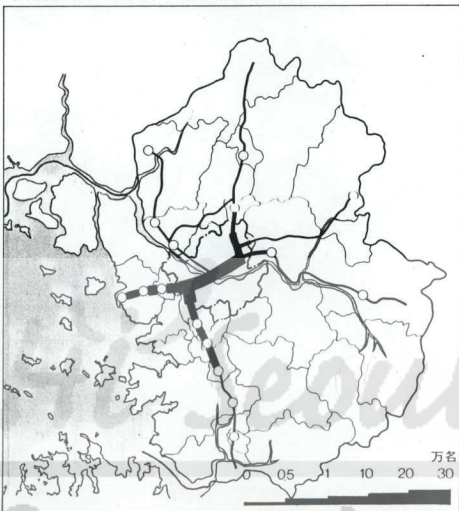
· 수도권 철도 및 전철망은 수도권 도시개발방향과 연결되어 廣域의 大衆 交通體系로 육성되지 못한 결과 公路爲主의 도시교통문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 서울 주변에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일산, 분당, 안양, 평촌, 산본 지구등은 높은 交通誘發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교통문제를 加重시킬 것이므로 신도시개발 | 교통문제해결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수도권도로교통량도



수도권철도 노선별 · 이용별현황도



■ 都市交通體系

- 서울은 수도권의 中核都市로서 수도권 교통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의 교통 문제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 최근들어 서울인구의 抑制에 의한 首都圈 都市 經濟의 擴散과 함께 서울시 교통문제는 수도권 교통체계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다.

● 交通施設 現況

- 서울시의 總道路延長은 87년현재 7,141km, 道路率은 17.8%로서 지난 10년 크게 증가되었으나, 道路構成을 보면 路幅이 10m未滿으로서 자동차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小路가 全體道路의 81.9%를 占하고 있다. 그결과 자동차 통행이 主要幹線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交叉路 지체와 通行滯症이 심화되고 있다.
- 서울시 도로망은 지형적 제약조건에 의해 自然發生的으로 放射型體系로 발달되어 오다 環狀型體系가 가미되어 주요간선망은 放射環狀型을 이루었고, 부분적으로 格子型이 발달되고 있다. 노폭이 40m 이상인 廣路가 전체연장의 2.6%, 大路(25—35m)가 6.6%, 中路(12—20m)가 8.9%이며, 10m미만의 小路가 81.9%를 점하고 있다. 도로종류별 평균폭원을 보면 廣路 45.3m, 大路 29.6m, 中路 16.3m, 小路 5.05m의 소로이어서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연결성이 불량하다. 특히 차량에 의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불량주택지역의 汚穢 쓰레기수거와 도시방재문제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 地下鐵은 1974년의 제1호선을 개통한 이래 1985년까지 제2호선, 제3호선, 그리고 제4호선을 개통하여 현재 총연장 162.7km에 이르렀다. 형태는 都心部와 主要副都心을 잇는 循環線과 主要方向別 交通軸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하철과 전철은 路面交通과의 連繫性이 부족하고, 驛勢圈 開發의 미비로 인하여 아직 容量水準에 맞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道路現況(1988年)

| 구 분 | 총 계 | 광 로 (40m 이상) | 대 로 (35—25m) | 중 로 (20—12m) | 소 로 (10m 미만) | 광 장 |
|---------|----------------------|------------------|------------------|------------------|---------------------|------|
| 연장(m) | 7,140,859 (100.0) | 188,081 (2.6) | 472,711 (6.6) | 632,706 (8.9) | 5,847,361 (81.9) | 73개소 |
| 평균폭원(m) | 8.6 | 45.3 | 29.6 | 16.3 | 5.05 | |

출처: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1988.

都市電鐵網 延長現況

(단위: km)

| 區 分 | 1974 | 1984 | 1988 |
|-------|------|-------|-------|
| 서울지역내 | 39.9 | 88.7 | 117.9 |
| “ 외 | 43.9 | 43.9 | 44.8 |
| 계 | 83.8 | 132.6 | 162.7 |

자료: 서울시 교통국

●교통수요

- 都市交通需要는 크게 도시활동인구 인구 1인당 통행발생회수, 自動車 利用度 그리고 平均通行距離의 積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지난 40世紀 동안 서울시 인구는 연평균 5.5%씩 증가하였고, 인구 1인당 통행발생 회수는 연평균 4.9% 증가하였고, 보유 자동차 1대당 평균 사람통행발생수는 1960년의 180 통행/台中에서 1986년에는 37통행/台中로 변화되어 사람통행의 自動車 利用度는 연평균 6.3%씩 증가되었으며, 平均通行距離 또한 도시생활권의 확대로 연평균 2.9%씩 증가하였다.
- 서울시 自動車保有台數는 1966년의 20,638台中에서 1988년에는 779千台中 38배나 신장되었고, 乘用車의 比重은 35%에서 68.5%로 증가되었다. 인구 1000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1966년의 5.4台中에서 1988년에는 75.7台中 신장되어 바야흐로 自動車大衆化(motorization)時代에 돌입하고 있다.
- 통행수요에 대한 교통수단별 분담율을 보면 통행수요의 고급화와 함께 총 사·통행중에서 승용차이용 승객의 비중이 1960년 2.0%에서 1988년 11.2%로 신장하였다. 지하철의 경우 약 17%의 분담율을 가지나 동경과 비교할때 그 분담율이 극히 미소하다. 그 반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비중이 약 67%에 달하고 있다.

交通手段別 分擔現況 (단위: %)

| 구 분 | 시 율 | 동 경 |
|-----|------|------|
| 지하철 | 16.8 | 72.6 |
| 버 스 | 50.6 | 6.5 |
| 택 시 | 16.0 | 5.6 |
| 승용차 | 11.2 | 14.9 |
| 기 타 | 5.4 | 0.4 |

출처: 서울시 교통종합대책, 1989.

서울市 車輛增加 現況

(단위: 台, %)

| 구 분 | 1966 | 1976 | 1986 | 1987 |
|-----|-------------------|-------------------|--------------------|--------------------|
| 택 시 | 4,637 (22.4) | 12,364 (13.1) | 29,250 (8.2) | 44,889 (7.1) |
| 승용차 | 7,223 (35.0) | 43,938 (46.4) | 349,946 (67.1) | 441,274 (69.9) |
| 버 스 | 3,029 (14.7) | 5,769 (6.1) | 10,888 (2.1) | 10,956 (1.7) |
| 소 계 | 14,889 (72.1) | 62,071 (34.4) | 403,089 (77.3) | 497,119 (78.7) |
| 화물차 | 5,719 (27.9) | 32,644 (31.4) | 118,432 (22.7) | 133,033 (21.3) |
| 총 계 | 20,638 (100.0) | 94,715 (100.0) | 521,521 (100.0) | 631,794 (100.0) |

자료: 대우부, 한국도시연감, 각년도.

註: · 승용차는 자가용, 관광과 자가용버스를 포함.

· 버스는 영업용과 관광용 포함. · 화물차는 특수차를 포함.

●課題

- 所得水準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자동차 보유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특히 승용차의 大衆化에 따른 도로 교통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도로건설율이 자동차 증가율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므로 대중교통수단 중 신뢰성이 높은 지하철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서울시의 가로망은 도로가 기능과 階層性에 따라 발달되지 못한 결과 교통소통 효율이 낮고 또 연결성이 부족하여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계층성 있는 도로확장에 힘써야 한다.

■交通施設 現況 및 課題

-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대와 도시교통의 광역화로 인하여 交通의 連繫를 위한 터미널, 주차시설 그리고 교량 등 交通施設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 더욱이 교통시설은 利用通行量이 週期性을 갖고 일정 時間帶에 집중되므로 피크時 混雜이 가중되고 있다.

●域外交通施設

- 都市交通의 廣域化로 인하여 公路交通에 있어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화물터미널이 도시교통에 미치는 비중은 막대하다. 1986년 현재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의 總日平均 운행회수는 5,337회, 利用乘客은 총 134,400명에 달하고 있고 貨物터미널은 주요방향에 따라 4個所에 분산 배치하여, 都市交通과의 接觸을 극소화하고, 流通活動의 合理化에 기여하고 있다.
- 域外交通의 지속적 수요증가에 따라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트럭터미널 現況

| 區 分 位 値 | 空地面積 (坪) | 貨物一時 取扱能力(吨/日) | 一時駐車 能力(台) | 利用現況 톤/日 |
|-----------|-------------|-------------------|---------------|-------------|
| 韓國터미널 瑞草洞 | 14,757 | 2,000 | 600 | 6,750 |
| 東部터미널 面牧洞 | 6,224 | 600 | 400 | 710 |
| 西部터미널 新亭洞 | 12,998 | 1,500 | 700 | 4,690 |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국 및 각 터미널.

市外 버스터미널 現況

| 區 分 | 位置 | 營 地 面積(坪) | 業體數 | 路線數 | 運 行 臺 數 | 運 行 回 數 | 利用乘客 ／日 | |
|------|------|--------------|--------|-----|------------|------------|------------|--------|
| 高 速 | 경부선 | | | | | | | |
| | 서울고속 | 26,944 | 10 | 22 | 638 | 1,033 | 37,700 | |
| 速 | 구마선 | | | | | | | |
| | 반포 | | | | | | | |
| | 호남선 | 18,781 | 7 | 24 | 553 | 889 | 33,300 | |
| 서울綜合 | | | | | | | | |
| T | 영동선 | | | | | | | |
| 市 | 東馬場 | 용두 | 5,665 | 11 | 102 | 448 | 1,112 | 15,400 |
| | 상 봉 | 상봉 | 11,484 | 10 | 120 | 552 | 1,041 | 18,400 |
| 外 | 南 部 | 용산 | 1,756 | 22 | 97 | 630 | 873 | 23,000 |
| T | 西 部 | 불광 | 2,395 | 3 | 12 | 95 | 389 | 6,600 |

註: 이용승객은 86년 실적.

자료: 서울특별시 교통국

●駐車施設

서울의 都市地域에 있어서 駐車施設은 지난 5년간 크게 확장되어 1986년 현재 주차용량 37,426台분에 달하고 있으나, 주차공급수준은 아직도 需要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총 주차공급대수 중에서 民營이 84.9%, 公營이 15.1%로서 公共交通施設로서 駐車施設의 관리행정에 제약이 많고, 특히 간선도로면 소규모 상업시설이 操業駐車施設을 갖추지 않음으로서, 교통장애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최근들어 駐車難問題는 都心地域 뿐만 아니라 副都心地域까지 급격히 확산되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 주차시설은 적정수준까지 확충한 후 수요관리에 중점을 두고 외곽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차관리 방법의 개선으로 주차장 이용효율을 증대시켜야 한다.

●橋梁

서울의 江南北의 生活圏을 잇는 交通量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6.3%씩 증가해 오고 있는바, 그 동안 橋梁施設은 9個所 44個車線(1977년)에서 16個所 84個車線(1980)으로 대폭 확충되었음에도 통행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交通安全 現況 및 課題

● 交通事故

· 自動車の普及率이 급격히 신장됨에 따라서 交通事故被害는 큰 社會問題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自動車 1億 走行 · 킬로당 事故發生件數가 선진 외국보다 4~5배나 높고, 死傷者數는 4~6배나 높다. 1987년 현재 서울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는 전국의 31.7%에 달하고, 財産被害는 40.9%를 占하고 있다

· 앞으로 自動車 普及率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게 될 교통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交通安全施設을 대폭적으로 擴充하여야 할 것이다.

年度別 漢江橋梁1日 交通量

(단위 : 台, %)

| 구 분 | 1977 | 1978 | 1979 | 1980 | 1981 | 1982 |
|----------|--------------------|--------------------|--------------------|--------------------|--------------------|--------------------|
| 計 | 301,278 (100.0) | 328,607 (100.0) | 605,036 (100.0) | 650,973 (100.0) | 661,433 (100.0) | 776,569 (100.0) |
| 비 스 | 43,318 (14.4) | 38,960 (11.8) | 47,045 (7.8) | 66,838 (10.5) | 79,340 (12.0) | 81,612 (10.5) |
| 승 용 차 | 198,516 (65.9) | 229,300 (69.8) | 448,334 (74.1) | 454,601 (69.7) | 458,098 (69.3) | 556,380 (72.9) |
| 화 물 | 54,049 (17.9) | 55,860 (17.0) | 106,620 (11.9) | 122,607 (18.8) | 115,924 (17.3) | 120,740 (15.5) |
| 기 타 | 5,395 (1.8) | 4,487 (1.4) | 7,037 (1.2) | 6,927 (1.0) | 8,071 (1.2) | 7,837 (1.1) |
| 차 선 수 | 44 | 46 | 50 | 56 | 66 | 72 |
| 교 량 수 | 9 | 10 | 11 | 12 | 13 | 13 |
| 1 차선당교통량 | 6,847 | 7,144 | 12,100 | 11,625 | 10,022 | 10,786 |

註 : 1983 = 885,079台 (차선수 72, 교량수 13, 차선당교통량 12,293)

1984 = 1,006,672台 (차선수 76, 교량수 14, 차선당교통량 13,246)

1985 = 1,027,959台 (차선수 78, 교량수 15, 차선당교통량 13,179)

1986 = 1,171,470台 (차선수 81, 교량수 16, 차선당교통량 13,946)

自動車交通事故 發生率

| 구분 | 서 1981 | 울 1985 | 한 1981 | 국 1985 | 일본 1985 | 미국 1985 |
|----------|-----------|-----------|-----------|-----------|------------|------------|
| 1億 km 走當 | | | | | | |
| 事故件數(件) | 481.5 | 237.4 | 489.2 | 266.1 | 113.6 | 14.9 |
| 死亡者數(名) | 12.6 | 6.6 | 23.0 | 13.4 | 1.9 | 2.6 |
| 負傷者數(名) | 409.8 | 297.7 | 457.2 | 339.3 | 145.5 | 96.8 |
| 1萬 台 當 | | | | | | |
| 事故件數(件) | 1,970.0 | 916.5 | 2,157.8 | 1,158.9 | 133.0 | 40.1 |
| 死亡者數(名) | 51.6 | 25.3 | 101.5 | 58.5 | 2.2 | 1.6 |
| 負傷者數(名) | 1,676.6 | 1,149.3 | 2,016.4 | 1,477.9 | 163.9 | 59.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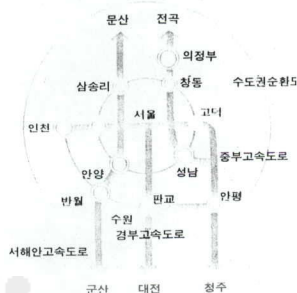
資料: 1) 林國源, "교통안전문제의 현황과 대책방안", 「交通安全」, 1984.2.

2) 交通安全振興公團, 「自動車走行距離(km) 實態調査報告書」, 1986.11.

上位(首都圈) 交通計劃의 方向

-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政治·經濟·社會·文化面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의 중추 기능을 遂行할 것으로 전망하여 國家上位計劃이 樹立되고 있다.
- 앞으로 도래할 대량고속운송체계에 대비, 건설이 예상되는 고속철도계획은 고속도로망계획, 지하철도망계획 등 지역 및 광역교통계획과 연계되도록 구상되어야 한다.
- 이러한 上位計劃上의 교통망계획의 骨格을 受容하여 서울시의 交通網과 域外交通施設은 도시내교통체계의 效率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合理的 構成 그리고 더 나아가 전국교통의 서울시 域內流出入通行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計劃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교통골격개념



交通需要推定

産業化水準과 함께 계속 증대되는 移動性으로 앞으로 通行需要는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된다.

· 서울市人1人當 通行發生回數는 1986年의 1.78回/日에서, 2001년에는 2.92回/日로 (域外通行을 包含하면 1986年의 1.95回/日에서 2001년에는 2.75回/日로) 伸張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서울市域內 총 사람통행수요는 목표년도 까지 年平均 4.77%씩 증가하여 1986年의 19,106千 통행에서 2001년에는 38,500千통행으로 증가될 것이 전망된다.

서울市 사람通行需要推定

(徒歩 除外)

| 區 分 | 1982 | 1986 | 1991 | 1996 | 2001 |
|--------------|--------|--------|--------|--------|--------|
| 人 口(千人) | 8,916 | 9,798 | 10,580 | 11,267 | 12,000 |
| 1日總通行量(千通行)* | 15,068 | 17,429 | 22,072 | 27,968 | 35,000 |
| (千通行)** | 16,584 | 19,106 | 24,279 | 30,826 | 38,500 |
| 域外通行比率(%) | 10.3 | 10.0 | 10.0 | 10.0 | 10.0 |
| 1日人口1人當(回)* | 1.69 | 1.78 | 2.0 | 2.4 | 2.92 |
| 總通行回數(回)** | 1.86 | 1.95 | 2.24 | 2.68 | 3.21 |

註: *總通貨量에서 市外流出入通行量을 除外.

**總通行量에서 市外流出入通行量을 包含.

· 將來 自動車保有台數는 所得水準의 向上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인바, 인구 1000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1988年 75.7台에서 2001년에는 304.1台 水準으로 증대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서울市 自動車保有台數는 1988年의 779,000台에서 2001년에는 2,700,000台 수준에 불과할 것이 예측된다. 車種別 構成比는 88年 現在의 승용차 77.0%, 화물차 21.3%, 버스 1.7%에서 목표년도에는 승용차 82.9%, 화물차 15.2%, 버스 1.9% 수준으로 예측된다.

· 交通手段別, 通行分擔은 교통시설수요에 큰 영향을 주는데, 앞으로 가속될 自動車大衆化趨勢에 따라 乘用車의 分擔率은 상당히 증대될 것이다. 시내버스, 지하철·전철, 택시, 승용차의 분담율은 1988年 各各 50.6%, 16.8%, 0%, 11.2%에서 2001년에는 시내버스 30%, 지하철·전철 46.8% 택시 6.0% 승용차 17.0%로 변모될 것이다.

· 앞으로 計劃期間동안 大衆交通手段을 대폭 확충하여 교통수요의 고급화에 대응하여 乘用車利用需要를 크게 억제할것을 前提로 한것이다.

서울市 車輛保有台數 推定

| 區 分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年平均增加率 | | | |
|---------------------|------------------|------------------|--------------------|--------------------|--------------------|-----------|-----------|-----------|-------------|
| | | | | | | 81 -85 | 86 -90 | 91 -96 | 96 -2001 |
| 차량총계 (千台) (%) | 221.6 (100.0) | 521.5 (100.0) | 1,220.0 (100.0) | 1,900.0 (100.0) | 2,700.0 (100.0) | 18.7 | 13.5 | 10.1 | 5.5 |
| 승용차 (千台) (%) | 145.4 (66.6) | 392.2 (75.2) | 764.0 (77.7) | 1,288.0 (80.9) | 1,723.0 (82.9) | 22.0 | 14.3 | 11.0 | 6.0 |
| 버 스 (千台) (%) | 9.7 (4.4) | 10.9 (2.1) | 20.0 (2.0) | 30.0 (1.9) | 40.0 (1.9) | 2.4 | 12.9 | 8.4 | 5.9 |
| 화물차 (千台) (%) | 665.5 (30.0) | 118.4 (22.7) | 199.0 (20.3) | 273.0 (17.2) | 316.0 (15.2) | 12.2 | 10.9 | 6.5 | 3.0 |
| 자동차보유율 (台/千人) | 25.5 | 53.2 | 89.1 | 128.0 | 148.5 | 15.8 | 10.9 | 7.5 | 3.0 |

註: 1) 2륜차 제외

2) 승용차: 자가용 버스와 택시를 포함

버 스: 영업용 버스와 관광버스

화물차: 트럭과 특수차

手分段別 分擔率 計劃

(단위: %)

| 區 分 | 1988 | 1992 | 1996 | 2001 |
|-----|------|------|------|------|
| 버 스 | 50.6 | 44.7 | 39.7 | 30.2 |
| 지하철 | 16.8 | 22.0 | 34.0 | 46.8 |
| 택 시 | 16.0 | 11.0 | 7.6 | 6.0 |
| 기 타 | 16.6 | 22.3 | 18.7 | 17.0 |

入 都心駐車場 需要推定

(단위: 千台, (%))

| 區 分 | 1988 | 1992 | 1996 | 2001 |
|-----|---------------|---------------|---------------|---------------|
| 계 | 52,000 (100) | 74,000 (100) | 80,000 (100) | 80,000 (100) |
| 公 營 | 2,500 (4.8) | 10,500 (14.2) | 13,500 (16.9) | 13,500 (16.9) |
| 民 營 | 49,500 (95.2) | 63,500 (85.8) | 66,500 (83.1) | 66,500 (83.1) |

交通計劃

■ 基本方向

· 서울市の 交通計劃은 2000年代 서울의 未來像에서 예견되는 다양한 도시활동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全國的 中樞機能을 계속 수행해 나갈 首都圈 廣域都市圈의 공간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構想되어야 한다.

· 서울을 중심으로 首都圈의 交通體系는 앞으로 계속 증대할 移動性과 自動車大衆化時代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基本方向에 의해 計劃되어야 한다.

- ① 市民의 增大된 交通수요를 迅速, 低廉, 安全, 便利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交通망체계를 指向한다.
- ② 交通手段의 고유장점에 imak하여 交通의 社會的 費用을 極小화시키고, 總체적 交通효율을 향상시키도록 分擔體系를 유도한다.
- ③ 交通網의 開發投資에 의한 接近度의 向上이 地域別로 均等도록하고, 受惠對象에 있어서도 노약자, 저소득층 그리고 승용차가 없는 階層을 우선한다.
- ④ 수도권 광역도시권의 中核都市로서 광역도시交通체계를 構成할 수 있도록 域外 交通의 效率의인 連繫性을 확보하도록 한다.
- 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존을 위해 대기오염 및 소음을 최소화하고, 연료 효율성이 높은 交通시스템을 지향한다.
- ⑥ 이와함께 다핵도시구조와 연계 및 접근성을 제고하며 도시전철 및 도시고속도로와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도로 交通망체계를 구축한다.

■ 交通網計劃

● 計劃의 原則

· 都市電鐵網의 擴充; 앞으로 巨大廣域都市의 交通수요를 효과적으로 受容하기 위해서 交通用地와 에너지의 절약, 그리고 대기오염방지 及 交通안전에 유리한 大量高速大衆交通手段인 都市電鐵網을 擴充한다.

· 基本的 高速道路網의 構成; 앞으로 豫想되는 자동차교통 대중화시대에 對處하기 위하여 市域內地域間 長距離 交通은 都市高速道路體系로 吸收되야 할것이므로, 都心의 交通流入을 加重시키지 않도록 도심지역을 避한 都市高速道路網을 構想한다.

· 格子型 幹線道路體系의 構築; 서울시 도로망체계는 地形의 要因으로 인해 도심지역을 中心으로 放射環狀型 體系를 構成하고 있으며 方向別 連結性이 不良한바, 이러한 缺陷을 根源의으로 改善하기 위하여 循環機能을 強化한 格子型 幹線道路網 體系를 構築한다.

· 面道路의 整備를 통한 道路網의 連結性 提高; 서울시의 中路幅(12~20m)의 도로가 未備하여 交通末端地域에서의 移動性이 不良하고 車輛交通이 一部 幹線道路에 集中하여 교통문제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가로망체계의 構造의 缺陷을 改善하기 위해서는 裏面道路의 整備를 最優先 課題로 推進한다.

· 廣域交通體系로서 市外버스터미널과 貨物터미널의 體系的 配置; 도시생활권의 광역화로 그 比重이 점점 커지고 있는 市外流出人 交通을 效果的으로 處理하기 위해 市外버스터미널과 貨物터미널을 體系的으로 配置한다.

· 大衆交通 連繫體系의 確立; 도시내 교통과 시외교통과의 連結 및 交通手段間的 相互 補充의 機能을 提高하고 便利한 換乘體制의 造成을 위하여 都市交通 戰各地點인 電鐵驛에 大衆交通連繫 駐車施設과 大衆交通센타를 設置한다.

· 步行者 安全施設의 確保; 生活環境의 沮害要素를 最少化하여 생활환경의 質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步行施設을 整備한다.





■ 都市電鐵網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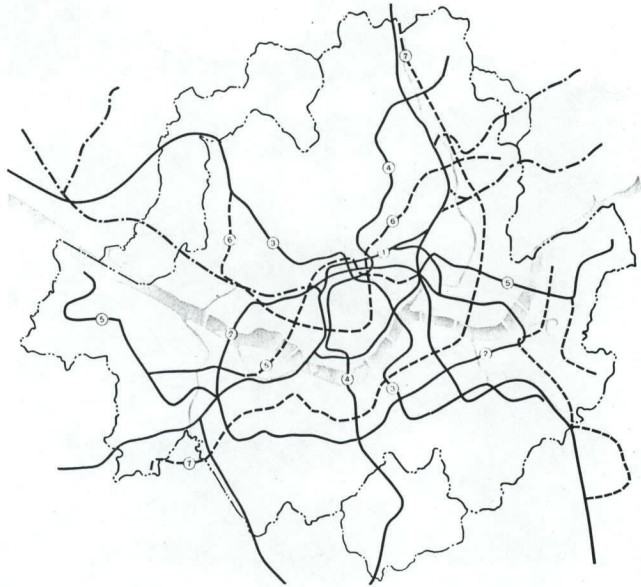
이미 개통중인 지하철망을 근간으로 앞으로 都市電鐵網의 路線擴張을 다음의 原則에 의해 計劃한다.

· 이미 容量限界에 到達한 京仁 및 京水電鐵은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複複線化가 不可避한 것인바, 大量高速大衆交通體系의 效率을 提高한 합리적 配置가 요구된다.

· 都市電鐵網을 계획한 이후 그동안 새로 개발된 대단위 도시개발사업과 수도권 광역도시 개발의 次元에서 開發軸이 형성되고 있는 郊外地域 및 副都心開發等의 새로운 變化를 受容하기 위해 기존 지하철 및 전철 노선을 擴充한다.

도시전철망구상도

기존전철 
 기존국철 
 제1단계 
 제2단계 



電鐵網路線計劃

| 노선 | 기종점 | 연장(km) | 비고 |
|----|-----------------|--------|------------|
| 계 | 11개노선 | 332.6 | 162.6(km) |
| 1 | 수원, 인천—종로—의정부 | 53.9 | 기존 |
| 2 | 성수동—강남—신촌—을지로 | 54.2 | 기존 |
| 3 | 구파발—양재동 | 26.2 | 기존 |
| 4 | 상계동—사당 | 28.3 | 기존 |
| 2 | 2호선연장(목동—신도림) | 3.0 | ·5호선(김포공항— |
| 3 | 3호선연장(양재—수서) | 8.0 | 이의도, 고덕—왕 |
| 4 | 4호선연장(사당—과천—금정) | 16.0 | 십리) 및 성남선 |
| 4 | 4호선연장(상계동 연장) | 1.0 | (성남—수서, 잠 |
| 5 | 공항—도심—고덕 | 52.0 | 실), 일산선(일산 |
| 6 | 역촌—도심—신내 | 31.0 | —구파발)은 92년 |
| 7 | 상계—강남—광명 | 42.0 | 도 완공예정. |
| 8 | 암사—잠실—성남 | 17.0 | ·분당선(분당—왕 |
| | | | 십리)는 93년도에 |
| | | | 완공예정. |
| 국철 | 분당—성남—왕십리 | 30 | |
| | 일산—수색—서울역 | 27 | |
| | 일산—구파발 | 15 | |

*註: 전철망노선계획은 타당성조사 結果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 路線의 形態는 住居密集地域과 業務商業地域을 各 方向別로 連結하여 利用交通量이 비교적 均等히 配分되도록 하고 都市空間構造 改編이 促進될 수 있도록 計劃한다.
- 乘客이 最小의 換乘으로 目的地에 到着할 수 있도록 全體 네트워크로서의 連結性を 높여 利用效率이 極大化되도록 한다.
- 路線은 可能한 道路를 利用하여 民願發生과 工事費를 줄이고 乘客便宜를 圖謀하여, 人口密集地域을 既存 路線과 連結하여 都市전철의 이용권을 擴大한다.

■ 都市高速道路網

- 자동차대중화시대에 있어서 多樣화된 통행서비스수요를 充足시키고, 高移動性에 의한 都市경제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大衆交通手段의 開發과 병행하여 最小限의 都市高速道路網의 構成이 必要하다.

서울市의 自動車保有台數는 현재의 78萬台中서 장래 270萬台 水準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장래의 都市전철망과 상호보완적이도록 都市高速道路網의 發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市의 都市개발방향 그리고 주변 수도권내 都市개발 및 지역조건 등을 고려하여 都市高速道路網路線을 다음의 基本方向에 따라 選定한다.

- ① 서울市域內 地域間 迅速한 長距離通行을 가능케 하고, 장래 都市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한 首都圈內周邊都市들과의 生活圈統合에서 오는 도시간 流出入通行량을 吸收하여 都市內 路面交通에 미칠 壓力을 極小化시킬 수 있도록 한다.
- ② 都心地域의 交通壓力을 分散시킬 수 있도록 都心貫通을 止揚하되 都心外廓에 近接되게 하며, 강한 循環機能을 갖되 各 方向別 放射網을 構成하여 全國의 主要지역 및 都市內 대생활권간의 連結性を 提高시킨다.
- ③ 새로운 高速道路 用地擴充에 따른 私有財産의 侵害를 極小化하기 위해 기존도로 또는 하천부지등 公共用地를 最大限 活用한다.
- ④ 高速道路의 貫通으로 기존 생활권의 分斷이나 排氣汚染 및 騒音 等の 生活環境 破壞效果가 極小化되도록 周邊 土地利用과의 關係를 考慮한다.

그리고 都市高速道路의 物理的 施設基準에 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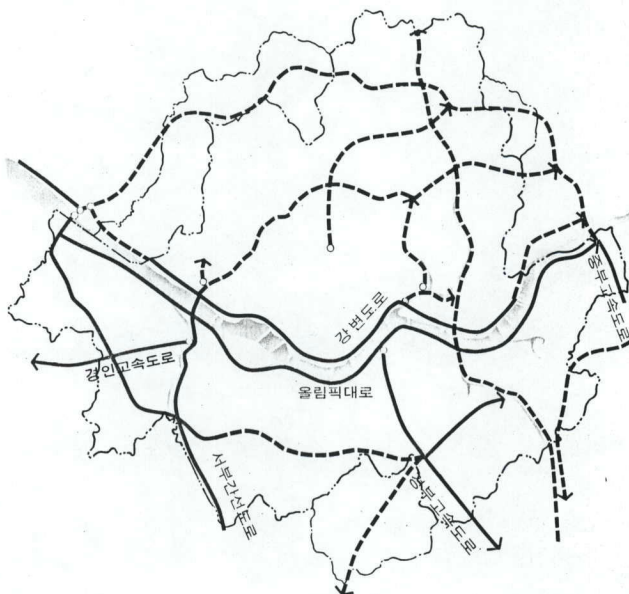
- ① 一般道路交通에 의한 通行障礙가 發生되지 않도록 完全한 接近統制와 立體交叉施設을 確保하고 高速通行이 維持될 수 있는 線型條件을 完備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市는 오랜 歷史를 두고 都市개발이 蓄積되어온 既成市街地가 大部分이기 때문에 先進外國에서와 같이 設計基準을 嚴密하게 適用하는 데에는 많은 問題가 豫想된다.

따라서 都市高速道路의 物理的 設計基準은 서울市의 實情에 따른 現實性 있는 不可避한 것이지만 通常의 意味의 고속도로기준을 最大限 反映하도록 한다.

- ② 通過交通의 迂廻處理와 都市空間構造 多核化를 위해 内部 및 外部循環網을 構築한다.

- ③ 設計基準은 4~6車線(20~30m) 幅員에 5%以下의 縱斷勾配와 1.5%以下의 片勾配로 60~80km/時間의 速度를 낼 수 있도록 하며, 交叉點은 3枝交叉를 原則으로 하되 個所는 最少化하며, 防音壁 또는 遮斷綠地帶를 設置토

도시고속도로망 구상도



기존도시고속도로
계획도시고속도로

都市高速道路網 計劃

| 구분 | 노선수 | 총연장(km) | 도로명(기종점) | 비고 |
|-------|-----|---------|--|---------|
| 기 設 | 1 | 57.1 | 올림픽대로(행주대교—하일동) 경인고속도로진입로(양평동—신월동) 경부고속도로진입로(행주대교—하일동) 중부고속도로진입로(외계원—장지동) | |
| 部 分 設 | 3 | 92.7 | 서부간선도로(시흥대교—불광3거리) 강변도로(행주대교—구리시) 남부순환도로(행주대교—수서IC) | 미개설26km |
| 未 設 | 3 | 81.9 | 동부간선도로(상계동—성지동) 북부간선도로(성산대교—구리시) 북부순환도로(행주대교—창동) | |
| 總 | 10 | 235.0 | (현재 72.5km) | |

록 하며, 「랩프」의 出口와 人口는 각각 補助幹線과 主幹線에 連結시킨다.

- ④ 道路構造는 地形與件에 따라 平面分離式, 高架式, 半地下式, 地下式으로 選擇 施工한다.

■ 幹線道路網

서울市 幹線街路網은 오랜 歷史를 두고 自然發生的으로 발달되어온 放射型道路를 근간으로 擴幅을 거듭하고 부분적으로 補強하여 기본적으로 放射環狀型體系로 발달하였다. 丘陵地形의 制約條件과 體系의 計劃의 結果로 路幅爲主의 간선가로망이 발달된 결과 幹線體系는 方向性和 連結性이 부족하여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計劃期間中 서울市 간선가로망은 다음의 問題點을 示正하는 方向으로 擴充整備되어야 한다.

- 廣幅의 幹線에 對한 交通量의 過重負荷을 分散시키고, 交叉路效率을 높이기 위해 간선망의 체계적 分화를 指向한다.
- 간선가로망 間 유기적인 連結性이 부족한 결과 일부 간선구間에 交通장애가 발생한 경우, 代替道路가 없고 交通차단이 발생되는 것을 개선한다.
- 放射循環型을 基本 골격으로 하고 있으나 循環線의 일부구間이 未開設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 도심부를 貫通하는 通過交通이 유발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格子型 幹線網의 構築을 指向한다.

간선도로망 계획도



기존간선도로
계획간선도로

■ 가로망 정비계획

서울시의 街路網體系는 전체적으로 도로의 기능과 단계성에 의해 균형되게 발달하지 못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한다.

- 도로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각기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中路를 정비하고 小路의 路幅을 확장한다.
- 도로의 연결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되 道路密度의 균형된 배분을 지향한다.
- 쓰레기수거와 도시방제를 위한 도로는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 交通施設計劃

● 域外交通施設

· 空港터미널;

- ① 所得水準의 向上과 國際化에 의해 航空交通需要는 비약적으로 增加할 것이다. 激增하는 首都圈 航空乘客과 航空貨物을 감당하기 위해 金浦空港, 新張하고, 淸原 第2國際航空이 건설될 경우 首都圈航空交通收客能力은 倍加될 것인바, 이를 도시 교통과 원활히 연결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다.
- ② 海外旅行의 自由化에 부응하여 出國節次의 간소화와 空港까지의 連繫交通을 개선하기 위하여 市內의 전략적 위치에 空港터미널을 건설할 것이 필요하다. 國際空港과 空港터미널의 입지는 都市電鐵에 의한 大衆交通이 편리하고 또 高速道路에 의한 신속한 公路交通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 ③ 航空貨物은 迅速한 配達을 요청하므로 航空貨物터미널의 계획적 배치에 의해 航空貨物流通過程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貨物專用驛計劃

| 위 | 치 | 기 | 능 | 비 | 고 |
|---|------|-------|---|--------|-----|
| | 富谷驛 | 南部地方 | | | |
| | 陶農驛 | 東部地方 | | 短期的으로는 | 城北驛 |
| | 陵谷驛 | 北西部地方 | | | |
| | 議政府驛 | 北部地方 | | 短期的으로는 | 城北驛 |

· 鐵道驛, 市外버스터미널 및 高速터미널;

長距離 鐵道 및 公路交通은 都市內 어느 한 터미널驛 또는 流通基地에 집중시키는 것 보다는 進入方向別로 적당히 배치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또 대중 교통수단과 연계시킴으로서 都市交通의 混雜을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市外버스터미널 計劃

| 위 치 | 기 능 | 비 고 |
|---------|-----------|----------------|
| 瑞草區 盤浦洞 | 全 地 方 | 既存 高速버스터미널 |
| 恩平區 佛光洞 | 西 北 部 地 方 | 대조동市外버스터미널移轉 |
| 城東區 九宜洞 | 東 南 部 地 方 | 新 設 |
| 中浪區 上鳳洞 | 東 北 部 地 方 | 馬場洞 市外버스터미널 移轉 |
| 道峰區 倉洞 | 北 部 地 方 |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
| 瑞草區 瑞草洞 | 南 部 地 方 | 龍山 市外버스터미널 移轉 |

流通基地 計劃

| 위 치 | 기 능 | 비 고 |
|----------|-----------|---------------------------|
| 松坡區 可樂洞 | 南 東 部 地 方 | 農水產物 |
| 良川區 新亭洞 | 南 西 部 地 方 | 工產品 및 原資材 |
| 中浪區 新內洞 | 北 部 地 方 | 鐵物 및 林產物 |
| 高陽郡 東山里 | 北 西 部 地 方 | 將來豫備 |
| 東大門區 長安洞 | 東 部 地 方 | 트럭터미널 |
| 瑞草區 良才洞 | 南 部 地 方 | 컨테이너 및 트럭터미널 ^註 |

註: 트럭터미널은 現 瑞草洞 貨物터미널이 移轉한 것임.

● 主要交叉點施設

· 都市內에서는 道路網이 密集하여 수많은 交叉點이 發生하는데 이 交叉點이 또 시내 交通흐름을 遮斷하는 主要 要素가 되므로 도로망 擴充과 더불어 교차점의 效果的인 處理가 必要하다. 특히 都市高速道路 計劃의 導入에 따라 都市高速道路 相互間 및 主要 幹線道路와의 交叉點은 立體化한 廣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는 相當한 敷地를 所要하므로 제한된 都市空間內에서는 敷地確保의 어려움이

있어 도시내에서는 高速走行과 多量の 長距離交通을 처리하기 위한 自動車専用道路와 일부 主幹線道路에만 制限的으로 設置하여야 한다.

・都市内 鐵道와 地上電鐵, 機能別 一般道路 相互間 交叉點은 平面 또는 立體式 廣場과 美觀廣場 등으로 綜合的인 計劃을 한다.

・도시고속도로 상호간의 교차점과 主要幹線道路와의 교차점은 埋藏화한다. 그러나 敷地確保의 어려움을 勘案하여 도시고속도로 상호간의 교차점은 凡そ 4枝交叉를 避하고 敷地所要가 적은 3枝交叉를 原則으로 하며 교차점과 교차점 사이의 間隔은 2km 以上이 되도록 配置한다.

・具體的인 交叉地點의 設置時에는 車輛疏通 效率를 最大化하면서 敷地는 最少化하도록 設計, 施工上의 構造의 處理에 各별히 留意해야 할 것이다.

・都市高速道路에 出入하는 또다른 施設인 「램프」는 都心部에로의 進入을 抑制하고 도심부에서 外廓으로 빠져나가기 쉽도록 配置한다. (이와 같은 設計가 技術的으로 困難하다면 「램프」의 出入을 도시고속도로의 車輛疏通狀態에 따라 時間帶別, 地點別로 統制하는 方式도 可能할 것이다.)

・또한 主幹線에 對한 交通量의 過重負荷를 막기 위해 入口는 主幹線道路에 設置하고 出口는 補助幹線道路에 設置하는 方式을 適用토록 한다.

●駐車施設

주차요금의 差等化, 주차시설의 규제 등 주차정책의 활성화를 통하여 도심주차수요를 源泉的으로 억제하며, 도심지역의 주차수요, 공급, 운영의 측면을 고려해 볼때 예상되는 최소 적정주차공급수준은 80,000萬으로 한다. 또한, 도심경제활동의 지속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수준의 주차시설에 대한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주차시설의 형태별 배분을 합리화한다.

・都心駐車施設:

駐車施設擴充과 需要減縮을 병행추진하되 시설확충은 원인자와 수익자가 설치하고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민간자본을 적극유치하며, 주차수요와 供給을 地域別로 균형배분하여 시설이용효율을 極大化하고, 각종 지원확대와 규제의 완화로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한다. 또한 주차운영관리제도의 개선으로 기존시설의 利用效率를 극대화 한다.

・副都心等 外廓駐車場:

도로, 공원등 지하주차장은 민간개발과 병행하며 유수지 및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화하도록 한다.

・驛勢圈 駐車場;

승용차 환승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유수지 등 유휴공간을 적극활용하여 건설하도록 하는데 특히 신설 전철역을 건설할 때 지하 park를 설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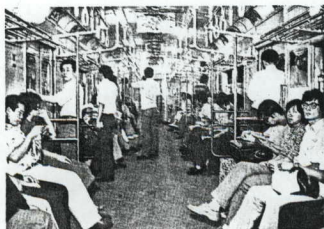
●大衆交通連繫施設

・道路用地的 供給用量에 비해 通行密度가 과도하게 높은 대도시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방향은 大衆交通手段의 개발이다. 그러나 편리성과 주행성이 낮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도를 提高하기 위해서는 他交通手段과의 連繫性을 높여 綜合交通體系 (intermodal transportation system)를 구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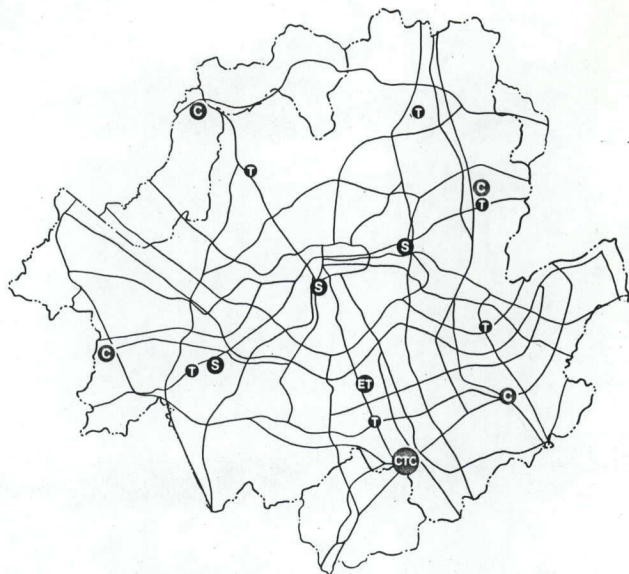
- (1) 自動車 大衆化에 따른 乘用車 交通의 흡수를 위해 都心境界地域과 中間地域에 地下鐵・電鐵과의 連繫를 도모하기 위한 停車場을 배치한다.
- (2) 地下鐵과 電鐵은 長距離 鐵道, 市外버스 그리고 高速버스와 편리하게 연결시켜 교통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또 都心交通體系로서의 效率를 높이기 위해서 地下鐵과 電鐵은 방향이 다른 路線間 그리고 市外버스 및 택시와의 乘換을 편리하도록 連繫體系를 計劃한다.

・交通運營計劃; 交通網 및 交通施設등 交通供給側面만으로는 將來의 交通需要를 充足시키는 데 限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時間이 지날수록 그 效率이 매우 低調에 진다. 따라서 最新 交通技術의 開發에 따른 交通運營 改善을 圖謀해야 하나, 여기에는 既存施設의 效率를 極大化 시키는 SOFT WARE 開發과 大衆交通手段의 運營技法開發에 발맞추어 乘用車의 都心進入抑制 및 交通需要의 時間的 分散을 求道하는 여러가지 技法과 이에따른 高度의 最新裝備를 開發 또는 導入設置해야 한다.

・새로운 交通시스템 導入; 새로운 形態의 大衆交通시스템 즉 自動軌道 大衆交通 (AGPT), 自動混合交通車輛 (AMPV), 移動道路 (AMW) 등과 같은 革新的인 交通시스템이 조만간 現實化 되지 않을수 없는 狀況에 對備하여 既存의 大衆交通시스템과 連結시켜 計劃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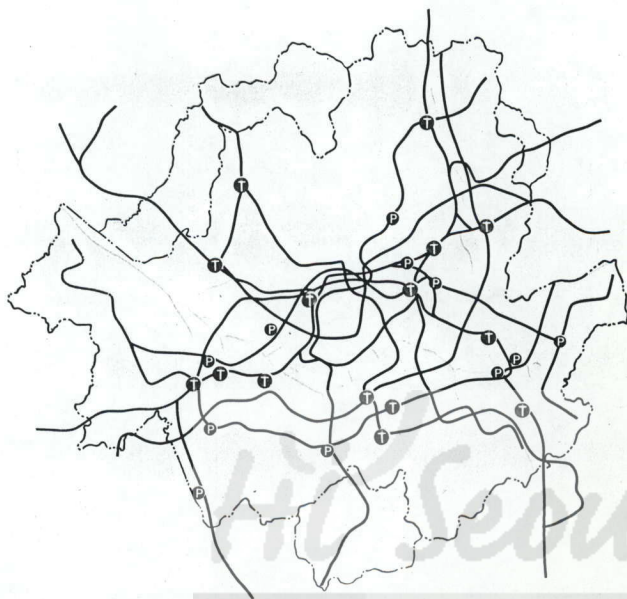


역외교통시설계획도



| | |
|-----------------|-----|
| 철도장거리 | S |
| 고속버스터미널 | ET |
| 시외버스터미널 | T |
| 트럭터미널 유통단지 | C |
| 트 · 유 · 콘테이너터미널 | CTC |
| 간선가로 | |

대중교통연계시설계획도



| | |
|------------|---|
| 기존 · 계획전철 | |
| 대중교통센터 | T |
| 대중교통연계주차시설 | P |

■ 情報流通 現況

● 우리나라 情報流通量

- 정보유통량의 増加는 매년 11.5%라는 폭발적인 増加現象을 보이고 있다.
- 電話 등 音聲情報가 便紙 등 文字情報보다 정보유통에서 차지하는 몫이 増加하였다(1963년의 60 : 40에서 1984년에는 87 : 13).
- 데이터情報, 그림情報 등의 發展速度가 文字나 記號의 발전속도보다 빠르다.
- 1980年度에 들어 정보유통이 專用回線, 텔렉스 등에 의한 새로운 情報서비스에 의해 크게 伸張되고 있다.

● 정보유통의 內容

- '974年 이후 業務情報量이 家事情報量보다 많아(1963년의 30 : 70에서 1974年 이후 60 : 40) 지고 있다.
- 1971年 이후 가사정보의 傳達에 있어 音聲情報가 文字정보보다 더 많아진 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무정보의 流通에 있어서도 같은 趨勢이다.
- 그림정보의 경우 사무정보의 傳達이 주종을 보이고 있다.

■ 郵政現況 및 課題

- 全市內的 郵遞局數는 1987년 현재 272개로 局當 이용인구는 36,732명이다. 이는 1961년의 國當 이용인구 62,000명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수 있으나 만국우편연합기준인 3,000-6,000人/局에 비해 미달되는 수준이다.
- 우편물 이용현황을 보면 1986년 현재 서울시의 1인당 연간 우편물이용량은 61.6통이다. 우편물이용구조를 보면 企業通信이 48.9%이고 개인통신이 5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企業通信의 比重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우체국에서 가장먼저 改善할 事項에 대한 1985年度 郵便서비스 設問調査 結果를 보면, 새로운 서비스의 開發이 전체 응답자의 31.3%, 郵便物 送達의 安全과 迅速이 26.3%, 건물과 창구시설의 改善이 24.1% 등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서비스의 開發에 대한 要求가 가장 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郵政部門의 發展을 위한 基本課題는 郵政施設의 擴充과 現代化로 郵便서비스의 水準을 向上시키고 다양한 요구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郵便서비스의 開發 및 供給에 있다.

서울市內 郵便施設 現況

| 年度 | 人 口 (千人) | 郵便 | | 遞 局 | | 局當利用 人口(人/ha) |
|------|-------------|-----|-----|-----|-----|------------------|
| | | 計 | 一般局 | 分局 | 취급소 | |
| 1971 | 5,851 | 90 | 71 | 19 | — | 65,000 |
| 1976 | 7,255 | 115 | 81 | 34 | — | 63,100 |
| 1981 | 8,676 | 140 | 106 | 34 | — | 62,000 |
| 1986 | 9,798 | 238 | 143 | 46 | 49 | 41,200 |
| 1987 | 9,990 | 272 | 157 | 40 | 75 | 36,732 |

資料：서울市, 서울통계연보, 각년도.

普通通常 郵便物の 利用構造

(단위：%)

| 受取人 發送人 | | 個人 | 事業所 | 合計 | 年 度 |
|------------|--|------|------|-------|----------|
| 個 人 | | 51.0 | 4.9 | 55.9 | 한국(1982) |
| | | 44.6 | 6.5 | 51.1 | 한국(1985) |
| | | 17.1 | 2.8 | 19.9 | 일본(1976) |
| | | 17.0 | 1.7 | 18.7 | 일본(1982) |
| 事 業 所 | | 26.0 | 18.1 | 44.1 | 한국(1982) |
| | | 27.8 | 21.1 | 48.9 | 한국(1985) |
| | | 43.9 | 36.2 | 80.1 | 일본(1976) |
| | | 47.7 | 33.6 | 81.3 | 일본(1982) |
| 合 計 | | 77.0 | 23.0 | 100.0 | 한국(1982) |
| | | 72.4 | 27.6 | 100.0 | 한국(1985) |
| | | 61.0 | 39.0 | 100.0 | 일본(1976) |
| | | 64.7 | 35.3 | 100.0 | 일본(1982) |

資料：체신부, 우편서비스 결과보고서, 1982, 1985.

■ 電氣通信部門 現況 및 課題

● 電話

서울市內 電話加入者數는 1976年에서 1987年 사이에 연평균 38.9%씩 增加해

은 結果 人口 100當 전화가입대수는 27.5台로서 全國의 23.4台보다 높은 水準이지만 外國의 主要都市들에 比하면 매우 낮은 水準으로서 성장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서울市內의 전화국은 41個所로서 增加하는 電話需要에 대응하여 交換施設의 電了化 등 施設을 高度化하고 있다.

· 급증할 電話要求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화국을 擴充하고 광통신망구축 등 통신시설을 고도화하고, 전화망과 텔렉스망의 연동 등 通信網의 效率性을 제고하여야 한다.

· 전화망과 텔렉스망의 聯動 등 通信網의 效率性을 제고하여야 한다.

● 情報通信

· 情報가 물적자원 못지않게 강조되는 高度情報化社會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가운데 1970년대 에 이르러 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정보산업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도정보화사회로의 진전에 근간을 이루는 데이터 통신은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 世界的으로 公衆電話網을 대신하여 데이터통신¹⁾에 적합한 디지털方式의 綜合情報通信網(ISDN)을 구축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도 1973년부터 特定通信回線을 利用하여 데이터통신을 시작하였으며, 1983년에는 公衆電話交換網(PSTN)을 데이터통신에 開放함과 동시에 公衆팩트交換網(PSDN)을 建設하여 궁극적으로는 ISDN의 構築을 위한 研究開發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 1985年 現在 우리나라의 데이터通信網 構築은 초기단계에 있는 바, 데이터通信回線의 總數는 18,573回線이다. 人口 1,000名當 普及率은 0.46回線(1985)으로서 유럽의 평균치인 4.3回線(1984)이나 日本의 1.9回線(1983)보다 크게 낮은 형편이다.

· 데이터통신 중에서도 디지털 傳送方式으로서 장래 그 需要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PSDN을 통한 서어비스별 加入者現況을 보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및 國際데이터通信 加入者의 대부분이 서울에 集中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加入者가 企業 혹은 研究教育機關이다. 國內데이터통신을 위한 PSDN 加入者는 서울에 의 偏重性이 적으나, 傳送速度가 빠른 것(4,800 bps 以上)은 대부분이 서울에 集中되어 있으며 一般企業의 占有率이 매우 높다.

註: 여기서는 DATA通信은 文字情報과 畫像情報의 傳達을 實現 廣義의 意味로 사용함.

ISDN =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PSTN =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DN = Packet Switched Data Network

그러므로 장차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통신의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 새로운 情報서비스의 傳達通路인 情報통신網의 擴充 특히, 디지털 傳送方式의 通信網 擴充이 絶실히 要望된다.
- 現在 情報통신의 서울 集中度나 將來 서울의 國際都市化 目標를 감안해 볼 때 서울지역에 대한 情報통신망 擴充이 要求된다.

公衆페킷交換網을 통한 情報通信서비스別 加入者 數

| 通信서비스 | 全 國 | 서 울 | 地 方 | 備 考 |
|-----------------------|------------|-----------|------------|----------|
| 데이터베이스서비스 | 156(100,0) | 124(79,5) | 32 (20,5) | 1985. 12 |
| 國際데이터통신 ¹⁾ | 330(100,0) | 302(91,5) | 28 (8,5) | 1986. 3 |
| 國內데이터통신 | 185(100,0) | 65(35,1) | 120 (64,9) | 1986. 3 |
| 計 | 671(100,0) | 491(73,2) | 180(100,) | — |

註: 1) 國際 데이터 통신에는 전자사자화 서비스가 포함되어 없음.

2) 國際 데이터 통신은 서울, 경기, 강원지역의 加入者 數임.

資 料: DACOM

通信需要 推定

- 社會發展의 趨勢는 情報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화 사회로 향하고 있으며,
- 전기통신과 우편과의 關係는 相互補完의인 役割을 계속할 것임을 전제로 한다.

電氣通信과 郵便과의 關係

| 서 비 스 | 國內郵便物 | 國際郵便物 |
|---------------------|---|--------------------------------|
| 綜合電氣通信 시스템 | · 큰 영향이 없음 | · 정제할 전망 |
| Videophone | · 편지, 엽서에는 영향없음 · 인쇄물도 거의 비슷 · 소포는 증가할 전망 · 우편업무에는 좋은 영향 | — — — · 우편 업무에는 좋은 영향 |
| CATV | · 지방신문에는 부정적 영향 | — |
| Facsimile, Teletype | · 편지의 경우 일일배달의 가능성으로 영향없음 | · 정제됨 |
| 電子郵便 | · 시간의 단축이 소요요금에 비해 적으면 수요감소 | · 요금과의 관련성이 큼 |
| Teletex | 대기업에 있어서 업무용통신의 대부분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통신의 경우는 영향없음. | |

産業社會와 情報社會의 特性

| 産 業 社 會 | 情 報 社 會 |
|----------------------|-------------------------|
| · 生産物에 기초를 둔 社會 | · 生産物과 서비스에 기초를 둔 社會 |
| · 資本 · 勞働 · 機關 | · 知識 · 情報 |
| · 中心의 社會 | · 中心의 社會 |
| · 情報의 商品性 認識 | · 情報價値가 절대적 比重 |

■ 郵政部門

· 郵便需要의 豫測方法은 과거 우편물의 種別 物量資料를 利用하여 回歸分析을 行하여 2000년까지의 趨勢를 勾하고 세계 여러도시들의 우편물 이용수준과의 比較分析을 통하여 豫測値를 算出한다.

· 2001年의 1人當 郵便物利用量은 170통이상 水準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이는 現在의 도오료오 혹은 오오사카에 있어서 郵便物利用水準의 절반에 못미치는 水準이며 총우편물량은 현재의 3.5倍인 21億通으로서 전국 우편물량의 39%에 해당된다.

서울시 郵便物量 推定

| 年度 | 人 口 (千人) | 地域總生産 (億圓) | 郵便物量 (千通) | 1人當郵便 利用量(通) | 全國에서의 比重(%) |
|------|-------------|---------------|--------------|-----------------|----------------|
| 1976 | 7,255 | 77,651 | 223,522 | 30.8 | — |
| 1981 | 8,676 | 116,583 | 414,669 | 47.8 | — |
| 1986 | 9,798 | 255,820 | 603,200 | 61.6 | — |
| 1991 | 10,580 | 449,780 | 993,000 | 93.9 | 25.0 |
| 1996 | 11,267 | 645,717 | 1,367,000 | 121.3 | 38.0 |
| 2001 | 12,000 | 927,010 | 2,100,000 | 175 | 39.0 |

註：接受郵便物 基準

■ 電氣通信部門

● 電話

· 電話需要의 豫測方法은 현재 전화수요가 급증하는 段階에 있기 때문에 說明變數들과 需要간의 關係가 不安定하므로 計量經濟模型에 의하지 않고 先進國들

Hi Seoul

SOUL OF ASIA

의事例를 比較分析하고 將來 우리나라 전화수요의 形態를 分析하여 豫測値를 算出한다.

- 2001년의 加入電話 保有密度는 100名當 60.7台 水準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가입전화 총대수는 현재의 2.9倍인 7,280,000台로서 全國總加入電話의 35%에 해당될 것이다.

서울市 電話需要 推定

| 年度 | 人 口 (千人) | 電 話 計 | 保 有 業務 | 台 數(台) 家事 | 密 度 (台/100人) | 全國에서의 比重(%) |
|------|-------------|----------------------|---------------------|---------------------|-----------------|----------------|
| 1976 | 7,255 | 511,718 (100.0) | 211,019 (41.3) | 300,609 (58.7) | 7.1 | 40.3 |
| 1981 | 8,676 | 1,140,456 (100.0) | 368,234 (32.3) | 1,172,222 (67.7) | 13.1 | 34.9 |
| 1986 | 9,798 | 2,501,806 (100.0) | 536,226 (21.4) | 1,965,580 (78.6) | 25.5 | 33.2 |
| 1991 | 10,580 | 3,973,000 (100.0) | 874,000 (22.0) | 3,099,000 (78.0) | 37.6 | 32.5 |
| 1996 | 11,267 | 5,842,000 (100.0) | 1,344,000 (23.0) | 4,498,000 (77.0) | 51.9 | 35.0 |
| 2001 | 12,000 | 7,280,000 (100.0) | 1,820,000 (25.0) | 5,460,000 (75.0) | 60.7 | 35.0 |

● 情報通信

- 情報通信의 需要의 예측은 일본 및 유럽 17개국의 정보통신서비스 그 形態 別 현황과 예측자료를 참고로 하여 서비스의 效用, 通信費用등의 經濟的 要因, 單말기 제조기술과 같은 技術的 要因, 社會, 文化的 要因과 政策的 要因을 감안하였다.

-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수요는 加入者 物量把握을 위하여 컴퓨터나 端末機가 통신망에 接續되는 수를 나타내는 NTP (Network Termination Point)의 수를 통하여 推定해 볼 때 2001년의 총 정보통신수요는 현재의 약 10倍인 500,000 NTP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 情報通信서비스 形態別로는 1996年 이후에 데이터 專用網의 需要가 급증하여 全體 NTP 需要의 46%를 데이터 專用網이, 42%를 特定通信回線이, 나머지 12%를 公衆通信網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통신網 計劃

■ 基本方向

● 郵政部門

- 사회변화와 통신서비스 요구에 상응하여 郵遞局을 정보화사회의 情報流通基地로서 우편, 금융, 전기통신이 接合된 綜合奉仕窓11로 育成한다. 즉, 窓11網 擴張 및 改善, 施設 및 裝備의 자동화를 통한 서비스水準의 向上, 새로운 서비스의 開發로 우편서비스를 多樣化, 高度化, 정보·자료의 綜合配分基地로서 정보화사회를 선도하도록 한다.
- 郵遞局의 未來像: 綜合情報窓11이면서 綜合奉仕窓11
- 計劃基調: 多樣化 高級化하는 通信서비스需要에 副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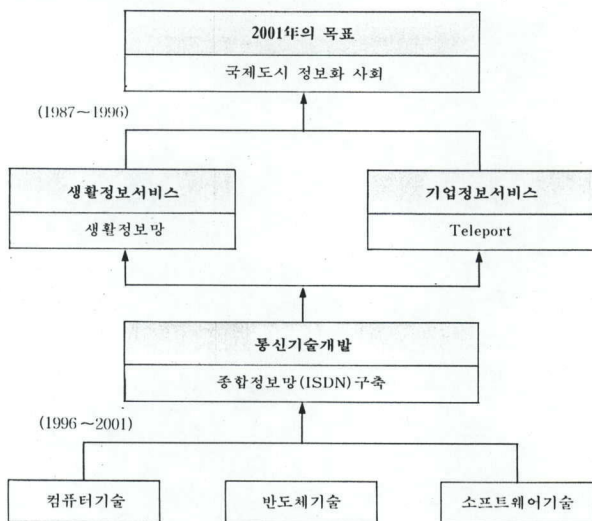
段階別 通信서비스 計劃

| 구 분 | '87-'91 | '92-'96 | '97-2001 |
|-----|----------|----------|----------|
| 서비스 | 팩시밀리민원 | 컴퓨터발신원 | 종합정보 |
| 화 대 | 우 표 등 | 전자우편 등 | 서비스 |
| 시 설 | 수도권우편집 | 수도권우편집 | 타전산망과의 |
| 현대화 | 중국 (제1차) | 중국 (제2차) | 연 개 |
| | 종합전산센터 | | |

● 電氣通信部門

- 高度化 多樣化된 정보화사회의 통신서비스수요에 대비한 전기통신시설의 고도화 및 통신서비스水準의 向上을 꾀한다.
- 先進技術의 導入, 消化, 改良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종합정보통신망을 構築하고, 公衆通信事業의 效率化와 새로운 通信媒體의 開發·擴大를 통한 정보이용의 대중화를 촉진하며, 보다 低廉하고 安定的인 通信서비스를 통하여 産業別 業務能力向上과 市民의 便宜增進에 힘쓴다.
- 計劃基調: 국세도시화 및 정보사회화의 선도

段階別 電気通信 計劃



■ 部門計劃

● 郵政部門

· 置局基準: 郵便局 1局當 管轄人口는 2001年에 25,000名을 目標로 한다.

· 置局原則;

- ① 機械化集中局; 郵便物 處理過程을 機械로 自動一括處理하는 곳으로서 2個所를 新設 (1個所; 1987—1991年 / 1個所; 1992—1996年) 한다.
- ② 集配母局; 郵便物 大單位 集中處理에 機械化局으로서 行政區制當 1局씩 擴充한다 (新設).
- ③ 窓口局; 綜合奉仕窓口局으로서 行政洞制當 1局씩 擴充한다 (新設 또는 賃借).
- ④ 分局; 도심지 대형건물 構內, 工場構內, 대학構內 (非投資局) 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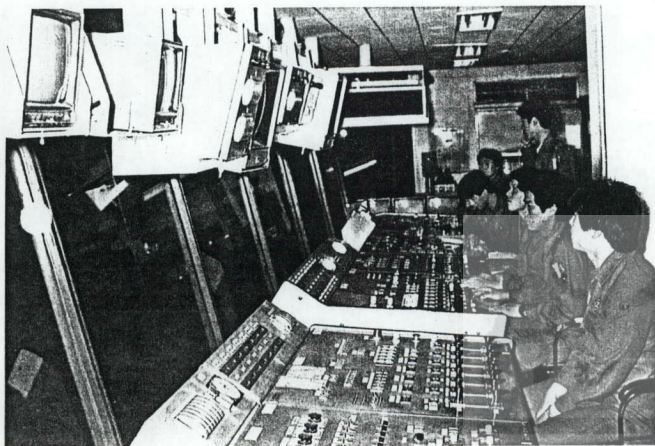
- ⑤ 郵便取扱所: 아파트관리사무소, 호텔, 백화점, 대학構內(非投資局)에 설치한다.

· 置局計劃: 機械化 集中局은 용산역 뒷편과 성동구 자양동에 신설하며 集配母局은 대단위주거단지의 수용률 감안하여 태능, 개포, 잠실 등지에 신설한다.

● 電氣通信部門

· 電話局 置局原則: 電話局別 收容區域은 行政區域, 傳送損失, 通信網構成, 電話 費 등을 고려하여 設定하며, 電話局新設은 最少化한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 需要에 대한 供給은 技術開發(交換機, 傳送方式, 傳送路線)로 對應하도록 한다.

· 情報通信 擴充計劃: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주축으로 綜合情報通信網을 構築하고 한국데이터통신을 주축으로 생활정보망을 構築하도록 한다. 서울시, 체신부 및 통신관련업체는 Teleport의 건설에 협력하도록 한다.



土地利用 現況

現況分析 및 課題

■ 市街地 形成過程

- 서울은 高麗時代의 南京이었으며, 그 당시의 지역적 범위는 대체로 舊都城內의 지역과 현재 龍山區를 합친 範域이었다. 朝鮮時代에서도 都城을 중심으로 市街化가 漸進되다가 後期에 인구의 증가로 오늘날의 中區, 鍾路區, 龍山 一全城과 隣接地域을 포함하는 漢城 5部の 넓은 地域으로 擴張되었다.
- 市街化의 進行은 1970년까지는 舊城內와 永登浦를 잇는 東北-西南軸으로 地勢의 溪谷部를 따라 市街化 되었으며, 進行이 주로 江北地域에 한정되던 것이 1970年 以後 西方으로 擴散·擴大되고, 특히 한강을 넘어 江南지역으로의 擴張이 두드러졌다.
- 역사적으로 長期間에 걸쳐 人口의 集中과 產業의 發展이 進행되는 過程에서 部分的인 計劃의 開發은 있었으나, 巨視的인 骨格形成은 地형·지세에 따른 自然發生의 토지이용상태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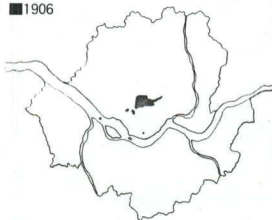
■ 土地利用의 特性 및 問題

● 江北과 江南의 二元的 土地利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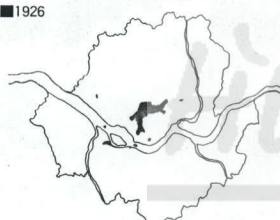
- 오랜 歷史와 傳統을 갖고 이미 상당한 都市의 集積과 都市文化를 保有한 강북 지역은 그 間의 도시형성과 성숙화 過程을 겪는 동안 지형에의 順應, 垓地의 細分化 등으로 細密한 都市細胞와 中·小道路의 毛細管으로 이루어진 토지이용을 하고 있는 지역임에 비해

서울시 발전추세도

■ 1906



■ 1926



■ 1945



江南地域은 大部分 70年代 以後 개발된 지역으로 주민·시설 모두 신규로 이루어진 過渡期的 社會이자 進行市街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都市形成이 江北에 比하여 近代의 計劃 思想을 基調로 이루어져 直線의 骨格街路와 比較的 큰 規模의 宅地를 主로하는 相한 도시체포와 大動脈을 主軸으로한 土地利用이 基調로 되어 있어 劃一的인 토지이용정책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土地資源의 制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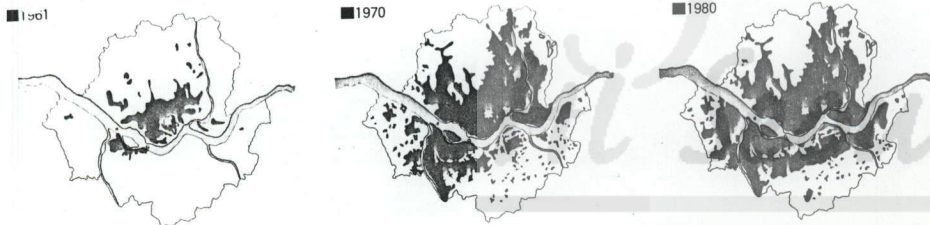
都市周圍를 둘러싼 開發制限區域(Green Belt)을 계속 보전한다는 전제는 국정의 보전과 무질서한 도시확산의 豫防이라는 側面에서 높이 평가되나, 앞으로 2001년까지에 常住人口가 1400만에 達할 可能性을 排除하지 못할 뿐 아니라, 人口規模와 相關없이, 서울의 전국적 지위가 더욱 強化·集中되리라는 展望 하에서 서울의 토지자원 측면에서의 受容能力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土地資源의 調査가 近年에 들어서야 試圖段階에 있어 精確한 判斷에는 아직 문제가 있으나, 조사·연구된 자료에서 判斷하건데 서울의 토지중 개발불가능지를 제외한 개발가능지중 대부분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에 있어 計劃期間중 用途轉換이 가능한 一團의 土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幹線道路邊 路線形 商業地域

西洋의 商業活動의 공간형식은 西歐와 같은 광장형이 아닌 노선형으로, 시민 생활 편의와 購買, 慰樂, 文化的 서비스 空間이 新·舊市街地(江南·江北)를 莫論하고 대부분 路線形으로 分布立地하는 傳統의 形態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路線으로 圍繞된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接近性과 選擇性을 提供하나, 이러한 路線商街形式이 有效한 것은 어느 정도 路線兩側의 交互接觸 作用과 空間의 一體性이 形成되는 小路나 細路에서 可能하다. 그러나 路線商業의 繁榮과 路幅擴張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노선상가가 간선도로 양측에 慣性的으로 유지되어 온 것은 그 역사성과 지역적 知名性, 그리고 배후지역과의 輻輳 等으로 不可避한 점이 있다고 보아진다.



·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 등의 계획적 미개발지에서도 전통적 형식을 답습하여 간선가로변에 路線商業을 지정함은 幹線交通 疏通을 妨害할 뿐 아니라, 간선도로의 交通吸引을 加重시키는 유발효과까지 있어 바람직스럽지 않고, 體的 상업지역의 空間氣도 形成될 수 없는 결함을 갖고 있다.

서울시 都・小賣業의 業體數 및 從業員數의 全國對比(1980年)

| 區 分 | | 都賣業 | 小賣業 | 飲食・宿泊 |
|--------------|------|---------|---------|---------|
| 業體數(個所) | 全 國 | 53,967 | 524,667 | 222,086 |
| | 서 울 | 28,733 | 138,666 | 59,866 |
| 從業員數(人) | 全 國 | 262,139 | 907,146 | 591,715 |
| | 서 울 | 141,009 | 261,221 | 198,839 |
| 서울／全國 (%) | 業體數 | 53.8 | 26.4 | 27.0 |
| | 從業員數 | 53.8 | 28.8 | 33.6 |

資料：經濟企劃院，總事業體統計調査，1981.

●全國對象 및 都市機能 受容의 二重的 土地利用

· 서울시의 人口를 全國對比하면 1981년에 22.4%인데, 1981年 總事業體統計調査를 보면, 1980年 서울시 소매업의 業體數 및 從業員數의 전국대비는 26.4%와 28.8%로 나타나 人口比와 큰 隔差가 없다. 그러나 전국을 商圈으로 갖고 있는 都賣業의 경우 業體 및 從業員數의 全國對比가 각각 53.8%를 나타내므로써 人口比와는 큰 隔差가 난다.

· 즉 서울의 都賣機能은 서울의 인구나 지역을 대상으로한 基礎需要分인 一定水準을 넘는 몫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즉 從業員比를 기준으로 서울시 도매업 종업원중 22.4/53.8(=41.6%)는 市域外를 대상으로 하는 人원이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달리 適切な 기준이 없으므로, 餘他 3次 産業機能의 서울 1) 중율을 勘案하여 모든 3次 産業 從事者나, 더 대담하게 생각하여 3次 産業機能 중 上記 41.6%의 約 2/3에 해당하는 25% 정도를 서울 대상기능이나 종사자가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 이러한 全國 및 大都市圈을 對象으로 하는 機能의 立地는 거의가 既存 都心이나 業務 및 商業機能의 集積이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진 副心에 立地하고 있는 것이 예상된다. 이렇듯 餘他都市와는 다르게, 서울은 수도라는 정치, 행정의

中心機能 所在地이기도 하지만, 경제·문화에서도 中樞都市로서 自體需要 以外の 수요부분을 相當히 갖고 있으며, 그 기능적 중요성과 영향력 등에 의해 토지이용 구조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요입지를 점유하고 있다.

●開發制限區域의 制約

- 도시계획구역 경계내외에 걸친 巨大한 開發制限區域은 도시의 平面的 擴散을 방지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녹지공간의 보존에도 이바지한 바 크다. 그러나 繼續되는 機能의 서울 集中과 人口增加 앞에서 開發制限區域의 溫存이, 緩和냐의 岐路에 서게 되었다.
- 개발제한구역의 保存을 前提하면 史上類例없는 高密住居를 忍受해야 할 것이고 緩和하면 역시 史上類例없는 擴散市街地가 펼쳐지고, 막대한 공공시설 투자수요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온존과 완화의 관계설정이 앞으로의 도시공간 형상에 큰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土地利用의 課題

- 시기능중 中樞管理機能, 文化的 機能들이 도심지역의 집중이 현저하며, 單-中心型的 토지이용형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재개발 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業務 및 商業機能의 床面積 증가와 같은 이러한 추세는 더욱 強化될 것으로 豫想된다. 따라서 老朽化, 低效用의 도심토지이용을 再開發하면서 如何히 都市多核化 구상을 실현하느냐가 課題이다.
- 도시토지이용에 있어 用途의 混在는 便益性을 제공하는 반면 相衝機能이나 用途間에는 相互 環境障礙를 준다. 강북지역 중에서도 舊市街地는 住·商·工의 혼재가, 餘他江北地域에는 住·商·경공업의 혼재가 두드러진다. 신개발지인 강남의 일부지역에서도 慣性的인 住·商·慰樂의 혼재가 나타나고 있다. 有害, 危險性이 짙은 공업기능과 良好居住環境이나 教育環境을 침해하는 慰樂機能등의 相衝要素를 제거하되, 補充的 混在는 許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전체가 거의 既開發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用途純化的인 토지이용보다 適切한 용도혼합으로 便利性이 있으면서 交通유발이 적은 利点を 생각해야 한다.
- 都市內 토지이용(특히 用途와 建築形態)의 규제가 전국적으로 劃一的인 法的 규제수단에 依據하기 때문에 복잡다양한 대도시의 토지이용을 制御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同一 用途地域에서도 지역기능과 위치에 따라 建蔽率·容積率等 여러 규제를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 시민流動의 集散結節點 역할을 하게 될 전철역들은 인구분포 집중지역과 그중에서도 간선가로교차지점에 立地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局地的 상업기능이 發達된 곳이다. 이러한 相互關聯 되어있는 구조요소는 活動空間의 유기적 構造化가 과제로, 자동차에만 의존하였던 '70年代까지의 서울의 도시구조가 도로망 구조에 절대적으로 좌우되었듯이 전철망이 점차 完備되는 21世紀에 접어들면 도시전철망이 도시구조의 主要關聯이 된 것인 바 이에 대한 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工業地域 以外지역에 전체업체의 60.2%가 立地하고 있어 環境 公害를 유발시키는 것은 추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대의 공업기능 또는 시설의 선택에는 문제가 많다. 인구가 모여사는 곳에 必須的으로 따라야 하는 공업기능들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마치 近隣生活施設이라하여 어느정도 상업적 기능이 주거지역내에 입지가능하게 한 현실감각과 같이 市民의 日常的 基礎需要를 충족시킬 공업기능중 公害性이 弱한 시설은 주거지역내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工場の地域別・類型別 現況(1983年)

| 區 分 | 計 | 都市型 | 非都市型 |
|-------|-------|-------|-------|
| 計 | 9,470 | 5,440 | 4,030 |
| 準工業地域 | 3,766 | 1,386 | 2,380 |
| 非工業地域 | 5,704 | 4,054 | 1,650 |

資料: 서울市, '83市政.

· 강북지역의 舊市街地 및 既成市街地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근대적 도시기능과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고 都市細胞와 組織의 近代化를 겨냥한 토지이용정책이 필요하다. 강남지역에는 시가지 형성을 成熟되고 安定的인 것으로 유도하기 위한 細部の 內實化와 粗와 細가 調和된 景觀과 都市品位の 達成을 위한 토지이용 정책이 필요하다.

· 大路邊 노선상업지역의 지정을 止陽하고 상업지역 지정없이 노선상가를 以下の 도로변에 自然發生的 近隣生活施設로서 형성하게 하고 자동차 등의 通過를 抑制하는 등 도시전체교통소통에는 支障을 주지 않고 局地交通疏通을 저해하지 않음으로써 보행자활동과 路線商街의 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 都市成長에 따른 토지소요는 증가할 것이나 供給할 土地는 限定되어 있으며, 공급가능한 양도 적다. 따라서 土地資源에 대한 과제로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① 開發制限區域 (Green Belt)의 보전방침을 轉換하여 無秩序한 擴散 (Sprawl)을 막으면서, 서서히 시가화지역을 擴大시켜 가는 방안; 이 方案은 매우 一理가 있으나 서울市 토지이용의 精密調査에 의하면, 外見上의 土地制約에도 不拘하고 강북 지역에도 시가지내 곳곳에 空地가 남아있고, 강남지역의 進行市街地에는 아직도 적지않은 空地가 남아 있으므로, 市街地의 粗放의 토지이용을 放置한 채 市街化區域을 擴大해가는 지난날의 과오를 反省하는 안된다.

② 土地의 立體利用, 즉 高層化 利用方案; 이 방안은 地價가 昂騰하고 있는 도심의 상업지역에서의 土地利用強度를 容積率로 測定할때, 指定容積率 670%에 대해 約 360% (1980年, 都市精密調査, 中區에 있어 一般事務所의 平均容積率)에 불과하다. 이는 對地에 對한 容積率에 대하여 지역용적의 達成率이 너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都心地再開發로 발생한 잉여사무소 상면적이 아직도 많은 공실율로 인하여 고민중임을 고려할때 토지의 입체적이용은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온존을 전제로 하는 현실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즉, 고밀하지만 적밀한 토지이용이 바람직한데, 이는 2000년대 서울시의 토지이용에 구성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 用途別 土地利用 現況

● 指定 現況

- 서울市 用途地域은 1939年 9月 朝鮮總督府 告示 第756號로 지정된 이래 도시 성장에 따른 지역확장 및 기성시가지의 變化 등으로 계속적으로 調整되었다.
- 도시계획구역조성과 과거에 誤差가 內包된 행정구역면적을 地籍整理를 通過 正確한 것으로 修正하게 됨으로써 용도지역 면적의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調整된 용도지역의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지역면적이 16.48km² 증가한 데 反해 준공업지역은 7.69km²나 大幅 縮小되었다.
- 도시계획 구역내 綠地는 348.30m²가 指定되어 있으며, 이중 개발제한구역, 하천, 자연공원등을 제외하면 開發可能한 녹지공간은 아주 미미한 實情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증가에 따른 開發壓力을 직접적으로 받는 동시에 都市環境 景觀을 위하여 保全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殘留地의 형태로 散在되어 있다.

● 地目別 土地利用 現況

- 1985年末 現在 서울市 행정구역내 地目別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既市街化 되었다고 볼 수 있는 貸地 및 施設用地가 全體面積의 54.2%인 328.31km²를 占하고 있다. 將來 開發可能性이 큰 農耕地는 불과 13.5%로 토지자원이 不足하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1987년 현재 대지 및 시설용지는 전체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 가능한 농경지의 경우 총 면적의 11.3%에 그쳐 더이상 개발할 수 있는 용지는 한계에 다달은 것으로 보인다.

用途地域別 指定面積

(단위: km)

| 區 分 | 1980 | 1983 | 1988 |
|---------------|--------|--------|--------|
| 住 居 地 域 | 281.40 | 288.01 | 307.62 |
| 商 業 地 域 | 19.30 | 19.83 | 21.55 |
| 準 工 業 地 域 | 31.00 | 30.90 | 30.92 |
| 綠 地 地 域 | 389.20 | 369.65 | 348.30 |
| 開 發 制 限 區 域 | 255.80 | 245.62 | 250.90 |
| 非 開 發 制 限 區 域 | 465.10 | 462.77 | 457.49 |
| 計 | 720.90 | 708.39 | 708.39 |

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地目別 土地利用 現況

(단위: km)

| 연 도 | 계 | 농경지 | 대 지 | 시설용지 | 임 야 | 잡종지 |
|------|--------|-------|--------|--------|--------|-------|
| 1985 | 605.43 | 81.79 | 204.15 | 124.16 | 176.30 | 19.03 |
| 1987 | 605.43 | 68.19 | 214.12 | 129.17 | 170.98 | 2 |

註1. 農 耕 地: 田, 畓, 果樹園, 牧場用地

2. 袋 地: 袋地, 工場用地, 宗教用地, 學校用地

3. 施設用地: 公園用地, 道路用地, 鐵道用地, 運動場, 遊園地, 河川敷地, 堤防, 管渠, 水道用地

4. 林 野: 林野, 草地

5. 雜 種 地: 雜種地, 史蹟地, 未登錄, 未復舊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88.

●土地利用 現況

· 서울 都市 現況 精密調査(1980. 12)를 기초로 서울시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면적 597.45km²중 개발가능한 農耕地 및 空地의 面積은 24 萬 148.18km²로 나타났다.

· 또한 工場用地로 이용되는 袋地가 16.45km²에 達하고 있으며, 現 準工業地域에 주거기능이 상당히 蠶食한 상태로 既開發된 상태이다. 그러나 非都市型工業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성장에 따른 도시형 공업용지 등 新規需要는 증가될 것인데 비하여 준공업지역의 면적이 帳簿上에서 감소함에 따라 공업용지 부족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開發潛在力 分析

●賦存土地資源 現況

- 서울은 京城府 時代인 1914년까지만 해도 불과 135.35km²에 국한 되었으나, 建國以後 3회에 걸친 行政區域의 擴大와 4회에 걸친 都市計劃區域 擴張으로 도시계획구역은 708,387km², 행정구역은 605,431km² (0.516km²가 광명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됨) 가 되었다.

●市街化 可能土地

- 開發可能地의 면적은 자연조건(地形·地勢·河川)에 의한 市街化 不可能地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시가지 개발이 抑制 혹은 留保되어야 할 地域을 除外하여 算出하였다.

- 市街化 不可能地 面積은 서울시가 갖는 條件을 考慮하여 다음과 같은 基準에 의해 算定하였다.

- (1) 高地帶 또는 急傾斜地로써 開發容易度를 고려하여 開發不能으로 판단되는 지역.
- (2) 下部施設 投資의 臨界値 표고 70M 以下이나 開發容易度를 고려하여 15°以下인 지대.
- (3) 개발이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자연상태의 保全維持를 위한 河川敷地
- (4) 도시의 무질서한 평면적 확산을 防止하고 自然환경보전과 健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칭된 開發制限區域 및 自然公園
- (5) 국가적 차원에서의 防護空間
- (6) 단, 개발제한구역내 集團聚落地域은 既開發地로 조정

上 의 基準에 의해 算定된 도시구역내 개발가능지 면적은 389,38km²이고, 이 중 85.1%인 331.44km²가 既開發地로써 未開發地는 57.94km²에 불과하다.

- 한편 既開發地의 임계적 토지이용은 살펴볼때 도심부는 과거에서 부터 機能集中과 都市規模 擴大에 따라, 공간적인 內部秩序變化로 토지를 어느정도 高度利用하고 있음에 反하여, 遷移地帶과 할 都市 外接部와 도시의 外廓地域은 상대적으로 粗放인 토지이용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立體의으로 활용가능한 공간적 여유를 여기서 찾지 않을 수 없다.

●開發可能地中 未開發 空地

· 도시계획구역내 개발가능한 未開發地는 高陽郡의 0.5km를 제외하고 서울에 집중(53.45km)되어 있으므로 土地資源을 분석하는데는 京畿道地域을 제외토록 한다.

· 대규모 未開發地는 노원구, 마포구, 강남구, 강서구, 송파구에 立地하며, 주로 대규모 공지개발 사업지중 미개발지와 개발제한구역 連接地域인 도시의 外廓地域으로 이들 지역의 개발에는 既存 都市骨格과의 連繫化가 提供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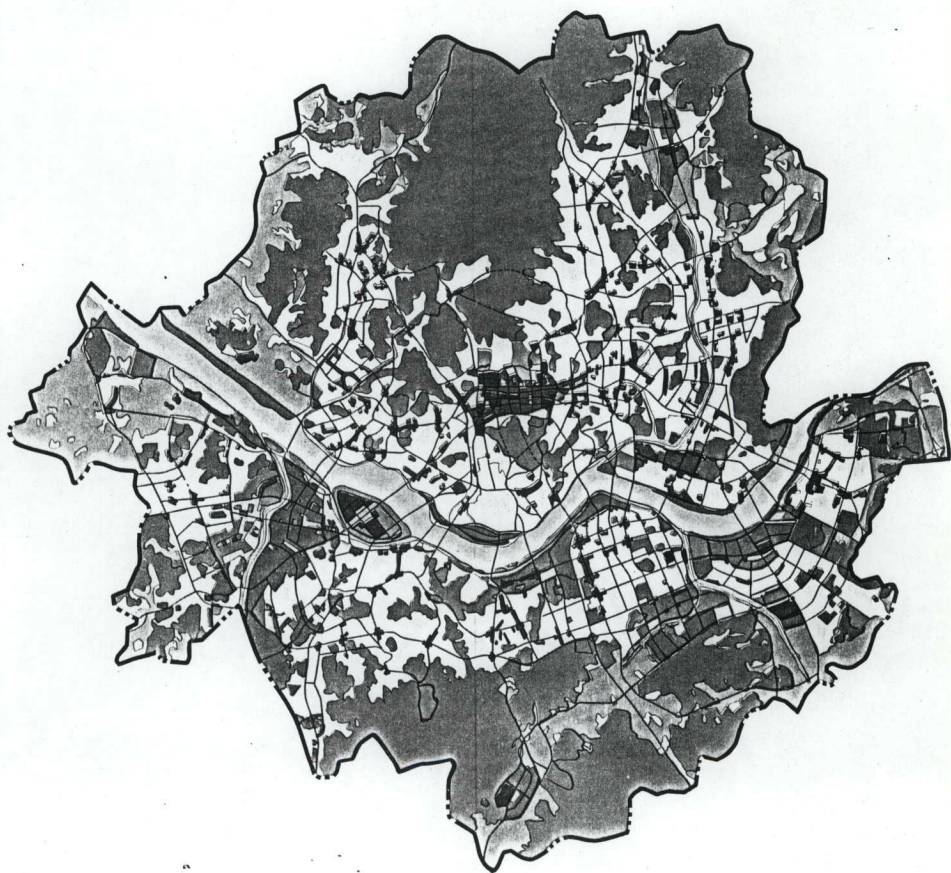
土地利用現況

(단위 : ha)

| 區 分 | 總 計 | 農耕地 | 一般 空 地 | | | | | | 公共用地 | 交通用地 | 山林地 | 公園綠地 | 하천 및 유수지 | 공급처리 및 기타 | 공 지 |
|------|----------|----------|----------|----------|--------|--------|-------|---------|---------|---------|----------|--------|-------------|--------------|---------|
| | | | 小 計 | 住 居 | 商 業 | 業 務 | 混 合 | 工 場 | | | | | | | |
| 총 계 | 39715.15 | 10885.19 | 11736.53 | 11632.29 | 881.39 | 537.65 | 36.90 | 1615.30 | 1916.71 | 5140.08 | 16300.26 | 731.88 | 5224.69 | 977.03 | 3823.07 |
| 강북계 | 29467.40 | 2910.06 | 8674.57 | 7061.83 | 628.45 | 348.98 | 22.19 | 613.11 | 1313.61 | 2908.23 | 9006.92 | 462.96 | 2117.38 | 474.01 | 1289.62 |
| 종로구 | 1679.36 | 5.96 | 499.13 | 400.67 | 48.61 | 33.96 | 11.26 | 4.63 | 126.57 | 169.29 | 743.34 | 87.74 | 2.18 | 1.61 | 43.54 |
| 중 구 | 990.90 | 0.08 | 503.46 | 321.70 | 109.87 | 59.64 | 8.10 | 4.15 | 92.99 | 228.77 | 106.62 | 31.56 | 1.15 | 14.37 | 11.91 |
| 용산구 | 2382.43 | 8.11 | 677.31 | 537.71 | 60.21 | 45.74 | 0.50 | 33.12 | 86.92 | 329.80 | 240.26 | 29.77 | 549.58 | 294.33 | 46.36 |
| 성동구 | 3375.32 | 354.97 | 1168.15 | 854.63 | 89.65 | 34.86 | 0.18 | 191.83 | 169.36 | 363.05 | 388.71 | 108.95 | 558.33 | 54.16 | 209.32 |
| 동대문구 | 3281.71 | 193.31 | 1217.92 | 990.65 | 91.75 | 48.37 | 0.68 | 116.47 | 144.51 | 132.78 | 530.63 | 111.03 | 152.67 | 11.92 | 189.93 |
| 성북구 | 2378.38 | 15.48 | 979.73 | 862.01 | 53.79 | 24.61 | 0.40 | 38.92 | 164.73 | 247.61 | 840.43 | 1.87 | 38.63 | 5.80 | 81.07 |
| 도봉구 | 8001.65 | 1245.06 | 1286.72 | 1003.95 | 68.83 | 55.93 | 0.16 | 157.86 | 192.25 | 146.31 | 4058.08 | 62.20 | 232.33 | 59.22 | 422.43 |
| 은평구 | 3888.32 | 189.96 | 867.41 | 796.12 | 32.75 | 17.20 | 0.03 | 21.31 | 75.98 | 242.03 | 1557.57 | 20.45 | 37.49 | 3.23 | 103.20 |
| 서대문구 | 1764.13 | 40.94 | 743.43 | 686.69 | 34.02 | 16.28 | 0.57 | 8.88 | 172.93 | 208.71 | 464.11 | 4.31 | 28.01 | 3.99 | 97.68 |
| 마포구 | 2384.22 | 565.19 | 734.31 | 640.68 | 41.97 | 12.40 | 0.32 | 35.91 | 87.38 | 231.81 | 77.12 | 5.08 | 517.02 | 25.09 | 94.19 |
| 강남계 | 30578.05 | 8085.13 | 6061.96 | 4570.16 | 255.95 | 188.67 | 11.70 | 1032.19 | 603.08 | 2231.85 | 7193.33 | 268.92 | 3107.31 | 503.01 | 2523.45 |
| 강서구 | 8368.90 | 2961.91 | 866.72 | 710.35 | 24.91 | 12.74 | 2.43 | 116.29 | 42.02 | 276.50 | 828.11 | 11.31 | 601.86 | 253.87 | 303.01 |
| 구로구 | 3530.96 | 565.56 | 1255.81 | 703.95 | 44.67 | 21.31 | 1.73 | 507.15 | 98.65 | 374.94 | 802.23 | 22.94 | 136.65 | 66.77 | 187.42 |
| 영등포구 | 2257.50 | 128.61 | 787.36 | 413.04 | 46.38 | 80.37 | 0.19 | 217.09 | 18.04 | 261.51 | 66.02 | 11.56 | 781.86 | 47.30 | 32.27 |
| 동작구 | 1768.19 | 45.36 | 854.25 | 762.38 | 36.26 | 7.78 | 0.01 | 44.82 | 90.99 | 180.74 | 205.88 | 98.21 | 90.40 | 93.57 | 111.81 |
| 관악구 | 2820.50 | 151.15 | 544.87 | 496.54 | 35.50 | 4.86 | 0 | 6.97 | 154.81 | 175.54 | 1582.42 | 5.42 | 34.86 | 4.18 | 167.22 |
| 강남구 | 8859.87 | 2427.72 | 993.21 | 870.76 | 37.80 | 40.74 | 9.72 | 34.23 | 144.10 | 301.06 | 2795.77 | 98.42 | 708.54 | 27.05 | 1036.19 |
| 강동구 | 5434.01 | 2104.79 | 742.71 | 613.41 | 32.41 | 20.88 | 0.32 | 75.64 | 54.44 | 2231.85 | 942.91 | 24.01 | 753.11 | 10.28 | 555.24 |

資料 : 서울特別市 都市現況 精密調査, 1980, 12.

土地利用現況圖



고밀주거지
 중·저밀주거지
 상업·업무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기타용지
 생산녹지
 사적공원

공원·자연녹지
 공공사회시설용지

Hi Seoul

SOUL OF ASIA

區別土地資源現況(1989年)

(단위 : km)

| 구 분 | 계 | 시가화 가능지 | | | 시가화 불능지 | | | | 기 타 |
|-------|--------|---------|--------|-------|---------|-------|-------|--------|-----------|
| | | 소 계 | 기개발 | 미개발 | 소 계 | 자연공원 | 하 천 | G.B | |
| 총 계 | 605.43 | 389.38 | 331.44 | 57.94 | 216.05 | 19.71 | 43.73 | 151.41 | 1.2 |
| 강 북 계 | 298.20 | 191.28 | 165.98 | 25.30 | 106.92 | 8.51 | 21.71 | 76.7 | 1.2 |
| 종 로 구 | 24.01 | 15.90 | 15.63 | 0.27 | 8.11 | 0.29 | 0.04 | 7.78 | |
| 중 구 | 9.99 | 8.59 | 8.59 | — | 1.4 | 1.39 | 0.01 | — | |
| 용 산 구 | 21.90 | 15.57 | 11.99 | 3.58 | 6.33 | 1.58 | 4.75 | — | 미8군 미개발 |
| 성 동 구 | 33.90 | 24.68 | 23.95 | 0.73 | 9.22 | 0.45 | 7.01 | 1.76 | |
| 동대문구 | 14.25 | 13.40 | 13.20 | 0.20 | 0.85 | — | 0.85 | — | |
| 중 랑 구 | 18.54 | 11.96 | 8.77 | 3.19 | 6.58 | 0.11 | 0.68 | 5.79 | |
| 성 북 구 | 21.29 | 17.87 | 16.97 | 0.90 | 6.42 | 0.23 | 0.20 | 5.99 | |
| 도 봉 구 | 30.30 | 15.65 | 13.27 | 2.38 | 14.65 | 1.31 | 0.32 | 13.02 | |
| 노 원 구 | 19.81 | 23.25 | 18.97 | 4.28 | 26.56 | 0.41 | 2.01 | 24.14 | |
| 은 평 구 | 29.69 | 12.46 | 12.14 | 0.32 | 17.23 | 0.73 | 0.39 | 16.11 | |
| 서대문구 | 17.68 | 13.67 | 12.45 | 1.22 | 4.01 | 2.00 | 0.28 | 1.73 | |
| 마 포 구 | 23.81 | 18.28 | 10.05 | 8.23 | 5.56 | 0.01 | 5.17 | 0.38 | |
| 강 남 계 | 307.23 | 198.10 | 165.46 | 32.64 | 109.13 | 11.17 | 22.02 | 74.71 | |
| 강 서 구 | 13.50 | 24.65 | 14.61 | 10.04 | 18.85 | — | 1.22 | 16.43 | 공항1.2km포함 |
| 양 진 구 | 15.11 | 13.08 | 10.22 | 2.86 | 2.36 | 0.53 | — | 1.83 | |
| 구 로 구 | 32.94 | 25.63 | 23.83 | 1.80 | 7.31 | 1.23 | 0.25 | 5.83 | |
| 영등포구 | 24.54 | 15.81 | 15.65 | 0.16 | 8.73 | — | 8.73 | — | |
| 동 작 구 | 16.38 | 13.12 | 10.89 | 2.53 | 2.96 | 2.09 | 0.87 | — | |
| 관 약 구 | 29.61 | 16.61 | 15.38 | 1.23 | 13.00 | 5.21 | — | 7.79 | |
| 강 남 구 | 37.60 | 24.54 | 20.42 | 4.12 | 13.06 | 0.81 | 3.34 | 8.91 | |
| 서 초 구 | 48.84 | 23.56 | 20.28 | 3.28 | 25.28 | 1.33 | 2.20 | 21.75 | |
| 강 동 구 | 24.30 | 14.22 | 12.59 | 1.63 | 10.08 | — | 0.70 | 9.38 | |
| 송 파 구 | 34.08 | 26.58 | 24.59 | 4.99 | 7.50 | — | 4.71 | 2.79 | |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用途地域別 可用地

· 서울市 行政區域內에서 시가화 가능한 미개발토지는 約 53.45km로서, 綠地地域에 20.69km, 商業地域에 2.97km, 住居地域에 29.79km가 있으나, 녹지 지역 내 미개발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소규모 筆地 單位로 산재되어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高密開發에 문제가 있다.

用途地域別 可用地 現況(1985年)

| 區 分 | 計 | 住居地域 | 商業地域 | 工業地域 | 綠地地域 |
|---------|-------|-------|------|------|-------|
| 面 積(km) | 53.45 | 29.79 | 2.97 | — | 20.69 |
| 構成比(%) | 100.0 | 55.7 | 5.6 | — | 38.7 |

주: 住居地域中 他用途는 調整이 바람직한 開發不適地 3.38km 除外.

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住居地域 및 商業地域內 未開發地

- 1985年末 서울市 住居地域內 總未開發地는 29.79km²이다.
- 대부분이 산재된 소규모 토지로 계획적인 高密開發이 어려운 상태이다.
- 商業地域內 未開發地는 總 2.97km²로, 강북지역은 上溪地區의 商業地域을 제외하고, 도심지역에는 空地가 거의 없으나 강남지역은 상당한 토지가 미개발된 채로 暫定的으로 이용되고 있다.
- 江南區의 상업지역의 경우 單位施設 中心의 點的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土地가 散在되어 있다.

● 綠地地域內 未開發地

- 綠地地域內 未開發地는 總 20.69km²로서,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어 綜合的인 計劃에 의하여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래 土地需要의 對稱과 도시 공간구조와의 關聯性을 考慮하여 慎重한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計劃施設用地중 開發留保地

- 도시계획시설中 대규모 토지를 要하는 시설용지로 指定되어 있으나, 현재 개발이 留保되어 있거나, 개발이 確定되지 않은 용지도 相當히 있다 (약 0.86km²). 이들 施設들은 周圍地域에 대한 토지이용의 波及效果와 큰 도시계획시설로 未開發 土地의 개발방향 및 용도 전환은 도시구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開發事業計劃에는 周圍와의 調和, 補完 등에 關한 追加적인 措置가 있어야 한다.

綠地地域內 未開發地 現況(1985年)

| 區 分 | | 面積(k㎡) | 備 考 |
|-------|-------|--------|------------------------|
| 計 | | 20.69 | |
| 小 計 | | 7.35 | |
| 江 北 | 노 원 구 | 2.11 | 상계, 중계, 월계, 공릉동일대 |
| | 중 랑 구 | 1.11 | 신내동 |
| | 성 동 구 | 0.24 | 광장동 |
| | 마 포 구 | 3.89 | 난지도 |
| 小 計 | | 13.34 | |
| 江 南 | 강 서 구 | 8.19 | 自然綠地: 3.19, 生産綠地: 4.60 |
| | 구 로 구 | 0.27 | 고척동 |
| | 관 악 구 | 0.27 | 신림, 남원동 |
| | 강 남 구 | 2.21 | 양재동, 개포동, 일원동 |
| 송 파 구 | | 2.40 | 장지동, 거여동 |

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都市計劃施設중 대규모 未開發留保地(1985年)

| 區 分 | | 個所 | 面積(ha) | 備 考 |
|-------------|-------------|----|--------|---------------|
| 交通 施設 | 交 通 廣 場 | 7 | 2.26 | — |
| | 美 觀 廣 場 | 2 | 0.26 | — |
| | 自 動 車 停 留 場 | 6 | 18.29 | 市外버스, 貨物, 市內버 |
| 綜 合 醫 療 施 設 | | 9 | 49.05 | — |
| 公 用 의 廳 舍 | | 4 | 16.11 | — |
| 計 | | 28 | 85.97 | — |

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審査對象土地

· 地目 變更으로 시가화가 가능한 토지는 總 9.22km²가 있으나, 이들 토지 대부분 이 都市外廓地域 혹은 傾斜地에 立地하고 있을뿐더러, 平均筆地 規模가 0.12 ha 로 體系의인 개발이 어렵다. 또한 이들 土地 立地與作상 개발사업계획 주 변 토지이용상황을 잘 考慮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立體的 空間 餘裕資源

· 限定된 토지자원에 증가되는 人口 및 都市生活에 따른 토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面積인 市街地開發로 인해 개발가능한 殘余地가 극히 一部地域을 제외하고 소규모 空地로 남아 있어 效率의인 이용이 어려울 뿐더러, 장래

토지수요를 수용할 수 없다. 그렇다고 土地需要 增加=(綠地地域+開發制限區域) 개발이라는 等式關係도 도시관리, 도시공간의 한계등의 側面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현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開放的인 토지이용으로 未活用중인 立體的 空間의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피하다.

· 活用可能한 立體的 空間 餘裕資源은 다음과 같은 基準에 의해 推定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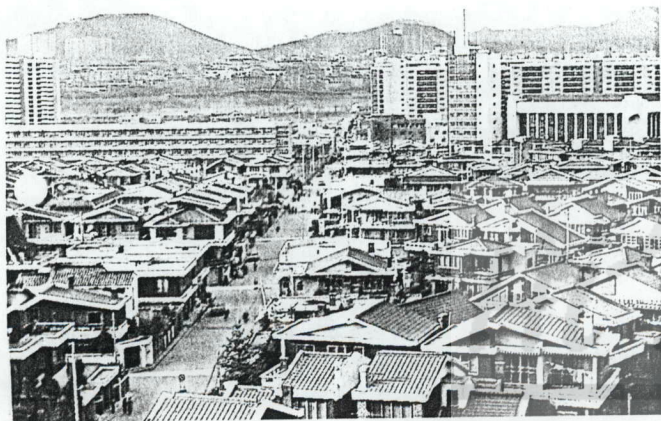
- ① 역세권 개발정비계획에서 研究된 장래인구수용 計劃密度를 基準으로 한다.
但, 現在(1985年) 人口密度가 將來目標値를 上廻할 경우 現 密度를 適用한 다.
- ② 지형조건 및 지역여건(高地帶 및 傾斜地, 公園綠地, 大規模 아파트團地)을 감안하여 추가인구수용이 불가능한 지역은 현재밀도를 基準으로 한다.

· 지정된 立體的 空間의 여유자원을 效率的으로 이용할 경우 약 100人/ha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다.

收容可能한 人口密度配分推定

(單位: 人/ha)

| 區 分 | 現 在 | | 計 劃 | | 追加收容可能人口 | |
|--------|-----|-----|-----|-----|----------|-----|
| | 강남 | 강북 | 강남 | 강북 | 강남 | 강북 |
| 서울市計 | 115 | 175 | 275 | 250 | 130 | 75 |
| 1차 驛勢圈 | 175 | 250 | 590 | 520 | 415 | 270 |
| 2차 驛勢圈 | 200 | 255 | 365 | 330 | 165 | 75 |
| 其 他 | 110 | 120 | 120 | 130 | 10 | 10 |



土地利用 計劃

基本方向

- 過度한 인구 및 산업기능 집중 보다 광역적인 수도권내 都市聯合群體制로의 분담전개시키는 것으로 수도권 정비기본계획을 이해.
- 서울에 集中되는 人口 및 機能을 수도권내 諸都市群으로 적절히 분산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 市域을 圍繞한 개발제한구역은 보전함을 원칙으로하여 시가화의 평면적 發展은 G.B. 内部地域을 경계로 한다.
- 首都圈都市群이 市 南部地域으로 전개된다는 전망아래, 강남지역에 首都圈展開機能의 結節地域을 형성시킨다.
- 수도권으로 인구 및 산업이 分散展開된다하여도 전국적, 국제적 中樞管理·情報知識機能의 대부분은 서울도시지역내에 機能集積하는 것으로 본다.
- 서울의 都市空間을 크게 강북의 成熟市街地와 강남 및 周邊地域의 進行市街地로 大分, 그 성격과 방법이 다른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의 토지이용계획수립.
- 江北地域은 역사적으로 오랜 성장·발전·성숙 과정을 거쳐 도시적시설과 문화가 蓄積되고 都市生活와 空間의 脈絡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개발단위도 소규모 稠密하기 때문에 장래대처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한 개발계획이 요구된다.
- 江北地域은 도시 개발적 접근보다 도시정비적 접근을 原則으로 하고, 都心地 재개발사업등이 既存의 都市脈絡을 훼손치 않도록 해야 한다.
- 江北地域 高地帶에 산재하는 소위 不良住居地域은 그 물리적 시설미비와 경관적 불량에도 불구하고 社會的 健全性과 經濟的 役割의 不可避性을 考慮하여 既存住民들의 社會的 移動을 最少化하는 세심한 지구정비 계획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 계획적 시가지 개발로 都市根幹施設은 具備되었으나 아직 진행시가지가 산재한 강남지역의 토지이용은 강북지역이 經驗하였던 여러 都市問題를 未然에 豫防할 수 있도록 土地利用規制의 강력한 적용을 필요로 한다.
- 從來의 도시골격은 放射循環街路體系에 의한 接近性 優位때문에 단핵 構造로 도시 활동기능의 點集中이 不可避하나, 도시전철망의 건설운영과 계획으로 接

近性 優位 地域이 散開되고 信賴性있는 電鐵交通手段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구조의 다핵화 형성.

· 도시전관과 간선도로망으로 형성되는 二重의 도시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와 연계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 從來의 江北都心에 집적된 업무·상업기능을 超過하는 新規發生機能의 受容地로서 複數의 副都心을 형성한다.

· 近性, 快適性, 大量性을 갖춘 교통수단인 전철역 주변의 토지이용을 高度화한다.

· 江北都心地域 및 그 周邊에 입지하여 도심활동 및 도심생활에 障害가 되는 不適格機能들은 接近性이 良好하고 環境障害가 적은 立地로 疏散한다.

● 都市多核 構造計劃은 生活圈域別 自足性제고 및 地域均衡發展도모 次元에서 重點施策으로 推進한다.

· 상업지의 지정등 용도지역 조정으로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하며, 입체적 토지이용과 복합적 기능이 수용될수 있도록 한다.

· 도시서비스 시설을 균형 배치한다.

· 도심재개발수법 및 도시설계수법을 적용, 정비수준을 제고하고 민자유치등 투자여건을 조성한다.

● 자동차교통 발생을 억제하고 大衆大量交通과 徒步利用을 獎勵하는 土地利用

· 역세권개발을 수단으로 하여, 각종편의시설의 高密立地, 高密都市型住居地形인 도모함으로써, 時間距離次元의 職住近接, 徒步利用活動의 增大 등을 꾀하여 자동차교통의 發生억제에도 기여하고 에너지(人力, 油類, 時間 등)절약적 도시를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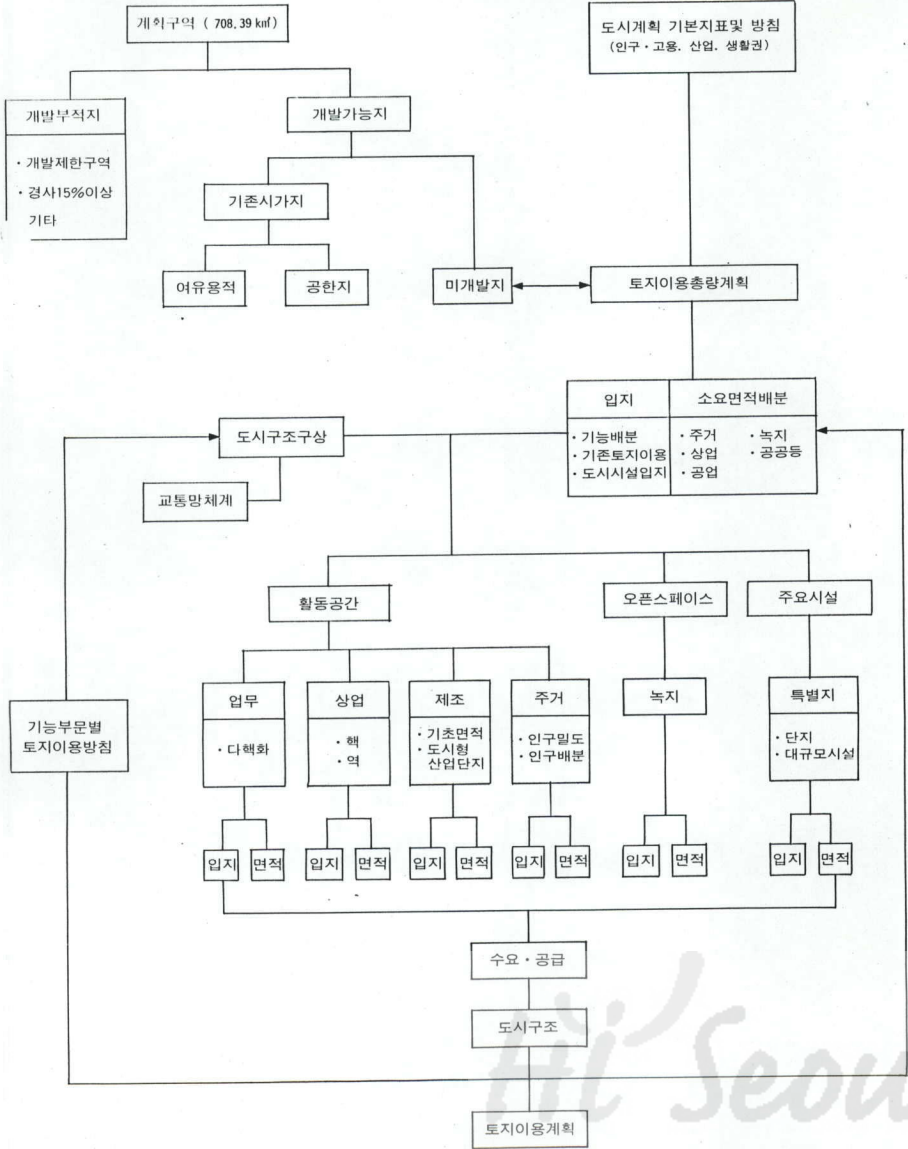
· 자동차통행으로 인한 交通事故, 遲滯, 待機中斷 등의 生活障礙를 되도록 줄이기 위하여 거주지역으로의 통과차량을 억제하거나 금지하는 步行優先道路를 늘려 도시활동의 快適化와 도시활동기능과 시민의 接觸기회를 增加시키는 토지이용 效率化를 꾀한다.

- 韓國의 토지이용의 특징은 路邊利用과 그 混合性에 있고 이런것들이 한국적 「어바니티(urbanity)」를 형성하고 있어 交通部門의 障礙要因이 되는 간선과 路변의 상업적 이용은 되도록 억제하는 裏面道路등의 노선상업이용을 권장
- 首都圈 整備計劃法, 工業再配置法等에 의하여 서울에서 이전해가는 공장이전, 적지를 비롯한 대규모 이전적지의 토지이용에 서울市 積極介入
- 都市의 日常生活에 필수적이고 도시고용의 큰몫을 차지하는 都市製造業用土地는 수도권정비 기본계획과 工業再配置法에도 불구하고 繼續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장래 急激한 成長이 전망·예상되는 情報·電子 등 研究開發型尖端産業의 受容地의 마련은 國家의 要請의 次元에서 配慮되어야 한다. 따라 移轉工場의 跡地는 繼續 製造業 용도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工場移轉跡地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화하는 것은 一見 공업지 축소와 주택건설의 一石二鳥같이 보이나, 장래 輕小短薄型의 공업기능전환에 대한 공업용지부족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住工混合의 工場아파트 등을 政策化함이 職住近接 등을 위해 더욱 效果的이다.
- 學校移轉跡地가 事務所 敷地化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經營性을 무시하여 시민감정에만 따라 무작정 公園化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문화와 복지를 重視하는 사회와 시대의 흐름을 勘案할때, 여러곳에 문화·복지시설 입지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移轉跡地 活用에 있어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고 跡地買入者인 민간부문이 上記의 문화·복지시설에의 參與方法 또한 考慮되어야 한다.
- 開發制限區域의 관리보전
- 近郊農業(林業·農業·牧畜業)地로서 積極的 土地利用을 권장하여 보전을 위한 손길에 區域의 全域에 미쳐야 한다. 매우 조심스럽게 市立市民體育와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立地를 생각하되 附帶的 販賣施設 등은 禁止되어야 한다.

土地利用計劃의 過程

토지이용계획은 現 賦存土地 資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계획에서 提示한 지표를 수용하며, 도시구조구상체계와 附合되는 기능배분으로, 均衡的으로 발전토록 계획한다. 또한 各 機能間의 토지이용 방침에 따라 입지와 공간수요를 추정하고, 추정된 면적의 供給可能性을 검토하며, 기능의 입지가 도시구조와 適合하도록 還流作業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을 樹立한다.

土地利用計劃의 過程



用途別 空間需要推定 및 立地配分

■ 商業地域

● 空間需要推定 基準

· 상업지역은 3次産業을 수용하는 지역으로, 기능의 성격 및 對象範圍에 따라 입지지역이 相異하므로 대상지역에 따라 3次 産業人口 役割 階層을 배분한다 (全國: 全都市: 地域=10:15:75를 기준).

· 目標年度의 3차산업인구를 기준으로 算定하며, 2차산업 인구중 관리 및 무직 인구를 포함토록 한다(計: 3,502千人).

3차산업취업인구: 3,389千人

2차산업취업인구중 業務·管理職 人口: 113千人

· 종업원 1인당 延床面積 및 산업역할배분은 '81年 總事業體 調査報告(경제기획원)와 '80年 서울市 都市 精密調査現況을 기준으로 예측 산정하였으며, 지역 입지연상면적의 算定値는 3차산업의 경우 非公式部門이 약 40%에 達할 것으로 추정되어 정규사업장 면적(30㎡)에 대하여 취업인구중 60%를 대상으로 설정한다.

취업자 1人當 입지지역별 연상면적(都心: 10㎡, 副都心: 15㎡, 地域: 18㎡)

· 지역을 對象으로 하는 3차산업은 隣接背後 地域에 대한 近隣생활시설 중심의 用途가 集積될 것이므로 상업지역 면적산정에서 除外하여도 기능상·용도상 무방하다.

商業地域 空間需要推定基準

| 區 分 | 3次 産業 | | | 2次 産業(業務) | | |
|------|-------|--------------|-------|-----------|--------------|----|
| | 國際·全國 | 全都市· 大都市圈 | 地域 | 國際·全國 | 全都市· 大都市圈 | 地域 |
| 人口配分 | 10% | 15% | 75% | 60% | 40% | — |
| 立 地 | ○(70) | △(20) | △(3) | ○(70) | △(20) | — |
| 副心 | △(30) | ○(70) | △(7) | △(30) | ○(70) | — |
| 地域 | — | △(10) | ○(90) | — | △(10) | — |

註: ○: 主立地地域 △: 副立地地域

●空間所要面積算定

- 현재 상업지역 指定面積은 22.06km², 推定된 도심·부심지역의 상업지역면적은 16.03km²이며, 地域에 대한 상업활동 需要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近隣生活 中心의 性格이다.

商業地域空間所要面積算定

| 區 分 | 都 心 | 副 都 心 | 地 域 |
|---------------------------|-----------|------------|-------------|
| 就業人口(人) | 472,000 | 688,000 | 2,342,000 |
| 1人當延床面積(m ²) | 10 | 15 | 18 |
| 他用途混合率(%) | 30 | 30 | 70 |
| 總延床面積(A: m ²) | 6,743,000 | 14,743,000 | 140,520,000 |
| 平均率容積率(%) | 300 | 200 | 150 |
| 純粹 宅地面積(m ²) | 2,218,000 | 7,372,000 | 93,680,000 |
| 公共·公用地率(%) | 40 | 40 | 50 |
| 總地域面積(B: m ²) | 3,747,000 | 12,287,000 | 187,360,000 |
| 總容積率(A/B: %) | 180 | 120 | 75 |

●立地配分 基本構想

- 도시의 다핵화구상을 誘導, 實現하면서 集積地분산으로 惹起될 核間 交通量 增加를 되도록 억제한다.
- 도심 및 부도심 지역은 高位機能이 集積된 地域으로 기존의 機能 및 상업지역 지정상황과 推定된 소요면적과를 比較調整한다.
- 電鐵驛, 지구중심 지역같은 開發潛在力이 높은 지역은 用途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地方自治制度의 定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 生活圈 自足性 제고 및 地域 均衡發展 도모차원에서 일정기간 單位로 그 機能성과 立地的 妥當性 및 配分 計劃에 대하여 구단위 도시발전구상계획을 통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立地配分計劃

| 區分 | 立 地 | 方 向 |
|----|---|--|
| 需要 | · 既存 都心部 · 都市 下部施設 優秀 · 交通의 結節點 接近性 良好 · 既存에 機能集積이 어느 정도 있는 地域 | · 都心 및 副都心地域 · 地區中心 및 其他 |
| 供給 | · 江北 都心部 1단 · 汝矣島 · 江南永東 · 露宅 · 木洞 | · 地下鐵交叉驛중 未開發地 保有 地點 · 再開發과 空地開發 · 驛勢圈 開發(驛隣接地域으로 立地 驛 周邊狀況에 따라 面積規模 決定) |

■ 工業地域

● 空間需要推定 基準

· '80年 인구 및 주택센서스 報告와 '81年 總事業體 統計調査報告(경제기획원)를 上하로 업무관리분야, 각지역에 散在된 기초 수요분야 및 제조업체의 比와 従業員 1人當 소요면적 기준을 산정한다.

· 특히 2차산업중 基礎需要의 추정은 漸進的으로 용도위반업체가 移轉된 程度으로 既開發된 시가지로서 全 事業場에 대한 2차산업이 사업장면적 比가 낮은 西大門區를 標準地區로 하여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의 상주인구(1980年) 422千人에 대한 2차산업 종사자는 27人/1000人이고, 종업원 1인당 연상면적은 약 8.5㎡/人으로 산정되었다.

· 非基礎需要에 대한 종업원 1인당 소요면적의 原單位는 공업지역의 지정으로 工業集積이 된 九老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2차산업종사자 : 133,000人, 事業場面積 : 2,357,000㎡

야간상주인구 : 569,000人

基礎需要分從事業 : $569,000 \times 27 / 1000 = 15,400人$

基礎需要分延床面積 : $15,400 \times 8.5 \text{㎡} / 人 \approx 131,000 \text{㎡}$

非기초종업원 : $133,000人 - 15,400人 \approx 118,000人$

非기초연상면적 : $2,357,000 \text{㎡} - 131,000 \text{㎡} = 2,226,000 \text{㎡}$

非기초 1인당 연상면적 : $2,226,000 \text{㎡} / 118,000人 \approx 19.0 \text{㎡} / 人$

· 관리 및 업무분야는 事務所 需要分으로 상업지역 산정에 포함된다.

· 기초수요 부문은 用途違反業體의 점진적인 減少가 예상되나 생산형태가 小種多量에서 多種小量으로 變化하고 첨단기술의 중소기업의 増加에 의하여 일반 주거지에서도 家內型 小規模 製造業이 출현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 基礎需要従業員인 27人/1,000人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2次産業의 従事者와 延床面積 配分原則

| 分 野 | 基 準 | 従業員當 | 立地配分 | | |
|-------|------------------|---------|-------|-----|----|
| | | 單位面積 | 都心・副心 | 工業地 | 地域 |
| 業務・管理 | 従事者の 10% | — | ○ | — | △ |
| 製 造 業 | — | 19.0㎡/人 | — | ○ | — |
| 基礎需要 | 27人/1,000人(常住人口) | 8.5㎡/人 | — | — | ○ |

●空間所要面積 算定

- (準)工業地域에서 비기조수요를 受容하는 면적은 22.54km로 算定된다.
非基礎需要 宗사원 : 694,000人
업무 및 관리직 (113,000人) 과 기초 수요종사자 (324,000人)는 除外한다.

2次産業 空間所要面積算定

| 算 定 基 準 | 所 要 面 積 |
|--------------|------------|
| 就業人口(人) | 694,000 |
| 1人當 延床面積 (㎡) | 19 |
| 他用途混合率 (%) | 35 |
| 總 延床面積 (㎡) | 20,286,000 |
| 平均 純容積率 (%) | 150 |
| 純粹空地面積 (㎡) | 13,524,000 |
| 公共・公用地率 (%) | 40 |
| 總地域面積 (㎡) | 22,540,000 |

●立地配分 基本構想

- 既存工業地域에 住居機能이 확보되어 있거나 공업기능이 미약한 경우는 주거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도위반¹⁾ 도시형 공업기능을 移轉하여 立地를 受容한다.
- 비도시형 工場 移轉跡地에 새로운 도시형 공업을 입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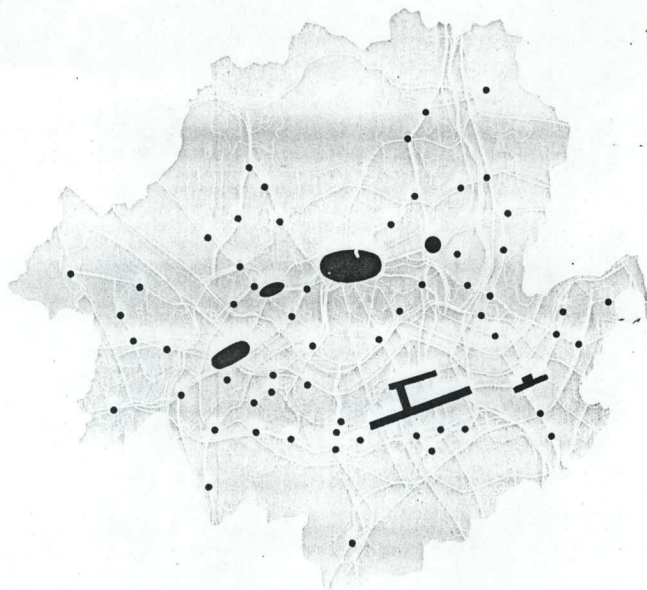
●立地配分 計劃



- 추정된 소요면적은 既指定 公업지역 면적에 미달하나 장래 공업용지 추가 확보가 필요할때 上位計劃 및 정책지침에 따라 新規指定이 어렵기 때문에 既存 공업지역을 유지하도록 한다.
- 또한 기존 공업지역의 적절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주거지화된 지역은 용도변경을 고려하도록 한다.

2. 工業 立地配分計劃

| 區分 | 立 地 | 面 積 |
|----|---|--|
| 需要 | · 他機能蠶食에 따른 相衡問題 緩和 · 都市 下部施設의 充足 · 大規模 空地 · 既存 産業과의 關聯性 | · 22.54km ² (既指定 : 23.21km ²) |
| 供給 | · 非都市工業의 移轉 跡地 | · 既指定 工業地域 活用 |

상업지역



상업·업무용지 
지 구 중 심 

공업지역



공업용지 

Seoul
SOUL OF ASIA

■ 住居地域

● 空間需要推定 基準

- 常住人口의 증가와 公共用地의 수요증대에 따라 限定된 토지자원에 대한 壓迫이 加重되고 있다.
- 주택의 공급 측면에서 신규주택수요에 필요한 宅地의 확보는 人口配分計劃과 關連하여 검토한다.
- 電鐵驛勢圈 整備에 따라 토지이용의 高密化 정책으로 宅地開發이나 토지이용의 密度規制를 통하여 토지자원을 再活用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圖謀한다.
- 주택수요는 邑界圈내에 우선 수용하며, 不足한 宅地는 지정 주거지역내 미개발지 29.79km에 의해 充當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不足한 宅地의 限界性を 根本的으로 克服하기 爲하여는 서울市와 隣接한 首都圈地域을 開發供給하되, 首都圈行政協議會등을 통한 緊密한 協調體制維持와, 幹線道路等 基礎施設의 擴充을 有機的으로 圖謀한다.

● 人口配分計劃

- 驛勢圈內 收容可能人口
 既存 電鐵 1~4號線內 邑界圈(반경 1km) 중 인구수용이 불가능한 開發制限區域, 하천, 공원 및 大規模 학교용지를 除外한 면적은 約 150.8km에 달한다.
 1次 驛勢圈(半徑 500m) : 65.0km²,
 2次 驛勢圈(半徑 1000m) : 85.8km²
- 驛勢圈內 人口配分은 現행 건축 규모제한에 따라 1차 邑界圈은 高密開發로 准 주거지역을, 2차 邑界圈은 中密의 주거지역을 基準로 설정하였으며, 도심상업지역과 公營지역은 해당지역 基準를 적용한다.

住宅地域 空間需要 算定基準

(단위 : 人/ha)

| 區 分 | | 1次 驛勢圈 | 2次 驛勢圈 |
|-------------|-----|--------|--------|
| 住居 | 江 北 | 560 | 280 |
| 地域 | 江 南 | 630 | 350 |
| 都 心 商 業 地 域 | | 285 | — |
| 工 業 地 域 | | 200 | 80 |

· 기존전철 역세권내 收容可能人口는 약 575萬人에 달하고 계획전철 역세권내 인구를 同一한 방법으로 算定하면 約336萬人을 추가로 收容可能하다.

1次 역세권 : 33.4km,

2次 역세권 : 42.1km

· 또한 電鐵新設로 인하여 既存의 2차 역세권에서 고밀개발을 誘導할 1차역세권 지역으로 編入되는 지역에 追加로 約 21萬人을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역세권내 수용가능인구는 約 932萬人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 驛勢圈 以外地域 收容可能人口

住居地域 : 驛勢圈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역 중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을 除外한 면적은 117km로 이를 지역인구밀도를 190人/ha로 算定하면 約 222萬人을 수용할 수 있다(單獨住宅은 2층 2家11㎡를 원칙으로 公共用地 50%, 건폐율 50%, 주택면적 90㎡를 기준).

綠地地域 및 開發制限區域 : 현재 서울시 行政區域內 개발제한구역 거주인구는 145,000人에 달하며 自然綠地에 거주하는 인구를 포함하여 約 20萬人에 달하는 것으로 推定되므로, 목표연도에 이들 지역주민은 25萬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또한 果川市를 포함한 경기도 지역 주민은 현재 83,000人으로서 장래 거주민은 20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空間所要面積 算定

· 目標年度の 계획인구는 1,200萬人으로, 이중 서울시 행정구역내 상주인구는 1,180萬人으로 推定된다. 常住人口 1,180萬은 역세권내 932萬人, 역세권외 지역의 주거지역에서 약 222萬人, 自然綠地 지역등에서 약 25萬人 등 총 1,179萬人이 거주할 것으로 豫測되므로 既存 주거지내에서 推定人口 전부를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이외지역의 목표인구 밀도를 고려하여 일정정도 녹지개발이 요구된다. 그러나 녹지공간은 한번 훼손하면 복구 불가능한 자원이며, 현재 대규모로 존재하는 강서구와 마포구의 녹지지역은 공원 및 운동장화충등의 대규모 신규계획 사업용지로써 보전된 전제로 하고, 주거지역 주변지역에 산재된 녹지지역의 개발정비, 노후주거지 개발 등으로 수요에 대처하도록 한다.

●立地配分 基本構想

· 개발제한구역 및 漢江 周邊住居地域은 저밀주거지로 계획한다.
· 인구증가에 따른 宅地不足現狀을 克服한다.
· 전철역세권에 따른 토지이용의 高密化 政策과 이에따른 인구배분계획에 의한 均衡의로 주거밀도를 조정한다.

- 既成市街地の 고밀이용과 산재된 공지를 充填 (infill) 的으로 利用한다.
- 단독주택의 多家11同居를 권장한다.

立地配分計劃

| 區分 | 立 地 | 面 積 |
|----|---------------------------|-------------------------------------|
| 需要 | · 標高 70M以下 | · 既存 便益施設 |
| | · 傾斜 20% 以下 | · 安全 |
| | · 交通便利 | · 大規模空地 (既定: 204.5km ²) |
| | · 接近性 良好 | · 非開發制限 區域 |
| | · 基盤施設 良好 | · 地價低廉 |
| | · 生活環境 良好 | |
| 供給 | · 散在된 空地開發 | · 既存市街地 |
| | · 再開發 | · 不良住宅再開發地 |
| | · 團地開發 | · 未開發地중 住居地域 |
| | · 空地開發(綠地→住居) · 保全價値적은 綠地 | |
| | · 賃貸住宅의 質의 向上 · 他用途地域內 受容 | |
| | · 良質의 同居住宅 供給과 民間參與 | |

■ 綠地地域

● 基本方向

- 住宅供給政策과 관련 宅地開發에 따른 綠地의 毀損을 最少化하고 宅地開發地 區內 토지이용계획 樹立시 가급적 많은 綠地가 確保될 수 있도록하며 택지개발豫定地 이외의 殘餘地는 장래 도시발전을 위한 資源으로 保存한다.
-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지의 需要를 最小限 充足시키기 위해 녹지자원으로 利用 面積이 적고, 주거지역에 隣接한 小規模 綠地는 주거지화 한다.
- 개발제한구역 및 이에 連接한 자연녹지는 보전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녹지지역은 留保의 性格을 갖고 있는 만큼 利用用途가 不明한 지역은 녹지로 存置시킨다.
- 그 외의 녹지지역의 이용으로서 現行 建築法에 따른 開發은 許可한다.

● 面積算定 및 立地配分計劃

· 綠地地域→住居地化: 0.73km²

綠地 立地配分計劃

| 區 分 | 立 地 | 面 積 |
|-----|---|---|
| 需 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都市民의 接近良好 · 都市景觀 形成의 主要因子 · 自然景觀 수려 | 359.79km ² (既定: 360.52km ²) |
| 供 給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開發制限 區域 · 留保地 · 既存의 都市 및 自然公園 · 綠地地域 · 開發 不能地 | |

■ 流通施設

● 基本方向

- 토지이용과 流通構造와의 효율적인 配置를 配分한다.
- 도시외곽지 입지로 重量車輛의 市街地內 진입을 막는다
- 전국적인 生活必需品 供給背後地域을 勘案하여 동·서·남·북 4方向에 입지시킨다.

流通 立地配分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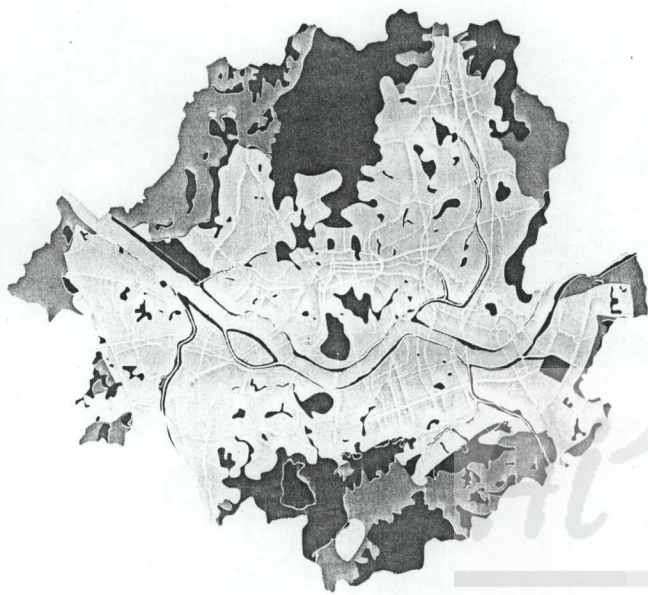
| 區 分 | 立 地 | 面 積 |
|-----|---|--|
| 需 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 西, 南, 北 · 4方向地域에 各 1個所 · 交通의 接近性(集散) · 大規模 用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面積 · 基準規模: 40~50ha |
| 供 給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東部: 可樂洞 · 南西部: 新亭洞 · 北西部: 新道邑 · 東北部: 新內洞 | |

주거지역



주거용지

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공원용지
지구공원용지
개발제한구역

都市活動의 立地原則

■ 地域別 利用特性 및 方向

● 都心地域

· 都心地域은 과거 單集中의 都市構造를 형성하여 業務 및 商業機能이 과도집중하므로써 도시의 過大過密化에 따라 各種 弊害가 발생되었다. 이에따라 活動의 集積을 분산·誘導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를 轉換하여 副心을 형성케 하고 機能相互間의 연계를 確立함으로써 도심과 부심기능을 健全하고 圓滑하도록 유도한다.

· 또한 도심·부심지역의 地價競争에 따른 高位階層 機能群만의 입지에 의한 類似用途의 單순한 토지이용구성에 따른 空洞化 現狀 및 어바니티(urbanity)의 消失 問題를 해소하고 集積된 도시시설과 어미니티(快適, 便利性)를 24時間 活用토록 고밀도주거기능을 誘導하여 복합적 토지이용을 모색한다.

● 副心地域

· 도시전철망을 主軸으로 하는 도시교통망의 結節點으로서 既集積이 어느 정도 있는 地域에 副心을 형성하도록 하여 過集積된 도심기능을 수용하며, 대도시권을 對象으로 하는 기능을 입지시켜 都心の 外延의 擴散을 防止하고 複合의 土地利用의 유도로 地區의 活性을 유지하도록 한다.

● 역세권 지역

· 많은 사람의 집산이 발생하는 곳에 도시환동이 집중하는 것이 토지이용의 생태이므로, 집산과 집중을 결합시킴으로써 토지의 고도이용이 이루어지게 하고,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시설계계획을 입안한 후 역중심 500 M 내외, 1,000 M 내외 범위에서 도로, 하천등 지장물을 경계로 지역을 지정한다.

- ① 1차 역세권(500 M 내외범위)의 토지이용은 상업, 업무위주로 하고 고밀주거기능을 부차적으로 계획하되 장래에 대비하여 기능간 호환성을 고려한
- ② 2차역세권(1,000 M 내외범위)의 토지이용은 중밀도 주거지를 위주로 하되, 근린생활시설등이 하층부에 입지하도록 한다.
- ③ 역세권외의 배후지역인 경우 저밀주거지로 근린생활중심의 상업기능이 입지하도록 한다.

· 이용계획으로 보면

- (1) 역세권 개발의 취지는 토지이용의 용도와 함께 토지이용의 강도와 깊을 관계가 있으므로 지성된 용적을 상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시에 유념하여야 한다.
- (2) 역세권의 고도이용을 위하여 도시설계안에서 도시개발 합동건축, 공동건축 등 여러 수단이 동원되어야 함은 물론 도시개발공사등을 비롯한 제도적, 조직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 (3) 역세권내 건물은 직·주근접 취지에 따라 주거기능의 혼합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그 혼합의 정도는 도시설계에 따른다.
- (4) 역세권내 개발은 전철이용과 도보이용을 권장하는데(路面自動車通行을 줄이자는 의미) 부설 옥외주차장에 관한 의무의 완화조치가 필요하며, 지하철도와 지상부를 연계하는 지하「콩코스」(Concourse)나 지하도의 역할이 중요함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예컨데, 서울시 지하철도기본계획 등을 참고할 것)

●其他地域

- 不良住宅地區는 지구어간에 적합한 住居密度를 提示하고,
- 준공업지역은 도시내 산재한 非基礎工業의 수용지가 된다.

■ 都市活動에 따른 地域區分 基準

●기본방향

現代都市는 개방된 空間을 갖는 移動性이 강한 사회이므로 地域 階層構造를 기본으로한 固定的 地域中心地 選定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도시 공간구조를 決定하는 도시전철망과 局地的 地域空間을 형성하는 驛을 中心으로 지역을 淸싱하고 各 驛中心 또는 自治團體인 구단위의 創意와 努力에 따라 새로운 活動中心이 發生할 수 있도록 柔軟的 構造를 형성하도록 計劃한다.

1. 地域區分 基準

1. 都心

- 500年의 歷史를 가진 官衙, 業務, 商業의 중심으로 國策적·全國적 功能을 가진다.
- 既存의 도심지역에 해당한다.

2. 副都心

- 1945年 以來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서울의 副都心으로 育成하려고 노력한 결과 鐵道結節點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상업기능이 集積 形成된 지역중 현재 도시권 이상의 背後圈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 都心으로의 流入과 集中을 抑制하고 도심의 過密肥大化를 緩和하기 위하여 일부 都心機能수행과 中心性 고양, 자족적 機能賦與가 필요한 地域이다.
- 청량리, 신촌, 영등포, 여의도, 강남, 잠실

3. 廣域中心

- 전철망의 交叉支點으로서 광역적 배후지로부터 접근이 容易하고 乘降客 利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驛周邊地區, 또는 市外 주변도시로부터 서울로 들어오는 關門의 位置에 있는 교통결절점이나,
- 시외버스 터미널로서 시외에서의 接近路上의 最初電鐵驛 乘換地點 등이 있는 지구가 이에 해당된다.
- 副都心の 背後의 性格을 造成하여 中心性과 일부 都心機能 賦與하여 首都圈地域으로부터 都心으로의 流入과 集中을 抑制하고 都市均衡發展 次元 및 自足의 生活圈域 形成이 必要한 도봉, 은평, 강서, 관악 등 都心外廓이 여기에 해당된다.

4. 地區 中心

- 電鐵驛이 입지하고, 현재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相當한 상업적 토지이용이 일어나고 있는 地區이거나,
- 前鐵驛으로부터 반경 1km밖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진 않았지만 지역의 중심이며 幹線道路의 교차점지구로서 상당한 상업적 토지이용이 일어나고 있는 지구이다.

5. 日常生活 中心

- 前鐵驛이 입지하고 있으나 商業地域 指定이 아직 되어있지 않은 지구로 앞으로 驛立地에 따른 상업업무 활동의 發生이 예상되고 적절한 高密開發로 區域 권거주인들의 日常生活 中心地로 誘導되어야 할 지구나
- 前鐵驛은 없으나 一定規模(1km) 以上인 지구생활중심.

6. 工業地 中心

- 重厚長大型의 소재공업이 서울에서 이전한 후 경박·단소형, 고부가가치형, 가공조립형같은 도시형공업의 입지에 對備하여 前鐵驛등 접근성이 良好한 지구의 토지이용을 高密化하고 職住近接 및 混合시키기 위한 지구로서 商業用途는 근린생활시설에 限定한다.

●地域區分基準에 의한 地區中心計劃

- 都心 : 기존의 도심지역—대문안
- 副心 : 5개지역—청량리,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 地區中心 : 59개지구—한남, 용산, 중곡, 구의, 화양, 군자, 금호, 도선, 전동, 목동, 망우, 민목, 석관, 미아, 동선, 쌍문, 수유, 상계, 연신, 불광, 수색, 홍제, 남가좌, 응암, 공덕, 서교, 합정, 아현, 화곡, 공향, 목동, 신정, 신월, 시흥, 구로, 오류, 신길, 대림, 사당, 노량진, 흑석, 상도, 신대방, 남현, 봉천, 신림, 개포, 수서, 이수, 방배, 양재, 도곡, 가락, 문정, 암사, 천호, 길동, 고덕, 과천.

■用途地域 指定 및 行爲制限

1. 商業地域

- 현재 상업지역이 지정된 구역을重視하되, 도시설계 결과와 본 基本計劃의 취지에 따라 追加·削除 等の 調整이 요구된다.
- 현재 상업지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都市設計結果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2. 準工業地域

- 역세권개발에 따라 高度利用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商業地域 指定은 불필요하나, 상업지역이 許容하는 토지이용 강도(建蔽率·容積率)의 附屬가 必要하다.
- 低層部에 아파트형 소규모 도시형공업을 上層部에 住居機能을 수용하도록 합을 원칙으로 한다.

3. 住居地域

- 역세권개발에 따른 商業地域 指定은 불필요하나 토지이용강도의 上面調整이 필요하다.

1. 綠地地域

- 그동안 開發行爲가 抑制되어온 녹지지역내의 개발은 개발억제를 前提로 한 현

Hi Seoul

SOUL OF ASIA

행진축법의 許容 限度內에서 低密度開發을 허용하며 도시주변에 低密度 團住地의 공급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市街地內의 역세권을 비롯한 고밀도 주거와 녹지지역내 低密度 團住地에 적합한 多樣한 주거양식의 選擇性을 마련한다.

· 一部 녹지지역은 주거지역으로의 變更이 필요하나, 原則的으로 녹지지역은 低密度住居地와 生産用地로 混存함이 바람직하고 그럼으로써 시가지와 개발제한 구역 사이에 緩衡的 空間을 마련할 수 있다.

活動中心地域의 容積率 緩和計劃

| 구 분 | 용도지역 | 건축률 | 용적률(%) 완화한도 | | | 주거혼합 |
|--------------------------------------|------------------|------------------|-------------|---------|-------|-------|
| | | | 입지여건 | | 허용용적률 | |
| 도 심 | 중심상업 | 70%이하 | 700 | · 역인접지 | 150 | — |
| | | | | · 1km내외 | 100 | 30%권장 |
| | | | | · 기타 | — | — |
| 부 심 | 중심상업 | 70%이하 | 700 | 강 역인접 | 150 | — |
| | | | | 1km내외 | 100 | 30%권장 |
| | | | 900 | 북 기 타 | — | — |
| | | | | 강 역인접 | 150 | — |
| | | | | 1km내외 | 100 | 30%권장 |
| | | | | 남 기 타 | — | — |
| 역 세 권 및 예 외 지 역 | 광 역 중 심 | 일 반 상 업 | 700 | 강 역인접 | 100 | 30%권장 |
| | | | | 1km내외 | — | 50%의무 |
| | | | 900 | 북 기 타 | — | — |
| | | | | 강 역인접 | 150 | 30%권장 |
| | 地 域 중 심 | 일 반 상 업 | 500 | 1km내외 | 100 | 30%의무 |
| | | | | 북 기 타 | — | 70%의무 |
| | | | 700 | 강 역인접 | 100 | 30%의무 |
| | | | | 1km내외 | — | 70%의무 |
| | 日 常 中 心 | 근 린 상 업 | 300 | 강 역인접 | 100 | 70%의무 |
| | | | | 1km내외 | — | — |
| | | | 550 | 북 기 타 | — | — |
| | | | | 강 역인접 | 150 | 70%의무 |
| 工 業 地 中 心 | 근 린 상 업 | 준 주거 | 200 | 1km내외 | 120 | 70%의무 |
| | | | | 남 기 타 | — | — |
| | | | 300 | 강 역인접 | 100 | 30%권장 |
| | | | | 1km내외 | — | — |

Hi Seoul

SOUL OF ASIA

市街地 開發 및 整備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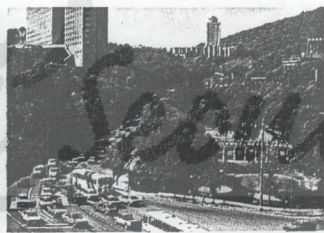
現況分析 및 課題

■ 現況

-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른 内部地域의 再編成과 인구급증에 따른 주거용지 조성
을 위한 도시 外廊地域의 개발이 단기간에 시행되었다. 특히 공간적·기능적
으로 有機的인 秩序體系를 형성한 도시지역에 있어 조직적 관계를 등한
슈퍼블럭단위중심의 재개발로 주변지역과의 機能斷切, 空洞化問題, 교통문제
등을惹起하고 있다.
-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 주거용지 확보를 위한 사업은 買入이 용이한 低地價
地域의 평면적 개발에 한정됨으로써 도시공간의 외연적 擴散과 더불어 粗放的
土地利用 等の 문제를 露程시키고 있다.

■ 課題

- 서울과 같이 全市街地가 거의 高密度로 개발된 대도시의 경우 도시개발·정비의
단계적 개발을 설정하는 일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모든 개발·정비계획의
개발계획 사전허가제를 운영하여 개발사업의 단계적·내용적·환경적인 綜合
의 妥當性을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廣義의 도시정비계획을 爲해 市域內 짜투리미개발지의 활용, 도심재개발, 분
량주택지개발과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에 관한 「마스터플랜」(Masterplan)
과 「마스터프로그램」(Master program)이 필요하다.
- 강북 기성 시가지 對 강남지역 斜陽化를 未然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정비 차원
의 연구가 요구된다.



市街地 開發 및 整備計劃

■ 基本方向

- 평면적 新規 대규모개발은 제한한다.
- 内部充塢(Infill)의 도시정비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 선철역세권 개발과 연계시켜 개발한다.
- 선택적 소규모개발과 지구개신사업을 장려한다.
- 유지관리적인 도시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 강북지역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를 위한 都市整備를 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 추진한다.
-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을 제검토 한다.
 - (1) 再開發後 인구밀도가 從前보다 低下(특히 家口密度的 低下)됨.
 - (2) 기존입주자(賃入者)의 再定着 不能으로 都市 單純勞動人口의 감소에 따른 도시활동의 技術勞動力 不足과 勞賃 昂騰招來
 - (3) 採算性を 앞세운 高層開發로 도시경사지의 「스카이라인」(Skyline) 沮害.
 - (4) 低所得階層入住可能住宅在庫의 減失초래

■ 土地區劃整理事業

- 既成市街地에는 未開發土地가 소규모로 散在할 뿐더러, 未開發地도 不足한 實情이다. 이같이 限定된 土地資源에 持續的으로 增加될 人口 및 都市生活를 受容하기 위해서는 보다 體系的인 開發이 必要하다.
- 特히 土地區劃整理事業은 面的인 開發形態이므로 綜合的인 開發이 要求된다. 電鐵驛과의 接近性이 良好한 地域과 「셔틀」(Shuttle)버스에 의해 連繫性이 높은 지역은 團地型 開發로 유도하고, 驛勢圈 外廓地는 低密住宅地 造成을 원칙으로 하며 시가지개발과 주위환경이 조화된 개발로 誘導한다.

■ 都心再開發事業

- 도시공간구조의 多核化構想에 따라 기능 및 인구, 활동 등이 집적되어야 할 지

Hi Seoul

SOUL OF ASIA

역을 선정한다.

- 副都心, 廣域中心, 地區 및 日常生活中心 等に 對해서는 토지의 高度利用을 도모하기 위해 중심이 갖는 기능과 지역적 성격등에 적합한 지구상세계획을 전제로 재개발사업을 실행한다.
- 行해 사업지구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惹起되는 斷片的 開發의 문제를 방지하고 토지의 고도이용 및 종합적 개발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변지역과의 여건 조사 및 사업계획을 필요로 한다.
- 도시선계에 의한 誘導的 指針을 마련하여 인접지역 및 사업지구간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간의 연계성을 제고한다.
- 修復的 再開發에 對한 方法을 選擇的으로 사용한다.

■ 不良住宅再開發事業

- 事業區域의 曄은 變更에 따른 諸問題를 해소하기 위해 구역선정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住宅改良 再開發區域을 지정하는데 있어 현재는 너무 患部를 寬く 도려내듯 하고 있어 계획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患部 周圍를 調整帶 혹은 補助地區로 區分指定하여 融通性을 갖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 현재 사업이 民間部門 主導로 시행되나 公共部門의 적극적 참여로 영세주민 및 賃入者에 대한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住宅公社 등이 참여하여 低所得 層 賃貸住宅을 확대하도록 한다.
- 재개발사업은 영구임대주택공급과 연계하여 시행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전민철거의 도시정비는 개발부담의 과중, 기존 주민의 定着不可로 인한 도시 영세민의 생활터전확보에 어려움이 內在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 자체적인 개발의 유도가 필요하다.
- 1989년 현재, 사업의 후보지역 79곳중에서 사업이 확정된 지구는 46곳으로 공

동주택건설방식과 現地改良方式의 개발을 유도한다.

· 도시지조특수민밀집거주지역의 주기환경개선방향은 공공부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도시하부시설의 정비를 토대로 하고, 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에는 가구당 적정범위의 용자를 통해 주민의 능동적 개발이 추진되도록 한다. 지역주민의 제정착을 위한 적절한 관계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민참여하에 시 합의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驛勢圈開發 및 整備計劃

■ 前提

● 必要性

· 電鐵은 신뢰성을 갖는 정기적 대중대량교통수단으로 토지이용면에서는 거리의 개념을 空間距離보다 時間距離 개념으로 변화시키므로 도시구조와 정주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장래 驛勢圈을 중심으로 發生될 변화를 예상하고 對備策을 수립하므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誘導할 수 있다.

● 意義

· 高速電鐵網이 제공하는 接近性和 連結性 그리고 公共投資에 의한 역주변의 개발효과를 十分活用하여 도시의 토지이용 및 주거지역의 개편과 기타 여러가지 도시정비의 실마리를 삼고자 한다. 현재 地下鐵 1-4號線이 建設 運營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계획의 隨伴없이 건설되므로써, 무질서한 개발과 지가문제가惹起되고 있다.

· 종합적 개발계획으로 급격한 도시구조적 변화가 確實視되는 地區의 무질서한 민간개발과 개발이익의 私有化를 未然에 막고 秩序있는 地區發展으로 유도하고자하는 사전계획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간의 相補性を 補強할 수 있도록 定住 패턴의 改編을 通하여 電鐵의 背後地人口(catchment population)를 增加시켜줌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에게 양호한 접근성을 保障하고 동시에 地下鐵 運營에 有利할 수 있다.

●電鐵驛 開設에 따른 波及效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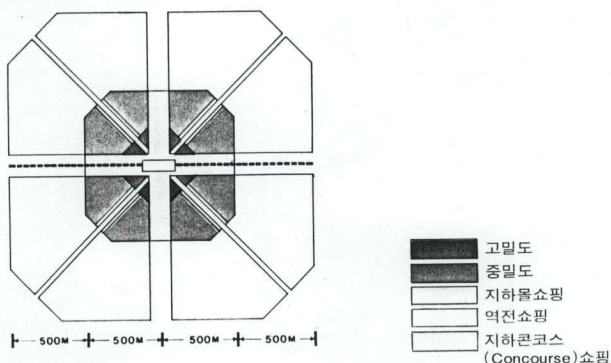
- 하나의 驛勢圈域을 半徑 1km(徒步로 10分~15分 所要)로 보면 面積은 3.14km²(約 100萬坪)로서 莫大한 배후지역의 접근성을 提高시켜 준다.
- 地區의 접근성이 제고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集散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토지이용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商圈이 형성되고 인구의 고밀화가 이루어 진다.
- 餘波로 周邊地域의 地價昂騰이 일어난다.

■開發 및 整備方向

- 地下鐵驛 中心 半徑 500m 까지의 地區를 第1次 驛勢圈, 반경 500~1,000m의 地區를 第2次 驛勢圈으로 區分하여 제1차역세권은 高密度로, 제2차역세권은 中密度開發을 원칙으로 한다.
- 지구중심 상업용도와 중·고밀도 주거용도를 원칙으로 하며 必要에 따라서는 소규모 散在型 都市型産業施設(印刷, 縫製, 電子 등 無公害性 家内工業)을 立地시킬 수도 있다.
- 驛舍設計(特히 出入口와 誘導路)와 第1次 驛勢圈開發을 하나로 묶는 종합적계획, 종합적설계가 있어야 한다.
- 電鐵誘導路를 주변건물의 지하층과 상호연결시켜 誘導路를 地下商街化하는 등 공간의 立體利用을 꾀한다.
- 財源의 挹注은 주변건물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受益者 負擔原則을 적용한다.
- 驛주위의 路邊建物은 상업과 주거의 複合化를 원칙으로 한다.
- 지하철과 연계버스간의 連絡과 多量의 流動人口의 便益 그리고 立體的 지구공간간의 景觀 조성등을 위하여 전철역마다 複합적기능을 가진 驛前廣場을 설치한다.
- 이 驛前廣場은 地下 誘導路와 더불어 地區內 步行者道路 및 公園綠地體系의 一環을 形成한다(서울市 地下道路 基本計劃을 反映하여 體系의 일 步行空間確保).

- 都市開發公社가 土地를 先行買入하여 開發이익이 어느 程度인의 私有化가 되는 것을 防止하며 開發을 主導하도록 한다.
- 역세권개발의 구체적방법은 도심부와 기개발지 미개발지 등 지구의 상황에 따라 개발 형태를 달리해야 한다.

驛勢圈開發基本概念



■ 開發 및 整備計劃

● 人口 및 土地資源 現況

- 서울市の 人口密度는 1988年末 현재 서울市 행정구역내인 605.43km에 對한 總密度는 170人/ha 이고, 이중 未開發地를 포함한 市街地 面積인 389.38km에 對해서는 261人/ha 이며, 既開發地에 對한 純密度는 約 310人/ha 에 達한다.
- 區別로는 鐘路구(198.6人/ha), 양천구(446.1人/ha), 마포구(445.6人/ha) 등은 高密度로 利用되고 있다.
- 서울市 전체면적 605.43km 중 開發가능지는 64.3%인 389.38km이고 이중 開發가능 未개발지는 57.94km에 불과한 情狀이다. 따라서 都市規模의 成長에 따른 토지수요증가를 충족하기 위한 토지자원은 한계에 달한 상태로 接近性이 良好한 驛勢圈周邊 등의 高密度利用과 低密度로 이용되는 지역의 高밀화가 必要하다.

■ 驛勢圈 開發計劃

● 驛勢圈內 人口收容 指標設定

· 前堤: 驛勢圈開發에 따른 인구수용의 개념은 주변지역 再開發을 통하여 人口를
一時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新開發과 整備 그리고 再開發 等 모든 개발행위
에 對하여 一定水準以上の 개발밀도를 제시하므로서 高密로 토지를 이용하고
자 함이다.

區別 土地資源및 人口現況(1989年)

(단위: 人/ha)

| 구 분 | 인 구 | 토 지 자 원 (km) | | | | 총밀도 | 기개발지에 대한 밀도 |
|-----|----------|--------------|--------|-------|--------|-------|----------------|
| | | 개 | 기개발지 | 미개발지 | 개발불능지 | | |
| 총 계 | 10,286.5 | 605.43 | 331.44 | 57.94 | 216.05 | 169.9 | 310.4 |
| 강북계 | 5,381.8 | 295.20 | 165.98 | 25.3 | 106.92 | 182.3 | 324.2 |
| 종 로 | 253.8 | 24.01 | 15.63 | 0.27 | 8.11 | 105.7 | 162.4 |
| 중 구 | 197.1 | 9.99 | 8.59 | | 1.4 | 197.3 | 229.5 |
| 용 산 | 318.0 | 21.90 | 11.99 | 3.58 | 6.33 | 145.2 | 265.2 |
| 성 동 | 769.7 | 33.90 | 23.95 | 0.73 | 9.22 | 227.1 | 321.4 |
| 동대문 | 501.1 | 14.25 | 13.20 | 0.20 | 0.85 | 351.6 | 379.6 |
| 중 랑 | 437.3 | 18.54 | 8.77 | 3.19 | 6.58 | 235.9 | 498.6 |
| 성 북 | 572.7 | 24.29 | 16.97 | 0.90 | 6.42 | 235.8 | 337.5 |
| 도 봉 | 500.0 | 30.30 | 13.27 | 2.38 | 14.65 | 165.0 | 376.8 |
| 노 원 | 525.0 | 49.81 | 18.97 | 4.28 | 26.56 | 105.4 | 276.8 |
| 은 평 | 462.3 | 29.69 | 12.14 | 0.32 | 17.23 | 155.7 | 380.8 |
| 서대문 | 369.9 | 17.68 | 12.45 | 1.22 | 4.01 | 224.5 | 318.8 |
| 마 포 | 447.8 | 23.84 | 10.05 | 8.23 | 5.56 | 187.8 | 445.6 |
| 강남계 | 4,904.7 | 310.23 | 165.46 | 32.64 | 109.13 | 158.1 | 296.4 |
| 강 서 | 375.8 | 43.50 | 14.61 | 10.04 | 18.85 | 86.4 | 257.2 |
| 양 천 | 455.9 | 15.44 | 10.22 | 2.86 | 2.36 | 295.3 | 446.1 |
| 구 로 | 727.7 | 32.94 | 23.83 | 1.80 | 7.31 | 220.9 | 305.4 |
| 영등포 | 461.0 | 24.54 | 15.65 | 0.16 | 8.73 | 187.9 | 294.6 |
| 동 작 | 401.7 | 16.38 | 10.89 | 2.53 | 2.96 | 245.2 | 368.9 |
| 관 약 | 569.2 | 29.61 | 15.38 | 1.23 | 13.00 | 192.2 | 370.1 |
| 강 남 | 455.9 | 37.60 | 20.42 | 4.12 | 13.06 | 121.3 | 223.3 |
| 서 초 | 414.8 | 48.81 | 20.28 | 3.28 | 25.28 | 84.9 | 204.5 |
| 송 파 | 536.8 | 24.30 | 12.59 | 1.63 | 10.08 | 220.9 | 426.4 |
| 강 동 | 506.0 | 34.08 | 21.59 | 4.99 | 7.50 | 148.5 | 234.4 |

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驛勢圈內 人口收容 指標設定: 개발이 불가능한 開發制限區域, 河川, 公園 및 學校 用地는 제외하고, 토지의 입체적 규모 규제인 建築法(서울市 條例)을 기준으로, 도심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역세권은 該當용도지역의 기준을, 그밖의 지역에서는 第1次驛勢圈(高密)은 準住居地域을, 第2次驛勢圈(中密)은 住居地域의 規制事項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達成可能容積率로 現行容積率基準에서 50%씩 減少).
- 驛勢圈內 收容人口: 既建設運營되는 전철역세권내 수용인구는 約 575萬人에 達하고, 計劃電鐵(5~8號線) 驛勢圈內 收容可能人口는 約 336萬人으로 특히 기존 역세권에서 계획전철입지로 인하여 1차역세권에 포함되는 전철에서 追加로 約 21萬人을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철 역세권내에 수용인구는 932萬人에 達할 展望이다.

● 驛勢圈 以外の 地域에 對한 整備原則

- 현재 미개발상태이고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인 곳은 低密度(190人/ha 以下)를 원칙으로 하며 이 원칙은 再開發인 경우도 같다.
- 綠地나 公園인 곳은 그대로 存置한다.
- 既開發地域으로서 人口密度가 높은 곳은 전철역 또는 지역중심과의 연결을 위한 連結交通體系(SHUTTLE SERVICE)을 갖추도록 한다.

驛勢圈開發 制限條件

| 區 分 | 都心商業地域 | 工業地域 | 住居 및 其他地域 |
|-----------------------------|-----------------|--------------------------|----------------------------|
| 公共 및 公用地率 | 40% | 40% | 50% |
| 容地條件에 따른 不用地率 | 12.5% | 12.5% | 12.5% |
| | 30%(24%適用) | 30% | — |
| 住居機能 混合率 | 工業基礎需要分 6%除外 | 1次驛勢圈: 60% 2次驛勢圈: 20% | — |
| 複合의 土地利用에 따른 低層部 他用途 利用率 | — | 15% (1次驛勢圈內만適用) | 15% |
| 容積率 | 江 北 | 600% | 200% |
| | | | 1次驛勢圈: 400% 2次驛勢圈: 200% |
| | 江 南 | — | 200% |
| | | | 1次驛勢圈: 450% 2次驛勢圈: 250% |
| 家口數 및 住宅面積 | 3.4人 (90㎡) | | |

人口收容 目標密度

| 區 分 | 1次驛勢圈 | 2次驛勢圈 | 備 考 |
|-------------|---------|---------|-----|
| 都 心 商 業 地 域 | 285人/ha | — | |
| 工 業 地 域 | 200人/ha | 80人/ha | |
| 住居 및 江 北 | 560人/ha | 280人/ha | |
| 其他地域 江 南 | 630人/ha | 350人/ha | |

都市計劃事業現況(1989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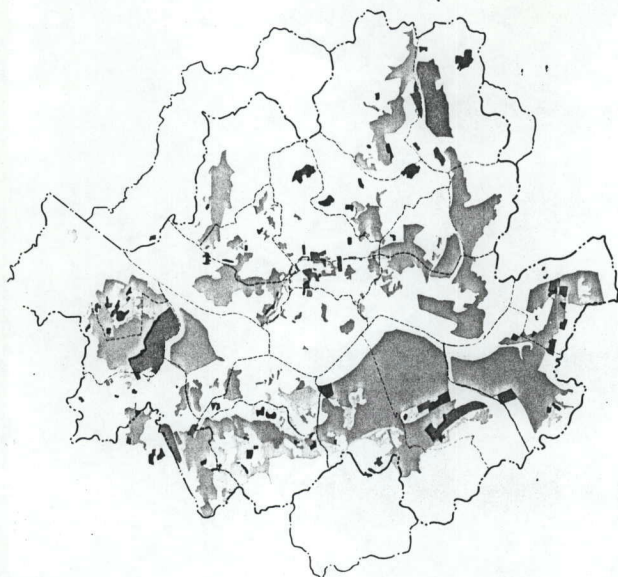
(단위 : km)

| 구 분 | 결정현황 | | 미 시 행 | | 시 행 중 | | 완 료 | |
|--------------------------|------|----------|-------|----------|-------|--------|-----|--------|
|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 토지구획정리사업 | 39 | 130.80 | | | 16 | 86.73 | 23 | 41.07 |
| 도심재개발사업 (존치지구 79개 포함) | 373 | 1,823.21 | 244 | 1,206.75 | 56 | 311.57 | 73 | 304.89 |
| 불량주택재개발 | 211 | 8,243 | 75 | 4,393 | 53 | 3,348 | 83 | 2,502 |
| 주거환경개선사업 | 46 | 0.9871 | 35 | 0.904 | 11 | 0.0933 | | |
| 일단의 주택지조성 | 69 | 7,092 | | | 1 | 286.84 | 68 | 6,805 |
|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 4 | 2,140 | | | | | 4 | 2,140 |

자료 :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현황도



- 도심재개발 사업
- 불량주택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택지조성사업
- 구획정리사업
- 일단의 공업단지조성사업
- 아파트지구

역세권 개발구상도



- 기존 · 계획전철
- 1차역세권 : 반경 500m
- 2차역세권 : 반경 1000m

4

財政運用을 效率化하는 都市

■ 財政計劃

■ 投資計劃

Hi Seoul

SOUL OF ASIA

財政計劃

財政現況

■ 財政規模

● 規模推移

- 서울市の 財政規模는 매년 증가하여, 1986년의 歳入決算 總額은 22,763億원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一般會計는 43.1%이고 特別會計는 53.6%이며 기타가 3.3%이고,
- 歳入과 歳出에 있어 모두 一般會計의 비중이 低下하고 있음에 대해 特別會計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서울市 財政規模 推移

(결산기준 경상가격, 이하동원, 百万원, %)

| 區 分 | 1966 | 1971 | 1976 | 1981 | 1986 |
|-------------------|-------------------|-------------------|--------------------|--------------------|----------------------|
| 歳入總計 | 10,545 (100.0) | 55,165 (100.0) | 216,740 (100.0) | 877,532 (100.0) | 2,276,282 (100.0) |
| 一般會計 | 7,359 (69.8) | 30,312 (54.9) | 141,355 (65.2) | 510,616 (58.2) | 981,781 (43.1) |
| 特別會計 | 3,186 (30.2) | 24,853 (45.1) | 75,385 (34.8) | 366,916 (41.8) | 1,219,074 (53.6) |
| 其 他 ^{註)} | — | — | — | — | 75,427 (3.3) |
| 歳出總計 | 10,275 (100.0) | 54,745 (100.0) | 185,203 (100.0) | 774,604 (100.0) | 1,964,010 (100.0) |
| 一般會計 | 7,313 (71.2) | 30,262 (55.3) | 119,810 (64.7) | 473,258 (61.1) | 895,124 (45.6) |
| 特別會計 | 2,962 (28.8) | 24,483 (44.7) | 65,393 (35.3) | 301,346 (38.9) | 1,030,800 (52.5) |
| 其 他 ^{註)} | — | — | — | — | 38,086 (1.9) |

註: 도시재개발 사업기금과 재해구호 사업기금임.

● 全國對比

- 서울市 財政은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재정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로 伸張되어 왔으나 국가재정에 對比한 서울市 財政比率은 1966년의 6.9%에서 1976년의 9.4%, 1985년의 14.3%로 늘었고,
- 지방 재정에서의 占有比는 1966년의 23.4%에서 1976년의 32.8%, 1985년의 37.4%로 증가했다.

서울시 財政의 全國對比

(歲入總計, 百萬元)

| 區 分 | 1966 | 1971 | 1976 | 1981 | 1985 |
|---------------|---------|---------|-----------|-----------|------------|
| 國家財政 (A) | 153,777 | 551,452 | 2,298,309 | 8,174,449 | 13,008,894 |
| 自治團體財政 (B) | 45,000 | 179,644 | 660,817 | 2,964,023 | 4,953,065 |
| 서울시財政 (C) | 10,545 | 55,165 | 216,740 | 877,532 | 1,853,824 |
| 構成比 (%) (C/A) | 6.9 | 10.0 | 9.4 | 10.7 | 14.3 |
| (C/B) | 23.4 | 30.7 | 32.8 | 29.6 | 37.4 |

■ 一般會計의 歲出入構造

● 歲入構造

- 서울시 財政의 一般會計의 歲入構造는 지방세수입을 大宗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市稅收入이 1966년의 75.2%, 1976년의 71.0%, 1986년의 71.9%로 되어 있고,
- 稅外收入은 1966년의 22.3%, 1976년의 23.8%, 1986년의 26.2%로 되어 있으며, 地方交付稅와 國庫補助金은 극히 미비하였다.

서울시財政의 一般會計 歲入構造

(단위: 百萬元, %)

| 구 분 | 1966 | 1971 | 1976 | 1981 | 1986 |
|-------|---------|---------|---------|---------|---------|
| 歲入總計 | 7,359 | 30,312 | 141,355 | 531,958 | 981,811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市稅收入 | 5,535 | 19,481 | 100,386 | 354,295 | 706,010 |
| | (75.2) | (64.3) | (71.0) | (66.2) | (71.9) |
| 稅外收入 | 1,642 | 7,729 | 33,689 | 156,321 | 256,887 |
| | (22.3) | (25.5) | (23.8) | (29.2) | (26.2) |
| 地方交付稅 | — | 2,736 | 859 | 22 | 100 |
| | 182 | (9.0) | (0.6) | (0.0) | (0.0) |
| 國庫補助金 | (2.5) | 366 | 6,421 | 24,320 | 18,814 |
| | | (1.2) | (4.6) | (4.5) | (1.9) |

● 市稅負擔額

- 서울시민의 市稅負擔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地域總生産에서 차지하는 市稅收入의 비중은 1966년의 3.6%에서 1976년의 3.2%, 1986년의 3.1%로 안정화되어 왔고,
- 1인1人當 市稅負擔額은 1966년의 1.46千원에서 1976년의 13.84千원, 1986년의 72.06千원으로 증가했다.

서울市 市稅擔稅率 및 擔稅額

| 區 分 | | 1966 | 1971 | 1976 | 1981 | 1986 |
|----------|-----------|-------|--------|---------|---------|---------|
| 市稅收入 | (百萬元, A) | 5,535 | 19,481 | 100,386 | 354,295 | 706,010 |
| 地域總生産 | (億圓, B) | 1,558 | 6,492 | 31,058 | 116,583 | 224,431 |
| 人 口 | (千人, C) | 3,793 | 5,851 | 7,255 | 8,676 | 9,798 |
| 市稅擔稅率 | (A/B, %) | 3.6 | 3.0 | 3.2 | 3.0 | 3.1 |
| 人口口人當擔稅額 | (A/C, 千圓) | 1.46 | 3.33 | 13.84 | 40.84 | 72.06 |

● 歲出構造

· 서울市 一般會計의 歲出構造는 일반행정과 지역개발 도시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1966년에는 지역개발비(59.0%), 일반행정비(16.9%), 사회복지비(13.8%), 산업경제비(1.2%), 기타(9.1%)의 순이고, 1986년에는 그 순위에는 이렇지 않으나 비율은 각각 28.5%, 21.8%, 17.0%, 4.8%, 27.9%로 되었다.

서울市 財政의 一般會計 歲出構造

(단위: 百萬元, %)

| 區 分 | 1966 | 1971 | 1976 | 1981 | 1986 |
|-------|-----------------|------------------|------------------|-------------------|-------------------|
| 歲出總計 | 7,313 | 30,262 | 119,810 | 473,258 | 895,124 |
| 一般行政費 | 1,235 (16.9) | 4,364 (14.4) | 22,645 (18.9) | 112,929 (23.9) | 194,722 (21.8) |
| 社會福祉費 | 1,006 (13.8) | 5,364 (17.7) | 16,512 (13.8) | 87,623 (18.5) | 152,651 (17.0) |
| 産業經濟費 | 87 (1.2) | 1,166 (3.9) | 3,229 (2.7) | 36,194 (7.6) | 43,214 (4.8) |
| 地域開發費 | 4,318 (59.0) | 15,005 (49.6) | 51,780 (43.2) | 126,719 (26.8) | 255,514 (28.5) |
| 文化體育費 | — | — | — | — | 30,336 (3.4) |
| 地域防衛費 | 85 (1.2) | 867 (2.9) | 3,325 (2.8) | 15,805 (3.3) | 39,948 (4.5) |
| 支援諸費 | 582 (7.9) | 3,496 (11.5) | 22,319 (18.6) | 93,988 (19.9) | 178,739 (20.0) |

■ 特別會計 構成

· 特別會計 財政에 있어서의 구성은 사업변동에 따라 많은起伏를 나타내고 있으나, 公企業特別會計는 1966년의 52.8%, 1976년의 39.9%, 1986년의 25.0%였고,

· 其他特別會計는 1966년의 47.2%, 1976년의 60.1%, 1986년의 75.0%로 되어 있다.

서울市 特別會計 構成

(단위: 百만원, %)

| 區 分 | 1966 | 1971 | 1976 | 1981 | 1986 |
|-----------------------|------------------|-------------------|-------------------|--------------------|----------------------|
| 特別會計歲出 | 2,962 (100.0) | 24,483 (100.0) | 65,393 (100.0) | 301,346 (100.0) | 1,030,800 (100.0) |
| 公企業特別會計 ¹⁾ | 1,563 (52.8) | 7,060 (28.3) | 26,069 (39.9) | 235,793 (78.2) | 257,659 (25.0) |
| 其他特別會計 ²⁾ | 1,399 (47.2) | 17,423 (71.2) | 39,324 (60.1) | 65,553 (21.8) | 773,141 (75.0) |

註: 1) 수도, 병원, 지하철

2) 시민회관, 주택, 토지구획정리, 택지, 건설자재, 하수, 운반, 유료도로, 재개발, 주차장, 유흥업, 전신가정개발 등.

財政計劃

■ 財政規模 計劃

· 서울市의 財政規模는 계속 증가할 전망임으로, 2001년에는 81,723億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一般會計는 32,689億원, 特別會計는 46,991億원, 기타 기금이 2,043億원에 이르며,

· 一般會計比重은 1981년의 58.2%에서 1991년의 42.0% 2001년의 40.0%로 저하하는 반면, 特別會計比重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서울市 財政規模計劃

(단위: 百만원, %)

| 區 分 | 1981 ¹⁾ | 1986 ¹⁾ | 1991 | 1996 | 2001 |
|-------------------|--------------------|---------------------|---------------------|---------------------|---------------------|
| 財政規模 | 877,532 | 2,276,282 | 4,050,755 | 5,765,995 | 8,172,278 |
| 一般會計 | 510,616 (58.2) | 981,781 (43.1) | 1,701,317 (42.0) | 2,364,058 (41.0) | 3,268,911 (40.0) |
| 特別會計 | 366,916 (41.8) | 1,219,074 (53.6) | 2,227,915 (55.0) | 3,246,255 (56.3) | 4,699,060 (57.5) |
| 其 他 ²⁾ | — | 75,427 (3.3) | 121,523 (3.0) | 155,682 (2.7) | 204,307 (2.5) |

註: 1) 1981 및 1986년은 歲入 計算額.

2) 재개발, 재해구호 사업등의 기금임.

■ 一般會計 財政計劃

● 歲入計劃

- 一般會計의 歲入構造는 안정선으로 수렴되어 갈 것이므로, 市稅收入의 비중은 1981년의 69.4%에서 1991년의 72.8%, 2001년의 75.0%로 안정화되고,
- 稅外收入은 1981년의 29.2%에서 1991년의 25.4%, 2001년의 23.5%로 안정화될 것이다.

서울市 一般會計 歲入計劃

(단위: 百만원, %)

| 區 分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
| 歲入總計 | 531,958 | 981,811 | 1,701,317 | 2,364,058 | 3,268,911 |
| 市稅收入 | 354,295 (66.2) | 706,010 (71.9) | 1,238,559 (72.8) | 1,747,039 (73.9) | 2,451,683 (75.0) |
| 稅外收入 | 156,321 (29.2) | 256,887 (26.2) | 432,134 (25.4) | 576,830 (24.4) | 768,194 (23.5) |
| 地方交付稅 | 22 (0.0) | 100 (0.0) | — | — | — |
| 國庫補助金 | 24,320 (4.5) | 18,814 (1.9) | 30,624 (1.8) | 40,189 (1.7) | 49,034 (1.5) |

● 歲出計劃

- 一般會計의 歲出構造는 일반행정비 및 지역개발비의 안정선 수용과 사회복지비 및 문화체육비의 증가라는 경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므로,
- 1981년과 1991년 및 2001년에 있어 일반행정비 비중은 각각 23.9%, 20.5%, 17.5%가 되고, 지역개발비는 각각 26.8%, 28.0%, 26.0%가 되며, 사회복지비는 각각 18.5%, 21.0%, 30.0%가 될 것이다.

● 市稅負擔額 計劃

- 市稅의 市民負擔은 조금씩 증가될 것이므로 市稅負擔率은 1981년의 3.0%에서 1991년의 3.2%, 2001년의 3.5%로 신장되고,
- 市民 1人當 市稅負擔額은 1981년의 40,84千원에서 1991년의 112,23千원, 2001년의 175,12千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서울市 一般會計 歳出計劃

(단위: 百万원, %)

| 區 分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
| 歳出 總 計 | 473,258 (100.0) | 895,124 (100.0) | 1,701,317 (100.0) | 2,364,058 (100.0) | 3,268,911 (100.0) |
| 一般行政費 | 112,929 (23.9) | 191,722 (21.8) | 348,770 (20.5) | 446,807 (18.9) | 572,059 (17.5) |
| 社會福祉費 | 87,623 (18.5) | 152,651 (17.0) | 357,277 (21.0) | 598,107 (25.3) | 980,673 (30.0) |
| 産業經濟費 | 36,191 (7.6) | 43,214 (4.8) | 73,157 (4.3) | 89,834 (3.8) | 107,874 (3.3) |
| 地域開發費 | 126,719 (26.8) | 255,514 (28.5) | 476,369 (28.0) | 643,024 (27.2) | 849,917 (26.0) |
| 文化體育費 | — | 30,336 (3.4) | 81,663 (4.8) | 148,936 (6.3) | 251,706 (7.7) |
| 地域防衛費 | 15,805 (3.3) | 39,948 (4.5) | 62,949 (3.7) | 66,194 (2.8) | 71,916 (2.2) |
| 支 援 諸 費 | 93,988 (19.9) | 178,739 (20.0) | 301,132 (17.7) | 371,156 (15.7) | 434,766 (13.3) |

서울市 市稅負擔計劃

| 區 分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
| 市稅收入 (百万원, A) | 354,295 | 706,010 | 1,238,559 | 1,747,039 | 2,451,683 |
| 地域總生産 (億원, B) | 116,583 | 224,131 | 396,339 | 576,523 | 858,089 |
| 人 口 (千人, C) | 8,676 | 9,798 | 10,580 | 11,267 | 12,000 |
| 市稅擔稅率 (A/B, %) | 3.0 | 3.1 | 3.2 | 3.3 | 3.5 |
| 人口日人當擔稅額 (A/C, 千원) | 40.81 | 72.06 | 117.07 | 155.06 | 204.31 |

서울市 特別會計 財政計劃

(단위: 百万원, %)

| 區 分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
| 特別會計歳出 | 301,346 (100.0) | 1,030,800 (100.0) | 2,227,915 (100.0) | 3,246,255 (100.0) | 4,699,060 (100.0) |
| 公企業特別會計 | 235,793 (78.2) | 257,659 (25.0) | 623,816 (28.0) | 1,022,570 (31.5) | 1,644,671 (35.0) |
| 其他特別會計 | 65,553 (21.8) | 773,141 (75.0) | 1,604,099 (72.0) | 2,223,685 (68.5) | 3,054,389 (65.0) |

投資計劃

投資計劃

■ 投資可用財源

● 投資財源 調達方案

- 法人稅務調査, 稅源發掘 등 세입증대노력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방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며, 사용권, 수수료 등 신규수입원의 발굴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 요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稅外收入의增收을 기한다.
- 각종 都市開發事業 또는 整備事業의 投資時期를 조정하는 등 연계추진하고 개발이익 환수 및 지역개발기금을 설치·운용한다.
- 國稅의 地方稅 전환을 추진하고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 年度別 投資事業費 規模

- 서울시의 투자사업비는 1991년에 31,858億원, 2001년에 67,254億원이 될 것이며, 特別會計의 신장율이 一般會計보다 높고,
- 總歲出에서 차지하는 투자비의 비중은 1981년의 66.7%에서 2001년의 82.3%로 늘어나며 一般會計보다는 特別會計의 투자율이 월등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 期間別 投資可用財源 累計

- 5년을 기간으로 한 투자가용재원의 累計에 있어서는 1987~91년간에 125,628億원, 1992~96년간에 203,228億원, 1997~2001년 간에 294,770億원이 되고 1987~2001년의 15년간은 모두 623,626億원에 이르며,
- 이를 연평균으로 산정하면 1987~91년간에 25,126億원, 1992~96년간에 40,646億원, 1997~2001년에 58,954億원이 되고, 人11人當 平均投資財源은 1987~91년간에 연평균으로 241千원, 1992~96년간에 347千원, 1997~2001년간에 446千원이 될 것이다.

■ 部門別 投資計劃

● 年度別・部門別 投資計劃

・投資財源의 年度別 및 部門別 투자계획은 公익사업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인바 公益事業費의 비중은 1981년의 86.7%에서 1991년의 93.1%, 2001년의 94.4%가 되고, 이는 一般會計보다 特別會計의 경우에 더 큰 비중을 갖도록 한다.

・산업경제부문과 일반투자부문은 극히 작은 투자액을 가져, 2001년에는 각각 1.6%와 4.0%가 되도록 계획한다.

● 期間別・部門別 投資計劃

・부문별 투자계획을 5년기간으로 累計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公익사업부문은 1987~91년간에 116,616億원, 1992~96년간에 190,103億원, 1997~2001년간에 227,673億원이 되고,

・산업경제부문은 각각 3,091億원, 4,272億, 5,133億원이 되며 일반투자부문은 각각 5,921億원, 8,853億원, 11,964億원이 될 것이다.

서울市 投資可能財源 計劃

(단위: 億원)

| 區 分 | 計 劃 | | | | |
|----------------------|--------------|---------|---------|---------|---------|
| | 實 際 82~86 | 87~91 | 92~96 | 97~2001 | 87~2001 |
| 財政總額累計(A) | 74,412 | 160,801 | 253,996 | 360,489 | 781,535 |
| 一般會計 | 36,319 | 68,941 | 104,949 | 145,348 | 320,973 |
| 特別會計 | 36,950 | 87,453 | 141,947 | 205,899 | 439,066 |
| 其 他 | 1,143 | 4,407 | 7,100 | 9,242 | 21,496 |
| 投資財源累計(B) | 55,411 | 125,628 | 203,228 | 294,770 | 623,626 |
| 一般會計 | 21,689 | 42,524 | 66,698 | 95,375 | 204,597 |
| 特別會計 | 33,722 | 83,104 | 136,530 | 199,395 | 419,029 |
| 比 重(B/A, %) | 74.5 | 78.1 | 80.0 | 81.8 | 79.8 |
| 一般會計 | 59.7 | 61.7 | 63.6 | 65.6 | 63.7 |
| 特別會計 | 91.3 | 95.0 | 96.2 | 96.8 | 95.4 |
| 年平均投資財源 | 11,082 | 25,126 | 40,646 | 58,954 | 41,575 |
| 一般會計 | 4,338 | 8,505 | 13,340 | 19,075 | 13,640 |
| 特別會計 | 6,744 | 16,621 | 7,306 | 39,879 | 27,935 |
| 人1日人常 年平均 投資額(千圓) | 120 | 241 | 347 | 446 | 354 |
| 一般會計 | 47 | 82 | 114 | 144 | 116 |
| 特別會計 | 73 | 159 | 233 | 302 | 238 |

서울시 年度別 部門別 投資計劃

(단위: 억원, %)

| 區 分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
| 投資總額 | 5,165 (100.0) | 15,027 (100.0) | 31,853 (100.0) | 46,504 (100.0) | 67,254 (100.0) |
| 公益事業 | 4,477 (86.7) | 13,824 (92.0) | 29,656 (93.1) | 43,597 (93.7) | 63,493 (94.4) |
| 産業經濟 | 350 (6.8) | 434 (2.9) | 741 (2.3) | 930 (2.0) | 1,091 (1.6) |
| 一般投資 | 338 (6.5) | 769 (5.1) | 1,461 (4.6) | 1,977 (4.3) | 2,670 (4.0) |
| 一般會計投資 | 2,761 (100.0) | 5,389 (100.0) | 10,582 (100.0) | 15,178 (100.0) | 21,673 (100.0) |
| 公益事業 | 2,073 (75.1) | 4,203 (79.1) | 8,529 (80.6) | 12,476 (82.2) | 18,140 (83.7) |
| 産業經濟 | 350 (12.7) | 386 (7.2) | 656 (6.2) | 805 (5.3) | 954 (4.4) |
| 一般投資 | 338 (12.2) | 740 (13.7) | 1,397 (13.2) | 1,897 (12.5) | 2,579 (11.9) |
| 特別會計投資 | 2,404 (100.0) | 9,638 (100.0) | 21,276 (100.0) | 31,328 (100.0) | 45,581 (100.0) |
| 公益事業 | 2,404 (100.0) | 9,561 (99.2) | 21,127 (99.3) | 31,123 (99.4) | 45,353 (99.5) |
| 産業經濟 | — | 48 (0.5) | 85 (0.4) | 125 (0.4) | 137 (0.3) |
| 一般投資 | — | 29 (0.3) | 64 (0.3) | 80 (0.2) | 91 (0.2) |

■ 事業別 投資計劃

● 年度別・事業別 投資計劃

・投資財源의 사업별 配定은,

- ① 도시의 公共의 便益을 提高시키는 事業,
- ② 市民生活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
- ③ 市정부의 公營財産을 蓄積시키는 事業,
- ④ 教育, 文化, 觀光등을 振作시키는 事業,
- ⑤ 市民의 福祉環境을 개선시키는 시설 등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한다.

・1986년에 대비한 2001년의 투자액 구성비는 산업부문이 2.9%에서 1.6%로
 러가고, 건설·치수부문은 73.2%에서 75.2%로 상승하며 기타부문은 23.9%
 에서 23.2%로 현상유지되도록 하고, 사업별로는 도시토목을 21.3%에서 20.
 7%로, 하수도 10.1%에서 12.2%로, 도로를 3.6%에서 7.4%로, 재산조성
 을 1.6%에서 7.2%로, 교량을 5.8%에서 4.6%로, 관광을 0.01%에서 3.2%
 로 계획한다.

● 期間別・事業別 投資計劃

・ 1987년부터 2001년까지의 15년간에 累計된 투자비가 많은 순위로의 사업은 먼저 投資總額에 있어,

- (1) 도시토목사업으로 131,977億원 (年平均 8,799億원)
- (2) 하수도로서 77,829億원 (年平均 5,188億원)
- (3) 상수도로서 72,739億원 (年平均 4,849億원)
- (4) 도로로서 36,526億원 (年平均 2,435億원)
- (5) 교량으로 30,282億원 (年平均 2,019億원)
- (6) 제산조성으로 28,689億원 (年平均 1,912億원)
- (7) 치수사업으로 16,459億원 (年平均 1,097億원)
- (8) 관광사업으로 13,937億원 (年平均 929億원)
- (9) 문화재사업으로 6,352億원 (年平均 423億원)
- (10) 농림축산업으로서 6,221億원 (年平均 415億원) 이 될 것이다.

・ 一般會計部門의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 (1) 교량으로 30,282億원 (年平均 2,019億원)
- (2) 하수도로서 21,364億원 (年 1,424億원)
- (3) 도로로서 20,322億원 (年 1,355億원)
- (4) 제산조성으로 19,608億원 (年 1,307億원)
- (5) 치수로 16,459億원 (年 1,097億원)
- (6) 관광으로 13,937億원 (年 929億원)
- (7) 문화재로서 6,352億원 (年 423億원)
- (8) 농림축산업으로 6,221億원 (年 415億원)
- (9) 교육으로 6,021億원 (年 403億원)
- (10) 상공운수로서 3,059億원 (年 204億원) 임.

・ 特別會計 部門의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 (1) 도시토목으로 131,646億원 (年 8,777億원)
- (2) 상수도 72,739億원 (年 4,849億원)
- (3) 하수도 56,465億원 (年 3,764億원)
- (4) 도로로서 16,204億원 (年 1,080億원)
- (5) 제산조성으로 9,081億원 (年 605億원)
- (6) 농촌진흥으로 869億원 (年 58億원)
- (7) 상공운수사업으로 688億원 (年 46億원) 이 될 것이다.

Hi Seoul

SOUL OF ASIA

年度別・事業別 投資計劃

(단위:億円, %)

| 구분 | 1981 | 1986 | 1991 | 1996 | 2001 |
|---------|--------------|---------------|---------------|---------------|---------------|
| 투자총액 | 5,165(100.0) | 15,027(100.0) | 31,858(100.0) | 46,504(100.0) | 67,254(100.0) |
| 산업부문 | 350 (6.8) | 434 (2.9) | 741 (2.3) | 930 (2.0) | 1,091 (1.6) |
| · 농림축산업 | 285 (5.5) | 258 (1.7) | 413 (1.3) | 455 (1.0) | 455 (0.7) |
| · 상공운수 | 65 (1.3) | 69 (0.5) | 169 (0.5) | 290 (0.6) | 438 (0.6) |
| · 농촌진흥 | — | 107 (0.7) | 159 (0.5) | 185 (0.4) | 198 (0.3) |
| 건설·치수부문 | 4,477 (86.7) | 10,999 (73.2) | 23,674 (74.3) | 34,659 (74.5) | 50,536 (75.2) |
| · 치수 | 31 (0.6) | 539 (3.6) | 952 (3.0) | 1,214 (2.6) | 1,517 (2.3) |
| · 도시토목 | 1,536 (29.7) | 3,205 (21.3) | 6,893 (21.6) | 9,866 (21.2) | 13,924 (20.7) |
| · 상수도 | 646 (12.5) | 1,552 (10.3) | 3,553 (11.2) | 5,451 (11.8) | 8,205 (12.2) |
| · 하수도 | 100 (2.0) | 1,523 (10.1) | 3,601 (11.3) | 5,823 (12.5) | 9,221 (13.7) |
| · 도로 | 285 (5.5) | 543 (3.6) | 1,389 (4.4) | 2,708 (5.8) | 4,985 (7.4) |
| · 교량 | 266 (5.2) | 867 (5.8) | 1,630 (5.1) | 2,246 (4.8) | 3,056 (4.6) |
| · 기타 | 1,613 (31.2) | 2,277 (18.5) | 5,656 (17.7) | 7,351 (15.8) | 9,628 (14.3) |
| 기타부문 | 338 (6.5) | 3,594 (23.9) | 7,443 (23.4) | 10,915(123.5) | 15,627 (23.2) |
| · 문화재 | 19 (0.4) | 15 (0.1) | 159 (0.5) | 455 (1.0) | 1,084 (1.6) |
| · 교육 | 11 (0.2) | 18 (0.1) | 148 (0.5) | 425 (0.9) | 1,040 (1.5) |
| · 재산조성 | 129 (2.5) | 238 (1.6) | 742 (2.3) | 1,993 (4.3) | 4,846 (7.2) |
| · 관광 | 95 (1.8) | 3 (0.0) | 423 (1.3) | 1,063 (2.3) | 2,167 (3.2) |
| · 기타 | 84 (1.6) | 3,320 (22.1) | 5,971 (18.8) | 6,979 (15.0) | 6,490 (9.6) |
| 인민회계 | 2,761(100.0) | 5,389(100.0) | 10,582(100.0) | 15,178(100.0) | 21,673(100.0) |
| 산업부문 | 350 (12.7) | 386 (7.2) | 656 (6.2) | 805 (5.3) | 954 (4.4) |
| · 농림축산업 | 285 (10.3) | 258 (4.8) | 413 (3.9) | 455 (3.0) | 455 (2.1) |
| · 상공운수 | 65 (2.4) | 69 (1.3) | 148 (1.4) | 228 (1.5) | 347 (1.6) |
| · 농촌진흥 | — | 59 (1.1) | 95 (0.9) | 122 (0.8) | 152 (0.7) |
| 건설·치수부문 | 2,073 (75.1) | 2,878 (53.4) | 5,355 (50.6) | 7,437 (49.0) | 10,425 (48.1) |
| · 치수 | 31 (1.1) | 539 (10.0) | 952 (9.0) | 1,214 (8.0) | 1,517 (7.0) |
| · 도시토목 | 105 (3.8) | 5 (0.1) | 21 (0.2) | 30 (0.2) | 10,425 (48.1) |
| · 하수도 | 69 (2.5) | 501 (9.3) | 1,048 (9.9) | 1,594 (10.5) | 22 (0.1) |
| · 도로 | 261 (9.5) | 447 (8.3) | 963 (9.1) | 1,518 (10.0) | 2,384 (11.0) |
| · 교량 | 266 (9.6) | 867 (16.1) | 1,630 (15.4) | 2,246 (14.8) | 2,341 (10.8) |
| · 기타 | 1,341 (48.6) | 519 (9.6) | 741 (7.0) | 835 (5.5) | 3,056 (14.1) |
| 기타부문 | 338 (12.2) | 2,125 (39.4) | 4,571 (43.2) | 6,936 (45.7) | 1,105 (5.1) |
| · 문화재 | 19 (0.7) | 15 (0.3) | 159 (1.5) | 455 (3.0) | 10,294 (4.7) |
| · 교육 | 11 (0.4) | 18 (0.3) | 148 (1.4) | 425 (2.8) | 1,084 (5.0) |
| · 재산조성 | 129 (4.7) | 190 (3.5) | 529 (5.0) | 1,366 (9.0) | 1,040 (4.8) |
| · 관광 | 95 (3.4) | 3 (0.1) | 423 (4.0) | 1,063 (7.0) | 3,251 (15.0) |
| · 기타 | 84 (3.0) | 1,899 (35.2) | 3,312 (31.3) | 3,627 (23.9) | 2,167 (10.0) |
| | | | | | 2,752 (12.7) |
| 특별회계 | 2,404(100.0) | 9,638(100.0) | 21,276(100.0) | 31,326(100.0) | 45,581(100.0) |
| 산업부문 | — | 48 (0.5) | 85 (0.4) | 125 (0.4) | 137 (0.3) |
| · 상공운수 | — | — | 21 (0.1) | 62 (0.2) | 91 (0.2) |
| · 농촌진흥 | — | 48 (0.5) | 64 (0.3) | 63 (0.2) | 46 (0.1) |
| 건설·치수부문 | 2,404(100.0) | 8,121 (84.3) | 18,319 (86.1) | 27,222 (86.9) | 40,111 (88.0) |
| · 도시토목 | 1,431 (59.5) | 3,200 (33.2) | 6,872 (32.3) | 9,836 (31.4) | 13,902 (30.5) |
| · 상수도 | 616 (26.9) | 1,552 (16.1) | 3,553 (16.7) | 5,451 (17.4) | 8,205 (18.0) |
| · 하수도 | 31 (1.3) | 1,022 (10.6) | 2,553 (12.0) | 4,229 (13.5) | 6,837 (15.0) |
| · 도로 | 24 (1.0) | 96 (1.0) | 426 (2.0) | 1,190 (3.8) | 2,644 (5.8) |
| · 기타 | 272 (11.3) | 2,251 (23.4) | 4,915 (23.1) | 6,516 (20.8) | 8,523 (18.7) |
| 기타부문 | — | 1,469 (15.2) | 2,872 (13.5) | 3,979 (12.7) | 5,333 (11.7) |
| · 재산조성 | — | 48 (0.5) | 213 (1.0) | 627 (2.0) | 1,595 (3.5) |
| · 기타 | — | 1,421 (14.7) | 2,659 (12.5) | 3,352 (10.7) | 3,738 (8.2) |

서울시 期間別・事業別 投資計劃(累計)

(단위: 억원)

| 구 분 | 계 | 實 際 | | 計 劃 | | |
|----------|---|-----------------|------------------|------------------|------------------|------------------|
| | | 82~86 | 87~91 | 92~96 | 97~2001 | 87~2001 |
| 부자총계 | 계 | 55,411 (11,082) | 125,628 (25,126) | 203,228 (40,646) | 294,770 (58,954) | 623,626 (11,575) |
| 산업부문 | | 2,009 (402) | 3,091 (618) | 4,272 (855) | 5,133 (1,026) | 12,496 (833) |
| · 농림축산업 | | 1,344 (269) | 1,755 (351) | 2,191 (439) | 2,275 (455) | 6,221 (415) |
| · 상공운수 | | 337 (67) | 645 (128) | 1,208 (242) | 1,891 (378) | 3,747 (250) |
| · 농촌진흥 | | 328 (66) | 691 (139) | 873 (174) | 964 (193) | 2,528 (168) |
| 건설· 치수부문 | | 41,951 (8,390) | 93,020 (18,604) | 151,325 (30,265) | 220,926 (44,186) | 465,271 (31,018) |
| · 치수 | | 1,679 (336) | 3,934 (787) | 5,546 (1,109) | 6,979 (1,396) | 16,459 (1,097) |
| · 도시토목 | | 12,687 (2,537) | 27,089 (5,417) | 43,384 (8,676) | 61,504 (12,301) | 131,977 (8,799) |
| · 상수도 | | 5,948 (1,190) | 13,763 (2,753) | 23,459 (4,692) | 35,517 (7,103) | 72,739 (1,819) |
| · 하수도 | | 4,769 (954) | 13,819 (2,770) | 24,671 (4,935) | 39,309 (7,862) | 77,829 (5,188) |
| · 도로 | | 2,199 (440) | 5,253 (1,051) | 10,902 (2,180) | 20,371 (4,075) | 36,526 (2,435) |
| · 교량 | | 3,133 (626) | 6,624 (1,325) | 9,998 (2,000) | 13,660 (2,732) | 30,282 (2,019) |
| · 기타 | | 11,536 (2,307) | 22,508 (4,501) | 33,365 (6,673) | 43,586 (8,717) | 99,459 (6,631) |
| 기타부문 | | 11,451 (2,290) | 29,517 (5,904) | 47,631 (9,526) | 68,711 (13,742) | 145,859 (9,724) |
| · 문화재 | | 83 (16) | 507 (102) | 1,683 (337) | 4,162 (832) | 6,352 (423) |
| · 교육 | | 76 (15) | 480 (96) | 1,571 (314) | 3,970 (794) | 6,021 (402) |
| · 재산조성 | | 972 (195) | 2,702 (540) | 7,463 (1,492) | 18,524 (3,705) | 28,689 (1,912) |
| · 관광 | | 199 (40) | 1,275 (255) | 1,035 (807) | 8,627 (1,726) | 13,937 (929) |
| · 기타 | | 10,121 (2,021) | 24,553 (1,911) | 32,879 (6,576) | 33,428 (6,685) | 90,860 (6,058) |
| 일반회계 | 계 | 21,689 (1,338) | 42,521 (8,505) | 66,698 (13,310) | 95,375 (19,075) | 201,597 (13,610) |
| 산업부문 | | 1,858 (372) | 2,710 (548) | 3,727 (746) | 4,172 (891) | 10,939 (729) |
| · 농림축산업 | | 1,344 (269) | 1,755 (351) | 2,191 (439) | 2,275 (455) | 6,221 (415) |
| · 상공운수 | | 337 (67) | 582 (116) | 980 (196) | 1,497 (299) | 3,059 (201) |
| · 농촌진흥 | | 177 (36) | 403 (81) | 556 (111) | 700 (140) | 1,659 (110) |
| 건설· 치수부문 | | 12,780 (2,556) | 21,821 (4,364) | 33,021 (6,604) | 46,119 (9,230) | 100,991 (6,733) |
| · 치수 | | 1,679 (336) | 3,934 (787) | 5,546 (1,109) | 6,979 (1,396) | 16,459 (1,097) |
| · 도시토목 | | 225 (45) | 73 (14) | 132 (26) | 126 (25) | 331 (22) |
| · 하수도 | | 1,611 (328) | 4,146 (829) | 6,878 (1,376) | 10,340 (2,068) | 21,361 (1,121) |
| · 도로 | | 1,863 (373) | 3,783 (757) | 6,480 (1,296) | 10,059 (2,013) | 20,322 (1,355) |
| · 교량 | | 3,133 (626) | 6,624 (1,325) | 9,998 (2,000) | 13,660 (2,732) | 30,282 (2,019) |
| · 기타 | | 4,239 (818) | 3,261 (652) | 3,987 (797) | 4,985 (997) | 12,233 (816) |
| 기타부문 | | 7,051 (1,410) | 17,963 (3,593) | 29,950 (5,990) | 44,751 (8,951) | 92,667 (6,178) |
| · 문화재 | | 83 (16) | 507 (102) | 1,683 (337) | 4,162 (832) | 6,352 (423) |
| · 교육 | | 76 (15) | 480 (96) | 1,571 (314) | 3,970 (794) | 6,021 (402) |
| · 재산조성 | | 828 (166) | 1,967 (393) | 5,156 (1,031) | 12,485 (2,497) | 19,608 (1,307) |
| · 관광 | | 199 (40) | 1,275 (255) | 1,035 (807) | 8,627 (1,726) | 13,937 (929) |
| · 기타 | | 5,865 (1,173) | 13,731 (2,747) | 17,505 (3,501) | 15,510 (3,102) | 46,749 (3,117) |
| 특별회계 | 계 | 33,722 (6,744) | 83,104 (16,621) | 136,530 (27,306) | 199,395 (39,879) | 419,029 (27,935) |
| 산업부문 | | 151 (30) | 351 (70) | 545 (109) | 661 (132) | 1,557 (101) |
| · 상공운수 | | — | 63 (12) | 228 (46) | 397 (79) | 688 (46) |
| · 농촌진흥 | | 151 (30) | 288 (58) | 317 (63) | 264 (53) | 869 (58) |
| 건설· 치수부문 | | 29,171 (5,834) | 71,199 (14,240) | 118,304 (14,240) | 174,777 (31,956) | 364,280 (21,285) |
| · 도시토목 | | 12,462 (2,492) | 27,016 (5,403) | 43,252 (8,650) | 61,378 (12,276) | 131,646 (8,775) |
| · 상수도 | | 5,948 (1,190) | 13,763 (2,753) | 23,459 (4,692) | 35,157 (7,103) | 72,739 (1,819) |
| · 하수도 | | 3,128 (626) | 9,703 (1,911) | 17,793 (3,539) | 28,969 (5,794) | 56,165 (3,764) |
| · 도로 | | 336 (67) | 1,470 (294) | 4,422 (884) | 10,312 (2,063) | 16,204 (1,080) |
| · 기타 | | 7,297 (1,457) | 19,247 (3,849) | 29,378 (5,876) | 38,601 (7,720) | 87,236 (5,813) |
| 기타부문 | | 4,400 (880) | 11,554 (2,311) | 17,681 (3,536) | 23,957 (4,791) | 53,192 (3,546) |
| · 재산조성 | | 144 (29) | 735 (147) | 2,307 (461) | 6,039 (1,208) | 9,081 (605) |
| · 기타 | | 4,256 (851) | 10,819 (2,164) | 15,374 (3,075) | 17,918 (3,583) | 44,111 (2,941) |

參與陣

서울特別市

| | |
|--------|--------------|
| 市長 | 高 建 廉 普鉉 |
| 副市長 | 金 鼎來 尹 伯榮 |
| 都市計劃局長 | 金 鎮遠 金 學載 |
| 都市計劃課長 | 金 榮休 崔 鍾武 |
| 都市計劃係長 | 邊 榮進 金 炳天 |
| 擔當技士 | 文 承國 姜 昌求 |
| | 姜 旭 張 斗燮 |

서울市 都市計劃委員會

中央都市計劃委員會

公聽會

司會者

손정욱, 주중원, 최상철, 김의원,

討論者

조삼재, 김광호, 김성현, 김수아,
지용우, 남상호, 박문욱, 나상기,
최정호, 여홍구, 안충영, 이광로,
황용주, 이인원, 정재훈, 최병선.

研究陣

研究委員

人口・都市指標・行財政：

金安濟(서울大 環境大學院 教授)
金 源(서울市立 産業大學 教授)

土地利用・都市開發：

康炳基(漢陽大 工科學大學 教授)
權尙俊(清州大 理工大學 教授)
盧隆熙(서울大 環境大學院 教授)
呂鴻九(漢陽大 工科學大學 教授)
鄭燦亨(미국 Bridgeport大 教授)
崔相哲(서울大 環境大學院 教授)

教育・文化・社會開發：

權泰竣(서울大 環境大學院 教授)
金炯國(서울大 環境大學院 教授)

交通・通信：

俞 浣(延世大 工科學大學 教授)
林岡源(서울大 環境大學院 教授)

公園・綠地・觀光：

俞炳林(서울大 環境大學院 教授)

生活環境施設：

朴仲鉉(서울大 工科學大學 教授)
玄仁煥(檀國大 工科學大學 教授)

廣域都市圈：

黃明燦(國土開發研究院 研究委員)

研究員(補)

金洙根, 李圭煥, 李鍾天, 李洋宰,
張 德, 朴昌旭, 鄭鍾德, 張光龍,
白雲守, 朴載吉, 趙槿衡, 呂相均,
張明周, 羅學均, 柳仁模, 玄仁煥,
金漢培, 金銑基, 李周熙, 李春浩,
李興宰, 金點順, 李壽長, 李鉉錫,
李昌雨, 梁圭學, 鄭昌雨, 陳元亨,
裴成一, 李順祐, 金微眞, 權泰均,
權泳鍾, 金珉權, 文廷鎬, 李鎮熙,
韓承勳, 강희수, 田恩植, 金泳永,
尹惠植, 李東煥, 朴鈴雅.

製圖・電算

李明淑, 金恩實, 崔貞淑, 車明柱,
金良珍, 金希炳, 朴善永, 朴昌旭,
徐惠子, 朱正浩, 金敬喆, 金承雨.

研究協助

金榮紀, 金永駿, 權源庸, 洪誠灼

行政

尹錫圭, 金班淑, 金榮求, 李英美

그래픽

金大權

印刷

瑞都印刷公社